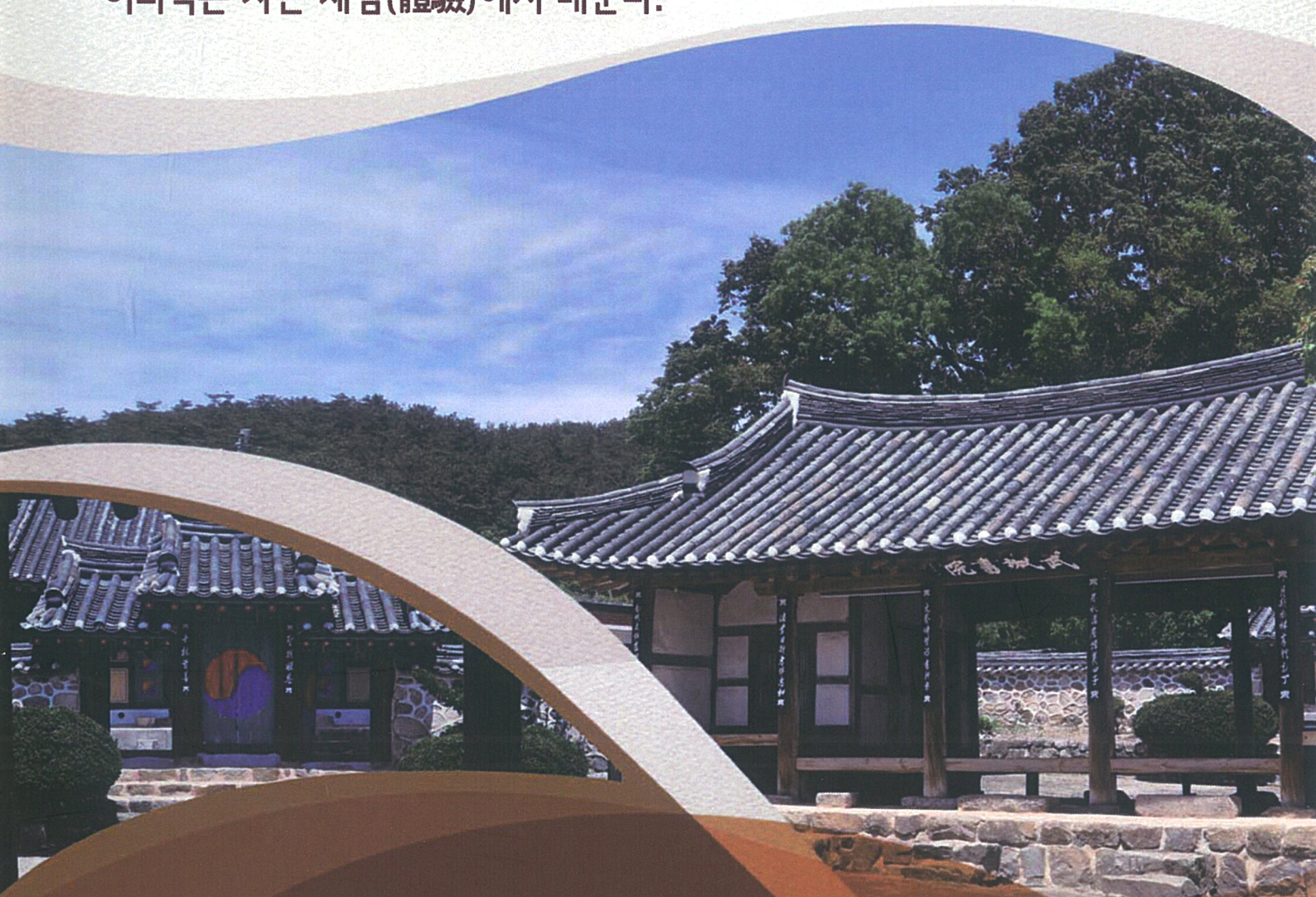
김재영의 '인문학' 강의 노트

"현명한 자는 역사(歷史)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체험(體驗)에서 배운다."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의 '인문학' 강의 노트

"현명한 자는 역사(歷史)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체험(體驗)에서 배운다."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
연구소장의인

완당(緩堂) 김재영(金載永)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각각 역사교육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 『내 고장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1996), 『샘솟는 땅, 정읍의 문화』(1998), 『저항과 변혁의 땅』(2003),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2010), 『근현대 인물한국사』(공저/2015), 『일제강점기 전라북도』(공저/2015), 『김재영의 인문학 강의노트』(2016),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공저/2016), 『노령 이북의 역사와 문화』(2016),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2016),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의 민족운동』(근간) 등이 있다.

현재 호남사학회와 전북사학회 종신회원,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및 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정읍지역사료조사위원협의회장, 정읍시 문화재심의위원, 정읍시 민방위대 인문학 교관, 정읍시립박물관 자문위원, 한국신종교학회 이사,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 전라북도 위원, 전북도교육청 한국사 교재 집필위원장,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읍시 평생학습센터와 전북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술 등재지)

「풍수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신종교연구』제2집, 2000.)*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한국종교사연구』제9집, 2001.)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과 이축」(『신종교연구』제5집, 2001.)*
「정읍농악과 신종교」(『한국종교사연구』제10집, 2002.)
「정읍지역 천주교 공소의 가옥구조와 좌향」(『전북전통문화』, 2002.)
「입암산과 종교」(『신종교연구』제8집, 2003.)*
「정읍지역의 천주교 전파와 공소변천」(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읍사 작사배경 및 그 지역에 관한 고찰」(『정읍사논총』, 2004.)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창립과 조직」(『역사학연구』제26집, 2006.)*
「보천교의 교육활동」(『신종교연구』제12집, 2006.)*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활동」(『역사학연구』제29집, 2007.)*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전북사학』제31집, 2007.)*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전남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2007.)
「1920년대 전북지방의 형평운동」(『전라문화연구』제18집, 2007.)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사상적 배경」(『신종교연구』제18집, 2008.)*
「1920년대 고창지역의 청년운동」(『역사학연구』제31집, 2008.)*
「부안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전라문화연구』제19집, 2008.)
「1920년대 김제지역의 청년운동」(『전북사학』제34집, 2009.)*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정읍시사』, 2009.)
「1920년대 이리지역의 청년운동」(『전라문화연구』제21집, 2010.)
「증산교와 정읍지역 여성이인의 출현」(『신종교연구』제26집, 2011.)*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형평운동」(『정읍문화』, 2011.)
「1920년대 고창지역의 교육운동」(『전라문화연구』제22집, 2011.)
「1920년대 남원지역 이두용의 사회운동」(『역사와문화』, 2013.)
「한국자생종교의 명칭에 대한 고찰」(『전북문화』, 2013.)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전북문화』, 2014.)
「1920년대 김제지역의 민족운동」(『전라문화연구』제25집, 2015.)
「동학 이후 증산계열의 민족운동」(『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6.)*

경력

2000.12.26.~28.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
2008.12.18.~19. 사단법인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신독립운동
역사캠프 특강/'정읍의 독립운동사'),
2009.12 정읍문화유산 '스토리 텔링화'작업 자료조사위원, 『정읍 선비의 길을 걷다』 발간
2009.5~2009.12 『증보 정읍시사』근현대사 부문 집필위원
2009.08~12. 한국향토문화전자대백과사전편찬위원(고창지역)-한국학중앙연구원
2009.12.12. 제2회 역사문화자원세미나 특강/'입암산과 종교'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10.05~0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조선왕조실록 피란의 여정을 따라서' 강의 및 안내
2010.07.16.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박사과정 실록피란과정 답사 안내(박찬승 교수 외 9명)
2010.10.25. 전국역사퀴즈대회 운영위원/정읍교육청
2010.12.17. 조선왕조실록을 테마로 한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방안 발표/청소년지원센터
2011.2~현재 정읍시립박물관 자문위원
2011.02.2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초빙 강의 '증산교와 정읍지역 여성이인의 출현'
2011.03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 발표'/정읍시 문화관광과
2011.10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모현회 이사

2012.05~07. 백정기의사 기념관 신독립운동 역사캠프 전담 강사/관내 학교 10개교 강의

2012.10 정읍시립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강사

2012.10.6.~7 한겨레신문 초대이사장 고광헌 외 3인 종교문화유적지 답사 안내

2012.12.7.~12.21. 2012년 전국고등학생선발시험 한국사출제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05 전북문화관광해설사 소양교육 강사

2013.10 정읍시립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강사

2013.10~현재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 전라북도 위원

2013.10~2014.6 매주 금요일 학부모 대상 정읍역사문화 무료강좌/카베카네스
-주관, 전북혁신학교네트워크단/정읍녹색어머니회/학부모기자단-

2013.11 정읍학연구회 창립학술대회 발표-'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2013.12~현재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부설 정읍근현대사연구회장

2013.03~2014.0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객원연구원(정읍시 학술용역)
'정읍신종교와 민족운동사' 규명-

2014.03~12 전라북도교육청 중등학교 한국사 교재 '일제강점기와 전북' 집필위원

2014.04 정읍경찰서 명사 특강(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

2014.05~06. 정읍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특강 4회(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2014.06.13. 정읍시 종교순례길 조성사업 자문위원(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4.05~06. 정읍시청 공무원 특강(4회/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2014.05.22. 칠보노인대학 특강(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칠보의 역사·문화유적)

2014.07.02. 전북도교육청 중·고교 한국사 담당교사 특강(전북도교육청)
'60갑자와 음양오행설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법'

2014.08.29. 정읍시 생활개선위원회 리더쉽 특강(농업기술센터)

2014.09.24. 정주고등학교 학부모위원회 특강(정주고등학교 강당)

2014.09.19. 호남고등학교 역사동아리와 작곡동아리 특강(카베카네스)
'정읍사 망부상 위치고'/'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감상(9.26.)'

2014.10.0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자문단(AFC) 정읍동북부 지역 문화재 안내

2014.10.07.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특강(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4.10.18. 정읍시립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정읍의 근세 근대문화')

2015.01.06. 화호리 근대문화유산 용역 중간발표 자문위원

2015.03~12. 전북도교육청 한국사교재개발위원 및 집필위원(장)/'전북의 근현대인물이야기'

2015.03.19. 화호리 근대문화유산 최종보고회 자문위원

2015.03.31. 자녀와 함께 하는 역사기행 학부모 대상 기조강연(정읍교육지원청)

2015.07.03. 정읍시립박물관 자문위원(동진강 특별전)
2015.07.07.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 용역착수 자문위원
2015.08.19.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특강('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
2015.09.04. 정읍시 민방위대 교관('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의 피란과 위기 극복'/청소년수련관)
2015.09.18. 자녀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특강('조선왕조실록 피란과 보존'/카베카네스)
2015.09.22. 최치원 프로젝트 용역 중간보고 자문위원
2015.09.25. 전북귀농귀촌학교 특강('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소성면 귀농회관)
2015.10.02. 정읍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동진강학술대회 「동진강의 지명유래와 고려 조선시대」(전주역사박물관장 이동희) 토론
2015.10.15.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워크숍 「정읍 보천교 공동체의 건설과 붕괴」 토론 발표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장원아 교수(전주역사박물관)
2015.10.24. 정읍문화원 근현대역사시민대토론회(「일제강점기 정읍의 민족운동」) 강연 및 토론
2015.10.31. 부안문화연구모임 종교답사 안내(보천교 본소 일대)
2015.11.14. 정읍시립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정읍의 근세·근대문화')
2015.11.21.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시티투어(30명) 안내
2015.12.18. 정읍경찰서 명사특강('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과 이축')
2015.12.18. 임실오수고등학교 명사특강('역사는 지식이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2015.12.22. 전라북도 한국사 담당교사 연수 기조강연('전북의 근현대인물이야기')
2016.02.1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민족종교 지식지도(종교연표)』 콜로키움 총괄자문 및 종합토론
2016.03.19. 태산선비문화관 유교아카데미 특별강연(양반문화와 서민문화의 공존)
2016.08.19. 「동학 이후의 근대 민족운동」 학술대회/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문·잡지 기사와 기고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쟁점」,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 얼학회 제2회 학술발표, 1994.
「황토현기념관의 문제점」, 『얼학회』제1집, 1994.
「한국근현대사와 정읍」, 『문화를사랑하는정읍사람들』 창간호, 1996.
「백성과 조선왕조실록을 구했던 신령스런 산」, 『산』, 조선일보, 1999.
「새천년 햇차 시음회」, 『전북일보』, 2000.5.8.
「문화NGO, 문화를사랑하는정읍사람들(문·사·정)」, 『전북일보』, 2000.6.26.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에 대하여」, 『정읍신문』, 2000.10.

「김재영 교사, 망부석 위치 북면 승부리 월붕산 추정」, 『정읍신문』, 2001.5.31.
「정주고 김재영 교사의 열정적인 지역 사랑」, 『정읍신문』, 2002. 7.10.
「형평운동과 정읍」, 『정읍소식21』, 2004. 5.
「지역사가 바로 잡혀야 역사가 튼실해진다」, 『문화저널』, 2004. 12.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 『전북도민일보』, 2006.10.27.
「종교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며」, 『정읍의정소식』, 정읍시의회, 2008.
「한국신종교의 발상지, 정읍의 종교문화 탐방」, 『전북교육』, 전라북도교육청, 2010.
「조선왕조실록과 정읍」, 『정읍신문』, 2010.9.16./9.23.
「박물관에 전문 인력 배치를 촉구하면서」, 『정읍신문』, 2011.3.23.
「역사성에 근거한 주막 복원사업을 추진하자」, 『정읍신문』, 2011.4.6.
「비지정문화재 보호와 역사교육」, 『정읍신문』, 2011.6.27.
「정읍을 빛낸 인물 선정, 과연 합당한가」, 『정읍신문』, 2011.9.28.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 『정읍의정소식』, 2011.10.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청년운동」, 『정읍문화』, 2011.
「꽃동네 수련활동 체험기」, 『정읍신문』, 2012.3.2.
「우리 고장의 아픈 역사 처음으로 알았어요」, 『정읍신문』, 2012.8.16.
「근대사 중요사건, 왜 정읍 인근서 일어났나?」, 『정읍신문』, 2012.10.12.
「내장사 대웅전은 보천교 종교사적 의미와 근대문화유산이었다」, 『정읍신문』, 2012.11.9.
「6·10만세운동과 정읍」, 『정읍신문』, 2013.5.29.
「6·25사변인가, 6·25전쟁인가?」, 『정읍신문』, 2013.6.21.
「한국자생종교의 명칭에 대한 고찰」, 『전북문화』제17호, 전북문화원연합회, 2013.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 『전북문화』제18호, 전북문화원연합회, 2014.
「익산 백제유적 활성화 방안 모색」, 『브레이크뉴스』, 2015.7.30.
「신태인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 보전과 활용 방안」, 『정읍신문』, 2015.8.19.
「독립운동 자금 지원 중심지, 정읍이었다」, 『브레이크뉴스』, 2015.8.17.
「전북 근현대 인물 교재 발간 앞두고 교원 연수」, 『호남제일신문』, 2015.12.21.
「우리지역 근현대 인물 이야기」, 『서울일보』, 2015.12.21.
「전북 근현대 인물 교재 발간 앞두고 교원 연수」, 『조은뉴스』, 2015.12.21.

방송 출연

CBS 기독교방송국 '지방시대(30분)' 대담(전북대학교 송기도 교수/1996.7.)
MBC TV 시사프로그램 2580, '떠도는 동학혁명'(1999.5.)
MBC TV 전주방송국 내 고향 좋을시고 '내장산(20분)' 편(1999.7.1.)
MBC TV 전주방송국 인사이드 전북 '양반문화와 서민문화(20분)'(2001.2.23.)
KBS 전주방송국 '일요산책(30분)' 대담(2001.5.6.)
STB 상생방송 '다큐멘터리 조선총독부 특명'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라'(60분/2009.10.3.)
STB 상생방송 콜로키움(60분)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과 이축'(2013.4.)
KBS1 TV '시사전북' 맞수와 맞짱(2016.1.16.)

저 서

『내 고장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1996)
『샘솟는 땅 정읍의 문화』(1998)
『저항과 변혁의 땅』(2003)
『정읍시사』 종교분야 집필(공저/2003)
『샘고을 역사문화 길잡이』(공저/2006)
『증보 정읍시사』 근대사 집필(공저/2009)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2010)
『정읍지역 근현대 민족운동사』(공저/2014)
『정읍학』 창간호(공저/2014)
『일제강점기 전라북도』(공저/2015)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공저/2015)
『근현대 인물 한국사』(공저/2015)
『정읍지역의 근현대사』(공저/2015)
『김재영의 인문학 강의 노트』(2016)
『노령 이북의 역사와 문화』(공저/2016)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2016)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근간)
『사진으로 보는 근대 정읍』(근간)

차 례

◆ 책을 내면서 ····· 13

◆ 교양교육의 기본, 인문학(人文學/문·사·철)이란 무엇인가? ····· 15

◆ 중국글자와 일본말에 오염된 우리 글 바로쓰기 [부록] ····· 20

◆ 역사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 26

◆ 호남(湖南)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 32

◆ 저항(抵抗)과 변혁(變革)의 땅, 전라북도 ····· 39

◆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 이야기(동학혁명·항일·학문·문화·종교) ····· 44

◆ 60갑자(甲子)의 활용과 음양오행설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법 ····· 65

◆ 한글과 한자의 어원을 활용한 재미있는 교과학습 방법 ····· 76

◆ 한반도의 배꼽, 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 84

◆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 90

◆ 풍수(風水)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 103

◆ 지명(땅이름)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 111

◆ 한국 근대사의 서막,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 119

◆ 동학 이후 보천교(普天敎) 운동의 전개 [부록] ····· 133

◆ 정읍사 작사 배경 및 그 지역에 대한 고찰 ····· 165

◆ 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의 피란과 보존 ····· 181

◆ 정읍농악과 신종교(新宗敎) ····· 186

◆ 양반문화(관음문화)와 서민문화(노동문화)의 공존 ····· 197

◆ 을사늑약 이후 호남 최초 의병, 태인의병 〔丙午倡義〕 [부록] ····· 218

◆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 231

◆ 아나키스트 백정기(白貞基) 의사의 항일운동 ····· 247

◆ 6·10만세운동의 주역, 향산(香山) 이동환(李東煥) ····· 254

◆ 일제강점기 제1의 종교, '보천교'의 민족운동 [부록] ····· 259

◆ '식민지 근대도시' 신태인 화호리 일대 근대문화유산 [부록] ····· 283

◆ 사진을 접목한 최초의 근대 초상화가 채용신(蔡龍臣) ····· 289

◆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의 발굴 ····· 294

◆ 이 강의 노트를 만드는데 참고한 책과 자료들 ····· 318

평생교육센터 '인문학' 강의 계획서(1)

초빙교수:김재영(문학박사)

주	날짜	강의내용	비고
1	2016.03	교양교육의 기본, 인문학(人文學)이란 무엇인가?	문·사·철(미학)·언어·종교·음악
2	2016.03	중국글자와 일본말에 오염된 우리글 바로쓰기(1.2)	잘못된 문장 고쳐쓰기
3	2016.03	역사(歷史)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학이다'. 침대만이 과학이 아니다.	역사과학
4	2016.03	역사이해와 역사인식-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도마에 오른 공직자의 역사인식과 근현대사의 교훈	표현의자유는 어디까지인가?
5	2016.04	호남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전라도의 피해의식 극복(「훈요10조」·정여립 모반사건·이중환의 『택리지』 내용분석)	호남과 영남의 차이점
6	2016.04	호남의 지역차별과 지역갈등(지역주의의 극복) 저항(抵抗)과 변혁(變革)의 땅, 전라북도	전라북도 민족운동
7	2016.04	한국풍수지리와 건축(물과 대지/터/집/마당/대문/도로)	김동수 가옥
8	2016.04	60갑자의 활용과 음양오행설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법(1) 환갑(회갑)의 의미/자오선/오전과 오후/3경/띠와 상극	원숭이띠를 잔나비띠로 부르는 이유
9	2016.05	60갑자의 활용과 음양오행설을 활용한 역사학습 방법(2) 간지를 서기로, 서기를 간지로 계산하는 방법	역사공부에 간지활용방법
10	2016.05	한자와 한글의 어원을 통한 재미있는 교과학습 방법(1) 단군의뜻/삼국언어의 차이/우리말과 유사한 인도어와 일본어	한글의 우수성 계절풍의 어원
11	2016.05	한자와 한글의 어원을 통한 재미있는 교과학습 방법(2) '사계절'의 어원/'물'과 '우물'의 어원/한자를 통한 중국어와 일본어 학습 방법	한자귀화어어원 고유어의 바뀜
12	2016.05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1) (의병과 항일구국운동·민족독립운동)	지역사연구와 학습방법
13	2016.05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야기(2) (학문과 교육·문화예술·종교와 사상을 통한 민족운동)	인물사학습
14	2016.06	한반도의 배꼽, 정읍(井邑)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상생과상극 오수지리설
15	2016.06	풍수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대흥리를 중심으로
16	2016.06	한국근대사의 서막,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동학농민혁명 핵심인물과 기념일 제정 문제)	김개남장군 재조명
17	2016.06	동학농민혁명 이후 증산계열의 민족운동	증산교와보천교를중심으로
18	2016.07	망부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 망부상 위치고(位置考)	기념석조 조형물분석
19	2016.07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정읍시민의 무한한 자긍심, 조선왕조실록 피란과 보존	관광상품화 방안모색
20	2016.07	한국자생종교의 발생과 수용, 그리고 확산(변혁을 꿈꾼 사람들/증산교와 보천교를 통해 변혁의 기운을 느끼다)	종교박물관 건립의역사적 당위성

평생교육센터 '인문학 강의 계획서'(2)

주	날짜	강의내용	비고
21	2016.09	양반문화(관음문화)와 서민문화(노동문화)의 공존	가사문학의 발원지
22	2016.09	정자에서 모정까지/왜 모정(茅亭)은 전라도에만 있는가? 시정(詩亭)은 무엇인가?	백암리남근석(자지바우)
23	2016.09	여태 몰랐던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정읍의 위상 찾기(최익현의 '태인의병'에서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까지)	산외출신이동환의6·10만세
24	2016.09	아나키스트 백정기의사의 항일운동	육삼정 의거
25	2016.10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병오창의/3·1독립만세운동/조선 선비정신의 표상 춘우정 김영상(金永相)	호남최초의병
26	2016.10	일제강점기 정읍의 근대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시간(신태인 도정공장에서 고부 금융조합까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27	2016.10	한국종교사상 극적인 흥망을 보여준 유례가 없는 종교,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毁撤)과 이축(移築)	종교문화탐방
28	2016.10	언제까지 둘 것인가? 일제의 식민잔재 청산하기/정읍의 땅이름과 바꿔야 할 왜색 지명(오공리/대칠/삼리)	일제잔재지명찾아보기
29	2016.11	지명(땅이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왜식지명
30	2016.11	3대가 독립유공자인 임병찬을 언제까지 김개남 장군 밀고자로만 인식할 것인가? '태인의병'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임병찬 다시보기
31	2016.11	한국사의 재발견(온돌/첨성대/옹기)을 통해 나도 역사학자	온돌세계유산등록추진
32	2016.11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를 비판하는 시간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33	2016.12	이름에 얽힌 이야기(1)-본관/작호의 방법/노비(놉) 이름	식민잔재 청산하기
34	2016.12	이름에 얽힌 이야기(2)-백정 이름에서 창씨개명까지	창씨개명의 잔재알아보기
35	2016.12	정읍농악과 신종교(新宗教)	보천교농악단
36	2016.12	왜 민족대표가 33인인지, 조선시대 과거 문과시험 합격자 정원이 왜 33명인지, 보신각종은 왜 33번을 치는지 알아보는 시간(한·중·일 의식주/질병/언어/풍수 등)	역사공부에 자신감을 갖는 시간
37	2017.2	사진을 접목한 근대 초상화의 대가, 석지 채용신(蔡龍臣)	어진화가
38	2017.2	우리 역사 바로 알기(임금의 '종(宗)'과 '조(祖)'의 구분 커피 전래/형벌/고려와 조선시대의 '내시')	화촉과 윷놀이의 유래
39	2017.2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관광상품화방안을모색하는시간
40	2017.2	오디오(audio) 첫걸음 클래식(classic) 음악 이해와 감상	오디오시스템구성 음악회 에티켓

책을 내면서

'인문학(人文學)'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일이다. 곧 '정체성(正體性)을 파악하는 일'이다. 확대하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나와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화두(話頭)를 붙잡고 걸어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자 '비판적인 학습'이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인문정신의 함양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歷史)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긴 자의 기록만 역사로 보아야 하는가?

-이승만(李承晩)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을 왜 '정읍'에서 했으며,
-백범(白凡)이 해방 후 태인에 묵으면서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연이 따른다.
-어떤 사건이든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과 맥락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사람의 띠 가운데 유독 원숭이띠만 왜 '잔나비띠'라고 하며,
-'잔나비'는 과연 무슨 뜻일까?
-2016년 병신년(丙申年)인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그렇다면 정유년(丁酉年)인 내년 2017년은 무슨 해가 되는지 궁리(窮理)해보자.
-수운이 만든 동학(東學)은 종교인가, 종교로 볼 수 없는가?
-'종교(宗敎)'란 과연 무엇이며, '사이비종교(似而非宗敎)'란 무엇을 말하는가?
-칠보(七寶) 장날은 왜 '4일'과 '9일'인가?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가, 아니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돌침대'인가?
-종교에서는 물을 그냥 '물'이라 하지 않고 '청수(淸水/정한수/정화수)'라고 한다.
-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농초(聾樵) 박문기(朴文基)의 '백학농원(白鶴農園)'이 왜 '삼신산'에 있는가?
-신라는 전국을 왜 '9주'로 나누었으며, 조선은 전국을 왜 '8도'로 나누었는가?
-경주에서 발생된 동학이 왜 '고부'에서 혁명(革命)으로 터지는가?
-보신각(普信閣) 종을 반드시 '33번'을 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가 '33인'인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덧붙여 불국사의 백운교(白雲橋)와 청운교(靑雲橋)의 계단이 왜 '33계단'인지,
-조선시대 문과시험 합격자 정원이 왜 '33명'이고, 무과는 '28명'인지 궁리해야 한다.

-사가(史家)들은 말한다. '사소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사소한 것'과 '일상적인 것'은 역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을 조선시대에 기록했다면 역사가 되는데,
-오늘날 기록한다면 역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일기'나 '가족사'는 역사가 될 수 없는가, 과연 그러한가?
-'사소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군건국 이야기에 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먹으라 했는지,
-그리고 곰이 왜 하필 삼칠일만인 '21일' 만에 웅녀가 되었는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독립만세운동이 왜 '3월 1일'에 터졌는지를 끝없이 의문을 갖고 고민해봐야 한다.

-역사학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학문이다.
-진정한 역사공부는 암기가 아니라 '사색'이다.
-역사학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닌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면 타성(惰性)에 젖어 공부를 못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호구지책(糊口之策)이 마련되지 않으면
-먹고사는 일에 얽매여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도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학(道學)'을 공부했던 이들이 많았다.
-자, 이제 우리도 인문학(人文學)에 도전해보자.

인문학 강좌 2기 개강에 즈음하여
완당빌딩 정읍역사문화연구실에서

교양교육의 기본, 인문학(人文學)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1. 인문학을 담는 세 가지 그릇은 무엇일까요?
2. 기업에서 왜 '인문학'을 중시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세계적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Google)이 매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사(MS)를 설립한 빌 게이츠(William H. Gates)는 "나를 만든 것은 어린 시절 동네의 공공도서관에서 읽은 고전들이다"라고 언급했다. 애플사(社)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구글(Google)의 머리사 메이어 부사장은 스탠포드대학 인문학센터에서 열린 비블리오테크 회의에서 "구글은 올 해 6천 여 명의 신입사원 가운데 5천명을 인문학도에서 뽑겠다"고 했다. 그는 기술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의 석학들은 한결같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고 경영자(CEO)들도 앞 다투어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문학은 산업사회 발전단계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기없는 학문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에 이르러 유행병처럼 너도 나도 배우려 하는 것일까?

인문학의 개념

인문학은 '후마니타스(humanitas:humanity 또는 humaneness)'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역사, 학예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라고 말 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정의된 인문학의 사전적 개념은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자연과학과 사회 경험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변적인 방법을 폭넓게 사용한다. 철학과 문학,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여성학, 미학, 예술, 음악, 신학 등이 있으며, 크게 문·사·철(문학·역사·철학)로 요약된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같이 인문학은 광범위한 학문영역을 포함한다.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따르면 언어(language), 언어학(linguistics),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위키백과와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인문학의 원천적 바탕은 인간의 삶을 기록한 역사, 인간의 생각을 정리한 철학, 그리고 인간의 정서와 사고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문학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인문학을 담는 3개의 그릇

인문학을 담고 있는 3개의 그릇은 역사, 철학, 문학이다. 보통 문·사·철(文·史·哲)이란 개념으로 통칭하는 이들 3개의 분야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에 보면 인문학적 관점의 역사에 대해 "역사는 체계적으로 집적한 과거라 불리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의 재창조이다. 일종의 학문 분야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학은 인간과 사회, 제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여겨지는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와 해석, 재창조를 가리킨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때로는, 지난 사건들에 대한 지식과 역사적 사고 기술의 두 가지 모두를 망라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예속된 유한한 존재이다.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과거의 시공 속에 숨 쉬고 있다. 인간 이해의 첫걸음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과거의 사람들이다. 과거와 현재의 사람을 이어주는 끈은 역사이다. 따라서 인간이해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관점의 철학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

철학(Philosophy)은 고대 그리스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했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성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제도적 현실은 유한하지만, 지혜를 통해 이룬 이성은 영원하다며 독배를 들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철학은 인간과 자연과 사회와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고 사색이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감성적 존재로 역사라는 삶의 흔적을 남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색의 결과물을 후손들에게 남겨준다. 이것이 철학이다. 따라서 철학은 인간이해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문학은 삶과 사색을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인류는 자신들의 행위와 정신적 결과물을 후손에게 남겨주고자 하였다. 구석기시대의 암각화, 신석기시대의 토기문자, 청동기시대의 갑골문은 소리를 그림 형태로 저장하여 후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신화나 전설, 민담 등의 구전문학으로 민족집단, 또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전하였다. 이처럼 문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문적 행위이다.

인문학과 창의력

요즘처럼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있을까? 모든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 상에는 항상 창의적인 인재가 들어가 있다.

과연 창의력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는 무엇인가를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것인가?

창의력이란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의(무엇인가를 남들과 다른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한다면 후천적으로 습득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창의력을 위한 연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Brainstorming'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 판단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공유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근거를 바탕으로 태클(?)을 건다면 브레인스토밍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 다시 말해서 정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중·고등학교 시절 시험문제가 대부분 객관식인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항상 답을 찾아야한다는 자세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을 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기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마련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과정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why?(왜?)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보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본질에 근거한 다양한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아이디어도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본질에만 집중한다면 정해진 틀 따위는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결과에만 집중한 사람은 what(무엇을?)에만 집중하게 된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다. 비슷한 제품들도 당연히 많이 존재한다. 핸드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들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는 많이 없다. 그 중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두드러진다. 물론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애플이라는 회사의 Brand Value 는 절대 무시 할 수 없다.

그럼 애플과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위에 why(?)에 있다. 단순히 좋은 핸드폰(what?)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쓰지도 않는 기능을 계속 만들기만 한다. 이게 바로 정답에만 집중한 결과이다. 애플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본질에만 집중해서 정말 simple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도록 유도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애플 직원의 50%정도가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즘 인문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연히 모든 대학에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다. 그 결과 인문학 교수들도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학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어느 기업 인사 담당자도 상대적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공대생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창의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인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의 부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한다.

인문학! 갑자기 폭풍처럼 불어 닥친 인문학 열풍. 많은 사람들이 그 열풍에 동참하여 인문학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강의를 찾아 듣는다. 하지만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왜 인문학을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인문학의 범위는 무척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사람과 삶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자, 그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은 어떤 게 있을까? 법학, 의학, 경영학 등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학문이다. 이 세 학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은 인간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 경영이야말로 인간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와 탐구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은 어떤가? 법정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를 접해본 적 있는가? 의학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영윤리, 법 윤리, 의학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인문학은 각 학문 영역에 윤리성을 부여하고, 모든 학문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인문학의 상실은 모든 학문에서의 윤리를 지워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학문에서 윤리가 사라진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감정 없이 오직 기술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발전된 기술이 과연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질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배경이 없었다면 과학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의 발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전북과학대학교 경찰부사관과 교재)

중국글자와 일본말에 오염된 우리글 바로쓰기

【생각해 보기】----------

1. 우리말과 글을 좀먹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2. 생활주변에서 일제잔재로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 정리하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책을 읽으면 잘못된 글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쓴 글을 알아보지 못하면 자기가 잘못 쓴 글도 인식하지 못한다. 잘못된 글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귀로 듣고 뜻을 새겨보는 것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못난 글과 나쁜 문장에 대한 면역력이 저절로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오덕 선생이 쓴 『우리 글 바로쓰기』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우리 글 바로쓰기』는 너무나 철저하다. 그대로 다 따르기는 어렵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면 된다. 많이 받아들일수록 못난 글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글자말 오남용(잘못 쓰고 함부로 쓰기)

한때 유럽에서 라틴어를 아는 게 배운 사람이라는 징표로 통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한문을 아는 게 배운 사람의 징표였다. 한자말을 써야 유식하고 품위있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다. '사망사고 발생지점'은 '사망사고 난 곳'또는 '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면 되고, 병용은 '아울러 쓰기' 또는 '나란히 쓰기'로 하면 된다. 제목의 오남용은 '잘못 쓰고 함부로 쓰기'로 바꾸면 된다.

중국 글자말인 한자를 마구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적 언어 미학에 빠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토박이말을 마구 쓰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할 일이다.

일본말과 서양말 오염

중국 글자말은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다. 한자말 때문에 우리말 문장이 심하게 뒤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말이 훨씬 위험하다. 일본식 한자어 '노견(路肩)'은 '길어깨'로 바꾸었다가 이제 '갓길'로 정착이 되었다. 민주주의, 자유, 시민과 같은 정치·사회

적 개념어는 모두 일본어를 거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배척하거나 다른 말로 바꿀 필요는 없다. 일본말과 서양말 오염을 피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 바로 일본말 토씨(조사)와 피동형 문장이다.

소학교에 다니는 일본 아이가 쓴 글이다.

きのう私は私の家(いえ/や)のうらの私の田の私の家の桃(とう)をとってたべました

문장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어제 나는 나의 집의 뒤의 나의 집의 밭의 나의 집의 복숭아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 문장을 옳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나는 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밭) 복숭아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의 집으로 간다. 이건 아버지의 모자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난 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농민의 주인된 삶을 위한 교양지
-이렇게 쓰면 삶이 농민의 주인이 되고, 농민은 그 주인의 종이 된다.

'~으로의' '~에로의' '~에서의' '~으로부터의' '~에 있어서의'와 같이 '~의(의미없는 관형격 조사)'를 겹쳐 쓴 토씨는 모두 우리말법에 어긋난다. 이것은 'の'가 든 일본식 조사를 옮긴 것이다. 일본말처럼 토씨를 쓰면 글이 늘어지고 운율이 죽으며 문장의 힘이 빠진다. 읽기도 나쁘고 듣기도 좋지 않다.

'~에 있어서'는 일본어의 '~に於(おい)て'를 그대로 옮긴 말로 '~에', '~에서', '~에게', '~부터'로 읽어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 중소재벌(jaebul)이…
-조선문학에 있어서 자연은 국토로 …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시간이었다.

'~과의' '~와의'는 일본말 '~との'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국과의 교섭(한국과 교섭)/전통문화와의 만남(전통문화와 만나기)

'~에의'는 일본말 '~への'를 그대로 옮긴 병신말이다.
-자유에의 교육/자유에 대한 교육
-아동문학에의 초대(아동문학에 초대합니다.)/연기에의 집념(연기에 대한 집념.)

'~보다'는 일본말 '~より'를 옮긴 말로 우리말의 '더'로 바꾸면 된다.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 '보다'는 앞산보다 뒷산이 더 높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로 바꿔 써야 한다.

'~다름 아니다'는 일본말 'ほかならない'를 번역한 말이다.
-이 같은 고은의 문학은 곧 그의 삶에 다름 아니다.
이는 '~에 지나지 않는다, 삶이다'로 고치면 된다.
-독재정권 본질의 또 다른 전형임에 다름 아니다.

소개팅을 하고 온 어떤 여자한테 '절친'이 이렇게 물었다. '그 남자 어때?' 대답은 네 가지가 있다. '키도 커' '키는 작아' '키는 커' '키도 작아' 이 네 가지 대답 모두에서 토씨가 핵심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뜻인지 각자 해석해보자.

피동형 문장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보여지다' '되어지다' '키워지다' '다뤄지다' '모여지다' '보아지다' 같은 것은 우리말이 아니다. 서양말의 완료시제와 복수형 어미 오남용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이 없어도 의사소통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제 어머니를 만났었다.'거나 '고향을 방문했었다.'는 식의 글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또 서양말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식으로 추상명사에까지 '들'을 붙여 쓰기도 한다.

글은 단문이 좋다. 문학작품도 그렇지만 논리 글도 마찬가지다. 길어도 주어와 술어가 하나씩만 있으면 단문이다. 주어와 술어가 둘이 넘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한다. 복문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단문으로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쓰는 게 좋다. 단문이 복문보다 훌륭하거나 아름다워서 쓰라는 것이 아니다.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문은 복문보다 쓰기가 쉽다.

일본식 표현 쓰지 않기

땡땡이 무늬(물방울 무늬), 땡깡(투정/생떼)/오케바리(좋다)/쓰키다시(곁들이찬) 가라(가짜)/삐까삐까(번쩍번쩍)/무대뽀(無鐵砲/막무가내)/누수(새는 물)/우측보행(오른쪽 걷기)/차후(지금부터/앞으로)

순 일본말 쓰지 않기

다대기(다진 양념)/단도리(단속)/단스(서랍장)/똔똔(본전)/마호병(보온병)/멕끼(도금)/모찌(찹쌀떡)/셋셋세(짝짝짝)/아나고(붕장어)/오뎅(생선묵)/가께우동(가락국수)/소라색(하늘색)/와사비(고추냉이 양념)/요지(이쑤시개)/자바라(주름 물통)

일본식 한자말 안 쓰기

가처분(임시처분)/각서(다진 글)/견습(수습)/견적(어림 셈)/견출지(찾음표)/계주(이어달리기)/고수부지(둔치)/고지(알림)/구좌(계좌)/납기(기한)/납득(이해)/내역(명세)/대금(값)/대절(전세)/대하(큰 새우)/대합실(기다리는 곳)/매립(메움)/매점(가게)/세면(세수)/수취인(받는 이)/시말서(경위서)/18번(애창곡)/역할(소임/구실)/오지(산골)/육교(구름다리)/인상(올림)/출산(해산)/축제(잔치)/촌지(돈봉투)

일본식 외래어 쓰지 않기

레미콘(ready-mixed-concret)/양회반죽, 레자(leather)/인조가죽, 만땅(滿-tank)/가득, 메리야스(medias)/스페인어의 '양말'의 뜻, 엑기스(extract)/농축액 또는 진액, 오바(over coat)/외투, 추리닝(training)/운동복, 후앙(fan)/환풍기

[부록] 문장부호 표기지침

1)쉼표〔휴지부〕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쓴다(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절 사이에 쓴다(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에 쓴다(얘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제시어 다음에 쓴다(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도치된 문장에 쓴다(다시 보자, 한강수야.)
-문장 첫머리를 연결할 때 쓴다(아무튼, 나는 집에 간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에는 쓰지 않는다.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에 쓴다(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탐하지 않소)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쓴다(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때 쓴다.

2)가운뎃점(·)
-쉼표로 연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뉠 때에 쓴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3·1독립만세운동/8·15광복/6·25전쟁.)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쌍점(:)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시와 분, 장과 절,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요한 3:16/오전 10:20)

4)빗금(/)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착한 사람/악한 사람, 백이십오 원/125원.)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3/4분기, 3/20.)

5)따옴표〔인용부〕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 세로쓰기에는 겹낫표(『 』)를 쓴다.
-글 가운데 직접 대화를 나눌 때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쓴다(“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작은따옴표는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6)묶음표〔괄호부〕

-소괄호( )는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빈자리를 나타낼 때에 쓴다.

-중괄호{ }는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국가의 3요소는 { 국토, 국민, 주권 } 이다.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7)이음표〔연결부〕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그 신동은 네 살-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벌써 시를 지었다.)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 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다-장조, 염화-칼륨.)

8)안드러냄표〔잠재부〕

-숨김표는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XXX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XX, 정XX, 박XX 등 5명이었다.)

-줄임표는 할 말을 줄일 때에 쓴다("어디 나하고 한 번……")

*한국고전번역원 발간『추고필지』, 이오덕 선생의『우리말 바로쓰기』,『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박찬영의『글쓰기 달인이 되려면 잘못된 문장부터 고쳐라』에서 발췌)

'역사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생각해 보기】----------

1. 왜 역사(歷史)를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 민중(民衆)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3.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협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4.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탑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것이니 철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일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마련이다. 역사의 난국을 역사적 지혜로 극복하려는 소망 때문일 것이다. 눈앞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려는 변명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갈래의 인간론에서 구구한 인간 해석이 나와 있지만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는 덮어두더라도 인간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형성하고 역사에 휩쓸리며 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역사학이 우리에게 '비판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키워주고, 역사는 어떠한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무엇인가?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소수의 뛰어난 개인들의 의지나 활동인가, 아니면 개인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정치·경제·법률·사상·관습·규범과 같은 사회적 제도인가. 여기에는 보는 시각과 해석에 따라 영웅사관, 사회결정론, 그리고 민중사관 등의 주장이 있다.

영웅사관은 천재, 위대한 정치가 혹은 군사 전략가와 같은 소수의 뛰어난 개인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견해이다. 전근대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들이 역사를 이끄는 견인차가 된다는 믿음이 강하였다.

사회적 결정론은 한 개인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역사적 환경 그 자체는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영웅 역시 시간적·공간

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위인이 존재하고 탁월한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그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한편 민중사관은 이름없는 보통 사람들과 압박과 고통을 받는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본다. 민중은 지배자나 영웅들의 행동에 따르거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역사에서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특정 시기와 특정 국면에서의 역사발전을 주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봉건, 반침략의 근대민족운동으로 평가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서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3·1독립만세운동, 부패한 정부와 독재자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4·19혁명, 그리고 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회복을 갈망하였던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서 민중이 우리의 역사 발전을 이룩해 온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무수한 이름없는 보통 사람들, 즉 '대중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萬石洑)

1892년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한재 상황을 보고받고 북쪽 4개 마을의 농토에 조세를 감면해주고 그 마을에서 받지 않은 부족분은 남쪽마을 농민들에게 갑절로 받았다. 그리고 북쪽 농민에게는 조세를 감면했으니 보답을 하라면서 수전 1경(약 40마지기)당 100두씩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규정된 국세의 3배나 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병갑은 기존 보 아래에 새 만석보를 쌓기 시작하였다. 만석보는 정읍시 이평면에서 신태인 쪽으로 710번 지방도를 따라 약 3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892년 당시 원래 정읍천에는 동진강 본류와 맞닿는 지점에 농민들이 막아놓은 보가 있었다. 이 보는 아무리 가물어도 이곳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흉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만석보' 또는 마을 이름을 따서 '예동보'나 '광산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배들평[이평]은 1년에 벼가 만석이나 난다는 넓은 들이었고 그래서 동진강을 가로막아 이 들판에 물을 대주고 있는 보를 만석보라고 한 것이다. 극심한 가뭄에도 배들평만은 매년 풍년농사를 지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아도 될 농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병갑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만석보가 심하게 파손되었다는 명분으로 개수사업을 일으킨 것이다. 조병갑은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그 해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석보 아래의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보를 높이 새로 막는 역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으니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보를 쌓는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수 백 년 된 거목(巨木)을 마구 베어다 썼으니 산주들의 원성 또한 자자했다. 노역을 시킨 농민들에게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거듭된 탄원은 묵살해버리고 항의하는 자는 옥에 가두었다. 보를 쌓은 첫 해에는 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어겼다. 이후로 새 만석보는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1894년 전봉준을 선두로 고부 관아를 점령한 농민들은 만석보로 달려와 보를 헐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고부농민봉기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새 만석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존 보보다 더 높이 쌓는 바람에 수문을 열면 홍수의 피해가 우려되고, 닫으면 녹조라떼(?) 현상이 나타나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4대강 사업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래도 나무와 돌로 쌓은 만석보는 농민들이 헐어버릴 수 있었지만 콘크리트로 도배한 4대강 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만석보(萬石洑) 축조의 영향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새 보를 막음으로써 홍수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 농민들은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축조의 명분이 타당했다면 고부군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했으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다 가을에는 보세(洑稅)라 하여 매 두락(斗落)에 보의 상답은 두 말(二斗), 하답은 한 말씩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받아들인 보세는 고부관아의 창고가 넘치자 예동과 두전 그리고 백산마을 세 곳에 7백여 석을 쌓아 놓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정부가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이유로 수도 요금을 인상했던 논리와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 인간의 잘못된 경험에 대하여 반성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은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와 정치가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만 한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을 정비한답시고 자연스런 물길을 막아버린 대규모 토목 사업은 '신 만석보 쌓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다.

우리 근현대사의 교훈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치박탈(價値剝奪)'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토지는 비옥했다. 봉기의 주역인 농민들은 애당초부터 굶주렸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풍요를 맛보았으나 어떤 기회에 가치가 박탈된 사람들이었다. 애당초부터 굶주릴 만큼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가치박탈의 여지도 없고 따라서 봉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수탈의 심도가 그만큼 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년이 들면 크게 들수록 수탈이 심했으니 그들이 오히려 풍년에 배고픈 민생(民生)이 되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한말의 신종교, 이를테면 증산교(甑山敎/정읍)나 원불교(圓佛敎/이리) 등이 모두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삶의 고뇌가 심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민봉기의 원인은 이와 같은 '가치박탈'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조세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이해와 역사인식

사례1)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는 그의 저서, 『대한민국 이야기』(2007)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가장 많이 내몰린 쪽은 중국 여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인이나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해 우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907년 '헤이그 육전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1945년 4월 베를린이 함락될 때 스탈린의 붉은 군대는 베를린 여성의 50%, 약 10만 명을 겁탈하였다. 이후 베트남, 콩고, 방글라데시, 우간다의 전쟁에서도 대량의 겁탈이 자행되었다.

군에 의한 관리 매춘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지에 위안부가 설치되었다. 1962년 등록된 2만 명 이상의 위안부가 6만 5천명의 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였다. 대부분 무학으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었다. 이들

을 기지촌의 '양색시' 또는 '양공주'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직접 운영한 기생이란 성노예 제도가 있었을 만큼 민간에 매춘업이 혼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끌고 간 적이 있느냐"고 항변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 연구와 시민활동은 조선의 순결한 처녀의 성을 일제가 마음껏 유린했다는 식의 대중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미 한 개인으로서 거스를 용기를 내기 힘든 권위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하였다.

사례2)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총리로 지명되면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총리 임명 전에는 이병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소신을 바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2009년 11월 6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라는 발언을 하였다. 2011년 2월 17일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에서 국사를 영어로 테스트해야 한다"고 해서 비난을 샀다.

사례3)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11년 서초구 온누리 교회 양재캠퍼스 수요 여성예배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울러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름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서빙고 캠퍼스에서는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치호에 대해 "윤치호가 몇 년간 친일은 했지만 기독교를 끝까지 가지면서 죽은 사람이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일기를 쓰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한다"라고까지 했다. "일본이 이웃인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지정학적 축복"이라는 말도 했다.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사례4) 2015년 2월 15일 세종대학교 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위안부는 매춘부로 일본군의 협력자였다. 위안부를 끌어간 것은 조선인 포주였으며,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좋은 대접도 받았고, 나름 긍지를 느꼈다. 위안부는 가난한 소녀나 결혼을 거부하고 도망친 여자들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나 일본인 위안부나 고통은 같았다. 일본은 나름의 사죄와 보상을 하였다. 위안부가 한일 역사 갈등의 원인이다.

*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는 다르다. 정신대(挺身隊/특공대)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의 수렁에 빠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1941년경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농번기 농촌 노동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든 '산업보국단' 가리킨 것이었다. 한편 내선일체정신대는 일종의 '산업기술 연수생'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로 가게 되면 정신대란 말은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 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대체로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 쓰이게 되었다.

일제는 19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를 만들어 최초의 여자근로정신대인 1기생을 도야마현 후지코시 비행기 공장에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대는 군수공장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강덕경 할머니(당시 16세)의 증언에 따르면 "군수공장에서 굶주림에 시달려 탈출했다가 종군위안부로 넘겨졌다."고 하였다. 끌려간 17만에서 20만 명의 정신대 중 광복 이전 사망자는 143,000명으로 소모율 71~84%였다. 세계2차대전 중 일본군의 소모율은 40~50%를 웃도는 수치였다. 종군위안부는 일본인 매춘부를 비롯, 중국인, 필리핀인, 네덜란드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괌에서 미국인도 위안부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본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1943년 1월 현재 "일본군 장교 이하의 위안 시설이 중국 북부에 100개소, 중부에 140개소, 남부에 40개소, 남방이라 부르는 동남아시아에 100개소, 남해(?)에 10개소, 사할린에 10개소 등 총 400개소가 있다."고 했다. 또 버마 전선에서 포로가 된 어느 일본 군인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 1개 사단에는 5개소 내지 6개소의 위안소가 있었고 여기에는 일본인 및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하였다.

호남(湖南)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생각해 보기】----------

1. 호남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2. 보수적인 영남과 개방적인 호남문화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3. 전라도와 경상도 무속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전라도 역사의 대부분이 승자가 아닌 패자의 기록이며, 따라서 왜곡과 축소가 게재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라도 문화를 '소외'와 '한'과 '피해'와 '저항'의 역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한과 소외적인 경향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풍류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는 지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라도 문화의 특성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방과 진취

지리적으로 호남지역은 강이 많고,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영남지역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연 대륙에서 휘몰아쳐 온 민족이동의 여파가 호남벌에는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남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강을 따라 평야지대로 이동하는 호남지역에서는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빠르고 빈번하다. 반면 영남지역은 험준한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대륙으로부터 새로 이입되는 선진 기술문화의 도입이 늦었다. 또한 굳이 산맥을 넘어 영남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들이 큰 세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토착세력에 흡수 동화되었다. 영남지역에 보수적 성향의 의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호남지역으로 내려오는 이주민들은 큰 세력 집단을 형성하였고 우수한 기술문화를 가지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토착사회를 선도 개발시켰다. 대륙으로부터 선진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문화를 형성시키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전해주는 과정에서 호남은 개방적이고 진취적 성향의 의식을 성립시켰다.

백제는 온조가 새로운 천지를 찾아 개척하면서 백제를 건국하였으나,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 온 신인으로 하늘로부터 선택되어 신라를 개국하였다. 온조가 부여족

의 일파로 고구려로부터 남하하여 내려온 이주민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해, 박혁거세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지만 출신지나 그 세력 규모를 알 수 없다. 어쩌면 육부 출신의 촌장에 의해 수동적으로 옹립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신라사회에 유이민 집단은 소수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토착민에 흡수 동화되었으며 토착세력이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백제사회에서는 유이민인 온조가 토착사회를 정복 흡수 동화하면서 국가를 건립하였다.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면에서도 백제는 신라와 차이를 보인다. 백제는 이미 근초고왕대에 정복국가로서 강성함과 함께 영토가 넓어졌다. 이후 침류왕대를 전후하여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다. 그것은 넓혀진 판도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백제는 귀족문화가 세련되는 방향으로 그 사회를 정비하여 갔다. 반면에 신라는 법흥왕대에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그 바탕 위에 진흥왕대에 정복국가로 등장하여 그 영토가 넓혀지고 있다. 신라는 영토팽창 야욕을 국가체제 정비로 백제와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개혁

호남지역 사상으로 가장 먼저 미륵신앙을 꼽을 수 있다. 금산사의 미륵전은 물론, 관촉사의 미륵불이나 익산의 미륵사 등은 모두 미륵신앙으로 이름난 곳이다. 『삼국유사』에 신라 진지왕대의 승려 진자가 미륵선화를 받들기 위해 공주의 수원사(水源寺)에 나가고 있다. 이는 당시 호남지역이 미륵신앙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도 역시 미륵신앙이 바탕이 되어 조성된 것이다.

신라의 미륵신앙은 전륜성왕의 치세를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교공인 과정에서 전륜성왕과 미륵의 조화는 국왕과 귀족이 타협하면서 불교신앙면에서 협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백제는 미륵신앙 속에서 전륜성왕 관념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상사회의 건설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백제 미륵신앙 속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삼국유사』와 달리 『삼국사기』 본기 무왕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형식에 흐를 정도로 강한 계율을 강조하고 있다. 법왕은 고기잡이나 수렵도구를 불사르고 사냥하는 매를 방생하도록 엄격한 계율을 시행할 것을 하교 하였다. 백제 미륵신앙이 계율과 얽히는데 그 사상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백제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었던 진표(眞表)는 백제 구 귀족 출신으로 백제문화의 부흥에 큰 관심을 가졌다. 어릴 때 그는 가재(올챙이)를 잡아 대꼬챙이에 끼워 냇가에 두고는,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가재 생각이 나서 냇가에 가 보았더니 대꼬챙이에 끼워져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가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출가하였다고 했다. 그가 살아 꿈틀거리는 가재를 보고 받은 충격은 바로 백제문화에 대한 부흥으로 이어졌을 법하다.

미륵신앙을 내세우면서 사회개혁을 실현시키려 한 자는 궁예이지만 그는 백제 내지 진표의 미륵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궁예가 제거되면서 미륵신앙은 비밀결사나 유사종교로 이어지면서 때때로 사회변혁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실천과 수행

고려시대에 호남지역의 사상 형성에 나말여초 선종의 성립과 조계종이 큰 영향을 주었다. 통일신라 이래 근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교적(圓敎的) 전통으로 융합사상을 들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실천수행적 신앙이다. 그중 호남지역 불교사상의 전통과 더 가까운 것은 후자다.

신라 중대 이래 화엄종을 위시한 교학불교(敎學佛敎)가 대체로 융회적 성격을 띠면서 왕실이나 중앙귀족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신라 하대에 크게 일어난 선종은 지방에서 호족과 결탁하면서 큰 산문을 형성하였다. 선종9산은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다.

선종 9산은 남원의 실상사, 장흥 보림사의 가지산문, 곡성 태안사의 동리산문은 물론 능주 쌍봉사의 사자산문은 바로 호남지역에 성립된 산문이다. 보령의 성주사도 호남지역과 연결이 가능한 산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종9산은 주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개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말여초의 선사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게 할 정도로 실천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호남지역 선종산문 중 태안사의 동리산문에서 풍수지리설이 갖추어졌다. 개조인 혜철(慧徹)의 사상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자인 도선(道詵)이 풍수지리설을 체계화하여 삼국도를 작성하였다.

동리산문의 사상이 풍수지리설을 곁들이게 되는 것은 역시 선사상의 실천적 수행적

성격과 연관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 국토관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계종으로서의 한국불교의 정맥을 건립한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조계종에 필적할만한 결사가 강진의 백련사(白蓮社)에서 이루어졌다. 백련결사는 선의 입장 곧 실천수행을 중시하면서 교종사상을 융합하려 하였다.

고려말 호남지역에 우뚝 솟은 불교계의 양봉이 세속적인 실천수행 사상을 낳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전통은 그 후에도 이어져 조선시대 김시습(金時習)은 청양의 무량사(無量寺)에 은거하여 활선(活禪)을 주장하였다. 호남지역에 형성된 선종의 실천수행적인 신앙은 활선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반드시 좌선(坐禪)을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붓글씨를 쓰거나 밭갈이를 하는 중에서도 선정(禪定)에 들 수 있으며 말하는 중에서도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절의와 구국

호남유학을 일으킨 장본인은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다. 그는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정치에서 실각했지만, 이 사건으로 무등산 아래 소쇄원(瀟灑園)이 조성되어 그곳이 호남유림의 집결지가 되었으며, 호남유학의 정신이 독특하게 꽃피울 수 있었다. 그러면 의리를 바탕으로 꽃피운 호남유학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절의정신'이며 그런 바탕 위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그것을 보존하려는 '구국정신'이다. 그것은 고려시대 이래 호남지역의 의식으로 형성된 실천수행 정신이 성리학과 맞물려 성립된 것이다. 절의정신은 이미 세조당시 집현전 학사와 사육신의 정신 속에 흐르고 있었으며,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이 우국정신으로 승화되어 애군 내지 봉군정신으로 나타났다.

호남유림의 절의와 구국정신은 임진왜란을 맞으면서 만개했다. 고경명(高敬命)은 호남 절의의 상징적 존재다. 담양에서 회집한 고경명은 전남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도적으로 모병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그는 나라를 구하고자 북상하다가 금산에서 순절하였다. 나주에서 일어난 김천일(金千鎰)은 최경회(崔慶會) 고종후(高從厚) 등과 진주성을 지키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그 외 김덕령(金德齡)과 해전에서 정운(鄭運) 등도 절의정신을 빛낸 인물들이다. 『호남절의록』은 이런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편찬되었으며 그것은 절의가 바로 호남유림 사이에 면면하게 흘러 내려간 정신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호남지역 의병의 성격이 근왕적이고 구국적이었음에 대해 영남지역의 의병은 자기 지방을 지키는 소구적(掃寇的) 성격을 가졌다. 그런 면에서 호남지역의 의병은 대승적이었으며 절의정신을 발로하고 있는 셈이다.

호남지역 의병은 참여나 거의가 아니라 싸우다 순절해야만 실질적인 찬탄의 대열에 드는 전통이 이 지역에는 확립되다시피 하였다. 다른 지역의 의병은 난 후에 수 십 년을 더 살고 높은 관직에 올라 영화를 누리다가 간 사람들도 많지만 전라도 의병장의 경우는 거의가 전란 중에 순절한 사람들이다. 참여만이 아닌 목숨을 바친 순절한 사람들의 수에 있어서 호남을 따를 곳은 없다.

임란 이후 호남유학의 절의정신은 조선 후기 실학을 성립시키기도 했으며 구한말에는 척사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말에 장성의 기정진(奇正鎭)은 호남유학을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화서(華西)와 함께 절의정신을 바탕으로 척사위정 사상을 선도하였다.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풍속과 풍토론적 차이

세습무(世襲巫) 위주의 전라도 무속

인류학자들은 원시신앙의 형태를 민간신앙이라고 부른다. 민간신앙은 흔히 말하는 무당이 굿을 하는 '무속'과 조왕신(竈王神) 등에서 보듯 집안의 각 구역과 구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가신신앙' 및 당산나무 등을 신격화해 마을 전체가 지내는 '동제' 등으로 대별된다.

전라도의 무속은 각종 의례의 굿을 하는 무당과 앞날을 예언하는 점쟁이로 양분화되어 있다. 또 무당을 단골무당의 약칭인 '단골(당골)'이라고 하고 무당이 굿을 할 때 반주를 하는 박수를 '재인'이라고 한다. 또 무가계는 아니지만 신이 내려 무당이 된 무속인을 '점쟁이'나 '보살', '선무당'이라고 부른다.

전라도의 단골은 중부 이북 지방의 강신무가 신딸을 두는 사제계승형인 것과는 달리 고부간에 세습된다. 즉 남자가계로 시집간 무가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당골의 무업과 무업관할구를 물려받는다. 때문에 단골은 관할 마을 내에서 사제로서의 권리, 의무와 함께 자신의 무업구역을 다른 무인에게 팔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무업을 행

했다. 이처럼 무가계가 계승돼 가무예절이 뛰어난 자녀가 많았고 이들은 여자아이의 경우 기생으로 나가기도 했으며 노래를 잘하는 남자아이는 명창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굿은 규모에 따라 '큰 굿'과 '고사', '푸닥거리', '비손'으로 나눈다. 큰 굿은 씻김굿과 같이 3인 이상의 무속인이 성찬을 차려놓고 20명이 넘는 악사와 함께 반주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촌극도 하는 굿이다. 푸닥거리는 병을 낳게 하거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하는 굿으로 날을 잡아 금줄을 치고 한다. 고사는 주로 경사를 축원하는 굿으로 반주에 맞춰 3석을 낭송한다. 비손은 가장 간략한 굿으로 무녀가 의뢰자의 청에 의해 간소한 상을 차리고 즉흥적으로 무사안일이나 아들 낳기를 바랄 때 하는 굿이다. 씻김굿은 전라도의 대표적인 굿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빌고 후손에게 복이 오기를 바라는 굿으로, 망자가 죽은 해에 하는 것을 '진씻김굿', 죽은 해를 넘겨서 하는 것을 '마른씻김굿'이라고 한다.

전라도 무속은 다른 지방처럼 무녀복을 화려하게 입거나 신들려 춤추고 노래하는 굿이 아니라 무녀가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자로서 성실한 역할에 머물고 있고 연극성(놀이)보다는 가창(소리나 노래)으로 귀신을 즐겁게 하며 방울이나 명도 등 무인을 상징하는 무구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화려한 복장과 제단(祭壇) 위주의 경상도 무속

경상도 무속은 낙동강 서안의 세습제와 동해안 지역 가족 중심의 세습제로 구분된다. 경상도의 무속은 동해안 별신굿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리가 아닌 놀이와 악기, 화려한 복장과 제단 위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라도와 경상도 무속을 확연히 구분짓는 차이점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산을 비롯하여 영남 영동 동해안의 무당으로는 별신굿 사제무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무업의 고부간 계승도, 강신경험도 없이 고도로 예술화, 오락화된 굿을 한다. 이들 여자무인을 '무당'이라고 하며 남자는 '양중' 또는 '화랭이'이라고 부른다. 특히 이곳의 남자 무당 명칭인 양중은 조선시대의 무당 명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호칭되는 무당명칭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춤이나 무악 등을 배워 별신굿을 고도의 예술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의 무계 전승에서는 남자인 양중이 중심이 되며 굿은 무당이 중심이 된다.

부산과 경북지역에서 행해지는 굿으로 각각 동래 산오구굿과 오구굿을 들 수 있다. 오구굿은 죽은 망령을 위안하여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굿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모두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거의 같다. 이 같은 유형의 굿으로 서울의 진오기굿이 있다. 오구굿은 별신제와 달리 낮에 하지 않고 밤을 새워 지내기에 밤제사라고도 한다.

프랑스적 호남과 독일적 영남

프랑스는 '평지'가 많다. 평지가 많다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평지에 살다보면 단조로워 늘 변화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변화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일 수밖에 없어 사람 스스로가 변하기 마련이다. 혁명은 예술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들판은 가도가도 같은 길이어서 지형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공산품일 수밖에 없는 가로등을 변화시키게 된다. 프랑스는 지금도 가로등이 색깔만 같을 뿐 모양은 길마다 다르다. 결국 획일적이 아닌 예술이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상징은 '숲'이다. 숲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빽빽이 늘어선 나무에서 질서를 느끼게 마련이다. 심리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나무는 군대를 상징한다. 군대라는 조직은 속성상 우리가 독일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측면을 연상시켜주기도 한다.(최창조, 「한국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민음사, 1993, 67쪽)

호남과 영남의 종교인구(동불서기)

2014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불교와 개신교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나,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를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남의 경우는 불교 인구가 부산/울산/경남(42%)과 대구/경북(32%)인 반면에 개신교는 부산/울산/경남(9%), 대구/경북(13%) 그리고 천주교는 부산/울산/경남(1%), 대구/경북(9%)였다. 이와 달리 호남의 경우 개신교가 광주/전라(31%), 불교는 14%, 천주교는 6%였다.

저항(抵抗)과 변혁(變革)의 땅, 전북

【생각해 보기】----------

1. 1920년대 전북(정읍)에서 전개된 각종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2. 일제강점기 지주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를 민족운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동아시아권에서 전근대에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무엇으로 불렀는가?

전라북도는 일제강점기 주된 수탈 대상이었으나 일제의 침탈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북을 '저항과 변혁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역사란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하듯이, 전북의 역사는 한국사라는 보편성과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 이후, 항일 의병전쟁의 중심 지역이었다. 최익현(崔益鉉)이 맹주가 되고, 임병찬(林秉瓚)이 주도했던 태인의병[丙午倡義]은 근왕적 성격을 띠던 의병운동 초기와 달리 항일투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상소운동을 전개하던 소극적 투쟁 방법에서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을사늑약 후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익현(崔益鉉)이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 봉기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봉기가 있었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서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항일창의 서원이자 전라우도를 대표하는 서원이기도 하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익산에서는 문용기(文鏞基) 의사가 일제 경찰의 칼에 양팔을 잃으면서도 만세를 불렀고, 임실에서는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였으며, 남원에서는 덕과면장으로 있던 이석기(李奭基)가 임실군 오수시장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식목행사에 동원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부안에서는 일제 조선인 경찰이 만세시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보천교(普天教)에서는 태을교도들이 서울과 지방의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1922년 당시 임시정부는 현상유

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다. 또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김좌진(金佐鎭)에게 군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무장투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특히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던 민족대표 48인에 임규(林圭, 1867~1948, 익산) 선생과 정노식(鄭魯湜/1891~1965, 김제) 선생 등이 포함되고, 민족대표 33인으로 박준승(朴準承, 1865~1927, 임실) 선생과 불교계에 백용성(白龍城, 1864~1940, 장수) 스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무한한 자긍심이다.

1920년대에는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북은 청년운동을 비롯한 소년운동과 형평운동(衡平運動)까지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소작농민들은 일본인 대지주를 상대로 '소작권 이동'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였다.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싸운 만큼 그 자체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농민조직 결성은 농민의 주체적인 힘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시 소작인들이 지주를 상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다. 소작권마저 박탈당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주에게 항의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기라는 점과 일제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이 있었던 가운데 전개된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소작쟁의는 1923년 전주군 상관면에서 소작료 이외 지세를 미리 낼 것을 요구하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쟁의는 주로 평야 지대인 김제·정읍·익산·완주·옥구 등지에서 많이 일어났다. 특히 일제강점기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현상이 가장 심했던 곳이 김제 지역으로 1930년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쟁의가 발생하였다. 김제의 소작쟁의는 1926년부터 1939년까지 14년간 총 5,998건이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1927년 옥구 후타바[二葉社]농장의 소작쟁의를 비롯, 화호의 구마모토[熊本利坪] 농장 소작쟁의, 고창의 마스도미[桝富安左衛門] 농장에서 쟁의가 있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는 지회 중에서 가장 먼저 '소작인 운동'과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운동 가운데 소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에 보천교(普天敎)에서 조직한 소년회가 일찍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부안에는 사회주의 성격의 '진동리 소년

회'가 있었다. 여성교육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시기에 군산에서는 쌀을 고르는 미선공을 대상으로 한 '적성야학(赤誠夜學)'과 한상계가 운영하는 '한송여학당'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한송여학당은 그 규모가 정규 사립학교와 버금가는 것이었다. 고창에서는 기독교와 안식일교회의 여자야학이 개설되었다. 이는 전북 서남부 지역인 정읍과 김제, 부안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었다. 1922년 무장 안식일교회에서 설립한 '진명여자학원'은 보통학교 6년제였으며, 교육내용이 충실하여 남녀공학의 공립보통학교보다 지원자가 더 많을 정도로 인기있었다.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익산에 동인회(同人會), 김제에 서광회(曙光會) 등 백정들의 자생적인 조직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형평운동은 봉건적 유제를 타파하고자 한 사회개혁 운동이자 인권운동이었다.

1920년대 사회운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新幹會)가 남한에서 맨 처음 조직된 곳이 정읍지회였다. 군산지회에서는 노동운동이 사상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서울 중앙고)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동환(李東煥1901~1982, 정읍 산외)이었다. 6·10만세운동은 이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40년대 일제강점 말기까지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동조시위를 하였다. 전주와 익산, 정읍과 순창지역 학생들의 비밀결사 조직은 광복 직전까지 대일항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33년 9월 24일 정읍공립농업학교(현 정읍제일고등학교)의 학생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18명)가 발각되었다. 비밀결사는 지하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어 활동했던 관계로 발각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았을 것이다. 193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동맹휴학이 1931년을 고비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신에 비밀결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밀결사는 독서회·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반제동맹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이 시기 비밀결사는 대부분 독서회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으며, 독서회는 이 시대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다.

일제 강점 말기에는 1940년 전주농업학교(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근

화회',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의 '우리회', 익산농림학교 학생들의 '화랑회'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1944년에는 순창농림학교(현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화령회'라는 결사단체를 조직하여 민족독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을 비밀결사의 취지로 삼았다. 이와 같이 3·1독립만세운동에서부터 나라가 독립되기 직전까지 전북지역 학생들의 대일항쟁은 계속되었다.

종교 쪽에서도 민족운동을 준비하였다. 개신교에서는 김인전(金仁全) 목사가, 불교계에서는 백용성(白龍城) 스님과 송만공(宋滿空) 스님의 역할이 컸다. 신종교인 보천교에서는 1918년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국권 회복을 꾀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3·1독립만세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보천교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자급자족 운동과 대중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전라우도농악을 대표하는 정읍농악은 원래 보천교농악이었다.

한편, 해외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북인들의 독립투쟁은 계속되었다. 2·8독립선언에 백관수(白寬洙), 나용균(羅容均), 정노식(鄭魯湜)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이날 개회 선언을 한 고창 출신 백남규(白南奎)는 호남유학생 회장으로 사전 조직에 큰 역할을 하였고, 역시 고창 출신으로 대회 총수 격인 백관수(白寬洙)는 조선청년독립단장의 자격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배후에서 거사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정읍 출신 나용균(羅容均)과 김제 출신의 정노식(鄭魯植) 등이었다.

실패했을망정 중국에서는 아나키스트(Anarchist) 백정기(白貞基)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와 '육삼정 의거'는 전북인의 의기를 높이 알린 쾌거였다. 백의사는 1933년 3월 17일 상하이의 고급요정 63정에서 일본 정계와 군사계의 거물, 그리고 중국 국민당 고위 관리들이 회합을 갖는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참석자 중 일본 육군대장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와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육삼정 의거는 의열단의 황푸탄 의거(1923),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1932)와 더불어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3대 의거'로 꼽힌다.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저항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전북인의 무형의 자산이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다. 만약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 是無國家/1593.7.16]”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호남인들의 충절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가와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전북은 예로부터 나라의 ‘곳간[庫間]’이었다. 이로 인해 무던히도 뺏기고 억압당하는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연히 그 고통을 이겨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근현대사와 인물 이야기

【생각해 보기】----------

1. 역사학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훈요10조」 8항의 허구성과 이중환의 전라도 인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전라북도의 연혁

-삼한시대: 마한의 중심지로54개의 소국 중 15개 소국이 전북에 위치
-삼국시대: 백제 소속으로 정읍 고부가 본도의 중심
-후백제시대: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함
-고려시대: 1031년(현종22)에 전라도라 칭함
-조선시대: 1413년(태종13) 전국에 8도제 실시. 전라도 명칭 그대로 사용
-1896년: 13도제 실시에 따라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할됨
-1995년 이래 전라북도는 6시 8군으로 운영됨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맹목적으로 전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지식의 토대 위에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력, 판단력 등 역사적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물사 학습'은 역사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인물사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학습 자료로 제공된다면,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해준다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학습자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저항하면서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지역 출신 인사들의 행적은 인물사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우리는 그간 전라북도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걸출한 인물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한 것이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든 아니든 과거 역사 속에서 전라도는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았던

소외된 땅이었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대부분 그 원인(遠因)을 「훈요10조」의 '8항'과 조선 중기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많지 않았다. 일단 잘못된 우리의 역사인식을 점검해보고 지역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전북이 역사의 패자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그간 전북도교육청에서 한국사 부교재로 발간한 『동학농민혁명』(2013)과 『일제강점기 전라북도』(2014),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 이야기』(2015) 등은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물 선정 기준은 출생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까지 포함하였다. 과거 실존인물을 기준으로 했으며, 시대적으로는 근대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현대까지 포함하였다. 근대 시기까지도 여성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았던 만큼 주로 남성 위주의 역사가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선정 과정에서 일부 친일문제가 명백한 인물은 배제하였다.

전북인의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극복을 위하여

「훈요 10조」 '8항'에 대한 잘못된 인식

「훈요10조」(이하 「훈요」로 칭함)는 호남 차별의 기원으로 일컬어진다. 처음 왕실의 비전(秘傳)으로 내려오다 거란 침입으로 일시 없어졌다가 다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훈요」의 '8항'은 고려를 건국한 후 후백제에게 당한 피해의식과 후백제인들이 고려에 통합된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합해져 풍수지리설에 가탁(假託)하여 그들 세력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수 있다. 그만큼 후백제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조는 유언을 남길 만큼 백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이대성 기자, 「전북재발견」, 『전북일보』, 1998.1011.)

「훈요」의 제정 경위는 태조가 후손들이 감정과 욕망을 방자히 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8항'의 내용은 훈요 제정 의도와 아무래도 걸맞지 않는다. 또 「훈요」가 왕실 후손들이 비장(秘藏)하여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면 직접 태자에게 전해주었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

런데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8항'과 같은 편파적인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을 확률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훈요」라고 불리는 내용이 왕건 당시에 남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내용이었을까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또 『고려사』 최승로(崔承老) 열전에서 「훈요」를 전쟁 중에 잃어버렸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1101년(현종 2)에 있었던 거란의 제2차 침입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982년(성종 원년)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에 「훈요」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일체 언급이 없다는 것은 「훈요」가 현종 이후의 위작(僞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일인학자 금서룡) 최승로는 후백제 출신과 발해 계통의 젊은 인재들이 과거를 통해 기용되는 것을 불만스러워했던 사람이었다.

결국 전라도인의 차별적인 등용이 실제로 있었느냐를 정리해보면 「훈요」의 위작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태조부터 인종 초까지 전라도인으로 등용된 사람은 21명이었다. 그 중 과거 합격자는 10명(충청도 5명/황해도 9명/경상도 14명/강원도 8명), 2품 이상 재상을 지낸 사람이 12명, 문하시중인 수상까지 오른 사람은 3명이었다. 이로써 본다면 태조 이래 고려 중기까지 전라도 사람들이 차대없이 높이 등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요」는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이며 후세에 위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 전북대학교 최병운 교수/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

이중환(李重煥/1690-1752)의 전라도 인식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에 "전라도는 풍속이 노래와 계집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하며 사람이 경박하고 간사하여 문학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 까닭에 과거에 올라 훌륭하게 된 사람의 수효가 경상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대개 문학을 힘써서 자신을 이름나게 하는 사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썼다.

또한 「복거총론」에서는 "전라도 인심이 오로지 교활하고 음험함을 숭상하며 옳지 않은 일에 쉽게 부화뇌동한다."고 말한 뒤 "이것은 서민의 풍속이며 사대부의 풍속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중환의 전라도에 대한 인식이다. 이어서 "평안도 인심이 제일 순후하고 경상도 풍속이 그 다음으로 질박하고 성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8도 중에서 가장 인심이 제일 좋은 곳으로 지목했던 평안도와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혹평한 전라도는 그가 단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다. 전라도 무장현은 그의 외가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또한 인심과 풍속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데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택리지』 편찬 당시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등의 전라도 각 군현의 풍속 기사를 살펴봐도 이중환이 혹평한 것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중환이 평한 내용은 비논리적이고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도 인심조 기사는 이중환이 날조한 것이 아니라면 고려 「훈요 10조」의 조작자, 정여립 사건의 날조자와 같은 류의 불순세력 들이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한 대립세력을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세간에 유포시켰을 것으로 보인다.(전 전북대학교 이희권 교수)

정여립(鄭汝立/1546-1589) 모반사건과 전라도 인재의 등용 차별

정여립 모반사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 10월에 전라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꾀했다고 하는 역모를 지칭한다. 이 사건으로 1,000여 명이 희생되었고 이후 호남은 반역자가 난 지역으로 낙인찍혀 호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이 거부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전주와 나주였다. 그러나 『선조실록』의 황해감사 한준의 장계는 재령군수 박충간의 보고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뿐 어떠한 경위로 첩보를 얻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전주 사람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면 역모의 산실은 전라도였을 터인데 전라도가 아닌 해서지방에서 고변되었다고 하는 점이 또한 의심스럽다. 정여립 모반사건이 고변되었을 당시 조정 대신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선조는 여립이 와서 스스로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립이 도주하여 진안에서 자결(자살설과 타살설 공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옥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립이 자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모반을 시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정여립은 왕위 세습을 비판했다. 중국의 성인인 요·순·우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당대의 현자에게 왕위를 계승케 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충군사상을 부인했다. 임금과 신하는 절대적 충성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그는 '천하는 공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군주만이 반드시 군주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가 전란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대동계는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과 반상귀천, 남녀의 신분적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역모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여립이 역심을 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로 역모를 꾀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기축옥사(己丑獄死)는 정철(鄭澈)과 송익필(宋翼弼/천민신분이었으나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당대 8문장가로 칭송받았음. 이로 인해 정철과도 친분이 두터웠다)에 의한 것이요, 그들에 의해 확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정여립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선조 22년을 전후 시기로 구분하여 이전과 이후의 각 도 문과합격자 중 관직 진출자 비율과 관직 진출자 중 당상관에 오른 자의 비율을 산출해서 비교해 보면 그것이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전라도만의 특징적인 현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희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에는 260명의 문과합격자 중 2명만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99.2%의 관직 진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후기에는 353명의 관직 문과합격자 중 28명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92.1%가 관직에 진출한 셈이다. 이는 차대라기보다 조선 후기에 문과 합격자가 급증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상관에 오른 자는 전기에는 198년간 93명으로 2.1년에 1명이었다. 이는 총 260명의 관직 진출자의 35.7%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후기에는 305년간 69명의 당상관이 나왔다. 4.4년에 1명의 당상관이 나온 셈이다. 이는 총 353명의 관직 진출자의 19.5%를 차지한다. 전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후기 중에서도 선조 23년부터 경종 4년까지 135년간에는 182명의 관직 진출자 중 28명이 당상관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의 당상관 진출율은 15.3%에 지나지 않는다. 영조 이후 1894년(고종 31)까지는 170년간 171명의 관직 진출자 중 41명이 당상관이 되었다. 진출율은 23.9%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여립 사건 이후 한 시기 전라도인에 대한 부당한 차대가 행해졌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인이 등용에 크게 제약받고 있었음은 1596년(선조 29)에 우상 이원익(李元翼)이 "전라도는 임진란 이후 나라에 세운 공이 많고 양반으로서 근왕(勤王)한 자가 모두 호남이니 마땅히 호남인을 수용해야한다"고 선조에게 진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선조도 임진왜란을 당하고서야 호남인에 대한 정치적 소외와 차단된 사실의 그 부당성을 자인하였다. 또 1662년(현종3)에 이경석(李景奭)이 "국가는 인재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로부터 호남은 충신과 의사가 배출되었고 그 기풍이 아직도 남아서 모두 의열의 기개가 있으니 능력에 따라 조용(調用)하는 것이 인물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입니다"라고 현종에게 아뢴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전 전북대학교 이희권 교수/전 중앙대학교 김용덕 교수/신정일 황토현문화연구소장)

이러한 차대와 소외를 경험했음에도 호남인들은 국가의 환란에 직면하자 여기저기서 의병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건 의병항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 수에 있어서나 특히 참여만이 아닌 목숨을 바친 충절인의 수에 있어서 호남을 따를 곳은 없다.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많은 사람들은 전라도 역사의 대부분이 승자가 아닌 패자의 기록이며, 따라서 왜곡과 축소가 게재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라도 문화를 '소외'와 '한'과 '피해'와 '저항'의 역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한과 소외적인 경향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풍류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는 지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라도 지역의 특성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 40년간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대일항쟁 기간으로 보고 이 시기에 전개된 전북인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 이후, 항일 의병전쟁의 중심 지역이었다. 최익현(崔益鉉)이 맹주가 되고, 임병찬(林秉瓚)이 주도했던 태인의병〔丙午倡義〕은 근왕적 성격을 띠던 의병운동 초기와 달리 항일투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상소운동을 전개하던 소극적 투쟁 방법에서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을사늑약 후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익현이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 봉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봉기가 있었던 무성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서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항일창의 서원이자 전라우도를 대표하는 서원이기도 하다.

3·1독립만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은 전북 출신 유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날 개회 선언을 한 백남규(白南奎/고창 성내)는 호남유학생 회장으로 사전 조직에 큰 역할을 했고, 대회 총수 격인 백관수(白寬洙/고창 성내)는 조선청년독립단장의 자격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배후에서 거사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나용균(羅容均/정읍 영원)과 정노식(鄭魯植/김제 만경) 등이었다.

특히 3·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던 민족대표 48인에 임규(林圭/1867~1948, 익산)와 정노식(鄭魯湜/1891~1965, 김제) 등이 포함되고, 민족대표 33인으로 박준승(朴準承/1865~1927, 임실)과 백용성(白龍城/1864~1940, 장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북 도민의 무한한 자긍심이다.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익산에서는 문용기 열사가 일제 경찰의 칼에 양팔을 잃으면서도 만세를 외쳤고, 임실에서는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남원에서는 덕과면장으로 있던 이석기(李奭器)가 임실군 오수시장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식목행사에 동원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부안에서는 일제 조선인 경찰이 만세시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1920년대에는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북에서는 청년운동을 비롯한 소년운동과 형평운동까지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소작농민들은 일본인 대지주를 상대로 '소작권 이동'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였다.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싸운 만큼 그 자체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농민조직 결성은 농민의 주체적인 힘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시 소작인들이 지주를 상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다. 소작권마저 박탈당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주에게 항의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기라는 점과 일제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이 있었던 가운데 전개된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소작쟁의는 1923년 전주군 상관면에서 소작료 이외 지세를 미리 낼 것을 요구하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쟁의는 주로 평야 지대인 김제·정읍·익산·완주·옥구 등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일제강점기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현상이 가장 심했던 김제지역에서 1930년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쟁의가 발생하였다. 김제의 소작쟁의는 1926년부터 1939년까지 14년간 총 5,998건이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옥구 후타바[이엽사]농장의 소작쟁의를 비롯, 화호의 구마모토 농장 소작쟁의, 고창의 마스도미 농장에서도 쟁의가 있었다.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는 지회 중에서 가장 먼저 '소작인 운동'과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운동 가운데 소년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에 보천교에서 조직한

소년회가 일찍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부안에는 사회주의 성격의 '진동리소년회'가 있었다. 여성교육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기에 군산에서는 쌀을 고르는 미선공을 대상으로 한 '적성야학'과 한상계가 운영하는 '한송여학당'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한송여학당은 그 규모가 정규 사립학교와 버금가는 것이었다. 고창에서는 기독교와 안식일교회의 여자야학이 개설되었다. 이는 전북 서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었다. 1922년 무장 안식일교회에서 설립한 '진명여자학원'은 보통학교 6년제였으며, 교육내용이 충실하여 남녀공학의 공립보통학교보다 지원자가 더 많을 정도로 인기 있었다.

형평운동은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익산에서는 동인회(同人會)가, 김제에서는 서광회(曙光會)가 조직되었다. 백정들의 자생적인 조직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형평운동은 봉건적 유제를 타파하고자 한 사회개혁 운동이자 인권운동이었다. 운동이란 통상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파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형평운동은 서울보다 지역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7)

1920년대 사회운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新幹會)가 남한에서 맨 처음 조직된 곳이 정읍지회였다. 전북지역 지회에서는 소작쟁의 지원활동과 동척이민반대운동, 수리조합반대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제가 식민지 농업정책 집행 주도기관으로 조직한 군농회 반대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에서는 일본인 선주 및 어부들과 한국인 어부들 사이에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자 한국인 어부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군산과 이리에서는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쟁의와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임실에서는 농민들의 문맹퇴치와 독립사상 고양을 위한 야학을 설치하고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서울 중앙고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읍 산외 출신 이동환(李東煥)이었다. 6·10만세운동은 이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40년대 일제강점 말기까지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동조시위를 하였다. 전주와 익산, 정읍과 순창지역 학생들의 비밀결사 조직

은 광복 직전까지 대일항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33년 9월 24일 정읍공립농업학교의 학생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가 발각되었다. 193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동맹휴학이 1931년을 고비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신에 이와 같이 비밀결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밀결사는 독서회·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반제동맹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이 시기 비밀결사는 대부분 독서회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으며, 독서회는 이 시대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다.

종교 쪽에서도 민족운동을 준비하였다. 개신교에서는 김인전(金仁全)이, 불교계에서는 백용성(白龍城)과 송만공(宋滿空)의 역할이 컸다. 신종교인 보천교에서는 1918년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국권 회복을 꾀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3·1독립만세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보천교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자급자족 운동과 대중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북인의 독립투쟁은 계속되었다. 2·8독립선언문은 시민 혁명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구체적이고 투쟁적인 선언문이었다. 일제는 근대 학생운동을 촉발시킨 2·8독립선언의 중요한 위상을 축소하기 위해 이 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추동된 타율적인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2·8독립선언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질은 당시 국내외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일제 식민 지배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주체적 민족독립운동이었다.

실패했을망정 중국에서는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훙커우〔紅口〕 공원 의거'와 '육삼정(六三亭) 의거'는 전북인의 의기를 높이 알린 쾌거였다.

일제 강점 말기에는 1940년 전주농업학교 학생들의 '근화회',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의 '우리회', 익산농림학교 학생들의 '화랑회'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1944년에는 순창농림학교 학생들이 '화령회'라는 결사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쟁취를 비밀결사의 취지로 삼았다. 이와 같이 3·1독립만세운동에서부터 나라가 독립되기 직전까지 전북지역 학생들의 대일항쟁은 계속되었다.(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의 민족운동」(근간)

항일구국운동 관련 인물

【생각해 보기】----------

1. 혁명이 성공했더라면 전봉준이 꿈꾸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2. 미륵신앙과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3. 최익현이 굳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는 병력을 동원하여 궁궐을 점령한 일제에 맞서 싸운 농민전쟁이었다.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맞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이는 정규군이 아닌 농민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만큼 의병의 부류로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어난 태인의병(무성서원 의병봉기)은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최익현(崔益鉉/1833~1906)과 낙안군수를 지냈던 임병찬(林炳瓚/1851~1916, 정읍 태인)이었다.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의 권유와 태인 주변에 많은 유학자들이 있어 크게 호응할 것이란 점, 그리고 그의 선조인 최치원(崔致遠)을 모시는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태인의병은 한마디로 최익현(崔益鉉)이 맹주를 하고, 임병찬(林炳瓚)이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투 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의 거병목표가 전주를 거쳐 북상하여 서울에 포진한 일본 세력과 외교적 담판을 벌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거읍 한 곳을 점거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영남과 호서, 영서 등지의 다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의진들과 기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일본이 위세에 밀려 이 담판에 응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호남의 거읍인 나주, 남원, 광주 등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순창에서 남원과 전주 진위대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태인 중심의 보수적 양반과 전라도 출신 유생들 1천 여 명이 준비에 가담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1906년 6월 11일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를 급히 파견하였다. 1천명 이상의 의병부대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은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임병찬이 명문거족 출신이 아닌 향리 출신이어서 전남 장성에서 의병봉기를 계획 중이던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기우만이 최익현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도는 『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 임병찬을 '용'에 비유하였다. "공은 한 번 변하여 향리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군수가 되고, 세 번 변하여 학자가 되고, 네 번 변하여 의병이 되었으니 용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극찬하였다.

태인의병을 계기로 익산에서는 유생 이규홍(李圭弘)이, 임실에서는 이석용(李錫庸)이, 장수에서는 전해산(全海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무주의 문태서(文泰瑞)와 강무경(姜武景), 순창에서 양윤숙(楊允淑) 등이 일제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족독립운동 관련 인물

【생각해 보기】----------

1.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전라북도 민족대표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2. 왜 민족대표가 '33인'일까요?
3. 김제 출신 아나키스트 정현섭(鄭賢燮)의 항일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4.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전북인들의 독립투쟁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익산의 임규(林圭)는 3·1독립만세운동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박준승(朴準承)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문용기(文鏞祺)는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 순절(殉節)했으며, 순창의 김병로(金炳魯)는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함으로써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살려내기도 했다. 그의 변론 활동은 일제강점기 우리의 독립운동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변론은 1920년 한만 국경선에 연해있는 조선인 화전민에 대한 왜경들의 무자비한 집단학살 사건, 여운형·안창호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해외 독립

운동자에 관한 사건으로 정의부, 연통제, 광복단, 김상옥 의사 관련 사건, 정의부·광복단 사건, 3·1독립만세운동 이후의 국내 독립운동에 관한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사건, 6·10만세운동 사건, 광주학생항일운동 사건, 사회운동 관련 사건으로 원산파업과 단천노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항일운동가의 법정 변론을 통한 민족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1932년부터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광복될 때까지 13년간 은둔생활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고, 일제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그는 1948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고수하는데 힘썼다. 또한 법전 편찬위원장을 맡아 일제강점기 법령을 개폐하는 일을 손수 맡았으며, 반민특위 재판장으로 일제하의 친일파를 응징, 민족의 기상을 바로잡는데도 공헌하였다. 1957년 정년퇴임한 그는 대법원장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적 사례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인식(李仁植)이다. 그는 1901년 임피면의 만석 부호였던 이태하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보성고보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전라북도 학생대표를 맡아 독립운동 주최 측과 외국공관의 연락책임을 맡아 독립운동 중심 세력으로 활약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약관 20세의 나이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전 재산(당시 시가 8,000원/전답 246,474평/현 시가 200억 정도)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헌납하였다.

1923년에는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항일결사 '금우회'를 결성하고 월보를 발간하면서 적극 활동하던 중 일경에 발각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6·10만세운동 당시에는 국내에 잠입하여 정보수집, 군자금 조달 등 암약활동을 하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투사로서 조국광복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 해방 후 귀국하여 육영사업에 전념하기로 다짐하고 임피중학교 2대 교장에 부임, 사비를 들여가며 후진을 양성하였다. 학교는 일제강점기 이엽사(후타바) 농장이 있었던 자리였다. 1962년 건국 공로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전북교육위원으로 재직하다 1963년 작고하였다. 독립운동가로서 시대의 선구자요, 헌신적 교육자로서 삶을 살다 간 것이다. 2005년 군산 월명공원에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애국지사 이인식 선생 추모문집 중에서/2014)

*나에게 상속된 땅을 팔아 빼앗긴 나라를 찾는데 투자하여 나라를 찾았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이 한 몸 바쳐 민족이 살고 나라를 찾는다면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그가 남긴 말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류는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백정기 의사는 이봉창·윤봉길과 함께 '3의사'로 불리는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나키스트를 공산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33년 3월 백의사는 이강훈·원심창·유기문·이용준·진수방·전화민 등과 규합하여 상해해방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3월 상하이 훙커우[虹口]에서 정현섭, 원심창, 이강훈 등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중국 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육삼정(六三亭)에서 체포되었다. 아리요시가 획책한 음모는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고 중국 정부의 반만주국, 항일자세를 회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항일군의 저항을 중지시키며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장개석 쪽 진영의 국민당 부패분자들에게 회유자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흑색공포단(BTP)의 동지들이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정현섭은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중한청년연합회'를 결성하는 한편 「항쟁시보」를 발간하여 한중 양국민의 공동투쟁을 도모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한중합동유격대와 전시공작대를 조직하여 일본군 수송로 파괴, 연합군 포로 구출, 일군 내 한인학도병 탈출공작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소위 '학도병'으로 일군에 가담하였던 한국 청년의 귀순공작을 전개하여 그 수가 천 여 명에 달하였다. 이후에는 광복군 현지 책임자로 주중 미 공군에 미·영 포로수용소의 소재지를 확인, 보고하는 등 정보활동에 기여하였다.

학문과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

【생각해 보기】----------

1. 유학자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2.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학 이기(李沂)는 석정 이정직(李定稷), 매천 황현(黃玹)과 함께 호남 3절로 불린다. 그는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호남학보」를 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계몽운동에 진력하

면서 을사오적 암살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실패하자 이기는 국운을 비관하여 식음을 끊은 지 10여 일만에 순국하였다. 석정이 쓴 매천의 『서실기(書室記)』에 "석정이 있으므로 매천이 있고 매천이 있음으로써 석정이 있고 해학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을 일컬어 호남의 3절이라 한 것인데 자신들도 호남의 3재라는 것을 자긍(自矜)한 기록도 있다. 매천 또한 "근세에 있어 학자를 논한다면 석정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석정은 시문을 비롯하여 역학, 음양, 복술, 산학, 율려, 의학 등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중에서도 시문에서는 중국의 우수한 학자들까지도 경탄할 정도였으며 서구 학문에도 관심이 깊어 칸트나 베이컨 철학을 깊이 연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김제지역에 형성된 서예 인맥은 바로 석정의 고매한 인격과 학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의 제자로 조주승과 송기면, 강동희가 있다. 이들은 전북의 서화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전북의 문인화는 주로 석정으로부터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간재 전우(田愚)는 조선의 마지막 성리학자로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본 세력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학자였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 당하자 간재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공자의 말에 따라 군산 앞에 있는 왕등도, 신시도 등지에 은둔했다가 1912년 72세의 나이로 부안 계화도(界火島)에 정착, 계화도(繼華島)로 개명하고 10년간 계양서원에서 거처하였다. 그는 전통 유학을 계승하고 중흥시키는 길 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 여겼다.

정인승(鄭寅承)은 일제의 악랄한 언어말살정책에 항거하여 한글을 보전 발전시켰던 이 땅의 대표적인 국어학자이자 애국지사다. 고창고등보통학교에서 10여 년 간 조선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글을 비롯한 국학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양태승(梁泰承)은 항일 민족교육의 요람인 고창고보를 민족사학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1930년대에는 무등양말 공장을 설립하여 민족기업의 기틀을 다지기도 하였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민족운동

【생각해 보기】----------

1.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2. 일제강점기 올곧은 저항정신을 지켰던 문학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근현대 전북 서화의 흐름은 창암 이삼만(李三晩/1770~1847)을 비롯한 그의 제자

서홍순 4대가와 동초 김석곤(金晳坤/암각서)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서맥, 석정 이정직(李定稷)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설송(雪松) 최규상(崔圭祥)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서맥으로 대별된다.

그 외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를 비롯 해강(海岡) 김규진(金奎鎭)의 영향을 받은 임실의 전학순, 고창의 김정회(金正會)와 김돈희(金敦熙)의 영향을 받은 김진민(金鎭珉) 등 크게 3부류로 분류된다.

송기면은 국권이 피탈되던 해에 스승인 석정이 세상을 떠나자 향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독학으로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의 학문과 서화의 맥은 아들 수용과 성용으로 이어졌고 다시 그의 손자 하영, 하경으로 이어졌다. 특히 송성용은 광복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전국에 명성을 얻었고 '연묵회'를 창설하여 전국에서 서화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장손자인 송하영의 제자들로 구성된 '묵지회'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규상 역시 이정직의 문인으로 5체에 능했으며 전각(篆刻)의 대가인 김태석(金台錫)으로부터 전각을 사사하였다. 나라가 강제로 병합되던 해에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인 군산 측량학교를 졸업하였다. 잠시 김제군청에서 근무했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글씨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그가 이광열, 김희순과 같이 창립한 '한묵회'는 도내 서예학원의 효시였다. 업적에 비해 그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광열은 군청서기로 근무하다가 1910년 공직을 그만두고 함육학교(涵育學校/현 다가공원에 있었던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전주제2보통학교(현 완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한 뒤 전라북도 학무위원으로 위촉되어 교육진흥에 이바지하였다. 1935년 『전주부사』를 편찬하여 후세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으며 그 후 전주향교의 전교와 전주기령당 당장, 천양정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왜정과 맞서 투쟁하여 천양정을 지켜낸 전주문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추앙받았다. 벽하 조주승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어진화가였던 채용신은 아들 상묵(3남), 손자 규영에 이르는 3대가 동시에 초상화가로 활동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은 초상화만 70점이 넘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조와 고종어진, 최치원상, 최익현, 전우, 김석곤, 박만환, 김관, 김직술, 장태수 초상이 있다. 이와 같이 우국지사나 유림들의 초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은 1904년 정산(지금의 청양)군수에 임명되면서 여기에서 최익현을 만나 그의 인격과 충절에 탄복하여 그

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부터였다. 1923년(73세)에는 그의 아들이 살고 있는 정읍 태인 장군리(육리)로 이주하여 194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곳에서 미술활동을 하였다. 그가 그린 우국지사들의 초상화는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화폭에 담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운낭자상, 칠광도, 송정십현도, 투수순절도, 삼국지연의, 대한제국동가도 등이 있다. 칠광도는 광해군대의 정치적 상황을 피하여 낙향해서 지낸 일곱 인물을 묘사한 것이다. 거침없는 몸짓이며 갓을 쓰거나 유복을 입거나 상투를 드러낸 모습은 채용신이 이들 인물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광도와 송정십현도, 투수순절도, 김직술의 초상화는 국권을 상실하던 해인 1910년에 정읍 칠보면 무성리의 항일지사였던 김직술(金直術)의 집에 머물면서 그린 것이다.

한편 시인이었던 신석정은 일제강점기에도 친일시를 쓰지 않았으며 창씨개명도 하지 않은 지조높은 시인이었다. 현대시조의 선구자 이병기는 시조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대표 문예지인 『문장』을 이끌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는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1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종교와 사상을 통한 민족운동

【생각해 보기】----------

1. 수운 최제우와 증산 강일순이 주장하는 '개벽'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종교'의 개념과 '신종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증산교의 교조는 강일순이다. 호가 증산이었으므로 강증산 또는 '강삿갓'으로도 불렀다. 본관이 진주, 본명은 흥주, 휘자는 일순이며 1871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시루봉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 속칭 '손바래기'로 알려진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강증산 성지 푯말이 세워져 있다. 탄생지에는 '강증산 상제하강지'(姜甑山 上帝下降地)라 쓰여 있고 방안에는 태을주(吽哆吽哆太乙天上元君吽哩哆耶都來吽哩喊哩娑婆訶)가 걸려 있다.

그가 태어난 지역은 당시 관리의 탐학과 착취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창시자가 이러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했다는 사실은 증산교의 사상에 당시 사회현상에 대한 고발과 민중의 생존권 문제가 강하게 내포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증산은 한때(24세) 동학에도 뜻을 두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는데 공주까지 행군한 일도 있었다 하나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그 해 겨울 동학군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망동치 말라고 효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산은 30세까지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한 결과 유·불·선을 토대로 한 '흠치교'라는 종교를 창시했다. 증산교는 그의 사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는 1901년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도를 닦아 드디어 우주의 조화 본능을 뜻대로 하게 되어 상제의 권능을 얻었다. 이후 '옥황상제'로 칭하고 기행이적이 많았다.

증산사상의 핵심은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천지공사란 옥황상제의 권능으로 천·지·인 3계를 모순된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즉 천지운행 도수를 자기 손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동곡약방'(東谷藥房)도 이 같은 천지공사의 실현을 위해 세운 것이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숱한 예언과 치병의 기적을 보여 주었다. 『대순전경』 치병조에는 앉은뱅이를 걷게 함은 물론이고 치질, 횟배, 폐병, 안질, 설사, 소한두통, 장병(長病), 급증 등 무려 60여 가지의 치병 사례가 나와 있다.

천지공사는 구체적으로 운도공사(運度公事), 신명공사(神明公事), 인도공사(人道公事)를 말하는 것으로 운도공사는 자연의 운행법칙을 바로잡는 것이며, 신명공사는 종교를 비롯한 정신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인도공사는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운도공사는 다시 액운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 지운공사로 나누어진다. 액운공사란 선·후천이 바꾸어지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재난과 액운을 모면하기 위한 공사다. 세운공사는 세계의 운도를 조정하여 상극투쟁에 빠진 인류를 '상생상화'하는 도로 대동단결케 하는 것이며, 교운공사는 자신의 교리를 펴고 발전시키는 공사를 의미한다. 지운공사는 각 민족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세계가 어지러운 것은 각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공사를 말한다.

증산사상의 핵심은 '해원상생'(解寃相生)이다. 5만년 선천시대의 원한을 각자 풀고 서로 함께 살며 생명을 건지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지역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내세운 '생명사상'이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증산사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철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불교, 도교, 유교, 주역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증산이 제시한 사상은 전 지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정신사적·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증산은 천지공사를 행하던 1907년 어느 날 우연히 금구면 거야 주막에서 차경석(車京石)을 만나 입암면 대흥리로 오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증산은 차경석의 이종사촌 누이인 고씨 부인(본명 고판례)과 결혼하였다. 증산은 차경석에게 도를 전한 다음 1909년 전주로 이거했으나 그의 나이 39살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바로 이 해가 보천교의 창교 기원일이다. 강증산이 김제군 금산면 동곡리에서 39세로 요절한 다음 당시 문하의 신도들이 각기 분파하여 수많은 교파를 낳게 되었다.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파는 보천교와 금산사 경내 18단체를 비롯, 한때 80여개를 헤아렸으나 현재는 60여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보천교와 대순진리회가 대표적인 교파이며 이외에 선도교, 미륵교, 태극교, 태을교, 삼덕교, 무극도교, 대법사 등이 삼남지방에 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산 사후 자칭 '600만' 교도를 자랑할 만큼 증산교계 종단 가운데 가장 교세가 컸던 종교가 바로 보천교였다. 보천교는 1909년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된 신종교로 한국종교 사상 유례없는 극적인 흥망을 보여준 종교다. 그 극적인 과정이 불과 10년 안에 일어났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직후에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여 1923년에는 수십만의 신도를 가진 사실상 한국 제일의 종교로 우뚝 일어선 것이다. 보천교는 교세가 확장되자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으며, 언론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1923년 10월 월간지 『보광』(普光)을 창간하고 출판사 보광사를 설립했다. 이어서 당시 최남선이 사장으로 있던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인수했다. 보천교가 말썽 많던 시대일보를 인수하게 된 것은 보천교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던 동아일보와 맞서기 위해서였다. 또 보천교에서는 자급자족을 위해 입암면 대흥리에 직물공장과 염색공장을 세웠으며, 갓공장, 농기계공장도 세웠다. 대중문화운동으로 100여 명으로 편성되는 대규모의 '보천교농악단'을 조직하여 풍물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날 정읍농악이다. 1924년에는 보천교 내에 '기산조합'(己産組合)을 조직하여 수공업을 통한 산업진흥을 도모했다. 한편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보천교 청년단'을 조직하고 여성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보흥여자사립수학'을 설립했으며 '보천교 소년회'를 조직하는 등 신교육과 소년운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밖에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은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중을 일거에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자등극설은 비록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민중의 정치운동이요, 조직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려는 현실정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천교는 1924년 '시국대동단(時國大同團/1924.1.6.~1925.6.11.)'을 결성함으로써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 정책에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을 갖게 되었고, 민족종교인지, 사이비종교인지 갸웃하던 일반의 인식에 보천교는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굳히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로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 세간에서는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받던 보천교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

【표-1】「조선일보」(1920~1940) 항일기사 색인(한국독립운동사전편찬위원/안후상)

종교별	건수	종교별	건수
기독교	23	**보 천 교**	**147**
천주교	2	청 림 교	17
불 교	18	종교일반	6
유 교	15	기타종교	11
천도교	32	**총**	**271**

【표-2】 국가기록원 검색 결과(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부이사장/안후상)

보천교	차경석	선도교	태을교	우치교	강증산	**총**	혐의
74	256	36	123	303	27	**819**	조선독립/독립자금 염출

이와 같이 친일과 항일의 양면성을 띤 보천교 운동은 근대적 민족의식이 없었고 조선총독부와 도시 지식인들의 협공으로 인한 노선의 혼선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보천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 하에서도 기구를 조직하고 웅대한 교전을 축조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건물 일체가 모두 해체되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인 십일전

(十一殿)은 현재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 건물로 이축되어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정문인 보화문(普化門)은 내장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었으나 201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일부는 일제가 민족의식을 가진 보천교를 탄압하면서 건물을 장작으로 뜯어서 팔기도 했다.

교리는 인의(仁義)이며 4대 강령이 경천(敬天/일심으로 공경하여 천은에 보답함)·명덕(明德/착한 일을 행하며 스스로 자기의 덕을 밝힘)·정륜(正倫/인도를 바로잡고 행함)·애인(愛人/내 몸을 아끼듯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다. 상생(相生)이 주의이며, 전 세계가 대동단결하여 평화·공존· 공영의 세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대동(大同)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주제(Theme/Subject) 접근방법'으로 별도의 시간과 학습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서는 통사 학습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는 '분산적 접근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강의식 수업으로 역사적 탐구능력 신장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지역사나 지역문화를 역사과에서만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과에서는 구전이나 민속을, 지리과에서는 지리와 경관변화를, 음악과에서는 줄풍류와 농악을, 미술과는 어진화가였던 채용신(蔡龍臣)을, 윤리과에서는 지역의 성씨(토반)나 인물유적 등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교과와 연계시키는 '종합적 접근방법'이 있으나 이것 역시 교사들의 의지부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를 한국사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제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역사에 싫증이 나는 과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정리하라'는 식의 과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는 학생들에게 책을 쓰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 MT, 축제와 같은 특별활동과 교지편찬 등에서 지역사 교육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 학습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 현장학습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찰에 갔다고 하자. 어떤 순서로 볼 것인가. 조별로 편성할 것인가. 설명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각 건축물의 기능은 무엇인가. 각각의 시설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등등 현장답사의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건축물이나 탑의 부분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애향심과 열정이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다.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저항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전북인의 무형의 자산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다. 만약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 是無國家/1593.7.16.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호남인들의 충절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가와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전북은 예로부터 곡창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이로 인해 무던히도 뺏기고 억압당하는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의연히 이겨낸 역사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은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패자의 편에 섰고, 따라서 호남은 항상 패배의식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 서 구국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 그리하여 호남은 영원한 정의와 충절, 불의에 대한 저항의 표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전북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60갑자(六甲)의 활용과 음양오행설을 활용한 역사학습

【생각해 보기】----------

1. 10간과 12지에 대해 알아보고, 순서대로 써 봅시다.
2. 오전과 오후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3. 자신이 태어난 해를 간지(干支)로 알아봅시다.
4. 을미년인 지난해 2015년은 '푸른 양의 해'였습니다. 병신년(丙申年)인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하는데, 정유년(丁酉年)인 내년은 무슨 해가 될까요?
5. 오행상극은 목극토-토극수-수극화-화극금-금극목입니다. 상극과 거꾸로 도는 오행상생은 무엇일까요?

간지(干支)는 우리의 훌륭한 과학적 전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기를 전후하여 간지가 사용되었다. 그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간지는 중국이나 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연·월·일·시나 방위, 나아가서는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데도 이용되었다. 또한 음양오행설 등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점술이나 주술에도 응용되었다. 10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12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이며 간은 '줄기', 지는 '가지'의 뜻이다.

10간과 12지 개개 문자의 의미는 잘 알 수 없으나, 모두 식물이 계절의 추이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모양을 나타냈다는 설이 있다. 12지 동물의 배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동물의 발가락 수(홀·짝수 교차 배열)나 그 시간에 활동하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정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간지로 날짜와 달, 햇수의 흘러가는 순서를 표시하게 된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양에서 10진법과 12진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12지는 앞 글자인 10간과 결합해야만 그 해의 간지표현이 된다. 즉 앞 글자는 10년에 한번 씩, 뒷 글자는 12년에 한번 씩 찾아오기 때문에 똑같은 간지가 찾아오려면 60년이 걸리게 된다. 2천년 남짓 전부터 동양 사람들은 긴 시간을 셈하기 위해서는 이런 60년 주기를 쓰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터득하여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 사람의 수명도 대략 이 정도이고 보면 이래저래 편리한 길이의 시간인 것이 분명했다. 예를 들어 무진년에 태어

난 사람은 꼭 60년을 살아야 다시 같은 무진년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옛 사람들에게는 60년 주기를 다시 맞는다는 사실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간지는 갑자(甲子)·을축(乙丑)·병인(丙寅)·정묘(丁卯) 등의 순서로 배열된다. 또한 연·월·일에 붙여서 사용되는데, 60회가 되면 다시 갑자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갑(一甲)·회갑(回甲) 또는 주갑(周甲)이라고 한다. 같은 간지의 해를 다시 맞이한다.'는 환갑이란 말이 여기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2014년이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의 이치를 담은 천간(天干)과 땅의 이치를 담은 지지(地支)를 조합하여 연·월·일·시를 표시했다. 올해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으로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12지는 중국 하왕조(B.C 21~16)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12지 중 자(子)는 쥐, 축(丑)은 소, 인(寅)은 호랑이, 묘(卯)는 토끼, 진(辰)은 용, 사(巳)는 뱀, 오(午)는 말, 미(未)는 양, 신(申)은 원숭이, 유(酉)는 닭, 술(戌)은 개, 해(亥)는 돼지를 의미한다. 천간 중 갑(甲)과 을(乙)은 파랑, 병(丙)과 정(丁)은 빨강, 무(戊)와 기(己)는 노랑, 경(庚)과 신(申)은 하양, 임(壬)과 계(癸)는 검정색을 나타낸다. 이를 조합하면 을미년(乙未年)인 지난해 2015년은 '푸른 양', 병신년(丙申年)인 올해는 '붉은 원숭이', 정유년(丁酉年)인 내년은 붉은 닭의 해가 된다.

하루의 시간을 12등분해서(12시) 12지명으로 부르는 것은 중국 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음양오행설과 결합시킨 것은 전국시대부터였다. 오늘날 십이지가 동물명의 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본래 의미에서 보면 오용(誤用)이다. 십이지와 십이수가 언제부터 결합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호북성(胡北省) 운몽수호지(雲夢睡虎地)에서 출토된 죽간(竹間/전국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일서(日書)』에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동물명이 십이지에 해당되어 있다.

*** 열두 띠 민속**

-쥐(다복과 다산의 상징/화산이나 지진,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 예고해주는 영물)
-소(부와 풍요의 근본/희생(犧牲)의 상징/가족으로 인식)
-소(먹고 노는 개 팔자와 달리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사는 고된 팔자)

-호랑이(권선징악과 벽사(辟邪)의 주재자/용맹함의 표상/사주에서 팔자가 좋은 축)
-토끼(순결함과 평화로운 이미지/토끼 꿈은 승진 의미)
-용(기린·거북·봉황과 함께 4령(靈/)호국과 제왕의 상징
-용꿈은 상서로운 것의 상징/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뱀(학문에 열중하면 길하다/성질은 차분하고 이지적이지만 독단적인 기질) *지혜?
-말(튼튼한 육체와 활기 넘치는 정력의 화신/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는 존재)
-말(우두머리요, 지도자요, 선구자를 상징함/신의(信義)의 상징/나라 사이의 공물)
-말(흉년에도 굶는 법이 없으며, 언행이 건실하여 주위의 호감을 얻는다)
-양(평화와 유토피아의 상징/착하고 순한 이미지/미상선(美祥善) 뜻과 상통)
-원숭이(궁궐 등 목조건축의 추녀마루에 길상(吉祥)과 벽사(辟邪)로 장식)
-원숭이(흰 원숭이 꿈은 승진을 의미함)
-닭(길조/5덕:볏은 문(文)/발은 무(武)와 용(勇)/자식에게 먹이는 인(仁)
-닭(시간 알려주는 신(信)
-개(영물스런 동물·귀소성·충복/12지 동물 가운데 호랑이 다음 가는 맹수)
-돼지(돼지꿈은 길몽/부와 건강을 주는 동물로 인식/복록(福祿)을 상징)

***원숭이띠를 '잔나비띠'로 부르는 이유**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3~4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으며 6~7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한다. 재주가 많고 영리해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며, 부부간의 정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사람 못지않다. 이와 같이 원숭이는 꾀가 많고 재주 있으며 흉내 잘 내는 장난꾸러기나 모성애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설화에서는 원숭이의 재주나 잔꾀의 과신(過信)을 경계하는 내용이 많고 너무 사람을 닮은 모습, 간사스러운 흉내 때문에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하기도 한다. 띠를 말할 때 원숭이띠라 하지 않고 '잔나비띠'로 표현하는 것은 이 같은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라는 단어는 18세기경부터 사용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에는 '납'으로 쓰여 있다. 여기에 동작이 날쌔고 빠르다는 뜻의 '재다'가 붙고 음운의 변화를 거치면서 '잔나비'로 바뀐 것이다(이찬욱,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1999).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이다. 조선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들여왔을 거란 가설이 있다. 그러나 선사시대 유적에서 원숭이 뼈가 발굴되

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한때 원숭이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남 상원군 검은모루 동굴과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 제천 점말 동굴 등에서 원숭이 뼈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단장(斷腸)의 애끊는 슬픔의 유래, 원숭이**

중국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환온이 초(楚)나라를 치기 위해 베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심협을 통과할 때였다. 환온의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배에 실었다. 어미 원숭이는 뒤따라왔으나 물 때문에 배에 오르지 못하고 강가에서 울부짖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의 험난한 벼랑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다. 배는 백리쯤 나아간 뒤 강기슭에 닿았다. 어미 원숭이는 서슴없이 배에 뛰어올랐으나 그대로 죽고 말았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이를 들은 환공은 대단히 화를 내며,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던 부하를 파면시키도록 명하였다(유의경, 『세설신어(世說新語)』, 동서문화사, 2011).

*** <u>역사 공부에 간지를 활용하는 방법</u>**

우리의 역사용어는 간지를 붙이는 용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자사화, 갑신정변 또는 갑오개혁이니 하여 역사적인 사건에는 앞에 간지를 붙여왔다. 여기서 갑자사화는 1504년이고, 갑신정변은 1884년, 갑오개혁은 1894년이니 '갑'으로 시작되는 연대는 반드시 4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 을미사변은 1896년이니 '을'자로 시작하는 해는 반드시 5년으로 끝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면 자신의 출생년의 간지도 금방 계산해 낼 수 있다. 자기 출생년과 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 그것 둘 만으로 자기 출생년 간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1970년생으로 개띠라는 것을 안다면 개띠를 결정해주는 글자는 간지의 둘째 글자로 '술'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글자 '0'은 10간의 '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출생년은 금방 '경술'임을 계산할 수 있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란 무엇인가?

음양오행사상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원리로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인의 음양관은 모든 사물을 대립으로 보지 않고 포용적 조화관계로 인식하는 이원적일원론(二元的一元論)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음양이 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태극(太極)은 한국인이 예로부터 건물, 가구, 일상용품에 애용하는 문양이다. 그것은 전통시대에 있어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깃발에 들어갔고, 오늘날에도 한국의 국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행은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두 원리 속에서 우주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한다는 이론이지만, 한국인은 투쟁적인 상극보다 평화적인 상생의 측면을 선호한다. 이 점은 상극의 측면을 선호하는 중국인과 다르다. 한국인은 왕조교체도 상생의 논리로 이해하여 신라는 금(金), 고려는 수(水), 조선은 목(木)의 왕조로 자임하고 각 왕조는 이를 상징하는 9,6,8의 숫자를 선호하였다. 신라가 전국을 9주로, 고려가 전국을 6도[5도양계]로, 조선이 전국을 8도로 나눈 것은 이러한 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다. 오행을 도덕(인·의·예·지·신), 방위(동·서·남·북·중), 빛깔(청·백·적·흑·황), 짐승(청룡·백호·주작·현무·황룡), 오장(간장·폐장·심장·신장·비장)과 관련시켜 받아들이는 자세도 매우 진지했다. 조선왕조 수도인 한양의 4대문[興仁門·敦義門·崇禮門·弘智門]과 중앙의 종각[普信閣]을 오행의 오덕과 관련지어 이름 지은 것도 인상적이다. 훈민정음의 다섯 자음도 오행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달력의 일주일도 신기하게 음양오행사상과 일치한다. 음양오행에서 양과 음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해는 뜨거워서 양의 기운으로, 달은 차가워서 음의 기운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음양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이는 태양이다. 둘째 날은 월요일, 이는 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화·수·목·금·토는 각각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의 다섯 개 별을 나타낸다. 곧 일주일을 구성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늘에 있는 일곱 개 별의 이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일곱 개 별을 일주일의 지표로 사용하게 된 것은, 고대인들이 하늘의 변화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고 믿고 별에 제사를 지낸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제사의 대상은 날마다 바뀌었는데, 첫째 날은 태양에 대하여, 둘째 날은 달에 대하여, 다음으로 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 순서로 제사를 지내다가 일곱째 날이 지나면 다시 태양부터

그 순서를 반복했다고 한다,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적 기초,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삼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데리고 가는 먼 길을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해서 밥 세 그릇과 신발 세 개를 문 밖에 두어 공양했다. 삼신은 이렇듯 생명체를 이루고 분해하는 조화의 힘을 갖고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이다. 삼태극 문양은 신라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한국의 각종 고건축물, 특히 연못 형태에는 대부분 삼신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경복궁 경회루, 남원 광한루, 경주 안압지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 개의 인공 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숫자는 삼신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이라고 하여 삼신산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는 신선사상과도 관련된다.

경회루는 경복궁 내부에서 가장 큰 건물 가운데 하나다. 건물의 구성기법을 보면 삼신사상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세 개의 섬을 만들어 그 섬 위에 높이 누(樓)를 올린 것은 삼신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태일(太一), 작은 섬 두 개는 천일(天一)과 지일(地一) 을 뜻한다. 경회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세 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삼신이 출입하려면 길이 세 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삼신사상이 나타난 또 하나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마리산(마니산) 참성단을 들 수 있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개구부(開口部)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삼신이 출입하는 곳이다.

오제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 옷을 입고 있어 청제(靑帝)라고도 하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쪽에 있는 신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주제(朱帝) 또는 적제(赤帝)라고도 한다.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백제(白帝)라고 한다. 백제는 주제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확산기운을 정지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북쪽에 위치한 신을 현제(玄帝)라고 한다.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중앙에 있는 신이 황제(黃帝)다. 황제의 기

운은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넷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 된다.

* '3'은 전 세계적인 절대수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은 완성, 최고, 최대, 신성, 장기성, 종합성 따위로 인식되고 있으니 우리만 3을 중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이문트 뮐러는 1903년 논문에서 설화와 문학, 그리고 미술에 나타난 3이라는 수의 중요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는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 3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물과 공기와 흙을 보고 세 가지 형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체의 세 가지 상태(고체·액체·기체)와 피조물의 세 가지 집단(과일·식물·동물)을 발견했다. 인간은 식물에서는 뿌리와 줄기와 꽃을, 과실에서는 껍질과 과육과 씨앗을 밝혀냈다. 또한 태양은 아침, 정오, 저녁에 각각 다른 모습을 갖는다고 여겼다. 실제로 모든 경험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라는 공간 좌표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3차원이다. 일체의 삶은 생성과 존재와 소멸로 표상될 수 있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라는 세 국면으로 진행되며, 완전한 전체는 정립과 반정립, 그리고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색채의 혼합은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문화권에 편입되면서 한문식의 3개념이 강화되었다.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삼강오륜, 삼강행실도, 삼일장, 삼배(三拜), 삼색실과 등이 그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를 풀어서 '一'과 '二'를 합한 것을 '三'으로 보았다. '三'을 거꾸로 세우면 '川(泉)'이 되어 '셋'과 '샘'은 어원이 같고 무궁무진함을 뜻하기도 한다. 문자가 생성되던 상고시대부터 3은 늘 '완벽의 상징'이었다.

그렇다고 3이 저 홀로 쓰이는 것만도 아니었다. 삼현육각·삼정승 육판서처럼 3의 배수인 6이 결합하여 강조되기도 한다. 무언가 잘못을 하고서 부지런히 도망을 칠 때 우리는 '36육계' 줄행랑을 친다고 말한다. 3이 열 두 번이나 반복되었으니 대단한 속도감을 뜻한다. 하루에도 마음이 열 두 번 변한다고 한다. 여기서 열 두 번은 대단히 많다는 속뜻을 지니고 있다.

반복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든다. 우리는 늘 홀수가 두 번 겹친 것을 선호했다. 1월 1일의 설날은 말할 것도 없고, 3월 3일의 삼짇날, 5월 5일의 단오, 7월 7일의 칠

석, 9월 9일의 중구절을 중시했다. 3은 양수이고 길한 숫자인 탓으로 양수가 겹쳐진 삼월삼짇날 따위를 길일로 친 것도 반복의 원리다. 삼월삼짇날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며 냇가의 버들강아지가 눈을 트고 모처럼 기지개를 펴게 되는 길일이다. 중국 사람들 최대 명절인 9·9절도 바로 3·3이 반복된 결과다. 이 날은 양기가 그득하여 천지만물이 힘을 얻게 된다고 믿어왔다.

3을 좋아하는 수 관념은 짝수보다도 홀수를 선호했던 수 관념과도 관계있다. 우스갯소리로 술집에서 맥주를 시킬 때 1·3·5·7·9를 고집하는 것도 이러한 수관념이 무의식 중에 나타난 것이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설의 결합

풍수지리설이란 원래 '병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언제 출병할 것인가? 혹은 어디에 병사를 둘 것인가? 어느 쪽으로 적을 맞아 싸울 것인가? 하는 등의 물음에서 하늘을 살펴보는 '풍수설'과 지세를 살펴서 예단하는 '지리설'로 나타나서 이것이 과학적 방법의 병법으로 이용되었다. 전국시대가 끝나고 차츰 전쟁이 사라지자 이것이 집터를 보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하늘을 보는 풍수설과 지세를 살피는 지리설이 합쳐져서 하나의 학설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명이 불가능한 신앙적 요소가 있으므로 설(說)에 그치고 있지 논(論)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쨌든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면 현대적으로는 '생태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에 맞추어서 자연친화적인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을은 들판이 가까운 산골에 자리잡아야 하고 뒷산은 깊어야 하며 앞산은 빼어나야 한다. 마을 주위로 개울이 감싸 돌면 재물이 있고 동구는 팔로 껴안듯 허하지 않고 째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자급자족의 봉건주의 시대에는 대단히 방어적이면서 먹을거리가 풍족한 곳이면 좋다는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인간도 하나의 자연으로서 주변의 환경에 감응한다는 것이다. 앞은 트여서 아름답고 뒤는 든든해서 조상처럼 기댈만한 듬직한 산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용적이다.

풍수는 천문학으로부터, 지리는 지리학으로부터 연유하지만 풍수지리설 전체는 병법에서 많이 활용하던 방식을 집터 잡는 법에 활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집터 잡는 법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풍수지리설이 적용되기는 통일신라말의 선종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다.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풍수지리설을 믿지 않았지만 주기론자가 성행하던 중기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풍수 발생 초기에는 음양오행설과 결부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이것이 하나의 지리사상으로 확립된 이후에는 음양오행설이 가장 큰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풍수술법에 쓰이는 용어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음양가 중에는 전국시대 제나라 추연(鄒衍/BC.305~240)이 유명하지만 사상이 정비된 것은 대체로 전국시대 말기의 상반(相反)과 응합(應合)의 논리가 나타났을 때로 보아야 한다. 상반은 곧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립이고 응합이란 그 상반이 단지 반증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상호의존 관계에 있고 상호의존에 의하여 비로소 차례차례 전개된다는 것으로 음과 양은 두 개의 극이나 이 극의 상호의존에 따라 작용과 전개가 있다는 설이다.

한대에 음양가로는 동중서(董仲舒/BC.176~104)가 가장 유명한데 그는 상반응합의 이론은 물론 천지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음양설에 의하여 술(術)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그의 천인상관설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이질적인 것을 피하고 서로 동류 속에서 상대를 택한다고 한다. 선행하는 것이 없이 생기는 것이 없고, 선행하는 것에 따라 응답하는 것은 같은 카테고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대한 군주가 나오면 길조가 나타나고, 군주가 망하게 되면 흉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오행설의 기초는 『서경(書經)』의 홍범편에 있는데 홍범구주(洪範九疇/범주의 기원이 되는 말/category)의 차례는 수·화·목·금·토로 되어 있다. 오행의 성격에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민용오재(民用五材)라 하여 고대인의 생활소재를 들어 오행이라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따라서 오재의 배열도 사람의 생명의 지속에 가장 직접적인 수·화로 시작하여 다음에 생활자재로 목·금에 이르고 최후로 일체의 소재의 기본이 되는 토가 제시되었다. 원래 오(五)를 근본으로 하는 사상은 다만 오행뿐만 아니라 오색, 오미, 오성, 오음 등 사물을 생각하는 여러 방면에 이용되고 있었고, 이 원리화된 오행조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예기의 월령(月令)이라 할 수 있다.

오행(五行)의 기운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중력'이라고 한다. 오행 가운데 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물은 마치 겨울의 기운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는 다음 기간까지 생명력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목(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다. 목의 기운은 물리학상 '원심력'에 해당한다. 목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봄에는 모든 생명체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생명력'이 바로 목에 해당한다.

화(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열 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확산하려는 현상이다.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금(金)이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기운 때문에 움츠러든다. 중심점으로 향해 움츠러드는 현상이 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구심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은 가을의 기운에 해당한다.

토(土)는 수·화·목·금의 기운을 골고루 갖고 있는 기운이다. 토는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네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토는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

그래서 봄에는 싹을, 여름에는 줄기를, 가을에는 열매를, 겨울에는 뿌리나 종자에 해당하는 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철음식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철(계절)을 알 까닭이 없다. 철부지(不知)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방위(方位)와 수

『주역』의 하도(河圖)를 기초로 해서 방위를 숫자로도 구분할 수 있다. 오행은 각각 수를 지니고 있다. 물은 1과 6, 불은 2와 7, 나무는 3과 8, 쇠는 4와 9, 흙은 5와 10을 나타낸다. 이것은 주역의 생수(生數)와 성수(成數)구분에 근거한다. 생수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수 다섯 개를 말하며 성수는 다섯 기운 각각에 땅의 기운 5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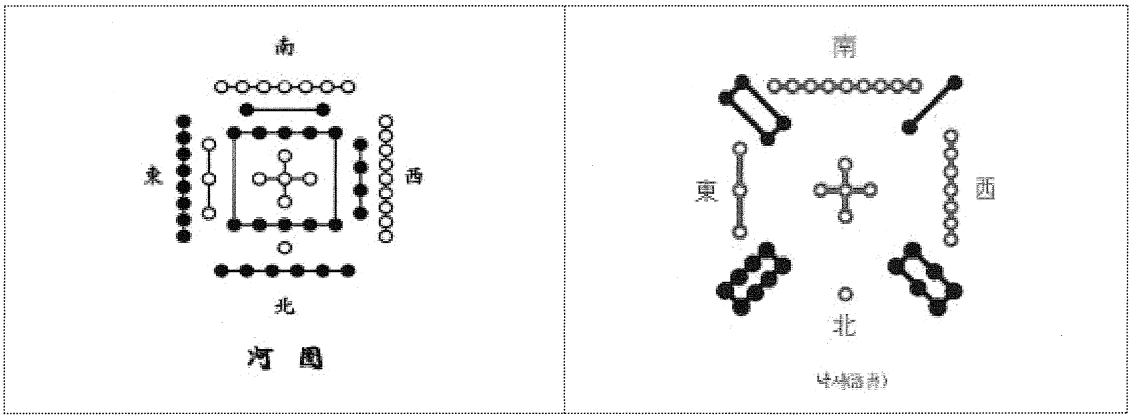
한 숫자를 말한다. 곧 물의 기운에 대한 생수는 1이고, 성수는 6, 나무의 생수는 3이고 성수는 8, 금의 생수는 4이고 성수는 9, 토의 생수는 5이고 성수는 10이다. 생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수이며, 성수는 고유한 성질이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5와 결합해서 발생된 수를 말한다.

실례를 보면, 물의 기운은 1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졌지만 그 형태는 6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물 분자가 6각형을 이루는 것과 눈이 6각형을 하고 있는 것은 물의 성질이 그 분자나 결정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주역의 기본 이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중국 고대 복희(伏羲)씨 때 하수〔黃河〕에서 용마(龍馬)가 가지고 나왔다는 55개의 점으로 된 그림이 하도이다. 천지와 만물의 본성을 근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도는 낙서와 함께 주역의 기본 이치가 된 그림이며, 도서관의 유래가 되었다. 낙서는 하도와 음양이 되는 것으로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낙서에서 구한 거북 등에 쓰여 있었다는 45개의 점으로 된 9개의 무늬를 말한다. 8괘와 홍범구주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홍범 9주는 우임금이 정한 정치와 도덕의 9가지 원칙을 말하며 범주의 유래가 되었다. 낙서는 상극이며 거꾸로 도는 것이 상생이다.

하도(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와 낙서(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



낙서는 마방진(魔方陣)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崔錫鼎)은 숙종 때 영의정이었다. 천문학에 조예가 깊고 1~81까지 숫자로 마방진을 만들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369가 되게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피셔(1890~1962)가 4까지 숫자를 이용한 마방진을 만든 것이 시초이다.

한글과 한자의 어원을 활용한 재미있는 교과학습 방법

【생각해 보기】----------

1. 왜 '한글'이 세계적인 글자일까요?.
2. 국제화시대에 외국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언어적인 사대주의인가?
3. 왜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4. 한자가 중국 문자가 아닌 우리 글자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는 한자어, 일본어, 서구 여러 나라의 말들이 뒤섞여 쓰이고 있다. 오랜 역사의 격랑 속에서 문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이 넘나든 결과로 우리말처럼 뿌리를 내려 부족한 부분의 우리말을 메워주는 구실을 한 측면도 많이 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니 우리말 갖고는 도저히 풀이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라면 외래어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뿌리박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글의 우수성

한글은 세계 6,000여 언어 가운데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그리고 '만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진 유일한 문자일 뿐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다. 한글은 집현전의 업적이 아닌 세종의 독자적인 업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문자역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로 한 개인의 연구에 의해 창제된 경우,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다.

한말 이홍장(李鴻章)은 "중국은 복잡한 한문 때문에 문맹이 많다"고 지적하고 한글을 수입하려 했다. 세계 언어학자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자"는 토론이 있었고, 펄벅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평했다. 언어학자 레어드 다이어먼드는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문맹률이 가장 낮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어의 구조(한글의 어원/음운론)

우리 말은 그 어원을 알면 그 뜻이 분명해진다. 땅이름 가운데 '붉'을 통해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산이름 중에는 '백(白)'자나 '박(朴)'자가 들어간 것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붉'에서 유래되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일명 태백산)을 비롯하여 장백산, 소백산, 백운산, 박산 등 이 계통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붉'을 한자로 옮기면 '백(白)'이 되지만 '박(朴/博)'이나 '벌(伐/罰)로도 된다. '밝은 땅'이라는 뜻의 '붉달'은 '배달(倍達)'로도 되고 '박달'로도 되었다. 지금의 새재〔鳥嶺〕가 박달재〔朴達峙〕로도 불린 것이라든가, 충주와 제천 사이의 고개에도 '박달치'라는 지명이 붙은 것이 그 예이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궁말에서 서오릉으로 넘는 고개를 '벌고개'라 하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 벌을 주었다는 전설과 달리 원래 '붉고개'이던 것이 그 이름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의 쓰임에 대한 예이다. 한의 뿌리말은 '하'이다. 그 원뜻은 '많다'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도 많다', '하고 한 날(많고 많은)' '하도(너무) 추워서' 등의 말에 남아 있다. 옛 지명이나 인명 등에는 한자로 한(韓/漢/翰/汗), 환(丸/桓), 간(干), 감(邯) 등으로 나타난다. 또 '한'이 '칸'이 되었다가 '큰'의 음에 가까이 되면서 빌려 썼을 금(今), 검(儉), 궁(弓) 등이 들어간 지명이나 인명, 관직명도 있다.

큰 강이란 뜻의 '한가람'이 변한 '한강(漢江)', '한묏골'로 추정되는 지금의 서울의 '한산(漢山)'은 '한'을 그대로 쓴 대표적인 예이며, '환도(丸都)/큰 터의 뜻)', '궁산(弓山/큰 산의 뜻)', '웅진(雄津/곰나루로 큰 내의 뜻, '나루'는 '나르'로 '내'의 뜻)' 등의 지명도 모두 크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한'이나 '큰'은 한자 지명이 보편화될 때에 대(大)자로 많이 바뀌어 대전(大田/한밭), 대도(大島/큰 섬) 등의 지명으로도 되었고, 대(大)는 대〔竹〕 음과 같기 때문에 대재(大峙/큰 고개)의 '대'를 대나무의 대로 보아 엉뚱하게 죽령(竹嶺)으로 바뀐 예도 있다.(배우리의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1권에서 요약).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처음으로 곰을 숭배하며 조상신으로 모셔

나라를 이룬 내력이 전해온다. 곰은 시대가 바뀌면서 '고마(용비어천가)'나 '구마'로 바뀌면서 소리와 뜻이 달라졌다. '고맙다(고마〔熊〕+ㅂ다〔如〕'는 이름씨 '고마(곰)'에 접미사가 붙은 것으로 조상신을 뜻하며 '어머니'를 뜻한다. 당신의 은혜가 단군왕검의 어머니인 웅녀-곰신이 낳아 길러준 은혜와 같다는 의미다. 중세어에는 '고맙다'가 아끼다, 공경하다, 높인다는 말로 두루 쓰였다.

곰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고 '신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백남운이 지은 『조선사회경제사(朝鮮社會經濟史)』의 지적처럼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곰이란 아주 중요한 먹거리요 옷감의 원천이며 뼈로 만든 무기생산의 보고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곰을 떠받들 만도 하다. 끝없이 주는 원천을 곰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삶의 가능성이 견고해졌을 것이다, 사투리말로 보면 어머니는 '엄마, 옴마, 암마, 움마, 오마니, 오매, 오메, 어메, 어무이, 어매, 어망' 등으로 쓰인다. 이는 단군의 어머니인 곰(고마)의 소리가 약해져 '옴(오마), 옴마, 오매, 오메'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 '어머니'의 원형이 '곰'인 것이다.

소나무를 '솔'이라고도 한다. 풀뿌리나 털 등으로 만들어 옷이나 먼지를 터는 데 쓰는 도구 또한 '솔'이라고 한다. 이로써 바늘처럼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양을 한 물체를 바로 '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러 '솔'은 '솟'으로 쓰였다. '솔대-솟대'와 같이 쓰는 경우다. '솔-솟'은 다시 '솥(솥)'으로 이어졌다. '솟'의 끝소리 시옷이 디귿으로 소리난다. 흔히 일러 '끝소리규칙' 또는 '말음법칙'이라 한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솥'을 '솓'이라 했다. 결국 '솔'과 '솥(솓)', '솟'은 '솟았다'는 같은 뿌리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에서 요약). 그렇다면 전주 '솥튼 재'는 음식을 만드는 솥이 아닌 '솟았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필자 생각).

물의 옛말은 '미(매·메)'였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물기가 있으니 미끄럽다, 매끄럽다, 미끈미끈하다, 매끈매끈하다 이다. '미꾸라지'도 미끈미끈해서 붙여진 말이고, '미더덕'은 '물더덕'이라는 뜻이다. '미나리'는 물에 사는 나리라는 뜻이다. 얼굴의 옛말은 '고'였으며 때로는 '곳(곶)'으로도 쓰였다. 감기를 '고뿔'이라는 하는 것은 코에 불이 났다는 뜻이다.

우물은 '움'에 '물'을 더해 이루어진 말로 '움'의 끝소리 (ㅁ)가 떨어져 나가 우물이 된 것이다. '움'은 식물의 싹, 또는 땅을 파고 구멍처럼 웅덩이를 만들어 화초나 채소

를 넣어두는 곳을 이른다. 따라서 우물은 '움과 같이 파인 곳에 고인 물'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그 뜻 사이의 접촉(환유)으로 말미암아 '물이 솟아나와 고인 샘터'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 '물(믈)'에 동사형 어미 '다'가 첨가되면 '믈+다'의 어형을 이루는데 이 '믈다'에 'ㄱ'이 첨가되어 '묽다(맑다)'는 말로 발달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믈다'의 어형에서 모음변이가 오지 않은 상태로 'ㄱ'만 첨가되어 '믉다(묽다)'라는 어휘가 파생되었다. '무르다'도 '믈'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무르다'는 물기가 많아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는 뜻이나 물과 관련된 말임을 알 수 있다. 국수나 밥 등을 물이나 국물 등에 넣어 푼다는 뜻의 동사 '말다'도 역시 물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낮은 곳인 움에 물이 고임은 자연의 섭리다. 여성 상징으로 보면 '생명 탄생'의 아기집이 다름 아닌 생명의 움물이요 움막이며 평안이 깃드는 보금자리다(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에서 요약).

우리말 계절풍 이름의 어원

'동쪽(東)'의 뜻으로 쓰인 우리말은 '새'이다. 동녘바람을 '샛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아온다'는 뜻의 '새다'가 바로 동녘을 뜻하는 'ᄉᆡ'가 동사화한 말이다. 따라서 'ᄉᆡ다'는 '동쪽이 밝아온다'는 뜻의 동사가 된 것이다. 'ᄉᆡ'가 곧 동이기 때문에 'ᄉᆡ다'는 동쪽이 변한다는 뜻으로 쓰는 '동트다'인 것이다.

'서쪽(西)'의 우리말은 '하늬'이다. 그것은 서녘바람을 '하늬바람'이라 한데 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서녘바람을 지역에 따라서는 '갈바람'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가수알 바람'이라고도 한다. '갈'과 '가수알'은 서쪽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가을'이라는 사투리다. '하늬'의 어원은 '하ᄂᆞᆯ(하늘)'이다.

'남쪽(南)'을 뜻하는 우리말은 '마'이다. 남녘바람을 '마파람'이라고 하는 데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흔히 '남'을 '앞'이라 하고, '북'을 '뒤'라 한다. 이것은 남향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 앞쪽이 남이고 뒤쪽이 북이 되는 데서 일컫는 것이다. 남녘바람을 '온화한 바람'이라는 뜻에서 미풍(微風)이라고도 한다. '마'는 앞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쪽을 뜻하는 '맞' 또는 '마주'에서 온 말이다. '마파람'은 마주 바라보이는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곧 '맞바람'의 뜻이다.

'북쪽(北)'의 우리말은 '높'이다. 북녘바람을 '뒤울이'이라고도 하는데 더러는 '댑바

람'이라고도 하고, '된바람'이라고도 한다. '뒤울이'는 뒤쪽에서 바람소리가 윙윙 울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동북쪽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하고, 서북쪽 바람을 '높하늬'라 한데서 북을 '높'으로 나타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높새바람'은 높은 데서 부는 바람이다. '댑바람'은 '뒤+바람'이 거센 바람이라는 개념이 덧붙여져 '대(大)+바람'이라는 말로 전이되어 쓰인 것이다. '된바람'도 결국 '되게 부는 바람' 곧 '억센 바람'이라는 점에서 '댓바람'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

*되바람은 '되놈의 나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네 방위를 가리키는 우리말은 '새-하늬-마-높'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동남쪽을 '새마', 서남쪽을 '하늬마', 북서쪽을 '높하늬', 북동쪽을 '높새'라 한다.

한자 귀화어의 어원

'강냉이'이라는 옥수수는 중국 '강남'에서 왔다는 뜻이다. '강남'은 태국이 아닌 중국 양자강 이남을 일컫는 말이다. 함경도의 '옥쉬이'나 강원도의 '옥시끼' 그리고 충청도와 경상도의 '옥숙구'라는 방언은 옥수수 식량이라는 뜻으로 붙인 '옥식(玉食)'에서 바뀐 말이다.

'옥수수(玉蜀秀)'는 구슬같이 둥글둥글한 알맹이가 뽀얗게 빛이 난다는 뜻으로 붙인 것이다. 원산지는 남미인데 콜롬버스에 의해 인도에서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옥수수는 남미의 마야·잉카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기원전 3,000년전경부터 주식으로 삼아 이미 재배하고 있었다. 콜롬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고 신천지를 찾아간 이주민들에게서 맨 먼저 배운 것이 옥수수 재배법이었다. 이주민들은 감사하다는 뜻으로 신에게 기념제를 지냈는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해마다 가을 추수 끝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 아시아는 16세기 초 포르투칼 항해자들에 의해 인도와 중국에 전해졌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 중국 땅 명나라를 거쳐 처음 수입되었다. 옥수수는 기장의 일종인 '수수(蜀秀)'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다.

'도무지'는 상민이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일을 저질러 향약을 어겼을 경우에 내리는 체형이다. 가령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어 못된 짓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집안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면 사사롭게 사형(私刑)을 집행한다. 이때 아버지가 '도모지(塗貌紙)'라는 사형을 내렸던 것이다. '도모지'는 글자 그대로 얼굴에 종이를 바른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물에 젖은 종이를 얼굴에

몇 겹이고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된 데서 유래된 말이다.

'ᄆᆞ양(매양)'은 '항상' 또는 '늘'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마냥 걷고 있다라는 표현에서는 '늦잡아', '천천히'라는 의미로 쓰인다. 원래 한자말을 '매상(每常)'으로 발음은 'ᄆᆞ샹'이었다.

고유어의 바뀜(아저씨와 아주머니)

아저씨는 '아자비'에서 아주머니는 '아ᄌᆞ미'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아자비'는 '아ᄎᆞᆫ〔次〕+아비〔父〕라는 조어이고, '아ᄌᆞ미'는 아ᄎᆞᆫ〔次〕+어미〔母〕라는 조어로 이뤄진 말이다. 따라서 '아자비'는 '작은 아버지(叔父)를 가리키고, '아ᄌᆞ미'는 '작은 어머니(叔母)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 조금씩 바뀌어 '아자비'는 '아재'로 줄여 쓰기도 하고 존칭의 '씨'를 붙여 '아저씨'라는 말로 정착된 것이다. '아ᄌᆞ미'는 아저씨라는 말을 닮아서 '아짐씨'라는 방언으로 일부 쓰이면서 '어머니'라는 어형을 닮아서 '아주머니'라는 말로 정착되어 오늘날의 표준어로 채택된 것이다.

'황새'는 '큰 새'라는 뜻의 우리말이다. '한〔大〕+새〔鳥〕'의 구조로 이 지식을 확장하면 '황소'도 '큰 소'라는 뜻의 순 우리말임을 알 수 있다. '황우'는 '한+쇼'가 '황소'로 바뀜에 따라 '누런 소'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황새'가 '누런 새'가 아닌 '큰 새'를 의미한다는 이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한자어의 귀화('별안간'과 '어언간')

'별안간(瞥眼間/언뜻 볼 별)'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이다. 어차피(於此彼), 어언간(於焉間), 심지어(甚至於), 피차(彼此), 좌우지간(左右之間)도 모두 한자어에서 귀화된 말이다. 뱀장어의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순 우리말이다. 스님은 '승(僧)+님'으로 구성된 말로 한자 승(僧)에 우리말 '님'의 혼합형으로 이뤄진 말이다. '차례차례'도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이다. 옛날 책에 오늘날 목차(目次)에 해당되는 곳에 '차제'(次第) 또는 '차뎨'라고 쓰여 있다. 책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작은 제목들의 순서를 차례로 늘어놓은 것이 바로 목차를 뜻하는 차례이다. 이것이 바로 '차례차례'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한자말이다.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2015년 성균관대학 설문조사 결과 부모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학생이 83%나 되고,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학생이 25%로 나타났다. 우리글은 한자말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한자를 익히지 않고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서도 과연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자는 비교적 어원이 분명하고 공통 부분으로 된 글자들이 많아 이 점을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글자라도 쉽고 재미있게 여러 글자를 익힐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어원을 알아야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자어를 잘못 쓰는 사례는 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는 불가능할 정도다. 아주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장본인' '3인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희한'을 '희안'으로 '제재'를 '제제'로 '훼손'을 '회손'으로 '왜곡'을 '외곡'으로 '궤변'을 '괴변'으로 '부조금'을 '부주금'으로 '동고동락'을 '동거동락'으로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로 '양수겸장'을 '양수겹장'으로 '황당무계'를 '황당무게'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한민족이 쓰는 국어에는 순수 한글로 된 단어와 한자어가 복합돼 있다. 순수 한글 단어에는 추상명사나 전문용어가 적어 순수 한글로만은 학술 논문이나 깊이 있는 글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결론은 한자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어도 분명 우리나라 말이다. 한자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한자도 어원으로 익혀두면 쉽고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면, 조(鳥), 오(烏), 명(鳴), 오(嗚)에서 새 조에서 눈(-)을 뺀 것이 까마귀 오, 입을 벌려 새가 우니 울 명, 입을 벌려 까마귀가 우니 탄식할 오로 구분하면 된다.

접(椄/接)은 나무에 첩을 만드는 것이다. 첩(妾)은 서있는 본부인 아래 있는 여자가 첩이다. 비(婢)는 여자가 신분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질(嫉)은 여자에게 병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질투와 시기이기 때문이다. 병들어 아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어리석을 치(痴)이다.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니 사막 막(漠)이다.

머리가 좋아지려면 콩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 두(頭)'자에 콩 두가 들어간다. 실제로 콩은 머리가 좋아지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풍년 풍(豐)'자

는 콩이 익어 터질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풍년은 쌀농사가 아닌 콩농사가 잘 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쑥 호(蒿)'는 풀 중에 최고가 쑥이기 때문이고, '오리 압(鴨)'은 으뜸가는 새가 오리이기 때문이다.

한자를 익혀두면 역사학습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근(饑饉)에서 '기'는 곡식 농사가, '근'은 채소농사가 흉년일 때 쓰는 말이다. 무용(舞踊)에서 '무'는 손으로 추는 춤이고, '용'은 발로 추는 춤을 이르는 말이다. 노비(奴婢)에서 '노'는 남자노예를, '비'는 여자노예를 일컫는 말이다.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완도의 청해진(淸海津)은 '바다를 청소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활엽수(闊葉樹)는 나뭇잎이 넓은 나무를 뜻하고 침엽수(針葉樹)는 바늘과 같이 잎이 뾰족한 나무를 말한다. 몽고족이 만든 신분제도에 색목인(色目人)은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니 서방계 사람들을 지칭한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는 '밭'과 '땔감'을 주었다는 뜻이다.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한 조직한 별무반 중의 하나인 신기군(神騎軍)은 '말 탈 기'자이니 말 탄 군사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죽서(竹書)를 말아 대통 속에 보관했기 때문에 책을 '권(卷)'이라 했다. 담배도 둥글게 말려 있다 해서 '궐연(권연/卷煙)'이라 한 것이다. 나눌 분(分)은 물건을 나눌 때 칼을 쓰기 때문이다. 바위 암(岩)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뜻하고, 큰 바위 암(巖)은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다. 성(姓)은 어머니가 낳았다는 뜻이고, 모(母)는 어머니의 젖을 나타낸 글자다. 집안을 지켜주는 하늘보다 높은 존재가 부(夫)이고, 양손에 도끼를 들고 집안을 지키는 모습이 '아비 부(父)'이다.

한반도의 배꼽, 정읍(井邑)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생각해 보기】----------

1. '물(청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2. 그간 아나키스트의 독립운동이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시정(詩亭)'은 무엇이며, '모정'은 왜 전라도에만 있을까요?
4. 불우헌 정극인(丁克仁)의 가사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는 누구일까요?

물은 그 자체의 '정화력(淨化力)'으로 인해 '치유력'과 '재생력', '새 생명'의 이미지를 갖는다. 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기에 '생명력'과 '시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이면 넘치듯 '파괴력'을 갖는다. 우리는 그것을 동학농민혁명과 우물 '정(井)'자를 교기로 사용했던 보천교(普天敎)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읍을 구성하는 역사.문화적 요소는 다양하다.

정읍은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고장이며, 민간 최초의 향약인 고현동향약이 실시된 곳이다. 추사가 인정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필,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이 청년시절 서도를 연마했던 곳이 부무실이었다. 창암은 평생 서예를 통한 구도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서예는 그의 삶이었다. 마음이자 몸이었고 오직 가야 할 길이었다. 그가 처했던 유년의 환경이 서예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서예적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창암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평안도의 눌인(訥人) 조광진(曺匡振)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시·서·화에 능했던 태인 출신의 동초(東樵) 김석곤(金晳坤)은 일제강점기 망국의 한을 암각서와 시문을 통해 표현했던 걸출한 서예가였다. 그의 암각서는 태인을 기점으로 정읍, 순창, 김제, 부안 등지에 남아 있다. 그의 동생 달곤(達坤)은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몽연(夢蓮) 김진민(金瑱珉) 역시 태인 출신으로 한문과 오체에 두루 능한 한국 최연소, 최초의 여류서예가였다.

정읍은 선비문화의 상징인 누정(樓亭)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18개가 있다.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常春曲)의 배경이 칠보면 무성리로 이곳이 가사문학의 발원지에 해당된다. 소고당(紹古堂) 고단(高湍)은 산외 평사리에 살면서 가사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였으며, 부친인 고희석은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였다.

전북 최초의 서원인 북면 남고서원(南皐書院)은 '호남성리학의 비조'라 일컫는 일재(一齋) 이항(李恒) 선생을 모시고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최익현(崔益鉉)과 임병찬(林炳瓚)이 병오창의(丙午倡義)를 일으켰던 전국 유일의 창의서원이기도 하다. 무성서원은 일반 다른 서원에 비해 특별한 면이 있다. 원규(院規)에 의하면, 입학은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여 독서에 뜻이 있어 배우고자 하는 자는 모두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은 향약, 유향소(留鄕所)와 함께 조선시대 사림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요즘의 특수 사립학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입학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독서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허락하고 있다. 현존하는 모든 서원의 원규에 비추어 볼 때 전례가 없는 것이다.

정읍은 양반문화와 서민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호남의 대표명당이자 지네명당에 자리한 김동수(金東洙) 가옥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양반집이면서도 가장 서민스럽게 지어진 집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의 상징인 모정(茅亭)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근석(男根石)이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죽음으로써 성을 지켰던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 바로 이 고장 덕천출신이다.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을 비롯한 김제민(金霽閔)·김천일(金千鎰) 등은 모두 일재 이항의 문인들이었다.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을 내장산으로 피란 보존시킨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錄) 역시 일재의 문인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실록이 산으로 간 이유는 안의와 손홍록의 방안에서 얻은 힌트였다. 이는 정읍시민과 대한민국의 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이다. 특히 전쟁 통에 가족의 안위보다 사재를 털어 실록을 보존하는데 앞장섰던 점은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이다. 이름없는 정재인과 유생들이 역사를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점 또한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실록 피란과 보존의 역사적인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실록 관련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현창사업을 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실록 보존 성지 입간판을 IC나 말고개, 내장산에 세우고 문화광장 내 박물관 앞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대학 내 문화재보존학과 또는 기록문화학과를 설치해야 할 일이다.

조선시대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했던 방각본(坊刻本)이 서울 다음으로 인쇄된 곳 또한 정읍 태인이었다. 이는 우리 고장이 책을 찍어내고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생활기반이 넉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풍요로운 생산은 세련된 문화를 낳는 법이다. 여기에 더해 직지의 저자 백운화상(白雲和尙) 경한(景閑)의 고향이 고부이다. 정읍에 기록문화전시관이 건립되어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옛것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마인드가 절실하다.

정읍은 전라우도 농악과 설(솔로)장고의 발상지이다. 정읍농악의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이를 근대적인 농악으로 발전케 한 것은 농악을 종교음악으로 지정한 '보천교(普天敎)'였다. 보천교가 정읍농악을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정읍농악은 이 때부터 고깔과 상모를 겸한 농악이 연희되기 시작하였다. 전라 좌도와 우도의 농악복식이 비슷하게 된 것도 보천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읍은 향제 줄풍류의 고장이다. 줄풍류는 '현악 영상회상'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 줄풍류는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서울의 각 대학 국악과 등에서 가르치고 연주하는 '영산회상(靈山會相)'의 형식이고, 향제 줄풍류는 정읍·이리·구례 등지에 전승되는 영산회상 등의 줄풍류 형식이다. 정읍의 대표적인 풍류방은 '아양정'이었다. 아양정이 바로 정읍 줄풍류의 발원지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구례 줄풍류는 단소의 명인이자 단소 산조의 창시자인 전추산(전용선)의 가락을 이어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상화에 사진을 접목한 최초의 근대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은 신태인에서 활동한 우리 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진화가였다.

1910년 나라가 일제에 의해 망하자 일왕의 이른바 '은사금 사령서'가 면장을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사령장에 적혀있는 자기 이름 석 자를 찢어버렸던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은 유학의 가르침을 죽음으로써 실천한 선비였다. 일제는 분노한 조선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선의 명망있는 유학자 100명에게 은사금을 준 것인데 춘우정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춘우정이 그만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정읍 사람들은 국외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담당한 사람은 영원면 출신 라용균(羅容均)이었다. 2·8독립선언은 3·1독립만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봉창(李奉昌)·윤봉길(尹奉吉)과 함께 '3의사'로 불리는 아나키스트(Anarchist) 백정기(白貞基) 의사는 1932년 일왕의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축하식이 열린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와 별도의 의거를 준비했으나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1933년 초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고급 요정 '육삼정'에서 일본 정계와 군사계의 거물들과 중국 국민당 고관들이 회합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백의사는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정화암(鄭華岩), 원심창(元心昌), 이강훈(李康勳) 등과 모의했으나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비록 실패했을망정 두 번의 의거는 정읍 사람들의 의기를 높이 알린 쾌거였다. 역사란 성공한 일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26년 산외 출신으로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은 이동환(李東煥)이었다. 6·10만세운동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되어 다음 해 신간회(新幹會) 결성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6·10만세운동은 이후 광주항일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신태인 화호리(禾湖里) 일대는 살아있는 '생활사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진화가였던 채용신(蔡龍臣)이 살면서 공방을 차렸던 마을이 화호이며, 일본인 지주 구마모토[熊本利平] 창고 건물과 일본인 경리과장 및 농산과장 사택, 일본인과 조선 농민의 합숙소, 일본인이 다녔던 심상고등소학교, 조선인이 다녔던 공립보통학교 건물, 해방 이후 우체국으로 이용되었던 다우에 농장 사무실, 동양척식회사 사무실과 양말공장 등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에 당산제를 지냈던 나무와 보호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 강증산(姜甑山)이 한 성도에게 태을주(太乙呪)를 주면서 장래 일을 미루어 이야기하자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태을주를 따라 읽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건축물과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 관광자원화 할 경우, 그 파급효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콘텐츠는 많은데 이를 보존하고 복원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종교적으로는 증산교(甑山敎)를 비롯한 보천교, 보화교, 미륵불교 등 각종 신종교가 발생.수용.확산된 지역으로 종교적 '장소성'과 '상징성'이 아주 강한 지역이다.

호남지방 최초의 장로이자 목사인 최중진(崔重珍)은 태인 매계교회를 시작으로 북면

화해교회, 정읍 제일교회, 입암 천원교회를 세우는 등 교회 개척의 선구자였다.

원불교의 역사 속에서 정읍은 한마디로 '만남의 땅'으로 자리매김된다. 1925년 4월 원불교조인 소태산(少太山)과 2대 정산종사(鼎山宗師)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북면 화해리 마동마을이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역사로 보면 정읍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공소(公所)를 가진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1882년부터 1910년까지 기록된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전라북도 천주교 공소 수는 473개로 그 가운데 정읍에 73개 공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성공소, 대숲골공소, 입암 등천리공소 등 일부는 여전히 교우촌(敎友村)으로 남아 있다. '종교박물관'을 건립하고 '종교순례길'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풍수상으로는 배가 떠다니는 '행주형(行舟形)'이라고 풀이하면서도 오행이 상생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삼성산(三聖山) 정상이 뱃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니 이곳이 바로 정읍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다. 방사선 연구소와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국책기관이 들어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한편, 정읍은 증산이 말한 만국활계남조선비기(萬國活計南朝鮮秘記)의 예언이 실현될 곳이며, 고부 두승산(斗升山)의 '선인포전(仙人鋪氈)'은 호남 8대 혈(穴)에 속하는 명당이라고 우리는 믿고 산다. '풍수지도'를 작성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할 일이다.

또 정읍은 남출북류(南出北流)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대표적인 역세형국, 변혁적인 땅이다. 세계의 지형이 북서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아 물이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반해 정읍의 산세는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고 물 또한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난세의 인물이 나오거나 난세를 극복할 인물이 나오는 곳이라고도 한다. 한편, 주산(主山)인 성황산보다 안산(案山)인 초산이 더 높아 큰 인물이 나지 않으며 외지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칠보산(七寶山)은 '봉황(鳳凰)'이 나온다는 산으로 용봉도수의 큰 기운을 간직한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문화요소들이다.

정읍의 역사는 지역사이면서 중앙사이다. 정읍사가 그렇고 농악과 향약과 가사문학 그리고 의병이 그러하다. 태인의병은 최익현이 맹주로써 임병찬과 함께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봉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전국으로 파급되었고, 증산교와 보천교와 같은 신종교가 발생,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운동이란 통상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확대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읍지역의 운동은 서울이 아닌 지역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나, 이런 운동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일정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선정된 인물과 이 같은 문화요소들을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자원화하고 현창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목적하는 바 없어도 휴일이면 선정된 인물들의 흔적을 더듬어보고 생가와 묘소를 찾고 공적비를 읽어보라. 역사의 흔적만이 볼품없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현장에 가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문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것인가?

의성 이제마(李濟馬)는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공부의 요체(要諦)를 적시(摘示)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산 너머가 보이지 않으면 의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저 산 너머에 계곡과 시냇물이 있고, 마을이 있으며, 그리고 또 산이 있을 것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려 하는가.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 학문하는 방법의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가르쳤다. 비단 의학뿐이겠는가.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바로 이 미루어 헤아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 학문의 자세다.

일찍이 시인 김지하는 "정읍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읍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빗댄 것이며, 오행이 상생하는 풍수지리학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와 함께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일이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생각해 보기】----------

1. 호남지방에 풍수(風水)가 성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풍수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해 봅시다.
3. 조선 후기 소송사건의 제일이 풍수와 관련된 산송(山訟)문제였습니다. 이른바 '명당(明堂)이란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풍수지리 선행연구

성균관 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해 교수가 미국 코넬대학에서 풍수지리를 연구해서 박사 박위를 받은 이래, 국내에서는 박시익이 풍수지리를 연구주제로 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신으로 여기던 풍수지리를 연구와 학문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풍수는 정신과학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정신과학도 과학의 한 분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풍수를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풍수는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여 가르쳐야 할 정도로 많은 효용을 갖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가 풍수지리가 하나의 학문대상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풍수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묘지뿐만 아니라 집터, 마을, 중소 대도시, 서원과 향교 및 사찰, 정자, 일국의 수도, 그리고 마을 앞에 서 있는 돌탑이나 당산나무, 장승, 논두렁에 서 있는 남근석 하나하나까지도 풍수지리적 사고에 의해 세워지고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풍수의 개념과 풍수가들의 풍수에 대한 생각

풍수는 '풍수사상', '풍수지리', '풍수설', '풍수도참설'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풍수사상'은 논리 정연한 학문적 체계로 이해하는 태도이고, '풍수지리'는 땅에 대한 이치 곧 인간생존의 바탕이 되는 땅을 분석, 평가하는 과학으로 보는 견해다.

또한 '풍수설'은 문화적 현상 내지 민간의 풍속으로 보는 견해이고, '풍수도참설'은 앞으로 다가올 길흉을 점치는 비과학적 술법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풍수학자 이몽일 박사는『한국풍수사상사』에서 땅을 보고 터를 잡아주는 직업인으로서의 풍수를 고려시대에는 술자(術者), 지리박사(地理博士), 지리생(地理生) 등으로, 조선조에는 지리인(地理人), 풍수학인(風水學人), 상지관(相地官), 지사(地師), 국풍(國風), 풍수사(風水師), 지관(地官), 장사(葬師), 풍수장이 등으로 불렸다.

보건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1955년 당시 1,062명이던 전국의 풍수가들은 5년이 지난 1960년에 두 배(2,182)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3,072명에 이르렀다. 현재는 1만 수 천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0명의 풍수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풍수이론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는 62%이고 어이없게도 14%는 자신도 전혀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머지를 이 부류에 포함시키면 40%의 풍수가들이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생활을 위해 남의 무덤자리를 찾으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셈이다.

풍수설의 흐름

풍수설의 본고장은 중국으로 전국시대 말기(기원전 4~5세기)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기였던 만큼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가치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는 한나라 청오자(靑烏子)가 쓴『청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책은 그 뒤에 나온 모든 풍수책의 바탕이 되었다. 그의 이론을 더욱 체계화한 이가 동진(東晋)의 곽복(郭璞/276-324)이다. 그는『장서(葬書)』에서 "죽은 이는 정기를 타야 한다. 이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문다. 따라서 바람과 물을 이용해서 정기를 얻는 방법이 풍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물을 얻어야 하고(득수), 둘째, 바람을 가두어야 한다.(장풍)고 적었다. "죽은 이가 정기를 탄다"는 말은 땅 속에 묻힌 사람은 정기를 더 많이 그리고 확실히 받으며 나아가 그 정기는 자손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풍수설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그간 우리나라에 풍수설이 당나라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라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이 거짓 꾀를 내서 월성(月城)을 차지했다는 이

야기가 전하는데, 여기서 탈해는 지리(地理)를 알았다 하며 풍수지리설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일 윤색한 것이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고구려에서는 국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선정해 두었다. 민중왕(閔中王)이 민중원(閔中原)에 사냥을 나갔다가 한 석굴을 발견하고 "내가 죽거든 반드시 여기에 장사해주고 달리 능묘를 만들지 말라"고 했고 또 그대로 시행되어 묘호도 민중왕이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왕들은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같은 몇 안 되는 예를 제외한다면 모두 능을 쓴 지명으로써 묘호를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풍수지리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최치원이 지은 숭복사비문(崇福寺碑文)이다. 그러나 자생풍수를 주장하고 있는 최창조는 초기 자생풍수는 신라 말 수입된 중국 풍수를 도선국사가 우리 풍토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자생풍수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즉 저자가 말하는 한국의 자생풍수란 초기 우리 고유의 지리사상에 중국의 이론 풍수가 수용된 도선풍수인 셈이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묘청은 서경천도운동에서,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천도한 것도, 관악산의 화기를 꺾으려고 남대문의 현판을 세워 걸었다던가, 대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놓았고 허술한 동쪽을 도우려고 동대문의 현판을 '흥인지문'의 넉자로 하고 앞에는 옹성을 쌓은 것도 다 풍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풍수이론의 구조

풍수에서는 정기 넘치는 터를 찾는 방법으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 장풍법(藏風法)을 비롯해서 간룡법(看龍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주로 민간에서 즐겨하는 형국론(形局論/物形論) 따위를 든다. 간룡의 용은 산 또는 산맥을 가리킨다. 산맥은 곧 산에 감추어진 정기가 흘러 다니는 통로로서 간룡은 그 좋고 나쁨을 가리는 법이다.

천지의 정기는 바람을 따라 흘러들지만 이것을 타고 흩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모처럼 모여든 정기를 잡아 두려는 것이 장풍법이다. 이 때문에 바람을 막는다 하지 않고 바람을 가둔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방에 산이 둘러 있는 것이 좋다. 이른바 뒤의 거북, 앞의 새, 왼쪽의 용, 오른쪽의 범, 곧 사신사(四神砂)가 그것이다.

거북은 듬직한 모습이어야 하고 새는 춤추듯 너울거려야 좋으며, 용은 길게 뻗어서 앞으로 휘어들어야 하고 범은 웅크린 자세라야 길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북으로 주산(主山/鎭山)이라 일컫는다. 새를 뜻하는 산에는 조산(朝山)과 안산(案山)이 있다. 이들 산은 임금인 주산에 대해서는 신하와 같은 산으로 머리를 공손히 조아리는 듯한 모양이 좋다. 서울의 관악산은 조산으로서는 다소 기가 세다. 그래서 이산의 기를 누르기 위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을 세운 것이다.

조산은 크고 높은 산이고 안산은 주산(主山)과 조산 사이의 나지막한 봉우리이다. 안산이라는 말에는 주인과 나그네 사이의 책상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거북과 새는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주인과 나그네로 여긴다. 그리고 용과 범은 좌우에 둘러서서 이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흔히 풍수는 개인의 집터에 관한 양택 풍수와 마을이나 도읍터에 관한 양기풍수 그리고 무덤 자리에 관한 음택풍수의 세 가지로 나눈다.

물과 대지

풍수의 기본 요소인 물은 대지의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앞 물길이 마을을 휘감는 모양을 '환수'라고 하는데 물길이 바깥쪽을 돌아나가는 땅은 길하다. 하회마을이 그 좋은 예이며 서울의 한강변의 경우 물이 바깥쪽을 돌아나가는 땅인 워커힐, 압구정동, 이촌동 등지가 길하다.

이에 발하여 물길이 안쪽을 돌아나가는 땅은 흉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데, 동작동 묘지가 그러하다. 마을 앞에 도랑물이 합수되어 수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재물이 빠져나간다. 그 예의 하나가 여의도 Y빌딩이다.

또 물이 대지를 향해 치고 들어오는 당면수는 터가 세므로 집터로서 가치가 없으며 물이 뒤로 빠져나가는 곳 또한 심리적으로 부적격지이므로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의도 K빌딩이 이러한 배치에 해당되는데 더욱이 나룻배 형상의 섬 위에 있는 상여형의 건물 형태로 지금도 설상가상의 풍수피해를 입고 있다. 또 물과 관계하여 유의할 사항으로 사시사철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곳도 사람이 상주하는 용도의 건물 택지로는 좋지 않다. 라이트의 낙수장이 그 예로 굳이 그런 곳에 건축이 불가피할 경우 물의 흐르는 속도와 계곡의 낙차 등을 조절하여 소리를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치가 수려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용도의 택지를 선정할 때 계곡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줄여줄 것이다.

* 오행론에서 서로 상충되는 상극 순서는 수-화-금-목-토이다. 이것은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고, 금속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는 흙을 파헤치고, 흙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상극원리로 보는 것이며 이와 거꾸로 도는 것이 상생이다.

* 이외에 목-화-토-금-수 또는 수-화-목-금-토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행기운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봄에 목, 여름에 화, 가운데 토, 가을에 금, 겨울에 수니까 목-화-토-금-수로 나가고, 오행이 생기는 순서로 본다면 처음에 물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금이 생기고, 제일 뒤에 토가 생긴다. 따라서 수-화-목-금-토라고 한다.

터 잡는 일

이중환(李重煥)은『택리지(擇里志)』에서 터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가 좋아야 한다고 했으며, 지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구'라고 했다. 수구 다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들의 형세, 산의 형상, 토색(土色), 수리(水理), 조산(朝山)과 조수(朝水)를 들었다.

홍만선은 집터의 요건으로 대개 주택 좌측에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 부르고, 우측에 있는 긴 도로를 백호라 한다. 집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이를 주작이라 부르며, 집 뒤에 언덕이 있으면 이를 현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된 곳이 최고로 귀한 땅이다.

이상적인 모델은 배산임수(背山臨水)다. 등지는 산은 모양이 둥글거나 단정한 모습에 하나의 봉우리여야 한다. 또 그 산에서 하나의 능선이 마을로 내려와야 하는데 살아 꿈틀대는 모습을 해야 한다. 땅 색깔은 밝고 단단해야 한다. 물길의 흐름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모양이어야 하지 물길이 등을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 마을 앞에는 평탄한 들판이 펼쳐져야 복이 들어온다. 마을 뒤 산에서 흘러나와 마을을 관통하는 도랑물들이 마을 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물길이 합쳐지는 지점을 수구라 부르는데 수구가 형성 안 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

집 짓는 일(『고려사』권8)

산이 드물면 높은 집을 짓고 산이 많으면 낮은 집을 지어야 한다. 산이 많음은 양이고 적음은 음이며, 높은 집은 양이고 낮은 집은 음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만일 높은 집을 지으면 반드시 쇠퇴할 것이라 하였다. 태조 이래로 궁궐 안뿐만 아니라 백성의 살림집도 높이 짓지 못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조에까지 이어져 이층 이상의 살림집을 짓지 않았다. 물론 낮은 집만을 지었던 것은 주위의 자연에 어울리게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풍수적 관념이 더욱 뿌리 깊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집터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데가 제일 좋고, 그 반대이면 부자는 못되나 부귀를 누리며,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집안이 망하고,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면 집짐승이 늘어난다. 또 사면이 높고 가운데가 낮으면 비록 부자일지라도 점점 가난해지므로 평평한 터가 가장 좋다. 집터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으면, 처음은 나쁘나 뒤에 잘된다. 집의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강과 바다로 들어가면 좋으나 동쪽에 큰 길이 있으면 가난하고 북쪽에 큰 길을 두면 나쁘며 남쪽에 큰 길이 있으면 영화를 누린다.

마당

건물은 마당보다 약간 높게 짓는 것이 좋다. 마당은 정사각형이 이상적이다. 마당에 기운이 모이면 집안 재산도 늘어난다. 마당과 건물이 모두 직사각형이면 재물이 분산되고 단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건물과 마당이 마주 보고 있으면 여성과 남성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마당에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데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이 집 남성에게 두 여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뒷마당이 집에 가려져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본처가 아닌 다른 여성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 뒷마당이 집 앞쪽에서도 보이면 여성과의 관계가 공개적임을 뜻한다. 뒷마당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의 여성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집 앞에 있는 마당은 집 안 면적의 3배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5배를 초과하면 마당이 너무 넓어 생기가 분산되어 집 안에 전달되는 생기가 줄어든다고 본다.

일본식 마당은 집 한가운데 건물을 배치해 건물이 마당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배치는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종속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미국식 마당은 앞면에 주차장이나 간단한 작업공간으로 쓰이는 마당이 있고 뒷면에는 가족전용 마당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배치는 양 하나에 음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어 한 남성에게 여러 여성이 있게 된다.

대문

바람은 곧 기운이며 건강과 재물을 만드는 기본이다. 대문이 안으로 열리는 집에서는 기운이 모여 건강과 재물을 얻게 되는 반면,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집은 내부의 바람이 빠져 나가듯 건강과 재물이 빠져 나간다.

도로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주차장이나 정원을 만들고 건물을 뒷면에 두는 것이 좋다. 전면배치는 도로에 흐르는 기운이 점포 안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부에 생기가 모이지 못해 발전을 못한다. 중간 배치는 건물 앞과 뒤로 마당이 분산된다. 후면 배치는 가장 이상적인 배치방법이다.

신도비(인본사상)

신도비는 비주(碑主)의 위업과 덕을 기리고 애도하기 위해서, 또는 묘소로 가는 길을 지칭하는 신도(神道)를 장식하기 위해서 세운다. 신도비 건립을 조상에 대한 효행이며 근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우기도 한다. 건립 조건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2품 이상에 한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증(增)·실직(實職) 2품 이상이다. 대부분 길가나 마을 어귀에 있으며 묘소로부터 동향과 남향 사이인 남동향에 위치하고 있다. 묘소가 남동향 양지에 있기 때문이다. 묘소와 상당히 먼 영역에 세우는 것은 풍수지리와도 관련될 수 있다. 즉 풍수지리상 묘소의 바로 주변에 무겁고 커다란 돌을 많이 부설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난포형국(抱卵形局)과 관련된 설인데 이곳에 큰 돌을 부설하면 그 알이 깨지는 불상사가 생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조연미, 「조선시대 신도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9)

봉교신도비(奉敎神道碑/23개)는 국왕의 명령인 교(敎)를 받들어 관에 의해 세워진 것을 말한다. 신도비의 기원은 고려 후기 성리학자들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건축

학교 건물은 깊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1:13으로 깊이가 매우 짧은 '-'자형을 이룬다. 얼마 전부터 학교 배치를 현대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직선 교사를 ㄱ자. ㄷ자. ㅁ자 등으로 길이를 줄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ㅁ'자형 교실 배치는 중심부분에 지붕이 없어서 기운이 분산되기는 마찬가지다. '-'자형 학교 건물은 산의 형태 가운데 수산에 속하며 보조격이다. 이런 형태는 기운이 분산되고 약체다. 사대주의가 발생하고 기운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 서울대학교가 광장 이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한 것은 대학교가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박시익, 257~258쪽)

풍수지리설의 이용

한국의 풍수지리설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 대규모의 토지개발과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보호 문제가 절실한 실천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부 논자들은 풍수지리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자들은 자연을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본 자연관에 비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 내지 합일(合一)을 주장하는 동양의 자연관이야말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호남지방에 풍수가 유행한 원인

김광언(金光彦)이 전국 2,146개의 집터나 마을 터를 조사하여 도별로 집계한 것을 보면 전북(35%), 전남(19.2%), 충남(15.7%), 경북(9.0%), 충북(7%), 강원, 경기, 제주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다시 호남, 영남, 충청의 세 권역으로 묶으면 호남지방이 절반(54.2%)이 넘으며 충청(22.7%)과 영남(14.9%)의 순으로 이어진다. 풍수설이 호남지방에 크게 번진 것은 근래의 일이 아니며 조선시대에도 성장 발전하였다.

박제가(朴齊家/1750-?)도 『북학의(北學議)』에서 "전라도 일대가 우심하게 나쁜 버릇이 들어서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지관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호남지방에 이렇게 풍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네 최초의 풍수라고 할 도선국사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 활동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낸 점일 것이다. 도선국사의 속성은 김씨로서

(신라 태종무열왕의 서손이라는 설도 있다) 전남 영암군 구림(鳩林)에서 태어났다. 15살에 중이 되려고 찾은 절도 구례 화엄사이며 숨어사는 이인(異人)으로부터 풍수설을 배운 곳 또한 구례현과 가까운 남해변이다. 그리고 35살에 전남 광양의 옥룡사(玉龍寺)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내내 이곳에 머무르며 제자를 기르면서 새로운 옥룡산문을 열었다. 호남지방은 풍수설의 탯자리인 동시에 성장 발전한 고장인 것이다. 우리는 풍수설이 유독 호남지방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 까닭의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호남지방에 풍수가 유행한 원인이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필자는 전라도가 역대 이래 정권의 정치권에서, 지역개발에서, 인재등용에서 소외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자 한다. 정치에서 소외된 전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폭되면서 정치 불만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된 점을 생각할 때, 조선시대 풍수지리가 유독 전라도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짓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명이나 풍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명이나 풍수는 '형국론(形局論)'이나 '간룡법(看龍法)'에서 보듯이 자연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서 거기에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투사하여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때, 전라도는 땅의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라도는 경상도보다 평야지대가 많은 점을 생각해 볼 때 도선국사가 전남에서 태어나 활동했기에 호남지방에 이런 명당이 많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네형 명당(산외면 오공리 공동)

풍수지리에서 지네형의 터를 길지로 여기는 것은 지네의 다리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재화를 많이 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박공머리나 대문에 지네 모양의 철판을 붙였던 것도 같은 이치다. 민간에서는 지네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농사의 풍흉이나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는 존재로도 믿었다. 산외 김동수 가옥 집 뒤의 창하산(蒼霞山/150m)은 그 모양이 지네를 닮았다 하여 인근에서는 지네산으로 부른다. 오공리라는 지명도 본디는 지네를 가리키는 오공리였고 자연부락도 공동(蚣洞)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바뀌었다. 김동수에 따르면 안채의 평면은 본디 어떤 도승이 꾸몄으나 지은 뒤에 살펴본 즉 쓸모가 적어서 나머지 건물은 김명관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한다. 사랑채나 행랑채 등에는 여러 종류의 새가 둥지를 틀고 살지만 안채에만은 새가 집을 짓지 않으며 가끔 제비가 모여 들었다가도 새끼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것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중이 지었기 때문이다. 새가 없으므로 뱀이 꾀지 않고 따라서 김씨네는 자손이 귀한 편이다.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전북 민속자료 12호)둔덕마을도 지네명당에 형성된 마을이다. 그러나 지네명당이라기보다는 닭이 알을 품은 형상, 즉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김두규, 『우리 땅 우리풍수』, 52쪽)

전봉준과 풍수

최창조(崔昌祚)는 프랑스와 독일을 혁명과 숲으로 비교하는 견해도 다분히 풍수지리적인 데가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를 혁명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평지'가 많은데 평지라는 조건은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평지에 살다 보면 단조로워 늘 변화를 추구하기 마련인데 변화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일 수밖에 없어 사람 스스로가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은 물론 예술로서도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들판은 가도 가도 같은 길이어서 지형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공산품일 수밖에 없는 가로등을 변화시키게 된다. 프랑스는 지금도 가로등이 색깔만 같을 뿐 모양은 길마다 다르다. 결국 획일적이 아닌 예술이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상징은 '숲'이다. 숲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빽빽이 늘어선 나무에서 '질서'를 느끼게 마련인데, 심리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나무는 '군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군대라는 조직은 그 속성상 우리가 독일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측면을 연상시켜주기도 한다. 여하튼 이런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형이 일방적인 작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인간의 주체적 역할도 똑같이 중시되어야 한다.

전봉준(全琫準)이 혁명 전 지관을 불러 "만약 크게 왕성할 자리가 아니면 아주 망하여 후사가 끊어지는 곳을 원한다."고 하였다.(황현의 『오하기문(梧下記聞)』) 전봉준은 의술, 점복, 풍수 등 세 가지에 모두 능했다고 한다. 전봉준이 20대 중반이후 머물렀다는 산외면 동곡부터 살펴본다. 바로 이 마을 옆 동네가 지금실이다. 김개남 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전봉준은 딸을 부근으로 시집보낸 바 있고, 자신도 첩을 얻

어 한동안 살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지금실은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인 옥녀직금형으로 알려져 있다.(「한겨레신문」, 2000.3.17 최창조 교수) 동곡 가까운 곳에는 평사리가 있다. 평사리에는 평사낙안형(平沙落雁型)의 명당이 있다는 곳이다. 일설에 따르면 전봉준 장군이 이곳 평사리에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오공리다. 지네명당이 있다고 하는 곳에 김동수 가옥이 있다. 조소리(鳥巢里)는 새가 둥지를 트는 명당이 있었다 하며, 전봉준의 조모와 아내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산내면 소금실도 소금곡으로 표기된 것을 보면 조소리와 마찬가지로 날짐승과 관련된 곳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소금골이란 뜻의 염곡으로 불리나 이것은 일제 때의 개명이다.

손화중도 청학동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어 풍수의 맥을 이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들의 풍수가 발복풍수가 아니라 자생풍수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명당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건설할 터를 동곡에서 꿈꾸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짐작된다.(「한겨레신문」, 2000.3.17 최창조 교수)

한국자생풍수

최창조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던 풍수설은 그 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속신과 부합되는 과정에서 음택풍수 위주로 크게 변질되었다고 보고, 소위 풍수도참적인 사고관념으로 나타나 것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음택풍수는 음양오행과 결합된 중국의 이론풍수의 영향을 받았다. 이론풍수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자생풍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풍수사상은 좋은 땅을 찾자는 게 아니라 병든 곳을 찾아 침을 놓고 뜸을 놓자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를 명당이나 묘 자리와 연결짓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시익도 풍수지리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국국토의 지리적 조건이다. 한국은 국토의 70%를 차지한 크고 작은 산들이 거의 모든 촌락과 도읍의 자연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산신숭배 사상이 풍수지리를 발생하게 했다. 한 지역에 있는 큰 산을 진산(鎭山)이라하고 하여 숭배했다. 그러므로 산신을 모시는 일은 국가의 큰 행사였고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셋째 풍수지리 이론은 주역의 이론과 결합해서 더욱 완벽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주역과 음양오행설이 없었다면 풍수지리 이론도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넷째 단군이 처음 신

시를 건설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사는 아들 환웅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천부인 3개와 3000명을 거느리고 한밝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신시를 이뤘다고 하는 점에서 단군이 신시를 건설하고 개국할 때부터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고인돌 역시 풍수지리와 무관하지 않다. 고인돌은 대부분 산 정상에서 평지로 연결되는 능선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용의 맥을 따라 자리잡은 것으로 풍수지리 이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기준은 후대로 전해져 삼국 시대 왕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음택풍수

산소를 정하기 위해 다니다 보면 진흙이 많은 땅, 바위가 많은 땅, 모래가 많은 땅 등 땅마다 토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토질이 다르다는 것은 땅마다 갖고 있는 기운이 다름을 의미한다. 특히 물이 많이 난다든지, 나무 뿌리가 유난히 많다든지 하는 땅이 그 묏자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

조상과 그 후손은 체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 기가 통한다는 뜻이다. 비록 땅속에 있긴 하지만 조상의 시신에서 나오는 일종의 전파가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머리카락은 태양이나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기능을 하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는 텔레비전 안테나처럼 수신기능이 있다고 본다.(삼손과 데릴라, 스님의 머리는 고향의 친지 가족들이 보내는 기운을 받아 수행에 어렵기 때문이다. 수녀들이 머리를 감싸는 이유도 그것이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은 온힘을 다해 수신하려 함을 뜻한다)

호남명당

풍수가들은 산세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순창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선 초 서거정(1422~1488/徐居正)도 순창을 호남승지로 표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순창은 명승지로 이름이 나있다. 이로 인해 「생거장성 사후순창」, 「생거부안 사후순창」, 「생거남원 사후순창」이라는 말이 생겼다.

특히 순창군 쌍치면 복흥리는 500미터 이상의 산들로 사방이 둘러싸인 일종의 분

지로 순창·담양·정읍·태인의 중심에 위치한다. 복흥면 대방리 용지마을에서 장성으로 통하는 구 고갯길을 넘으면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할머니 묘가 있다. 노사는 이황·이이와 함께 조선 성리학의 6대조로 꼽히는 순창이 배출한 대유학자다.

복흥면 화양리 화개산 앞에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비봉포란형(飛鳳抱卵形)의 명당이 있는데 이곳에 김성수(金性洙)의 9대조 묘가 자리하고 있다. 예부터 3천년 동안 제사가 끊이지 않을 명당이라는 소문이 났던 곳이다.

복흥면 외양실 마을에는 천마가 들어가는 형상의 천마입구형(天馬入口形)의 명당이 있다. 이곳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김병로(金炳魯)의 선조묘가 있다.(김두규, 「풍수지리 문화기행」, 『전북일보』, 1997.4.25.)

풍수관광의 몇 가지 전제조건

-풍수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속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국문학, 인류학과, 전문가 및 풍수전문가의 학제 간 논의를 거쳐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풍수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풍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홍보 혹은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담요원, 해설사 혹은 관계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 풍수학과가 개설된 경산대학교에 위탁을 하거나 완주군청처럼 풍수학자 및 민속학자들을 초빙하여 일정기간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풍수관광 속성상 단체관광 혹은 가족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광대상지에 대한 풍수관광지도 작성과 안내책자 제작이 필요하다.

풍수(風水)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생각해 보기】----------

1. 왜 우리가 '풍수'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지역에 일제잔재 지명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3. 입암면 대흥리에 유독 왕조를 상징하는 지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읍시 입암면은 본래 정읍군 지역으로 읍내 서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일면, 서이면, 남일면, 남이면이라 하였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보천교 본소가 자리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필자는 1994년 입암면의 지명 유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소를 중심으로 왕조를 상징하는 지명과 소지명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암면 대흥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명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정서가 여느 마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필자가 지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땅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마을 이름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유래와 지형을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과 유물.유적.전설 그리고 구성원들의 신앙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전을 포함한 지역의 풍수를 파악해 보면 땅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천교의 발흥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의문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정읍의 땅이름이 갖는 상징성과 입암면 대흥리 주변 마을 이름을 통한 정읍지역의 종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읍 지역의 성향

풍수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

세간에 '오수지리설'이라는 풍수관련 일화가 있다. 정읍은 주변 산들이 다섯 짐승이 서로 바라보는 형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낭산(城隍山)은 엎드려 있는 호랑이, 두락산(斗洛山)은 고양이, 죽림산(竹林山)은 개, 초산(楚山)은 쥐, 아양산(峨洋山)은 사자 혹은 코끼리에 비유한다. 위 다섯 동물들은 서로 상극으로 견제 작용을 하는데 개는 호랑이가, 호랑이는 사자가 견제하고, 코끼리는 쥐가, 쥐는 고양이가, 고양이는 개가 견제한다는 것이다. 코끼리가 가장 작은 쥐를 두려워하는 것은 쥐가 코끼리의 콧속으

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낭산의 복호혈(伏虎穴), 죽림산(竹林山)의 소구망월(小狗望月/개가 달을 바라보는 형국), 초산(楚山)의 노서하전(老鼠下田/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은 풍수가들의 답사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또한 정읍은 고을의 주산인 서낭산(城隍山)보다 안산인 초산(楚山)이 높아 큰 인물이 나지 않으며, 외지에서 들어온 이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낭산(성황산)은 범이고 아양산은 사자의 형국인데, 일제 강점기에 대흥리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사자가 다리를 건너오게 되어 서낭산 아래쪽의 장명동이 흥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정읍의 유래는 백제 때 '정촌현'(井村縣)에서 비롯되었다. 현 정읍시 신정동 정해마을이다. 따라서 정촌, 정읍이라 하였다. 정촌은 '샘마을'의 한자 표기이며 '샘바다' 마을 앞에는 큰 새암으로 부르는 물터가 있어 지금도 연중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정해라는 마을 이름은 이와 같이 수질이 좋고 물이 많아 샘을 파기가 용이하며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다는 데서 나온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정읍은 '샘골(샘고을)'이라는 말 그대로 한 자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지역이다. 물이 흔하기도 하지만, 물맛 또한 좋은 곳이다. 마을이 들어서는 요건으로 좋은 물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정읍은 그 첫째 요건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예부터 물을 찾아 사람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읍은 태초의 삶의 고장이요, 그러한 터를 간직한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물 '정'(井)자는 주나라의 정전법에서와 같이 모든 법제의 기본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멸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정읍을 본관으로 하는 우물 '井'자의 정씨 성이 한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은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과 고이면 넘치는 파괴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물 '井'자를 고을 이름으로 쓰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정읍 하나 뿐이다.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풍수로 본 상징성

풍수지리 상 종래의 길지 기준으로 보아 매우 꺼리는 남출북류(南出北流)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대표적인 역세형국(逆勢形局), 변혁적인 땅이 정읍이다. 더불어 정읍은 시내를 중심으로 두승산(斗升山)·방장산(方丈山)·입암산(笠岩山)·내장산(內藏山)·칠보산(七寶山) 등이 에둘러 있어 오행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정읍은 샘골이므로,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의 배꼽이며, 여성의 근원이기에 후천개벽을 잉태한 곳이라고도 하고, 증산이 말했던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비기의 예언이 실행될 곳이라고 한다. 특히 입암산의 '笠'은 '冠'이므로 이 땅은 반드시 왕이 나오는 곳이라 했으며, 입암산 줄기인 삼성산(三聖山)은 성인 셋의 출현을 상징한다. 또한 정읍은 물이 많아서인지 정읍 전체를 배의 형국으로 보기도 하며, 이 경우 삼성산 정상 쪽이 뱃머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보천교에서는 십일전 건물 안에 성탑(聖塔)과 입암산·삼성봉·방장산을 그린 벽화를 함께 봉안했다. 바로 정읍 주변의 산들을 신앙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듯 입암산과 삼성산은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지역이었다.

2. 땅이름으로 본 상징성

신라 시조 혁거세의 왕비인 알영부인은 알영정(閼英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났으며, 혁거세 역시 우물인 나정(蘿井)에서 태어났다. 나정은 담쟁이 넝쿨이 있는 우물이다. 담쟁이넝쿨은 환경 친화적인 작물로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식물이 자라는 곳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의미하며, 이 우물에서 알이 나왔으니 우물은 곧 여성의 옥문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물은 '생명의 탄생지'임을 의미한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갠지즈강에서 시체를 물에 적신 후 우물 '井'자의 나뭇단에 시체를 올려놓는다. 이때에 적신 물은 처음 어머니 뱃속의 양수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물에 적시는 것이다. 물은 이와 같이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과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1935년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 촉탁 무라야마지쥰이 쓴 『조선의 유사종교』 944쪽

에서도 정읍의 '井'자는 물의 근원, 즉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라 했다. 이를 토대로 정읍은 만물이 생육하는 왕자가 출현하는 곳이라 하였다.

그래서 보천교에서는 대흥리의 도로를 우물 '井'자나 '丁'자로 구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천교에서는 인의(仁義)와 경천(敬天)을 교지로 삼고 교장을 우물 '井'자로 했으며, 상투에 큰 갓을 쓰고 다녔다. '정'자의 교기는 기념일 및 치성일에 게양했다.

보천교와 정읍

대흥리 주변의 지명

탁명환은『한국 신흥종교의 실상』에서 한국 신흥종교의 메카라 불리는 계룡산 신도안의 지명이나 산 이름, 마을 이름들이 한결같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점도 신흥종교가 모여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1924년 말 신도안에는 총 1,515가구에 6,949명이 종교적인 이유로 정착생활을 하였다. 1918년을 기점으로 할 때 584가구 2,667명이었던 것이 6년 사이에 3배의 증가를 가져 온 것이다. 강대성이 창립한 갱정유도가 자리한 곳은 남원의 도통동이며, 정인표가 1938년 미륵불교라는 교단을 창설한 곳은 태인면 태흥리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신종교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은 나름대로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따라서 보천교가 자리했던 정읍 대흥리를 중심으로 지명에 나타난 종교적인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에 증산은 지명의 동음(同音)을 취하여 공사를 행한 일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명을 통한 종교성의 고찰은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정읍 대흥리 근방의 관련 지명에 관한 설명이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암면에는 조정과 왕조를 상징하는 마을이름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3자나 4자로 되어 있던 지명이 구한말에 모두 3자 지명으로 통일되었음도 알 수 있다. 덧붙여 내조(內朝).외조(外朝)는 원래 조회동인 마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개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접지리는 조선 정조 때부터 1914년 일제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작업 때까지 지명변경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촌노들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접지리가 아닌 현재의 대흥리라는 지명은 보천교가 흥하던 시기 이후부터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본래는 평산 신씨(5호)가 터를 닦은 중흥과 연안 차씨(5호)가 자리 잡은 진목, 그리고 김해 김씨(5호)들이 입주한 신평을 합한 한가로운 마을이었다고 구전된다. 그런데 보천교가 자리하면서 15호에 해당하는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700여 호를 헤아리게 되면서 마을이 크게 흥하라는 뜻에서 대흥리로 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1〉 대흥리 주변 땅이름

戶口總數(1789)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897)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4)	井邑郡舊里洞名一覽(1931)	備考
남일면 삼군리 (三君里)	남일면 삼군리	내장면 교암리 삼군리 일부 정읍면진산리 삼군리	정주읍 삼군리	봉산 이씨가 주성을 이루며 풍수상 '군신봉조혈'(君臣奉朝穴)이 있다는 곳이다. 삼군리(三軍里)로 풀이할 때는 조회 마을과 연관지어 임금이 조회하고 삼군이 호위하는 형상으로 해석한다
남일면 수령동 (守令洞)96-5)	*	*	*	진산 마을 남쪽에 있으며 수령이 살았다는 구전이 있다.
남일면 내조회동 (內朝會洞)	남일면 내지리 (內之里)	내장면 교암리 내지리	내장면 교암리 내지리	촌노들의 구전에 의하면 백제시대 정촌현의 치소가 정해 마을에 있었고, 내직에 해당하는 관리들이 진산에 살면서 임금께 소를 올릴 때는 이 마을에 모여 상의를 했다고 한다. 내조, 내조월로도 부른다.
남일면 외조회동 (外朝會洞)	남일면 외지리 (外之里)	내장면 외지리	내장면 외지리	일제는 쓰기에 번거롭고 어려운 글자는 지명유래에 관계없이 단순한 글자로 바꾸었다. 현재는 조월(照月)로 부르고 있다. 외조, 외조월로도 부른다.
남이면 접지촌 (接芝村)	남이면 접지리 (接芝里)	입암면 접지리	입암면 접지리	제내 정남쪽에 있는 제령봉이 나비형국이기 때문에 묘 앞에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서일면 군령촌 (軍令村)	서일면 군령리	입암면 등천리 군령리	입암면 등천리 군령리	호랑이가 출몰하고 도적들이 들끓었다 한다. 군령은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 곳으로 풀이한다. '장군대좌의혈'(將軍對座의 穴)이 있다 하며, 군령다리 아래쪽은 홍거리(護軍거리)라 불린다. 한때 천주교 공소가 있었던 마을이다.
서일면 대흥촌리 (大興村里)	서일면 중흥리(中興里) 신평리(新坪里) 진 목 리 (眞 木 里)	입암면 접지리	입암면 접지리	

그러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일면의 대흥촌리가 오늘날의 대흥리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접지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보천교가 흥할 당시, 민족의 흥망성쇠를 예언했다고 하는 『정감록』(鄭鑑錄)에 "노령지하(蘆嶺之下) 10리 지점에 피

란처가 있는데 사답(寺畓) 7두락이라."는 이야기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또한 "진목개화(眞木開花) 만목춘(萬木春) 정해수류(井海水流) 사해원(四海源)"이라는 말이 당시 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즉 진목에 꽃이 피면 만 가지 나무에 꽃이 피고 정해에서 솟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 사방 바닷물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대흥리는 예전에 주변이 온통 참나무 밭이었다.

신종교의 메카인 계룡산(鷄龍山) 신도안(新都安)은 이태조가 1년 간 대궐공사를 벌인 후 지금까지 행정구역 명칭과는 별도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데 대흥리는 이와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경우 대흥은 통상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많이 붙여지며, 마을이 커져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면 신흥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입암면 대흥리의 동부, 서부, 남부 마을은 보천교가 이곳에 자리하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대흥리 주변의 소지명

이외에 탐진(耽眞) 안씨(安氏)의 선산인 대흥리 앞의 제령봉(帝令峰/임금이 명령을 내린다는 형상을 말함)과 대흥리 남쪽 마을에 왕심리(旺尋里/행정구역으로는 입암면 단곡리)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그 부근 평지는 천자가 출현한다 하여 해도(海島)라 부르며 북동쪽의 높은 산봉우리는 국사봉(國師峰)이라 한다.

또한 지금은 십자가라 부르기도 하는 곳을 당시에는 종로라 하였다. 이는 종각이 있었던 자리였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뿐만 아니라 입암산 동편 줄기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삼성산(三聖山)이라 부르고 있다. 즉 이 산의 정기로 인하여 신과 같은 성인이 셋 나온다는 뜻이다. 이 산의 우측에는 필봉(筆峯/조월 정남쪽의 산)이라 하여 붓끝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산의 형세 때문인지 문필이 안 떨어지고 구학문이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비룡산(飛龍山)은 정읍에서 볼 때는 '비룡천수지행'(飛龍天水之行)이라 하여 용이 물을 뿌리는 형국이고, 전남 장성 쪽에서 보면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 하여 기러기가 날개를 앞으로 펼친 모습으로 보고 있다. 진산 마을 동남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에는 각각 감사나 영의정 자손들이 글을 외우고 공부했다고 하는 독송골(讀誦谷)과 감사골, 수령골이 있는데, 『호구총수』에도 수령동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상교동 삼산(三山) 마을에 있는 고직동(庫直洞)은 보천교주인 차월곡 모친의

묘소가 있는데, 이 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왕모래등(王母來嶝)이라 하여 임금의 어머니가 온 산등성이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보천교 운동 당시 천자 출현에 부합시켜 인위적으로 붙인 지명도 있고, 더러는 예로부터 불려 왔던 지명도 있다. 따라서 전답을 매각하고 아예 대흥리로 이주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근대종교 메카로서의 정읍

정읍의 태인과 고부는 예로부터 무속 신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정읍은 또한 한국 신종교의 대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미륵신앙이 아직도 활발한 지역이다. 미륵신앙이 가장 활발한 곳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조사되어 있다. 전북에서는 정읍이 남원 다음으로 미륵불상이 많이 남아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94년 1월 10일 새벽, 농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들불처럼 번졌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정읍시 이평면(梨坪面) 예동(禮洞) 마을이다. 민족종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뒤를 이어 나온 증산교의 교조 강일순(姜一淳)은 덕천면(德川面) 신월리(新月里) 신송(新松) 마을에서 탄생했다. 또한 자칭 600만 교도라 자랑하며 일세를 풍미했던 보천교 본소가 입암면 대흥리에 있었다.

이밖에 보천교를 비롯해서 보화교, 유일무극대도진동학제화교, 미륵불교 등이 현재도 신자수를 달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입암면 대흥리에 물법포교(찬물교)가 행해지고 있었고, 인정상관의 여처자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입암산성 북창골에는 정씨사모파로 불리는 일명 '하늬재교'가 있었다. 이평면에 영주교(靈主敎)가 있었고 영원면에는 은세룡(殷世龍)의 황극교(皇極敎/1926)가 있었다. 신정동 백학마을에는 현재 증산계열의 대덕전(大德殿)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읍은 가히 근대종교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신종교가 둥지를 튼 곳이었다.

민족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종교사상도 일찍이 들어와, 정읍지역에서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다. 1909년 상동에서 첫 예배가 시작된 것을 시초로 이 고장 처음으로 제일교회가 창립되었으며, 천주교는 정읍시 신월동 신성 마을에 교우촌을 형성한 이래 현재는 입암면 등천리 공소, 칠보면 반곡리 동막공소, 태인면 거산리 신기공소 등은

마을 전체가 교우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주 교구에서도 모범 공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읍은 이 지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포용성 외에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유·무형의 종교적인 상징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기에 종파에 관계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자칭 '600만' 교도라 자랑할 만큼 큰 교세를 이루었던 보천교를 중심으로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교도들이 입암면 대흥리로 몰려들었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1920년대 독립만세운동이 무위로 끝나고 당시 민중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있을 때, 차월곡이 천자로 등극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는 보천교가 애국적이고 민족종교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으며, 실제로 보천교를 신봉하는 가구주들의 상당수가 그렇다고 응답한 적(1988년)이 있었다. 따라서 전 재산을 바치고 입암면 대흥리로 이주해 오는 탄갈자(殫竭者)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여기에는 정읍의 풍수지리적인 요인도 한몫 했을 것이고, 정읍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흥리 주변의 마을 이름과 땅이름이 신자들의 직접적인 이주의 동기가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주해서 이곳에 새 왕조가 개창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을 것이며, 아예 이곳에 눌러앉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읍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민중들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명(땅이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생각해 보기】----------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아봅시다.
2.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제잔재 지명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3. 정읍의 대표적 소지명인 '말고개'와 '잔다리목'은 무슨 뜻일까요?

지명은 조상대대로 전승되어 온 값진 문화유산의 내력을 비장(秘藏)하고 있고, 한국어의 계통, 고대국어의 재구(再構), 한국어의 어원,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한국의 역사, 역사지리, 민속, 전설, 제도, 정치, 경제 등 문화사를 연구하는데 또한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우리 민족의 성립 및 이동은 물론 다른 민족과의 문화사적 교류를 파악하는데 고고학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지명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명은 그것을 표기할 문자의 차자(借字) 혹은 창제가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비록 기록 시기는 뒤질지라도 발생 시기는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지명을 어떠한 사람들이 연구해야 적합한가?

실로 지명의 기원, 변천, 발생 등을 분석하려면 언어학적인 접급 방법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국어음운론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사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국어사학자가 연구하는 바람직하다. 여기에 고고학적인 지식이 적절히 가미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또한 일종의 지리서라 할 수 있는 지리지, 읍지에 대한 지식까지 구비해야 하며, 기타 보조학문으로 지명의 전설, 신화 등을 수집하고 풀이하려면 민속학, 설화문학, 신화학 등의 학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다방면의 지식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가볍게 접근할 대상은 아니다.

지명의 유래 양태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자연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연환경에서 비롯되는 이런 신앙의 대상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로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물이나 유적, 전설과 관계되는 지명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전설로 인해 지명이 붙는 일은 극히 드물다. 땅이름 전설 중에는 어떤 한 이름을 두고 그 글자나 뜻에 맞추어 이런 땅이름이 되었다는 식으로 후세 사람들이 꾸미고 윤색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에 부합되는 전설을 적당하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며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다.

■ **산(山)**-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7%가 산이며 지세가 대부분 산과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산과 천(川), 성(城), 곡(谷) 등을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동·서·남·북·양(陽)·주(州)·용(龍) 등의 명칭을 지명에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산인데, 산은 고어인 뫼가 메·매·미(그리 높지 않은 산/똥매/갈미)로 변천되어 사용되고 있다.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마을, 동, 리의 뜻을 갖는 일반명사가 된 경우도 있다.

덕(德)이라는 지명이 쓰이는 곳도 있다. 윤리적인 의미 외에 지명에서는 큰 산 또는 언덕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산정(山頂)의 지명에서도 쓰이고 있다. 당(堂)은 집과 같이 높은 땅을 뜻하는데 산정에 쓰이는 지명이다.

■ **골〔谷〕**-옛날에는 군, 현의 의미로 쓰인 고을, 마을과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골 곡(谷)', '골 동(洞)'과 '고을 현(縣)' '고을 주(州)' '고을 군(郡)과 구별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골'을 '고을'의 준말로 풀이하고 있으나 '골'은 '골짜기'이지 고을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골'은 '굴' '올' '울'로 변천되고 '실'은 골과 같은 의미로 내륙지방에 남아 있는 지명 접미사로 계곡에 발달된 마을 지명(논실/부여실/지금실/다라실)으로 쓰인다.

'골'은 다시 연철되어 '고리' '구리'가 되고 '올'과 '울'은 '오리'나 '우리'로 연철되기도 했다. 고구려에서는 성이나 마을, 골짜기 등을 구루, 골, 홀(미추홀) 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고구려의 구려(句麗)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평(坪)'은 평지임을 뜻하는 지명으로 주로 내륙 깊숙이 발달된 평야지에 많이 쓰인다.

■ **성(城)**-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성은 옛 문헌에는 성 이외에 '홀'이 압도

적으로 많다. 이것은 북방계(고구려) 지명으로 후대에 '성' '자' '잣' '재'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성의 고훈(古訓)이 '잣'이나 현행 훈은 '재'이다. 순수 국어에서는 '현(峴)' '령(嶺)' '치(峙)'등의 훈이 고개라고도 하나 대부분 '재'라고 한다.

■ **고개〔峴〕**-고개의 이름으로 주로 '치(峙), '령(嶺)이 붙는다. 봉우리 '봉(峰)'자는 산과 음을 나타내는 봉을 합쳐 '뾰족한 산꼭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다. 널리 산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고개 '령(嶺)'은 산등성이를 따라 봉우리들을 이은 줄이라는 뜻인 령을 합쳐 이어진 '산의 능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 '치'가 '티'로 변해 지명에 사용되기도 했다. 속리산 가는 길의 말티고개와 부산의 대티터널은 똑같이 큰 고개를 의미하는 말들이다. 또한 넘는다는 뜻의 '유(踰)'자가 지명에서 고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고개의 음이 변천한 '오개' '우개'와 '재' '기' '지'도 같은 의미의 접미사로 쓰인다. '재'는 길이 통하여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를 의미하고 넘어 다니게 된 길을 '고개'라고 하기 때문에 높은 고개가 '재'가 되는 셈이다. 길마재, 말마지와 같은 말들로 변천 사용되기도 했다. '재고개' 같은 경우는 중복 사용된 경우이다.

■ **바위〔巖/石〕**-태고적부터 거석숭배 신앙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바위와 관련된 지명은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전국 지명에 널리 사용된다. 돌은 전라도에서는 '독(돌은 바위보다 작은 것을 말하고, 독자갈은 자갈보다 큰 것을 말함)'으로 부른다. 독은 뒤에 ㄴ, ㅁ의 음이 따라오면 동으로 발음되어 독막(동막), 독내(동내)로 변하기도 했다.

■ **초목(草木)**-단군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단군신화가 있다. 이 신단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신령스런 존재로 추앙받는다. 이런 신앙관이 반영되어 나무 이름을 마을이름으로 한 곳이 많다. 동(桐/오동나무), 이(梨/배나무), 임(林/숲), 유(柳/버드나무), 매(梅/매화나무), 율(栗/밤나무) 등의 사용이 대표적이며 감나무골, 은행정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 **지형〔浦·串·涯·項〕**-포가 '개'나 '애'로 변한 곳이 있으며, '곶'은 불쑥 튀어나간 부분을 말하는데 '고지' '꼬지' '구지' '꾸지'로 변형되었다. 신태인 화호(禾湖/숙구지)가 바로 그 예이다.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에는 70여 곳의 곶 지명이 해안지방에 보인다. 이 지명은 서남해안 특히 서해안에 많다. '애'는 물가 낭떠러지나 산지 언

덕을 뜻한다. 이 지명은 특히 북한에 많고 대개 물가 벼랑에 붙어 있다. 지형이 인간의 목처럼 잘룩한 곳은 '항(項)으로 옮겼다.

■ **물(水·江·川·溪·池·泉·井·津)**- '매' '미'로 현존하고 있다. 물에 사는 나리를 '미나리(매나리), 바다 속에 사는 더덕은 '미더덕(매더덕)'이라 한다. 물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나 '우물 정(井)'자를 지명으로 쓰는 곳은 전국에 정읍밖에 없다.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江古里)의 강고마을도 물이 많아 어느 곳에서나 지하수가 나온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며, 용등(龍登)마을도 종전에는 천촌(川村)이라 불렀으니 물이 많아 붙여진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속칭 '냇말' '냇몰'이라 부른다. 신중리 주산(舟山)마을도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옛날에 부근이 바다였다는 구전에 따라 산에 배를 매었다 하여 속칭 '배뫼'라고도 한다. 강고리 일대가 물이 많아 백운리 밑의 용수리도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인다. 밭이 없고 논만 있으며 논 속에 동네가 있어 비가 오면 홍수 피해를 입는 마을이다.

'샘 천(泉)' 자나 우물 정(井)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그 일대에 온천이 있거나 약수터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샘은 자연적으로 솟아 넘쳐나는 물을 뜻하고 우물은 인공을 가해 물이 괸 곳을 의미한다.

'진(津)'은 나루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곳으로 수상교통의 요충지가 대부분이다. 부안의 곰소는 행정구역상 진서면(鎭西面)에 속하는 지역으로 구진(舊津)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 진(津)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본래 지명은 곰못인 웅연(熊淵)이었는데 일제 때 곰소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다. 보통 속말을 한자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산의 월명산(月明山)이 옛날에는 명월산(明月山)이었다고 구전되듯이 소곰(금)이 호전현상(互轉現像)으로 곰소가 된 것은 아닐까? 조선시대 이중환(李重煥)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도 "변산의 바깥은 소금 굽고 고기잡이에 알맞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곳 곰소에서는 지금도 천일염이 많이 생산되고 중세어인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도 '소금'을 '소곰'이라 하였으며, 전라도에서는 지금도 '소곰'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곰'이 '곰소'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은 감나무골이라는 지명이 붙지만 소금이 많이 난다 하여

소곰(소금)을 지명으로 붙일 수는 없지 않은가? 곰소의 염전은 일본인들이 상륙한 이후 소금을 일본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나 『택리지(擇里志)』에 기록된 내용처럼 천연조건이 뛰어나 이전부터 소금이 충분히 생산되었을 것을 생각된다.

'지(池)는 연못이 마을 주변에 있는 경우이다.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斗池里)는 말 그대로 큰 못이 있으므로 '말못' 또는 '두지'라 하였다. 기타 강이나 하천, 계곡이 있어 붙여진 이름에는 강, 천, 계가 붙는다.

■ **동·식물(龍·鳳凰·馬·松·麒麟·鶴·熊·龜·虎·鴨)**- 주로 지형이 동·식물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되는 유사감각(類似感覺)과 동물의 서식지, 신격화한 동물을 추앙하는 뜻으로 지명에 사용되었다. 마(馬)는 말을 의미하는 이외에 그 지역에서 으뜸가는 종주지(宗主地)라는 뜻으로 쓰인다.

송(松)은 소나무라는 뜻 이외에 '살만한 곳'이라는 뜻도 있으며 용(龍), 봉(鳳) 등은 실존하지는 않지만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하여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기린의 명칭도 사용되고 있어 이채롭다. 일찍이 고구려 무덤 벽화에 이상하게 생긴 기린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린이라는 동물을 고구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자료인 『정읍군구리동명일람』에는 소성면에 후천리, 기린리(麒麟里), 원두리, 조동리를 묶어 기린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다. 『한국지명총람』전북편 하에는 기린리는 지형이 곶으로 되었으므로 '매꼬지' 또는 기린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학(鶴)이 들어가는 지명은 대부분 신선사상의 영향이며 청빈을 상징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웅(熊)에는 곰이라는 뜻 이외에 '검다' '신성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구(龜)는 장생을 뜻하며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호(虎)의 명칭은 경북지방에서만 쓰인 점이 특색이다. 압(鴨)은 바닷 속에 고막을 먹으려고 물오리가 많이 모여들고 있는 곳에 쓰였다.

■ **지방의 특산물**-쇠가 나는 곳을 '쇳골', 차돌이 있는 곳을 '차돌배기(백석)', '밀다리벼(가시랭이가 없고 빛이 붉은 늦벼)'를 심던 논을 '밀다리 논', 감이 많이 나는 마을을 '감나무골', 절 주변에 밤나무가 많다 하여 '밤절골', 그리고 흰 흙이 많이 나온다

하여 '백토구뎅이'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정읍시 옹동면의 대칠 마을은 속칭 '옻밭골'이라 부른다. 옻이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옻밭은 칠전(漆田)으로 한자 표기해야 하며 마을 이름도 그렇게 불러야 함에도 일제 때 큰 동네, 작은 동네라는 뜻으로 대칠(大七), 소칠(小七)로 바꿨다. 『호구총수(戶口總數)』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태인 동촌면에 칠전리(漆田里)로 표기되어 있으나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노탄리(蘆灘里)와 함께 산성리(山城里)에 포함시켰다. 전남 나주 송현동에도 옻나무가 많다 하여 옻밭골로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한자로 역시 칠전으로 표기하여 마을 이름으로 쓰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전북편 하에는 감이 많은 지역으로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감뫼(감산)마을을 들고 있다. 이곳은 한때 이질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전멸상태에 있을 때 다행히 주변에서 감이 많이 생산되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정읍시 옹동면 상산리는 닥나무가 많다 하여 '닥배미'라 부르며 저상(楮上)으로 한자 표기하고 있다.

■ **들〔坪〕**-홀(忽), 벌(伐), 불〔火〕 등의 명칭으로 쓰이고 한자 평(坪)으로 나타낸다. 땅의 번지 부여 이전에는 달논, 방아논, 펄논, 텃밭으로 불렀다. 남방계 한어(마한어/진한어/변진어)에서는 산곡이나 분지를 나타내는 고구려의 '홀'지명이 소멸되었으나, 곡(谷)자 지명으로 훈차(訓借)되었으며 '홀'형 지명이 바뀌어 '블' '불'로 불리고 백제에서는 '부리'로 불렸다. 소부리(부여), 고사부리(고부), 고량부리(청양), 모량부리(고창)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현재의 서울(신라식으로 보이며 서블/셔블/셔볼/셔울/서울로 변화)과 같은 '울'형의 지명은 대부분 '화'형의 고형으로 달구벌(대구) 등의 지명으로 남아 있으며 '화'형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화'형 지명은 오늘날 경상도와 일치하며, '부리'형은 충청남도 중부까지, '홀'형 지명은 인천, 수원, 안성, 충북 음성까지 분포되어 있다. 신라의 '화'형과 백제의 '부리'형의 차이는 어간에 접미사 '이'를 더 연결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 **방위와 숫자 지명**- 동·서·남·북의 방위를 따져 지칭하는 것으로 이런 명칭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학교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고조선에서도 전국을 동·서·남·북·중의 5부로 나누어 통치했다고 하고, 고구려에서도 계루부, 연노부, 순노부, 절노부, 관노부 등 5개의 명칭을 가진 행정 구역으로 나

누어 통치했다. 이 5부는 동·서·남·북·중의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니 방위를 따져 지칭하는 관습은 그 기원이 참으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숫자지명은 일·이·삼·백·천·만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정읍시 칠보면 삼리마을은 원래 '남전(藍田)'이었다. 중국 송나라 때 남전골에 사는 여대방(呂大防)이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남전여씨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자 조선시대 정극인(丁克仁)이 이곳 고현(지금의 칠보)에 살면서 중국의 향약을 모방해 고현향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향약 발생지인 중국마을 이름을 따 '남전'이라 하였던 것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삼리(三里)로 고친 것이다

마을이름이 세 번째 붙여졌다 하여 삼리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태인에는 태흥리에 삼리, 사리, 오리가 있고 태창리에 육리, 태성리에 칠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러한 방위와 숫자지명은 일제 이전부터 써 온 방식이긴 하지만 학교같은 경우에는 동일 명칭이 여러 개 생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유물·유적·전설**-전해져 내려오는 문화유산이나 가문의 명예를 높인 경우, 그것을 긍지로 여겨 지명으로 삼는 경우이다.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에는 속칭 '부처댕이'라는 마을이 있다. 1984년 원광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밝혀진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석불2기가 발견된 지역이다. 원래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주민들이 한 곳으로 옮겼다. 이곳 소성면 주변에는 절터와 돌부처가 여러 군데 남아 있어 이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만수리의 옛 탑이 남아 있는 절안골, 보화리의 돌부처가 있는 부채당이, 중광리의 돌부처터와 절골, 흑암리의 탑이 있었다고 하는 탑골 등의 명칭이 있다.

이와 같이 탑이 있는 마을은 보통 '탑골'이라 지칭하는데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도 3층 석탑이 있다 하여 이와 비슷한 '탑립(塔立)'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향교가 있는 마을은 서원이나 향교에 다니는 학생을 교생이라 했기 때문에 '교생(고생)골'이라 부르기도 하고, 고향교골, 향교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부에서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 정읍에서는 '명륜', 태인에서는 '향교'마을로 부르고 있다.

■ **신앙**-삼국시대 전래된 것을 알려진 유교, 불교, 도교가 지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인·의·예·지·신과 불교에서 유래된 불(佛)·법(法)·수(修)·은(恩) 등의 명칭, 그리고 도교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선(仙)과 같은 지명이

있다. 신선이 산다고 해서 붙여진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가 그 예에 속한다. 또한 신비하고 거대한 자연에 대한 외경심에서 자연물에 신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원시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전승유형인 당(堂)과 관련된 지명이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은 예부터 당집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에 신당동, 행당동, 사당동, 노고산동(할미당), 산신당, 도당, 본향당, 부군당, 장군당 등의 명칭으로도 쓰이고 있다. 서낭당은 서낭신을 모시는 단으로 전남에서는 할미당, 평안도에서는 국사당으로 부른다.

한국근대사의 서막, 동학농민혁명(1894)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

【생각해 보기】----------

1. 수운 최제우의 후천개벽과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원인은 단지 조병갑의 탐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 '1894년'이고, 왜 '고부'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민란과 반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9세기 농민봉기는 대개 한 군현을 단위로 일어나서 그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삼정의 폐단과 관리의 가렴주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만약 군현 단위를 넘을 경우, 이는 반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현의 수령들을 징치할 수는 있었어도 살던 지역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봉기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대규모의 농민항쟁이었다. 19세기에 일어난 다른 농민봉기와 고부농민봉기가 같은 시대적 조건에서 일어났지만 규모와 내용,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민의 사회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천개벽(後天開闢)과 지상천국 사상

동학의 정치사상은 국제관계의 인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을 탈피하고 있었다. 최제우(崔濟愚)가 「논학문(論學文)」에서 "땅은 동과 서로 나뉘었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이 세계를 동과 서로 대립적으로 파악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 문명권 밖에 있는 것을 모두 오랑캐로 간주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학의 정치사상은 서학에 대항하는 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정척사의 정치사상과도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동학의 운명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후천개벽' 사상이다. 이 사상은 동학 창시 이전까지를 선천의 세상으로, 그리고 동학 창시 이후부터를 후천의 세상으로 구분했다. 동학 창시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천사상은 '천인합일' 사상 및 '지상천국'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후천개벽 사상은 선천의 시운(時運)을 부정한다. 그것은 "불순천리불고천명(不順天理不顧天命)"의 근세 즉 봉건적, 중세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고 조선조의 다음에 도래할 후천개벽의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표현하였다.

왜 고부(古阜)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는가?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부의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의 미작 중심지인 고부는 전라도 북부의 해안선에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여 개국 후의 대외무역의 영향, 특히 미곡의 대일 수출의 영향과 그에 따른 강력한 봉건적 수탈의 격화,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농촌경제의 파탄, 매판적 상인층에 의한 상업, 고리대적 착취, 조세의 증가와 지방관료, 재지지주의 탐학, 격렬한 물가앙등 등, 당시의 조선농촌에 있어서의 최대공약수적인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중첩, 집중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보다도 보수적 기질이 한층 강한 영남권에서는 이단적 성향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최제우는 표면상으로는 변혁적인 후천개벽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도학적 전통을 고수하는 유림의 후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동학사상이 서학을 개명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한 자신의 교리를 보다 극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서학이야말로 사교(邪敎)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이단 사학으로 몰리는데 대비한 방어본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담고 있는 변혁사상, 구체적으로 후천개벽에 대해서는 암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제우의 주장은 규범문화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출신지인 영남권 향촌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차령 이남과 노령 이북에서 농민전쟁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농민군이 집강소(執綱所)를 통해 농민자치를 실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반봉건의 사회개혁을 지향했으며 반침략과 반외세를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한국근대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 민족민주 통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이 운동을 '기존 체제를 부정한 급진적인 혁명이었다기보다 유교적 근왕주의(勤王主義)에 입각하여 서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복고적 개혁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기존 평가가 오지영의『동학사(東學史)』에 실린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12조를 주된 근거로 하여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 사료는 1차 사료를 인정할 수없는 '역사소설'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오히려 1차 사료인 「4대 명의」와 「전봉준판결선고서」의 폐정개혁안에는 신분제 철폐, 부채 탕감, 경지 분배와 같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봉기의 지도자들이 유교적 언설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동학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遇)에 의해 1860년(철종 11년) 4월에 창도된 신종교(New Religion)이다. 시천주(侍天主) 신앙을 중심으로 후천개벽(後天開闢),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을 종지로 하고 민족주의적, 사회개혁적 종교로 출발했다. 동학이라는 교의 명칭은 '서학에 대응하여 동쪽에서 나고 동쪽에서 일어난 도'라는 것으로 반외세, 반천주교의식이 동학 성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창도 시대'로 일컬어지는 수운 당시의 교단의 조직은 접(接)과 접소(接所)였다. 접은 수운의 카리스마에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자발적인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천주교 도입 초기의 강학 모임과 마찬가지로 포덕 초기부터 지속되는 교리강습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접소는 도인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 책임자인 접주를 임명한 본격적인 교단조직으로 볼 수 있다. 접주제는 "각지에 접소를 설치하고 접소에 접주를 두어 그 관내 도인을 통할 교화케 하는 제도"로, 초기에 수운이 전담하던 신앙공동체로서의 접을 교세의 확장에 따라 지역별로 접소를 설치하고 접주를 임명하여 상설 교단 조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은 '연원제(淵源制)'라고 하는 독특한 조직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1894년 정월 전봉준의 주도로 고부 관아를 공격하는 무장투쟁이 발생했다. 이것이 '고부농민봉기'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전운사 조필영의 불법 수탈에 기인한 고부농민봉기는 본격적인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3월 무장에서 막이 올랐다. 고부농민봉기 이후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된 이용태(李容泰)가 오히려 조병갑보다 더한 탐학과 함께 동학 도인들을 탄압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거사에 1893년의 삼례취회와 보은집회 때부터 독자적인 거사를 모색하던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등 대접주들이 연합했다. 전봉준은 '동도대장(東徒大將)'의 깃발을 앞세우고, "어깨에는 궁을(弓乙) 두 글자를, 몸에는 동심의맹(同心義盟) 넉자를 표했으며, 기에는 5만년수운대의(五萬年受運大

義)라 특서하고 기포(起包)하였다. 이때부터 이른바 남북접쟁단이 본격화되는데, 북접도 함께 기포하게 되는 제2차 농민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남접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월을 비롯한 교단의 지도부, 즉 북접은 전봉준 세력의 거사는 "역천배사(逆天背師)이니 출교(黜敎)할 것"이라는 통유문과 경고문을 발하면서 거사한 이들을 "도인임을 가탁하고 여리(閭里)에 행패하는 패류(悖類)"로 규정하고 관아에 '난도멸법(亂道蔑法)'하는 자를 징계해 줄 것을 청하기도 하는 등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조직을 두어 각포 도접주로 「도강장」을, 부접주로 「부강장」을 겸하게 하고, 「법소」와 「포덕소」를 설치하여 포-접 단위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교리강습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장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고부 관아를 다시 함락하고 백산에 웅거하였다. 제1차 농민혁명 창의의 기치는 '사대강령(①不殺人 不殺物 ②忠孝雙全 濟世安民 ③逐滅倭夷 澄淸聖道 ④驅兵入京 盡滅權貴)'에 집약되어 있듯이 교조신원운동의 차원을 넘어 반봉건, 반외세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어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의 승리를 비롯하여 파죽지세로 나아가 한 달 여 만에 전라도 전역을 휩쓸고 4월 27일에는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김개남과 전봉준 사이에 정치적 입장 차이로 화약(和約)과 서울 진격 사이를 저울질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전주화약'을 맺어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시행하였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9월 들어 남북접쟁단을 해소하면서 북접도 기포함으로써 전 교단 차원의 농민군 진영이 형성되었다. 제2차 농민전쟁의 계기는 전주화약 이후에 각지에서 일본군이 증파되고 민포군(民砲軍)이 일어나는 등 동학군에 대한 무력 진압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집강소 통치를 하지 않는 지역이나 민포군이 장악한 지역의 동학도인에 대한 탐학과 수탈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든 동학 도인들이 극심한 탄압을 당하게 됨으로써 해월이 장악하고 있던 충청도와 경상도 일원에서도 봉기의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공주에 이르기까지 북상 경로를 따랐으나, 보다 강화된 경군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민포군, 그리고 막강한 화력의 일본군을 맞아 퇴각을 거듭하게 된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논산에서 크게 패하고 금구, 태인전투를 마지막으로 와해되기에 이른다.

동학과 농민혁명의 관계

동학과 농민혁명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농민전쟁론, 절충론(종교적 외피론), 농민운동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학사상이 농민전쟁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동학은 곧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동학사상이 현실부정 사상, 평등사상, 민족주체 사상 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상의 폭동은 언제나 무장폭동에 앞선다."고 하였다. 어떤 운동과 그 추진력이 된 사상적 동인(動因)의 관련성을 명백히 하는 것은 그 운동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학사상은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나타나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평등주의로 해석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정치·사회적 실천 원리로 발전하여 농민혁명의 이념이 되고 민중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동학사상 자체가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일 수 없으나 현실 부정적인 의식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동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동학사상 자체는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실체도 없으며 농민전쟁의 사상은 동학사상과는 이질적이어서 동학이 농민전쟁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봉준은 동학에 입도한 동기를 밝힘에 있어 동학이 인즉천(人卽天)이나 후천개벽(後天開闢) 등 혁명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전봉준이 유교적 선비로서 효와 충이라는 두 개의 유교적 덕목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데 철저했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전봉준의 거사 목적이 기존의 조선 왕조를 타도하고 그 대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존 왕조를 좀 더 잘 받들자[輔國]는 데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전봉준이 봉기 전부터 보수적 정치가인 대원군과 내응·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도 동학과의 관련을 부정하면서 19세기 이래 끊임없이 일어난 '인민봉기'의 계속이며 발전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 이래 우리 학계의 연구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동학조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학은 '포접제(包接制)'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동학의 포와 접으로부터 봉기조직의 기반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특히 1880년대 호서, 호남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학조직과 결합함으로써 '민란'의 일시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동학이 농민전쟁에서 집단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추진력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나 외피에 불과하다는 종교적 외피론이 있다. 즉 조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아주 부정하는 견해도 나왔다. 동학과 농민전쟁과는 무관하며 다만 도구적, 기능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전봉준의 남접세력은 비록 동학조직이지만 북접교단과 이념, 조직, 구성 등에서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건과 동학의 관련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1922년에 쓰여 진「한국의 혁명운동」이라는 글에서는 혁명적 농민의 최초 봉기이며 양반 중심의 조선 왕조체제를 마감하려는 계급투쟁이고 농민의 정치적 혁명적 요구였던 이 사건은 동학도의 반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수세기에 걸친 침탈로 억압당해온 민중들이 연합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했다. 이청원은 농민전쟁을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 '동학천국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적 외피성을 처음으로 말하였다.

1894년의 이 사건은 형태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농민전쟁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할 수 있으나, 역사적·사회적 성격으로는 농민혁명운동의 징이 보이므로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어 설명〕접주

'접'은 동학의 지방조직을 의미한다. '개접'이라 하는 경우, 교리공부를 위한 집회를 의미한다. 또한 '접'은 단체, 집회, 서당의 뜻이 있고 '주'란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교조는 적당한 인물에게 그 지역 교도의 관리, 포교 등의 일을 맡기고 그를 접주라고 했는데 동학교문의 지방 지부장 격이다. 접은 강도소로 '교회'와 비슷했고, 접주는 '신부' 격으로 접주의 주관 아래 모든 것이 잠행적으로 행해졌는데 교조 당시 접은 15개소에 달했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인물들

*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1855~1895)

그간 전봉준의 출생지로 거론된 곳이 첫째, 고창읍 죽림리 당촌 56번지(오지영의 『동학사』) 둘째, 고부군 이평면 장내리 조소 마을(김상기) 셋째, 전주 출생설(장봉선의 『전봉준 실기』 넷째, 정읍군 덕천면 시목리(신복룡) 다섯째, 태인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전봉준 공초) 등이다. 이 가운데 공초(供草)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현식(崔玄植)의 산외면 지금실 태생설과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한 이기화(李起華)의 당촌태생설(堂村胎生說)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산외면 지금실 태생설은 공초의 내용이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대답한 것이지 출생지라는 의미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에는 정읍에서 고창 당촌태생설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난한 유랑생활이 동지를 모으는 여행이 되다

전봉준은 생활이 어려워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 수 없었다. 전봉준이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이와 같은 유랑생활은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는 민중의 실상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훗날의 동지를 모으는 여행이기도 했다. 출생지에 따른 논란이 있으나 모두 전봉준과 인연이 있는 곳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전봉준은 손화중·김개남보다 동학에 늦게 입도했으나 무장봉기에서는 총대장에 추대되었다. 아버지는 천안 전씨로 창혁(彰赫) 또는 형호(亨鎬)로, 자는 승록(承祿) 또는 형록(亨錄)이라고 전해진다. 그의 집안은 향교의 장의나 향청의 이정이었다 하니 평민 이하의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현식의『신편정읍군지』에 그의 아버지가 향교의 임원인 장의(掌議)의 임무를 띠고 있는 향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가 어떠한 계급에 속해 있었는지는 사료적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아버지의 죽음이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다

생활 수준은 저녁 끼니로 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봐서 중소농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전창혁(全彰赫)에 관해서는, 전 장의였던 그가 군수의 모친상에 조의금 2천 냥을 민가로부터 징수할 것을 강요당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살되었다는 설과 군수의 학정에 분격하여 농민투쟁의 선두에 섰고 그 결과 체포되어 옥사했다는 설 등이 있으나 상세한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료에서 보여 지는 확실한 사실은 적어도 전창혁은 고부군수에 의한 농민수탈에 반대하였고, 그 때문에 군수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다. 농민운동 당시 전봉준이 상복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결국 전창혁의 죽음은 전봉준으로 하여금 반봉건 의식의 확립과 농민투쟁의 지도적인 운동가로 성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전봉준이 접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정세로서는 동학의 지방간부이면서도 종교적 동기에서 접주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전봉준의 경우와 동학에 입교한 김구(金九)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동학 지도부가 종교 체험과 신앙보다도 각 포를 통솔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지도력을 접주의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봉준은 동학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원래 동학과는 별개인 하나의 개혁 사상가'였던 것이다.

농민혁명 전개과정 중에는 전주점령 후 집강소(執綱所) 설치 문제로 전봉준은 일단 전주에서 물러났다가 뒷날 기회를 엿보아 재기하자는 주장을 폈고, 김개남은 내친걸음에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다. 김개남 수하에는 노비와 백정 등 왕조시대에 가장 밑바닥에서 핍박받던 세력들이 몰려든 반면, 전봉준 수하에는 주로 소작인·소지주·머슴 등이 몰려들었다.

태인전투를 마지막으로 전봉준은 손병희와도 헤어졌고 몇몇 부하만을 거느리고 몸을 숨겼다. 이때 김개남은 태인의 종송리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전봉준은 김개남과 만나 다시 거사를 계획하려고 종송리로 오다가 순창 피노리에서 잡히는 몸이 되었다.

다음 해 2월 9일, 2월 11일, 2월 19일, 3월 7일, 3월 10일 5차례에 걸친 일본 영사의 심문을 받고 3월 30일 손화중·최경선 등과 함께 새벽 2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일본신문 『시사신보』). 그의 나이 41세였다.

* **최연소 거포접주, 손화중 장군**(1861~1895)

손화중은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피난시킨 손홍록(孫弘錄)의 후예로 승지(勝地)를 찾아 경상도 청학동으로 갔다가 동학에 입교했다고 한다. 입교 2년 뒤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본가인 삼산동 음성 마을로 돌아왔다. 정읍에서 태어난 손화중은 처음 부안에서 포교를 시작, 정읍을 거쳐 무장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무장에 포교지를 두다

무장에서 포교 활동은 괴치리 양실마을의 큰 부자였던 이 아무개의 집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마당이 넓었다고 한다. 이곳에 포교활동의 근거지인 도소를 두었다. 무장은 지식층과 재산가 그리고 유지들이 많은 곳이었다. 더욱이 이곳은 호남일대에서 동학의 세가 가장 드센 곳이었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거의 모사지로서 남달리 자주의식과 저항의식 또한 투철한 곳이었다. 이는 동학교도들에 대한 지방관의 탄압이 어느 고을보다 가혹했기 때문이다.

손화중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지도자 중 최연소(34세)였으나 가장 많은 교도를 가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사발통문 거사 계획과 고부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봉준과 손화중은 봉기에 대해 사전에 진지한 논의를 했으나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손화중은 고부봉기 해산 이후 다시 무장을 찾은 전봉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기병하게 된 것이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의 비결(비기)을 꺼내다

손화중은 1892년 8월경 선운사 도솔암에 있는 마애불 속에서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신비스러운 인물로 여겨졌다. 일설에는 이 마애불이 선운사(禪雲寺)를 창건한 검단선사(黔丹禪師)의 진상을 바위에 새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마애미륵불로 간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지에 널리 퍼져있는 전설에 따르면,

조선 건국 후 5백년이 지나면 석문(石門), 즉 미륵불의 배꼽을 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그 비결이 나오는 날 새 왕조가 건설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것은 1392년 7월 12일이었다. 그런데 손화중이 미륵불에 복장된 비결을 꺼낸 석은 1892년 8월의 일이었다. 조선 건국 5백년 뒤라는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킨 것이다. 비결 사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라도 일대에 펴져나갔고 이로 인해 손화중포에 농민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황현(黃玹)의 『오하기문(梧下記聞)』과 김재홍(金在洪)의 『영상일기(嶺上日記)』, 박봉양(朴鳳陽)의 『경력서』등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지영(吳知泳/1950년 사망)의 『동학사』(초고본)였다. 오지영은 그 예언서를 '비록(秘錄)'이라 표현했다.

이후 손화중은 전봉준과 함께 3월 봉기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황토현 전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주해산 후에는 나주(羅州), 장성(長城) 등지에 머무른 것으로 간주된다. 9월 봉기에서는 일본군이 나주에 상륙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최경선과 함께 나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태인전투 뒤에는 고창군 부안면 안현리 이모씨 재실에 숨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하고 있다. 그는 전봉준과 김개남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세가 기울었음을 판단하고 재실지기인 이봉우를 불러 "어차피 나는 잡혀갈 몸이다. 네가 나를 고발하여 후한 상을 받아라. 그 동안 네게 진 은혜를 갚겠다." 라고 하여 이봉우의 고발로 체포되었다. 그를 고발한 이봉우는 훗날 그의 말대로 증산군수가 되었다고 한다. 손화중은 1895년 3월 30일 전봉준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35세였다.

* 강경파, 김개남 장군의 위상 재조명(1853~1895)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출생으로 어릴 적 이름은 영주(永疇)였으며, 자는 기범(箕範)이다. 농민운동에 뛰어들어서는 '남조선을 연다' 즉,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개남(開南)으로 고쳤다. 족보에 개남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동학에 입교한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다.

김개남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에서 우도의 금산(錦山), 무주(茂朱), 진안(鎭安), 용담(龍潭), 장수(長水)를 비롯하여 좌도를 호령하였고, 순천(順天)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영남의 서남부 지방까지 세를 떨쳤으며, 전봉준의 공주(公州) 진격 시에는 청주(淸州)로 진격하기도 했다. 북상 도중에는 남원부사와 고부군수를 죽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김개남은 그 과격성으로 인해 천민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향반(鄕班) 출신이다. 당시 상민들이 종, 백정, 갖바치, 중, 광대 같은 무리들과 합류하기를 꺼려했기에 별도의 부대를 조직했거나, 김개남 자신이 천대받는 하층민들을 대변할 목적으로 스스로 이들과 행동을 같이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김개남은 양반들에게 가장 가혹했다고 한다. 그래서 농민군이 진압된 뒤 양반들이 김개남을 죽이고 간을 내어 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김개남은 전주에서 목이 잘렸다. 감사 이도재는 양반·부호들의 강력한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법을 어기고 김개남을 참수케 한 것이다. 시체는 찢겨서 전시되었다.

그런데 최근 김개남 장군에 대한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개남 장군을 전봉준 장군보다 높이 평가하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거가 있다.

이른바 남접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손화중·최경선·김덕명 등이 전봉준보다 훨씬 고참 접주였으며 교세 또한 더 컸다는 점, 김개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보다 먼저 입도하여 접주가 되었다는 점과 전주감영 김시풍(金時豊) 영장을 비롯해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개남은 어린 시절 다른 동네 아이들이 참외서리, 닭서리를 할 때 돼지서리를 했으며『사기(史記)』,『삼국지(三國志)』,『육도삼략(六韜三略)』등 병서를 탐독하고 다산의『경세유표(經世遺表)』를 읽었다. 청년이 되어서는 봉동면 등지에서 훈학을 했으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넓게 교분을 나누어 일가친척과 인근 사방에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덧붙여 정읍군 일대와 태인, 고부는 도강김씨의 뿌리가 깊고 재산도 있어 거사하기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봉준이 시골서당 훈장이라서 가난한데다 부인이 죽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김개남 장군의 재력과 인맥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소속	지도자	동원 인원
손화중포 (孫化仲包)	고창두령 오하영(吳夏泳) 오시영(吳時泳), 임형로(林亨老), 박천서(朴天瑞) 등이 통솔	1,500여 명
	무장두령 송경찬(宋敬贊), 강경중(姜敬重) 등이 통솔	1,300여 명
	흥덕두령 고영숙(高永叔)이 통솔	700여 명
	정읍두령 손여옥(孫如玉), 차치구(車致九) 등이 통솔	1,200여 명
김개남포 (金開南包)	태인두령 김낙삼(金洛三), 김문행(金文行) 등이 통솔	1,300여 명
김덕명포 (金德明포)	태인두령 최경선(崔景善) 등이 통솔	
	김제두령 김봉년(金奉年) 등이 통솔	
	금구두령 김사엽(金士曄), 김봉득(金鳳得), 양필환(梁弼煥)	2,000여 명
합계		7,000여 명

실제로 고부읍성 함락 당시 동원된 인원 가운데는 전봉준 포보다 손화중과 김개남, 김덕명 포 소속이 많았다.

또한 전봉준이 농민전쟁 총지휘자였다고 해서 그를 남접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접주로 혼동하기 쉽지만 남접은 '서포(徐包)'라고도 표현될 만큼 서장옥(徐璋玉/승려 출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고, 전봉준보다 영향력과 세력이 큰 접주들도 많았다. 그동안 전봉준이 남접의 중심 인물로 부각된 것은 전쟁 기간 동안 서장옥은 옥에 갇혀 있어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데 비해, 전봉준은 체포된 후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고 그 기록을 남긴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봉준 공초(全琫準 供招)」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은 가능하면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려 했기 때문에「공초」에는 전봉준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김개남은 소달구지에 태워져 압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따르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불렀고 갈수록 많은 백성들이 뒤따르자 관에서는 민란이 재발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한양까지 압송하지 못하고 전주 초록바위에서 역적이라고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김개남은 공초문이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전봉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현재 김개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과 3대 교주 손병희의 영정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천도교 중앙총부에도 없는 이들 영정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동학교도 내에서 김개남의 역량과 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보물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황현은 『오하기문(梧下紀聞)』에서 "도둑들이 처음 고부에서 봉기할 때에 그 괴수는 태인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라 좌우도에서 태인접이 으뜸이었다. 전봉준과 김기범은 40세쯤 되는데 기범의 집안은 태인 지방에서 몇 대를 이어 살아가는 토호였다. 김기범의 집안을 도강김씨 라고 부르며 김시풍 또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기범은 사납고 용맹스러워 난을 일으킬 때에 여러 일가들이 모두 따랐고 그래서 도강김씨 중에 동학접주가 24명이나 되었다." 우리나라 씨족 중 이렇게 많이 동학과 관련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한일병합 후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도강김씨 가운데 3분의 1이 강진김씨로 등록하였다.

* 넉넉한 인품의 김덕명 장군(1845~1895)

언양 김씨로 금구군 수류면 삼봉리 거야 마을(또는 수류면 용계리)에서 출생하였다. 호적과 족보에는 준상(俊相) 또는 필상(弼商)으로 되어 있고 덕명은 자(字)라고 한다. 자가 이름처럼 쓰인 것은 농민군 지도자들이 주로 가명을 썼기 때문이다. 16세에 경서를 떼었다 하며, 호(용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선비로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과 언제쯤 알게 되었는지, 또 동학에는 언제 입도했는지 모두 확실하지 않다. 성장과정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구와 원평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893년 3월 보은집회에 손화중·김개남과 함께 금구대접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기 위해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과 교섭을 벌일 적에 전봉준과 함께 교섭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집강소 활동의 핵심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평 주변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김덕명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언양 김씨의 토호세력에 속하는 인사들을 많이 구제해주었다고 한다. 동학농민군이 거야마을에 들어가 당시 수천석의 지주인 김모씨의 많은 장독을 부숴, 그 간장이 도랑을 타고 아랫마을까지 흘러갔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이런 속에서도 김씨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9월 들어 전봉준은 집강소 기간을 끝내고 2차 봉기를 서둘렀다. 그때 유명한 삼례

회군(三禮會軍)이 있었다. 전주에서 논산으로 올라가는 통로인 삼례에서 모든 농민군을 집결하게 한 것이다. 이때 김덕명은 1만 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여기에 합류했다.

공주 패전 후에는 전봉준과 원평으로 후퇴하여 재기를 노렸으나 원평 싸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태인 싸움을 끝으로 금산면 장흥리 안정사골에서 은거하다가 관군에 체포되었다.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장군의 시신은 후손들이 거두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김덕명 장군은 후손들이 시신을 거두어 현재 안정사골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 동학농민군 영솔장, 최경선 장군**(1859~1895)

본관은 전주이며, 1859년 11월 18일 태인현 서촌면 월천리(현 정읍시 북면)에서 최성룡(崔成龍)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판결문에는 이름 최영창(崔永昌), 자(字) 경선(景善)으로 되어 있다. 족보에 의하면 그의 부친 최성룡이 홍문관 대제학으로 제수되었다 하니 명문 집안 출신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리라 짐작된다.

전주점령 이후 김개남은 남원일대, 손화중은 광주 일대, 최경선은 나주 일대, 김덕명은 금구 일대를 지휘했다. 공주 공격전 당시에는 일본군이 바다로 온다는 첩보가 있어 손화중과 함께 광주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다. 전봉준과 더불어 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지도했고 부농이었으며 일정한 지식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최경선이 처형된 뒤 그의 형인 최영대(崔永大)는 하인을 거느리고 시신을 수습하여 산길로만 운반하여 매장한 후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감추었다고 전한다. 1996년 9월 8일 칠보면 축현리 조왕곡에 묘비가 건립되었다.

동학(東學) 이후 보천교(普天敎)운동의 전개

【생각해 보기】----------

1. 동학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 증산교라면, 증산의 사상을 이은 것이 보천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보천교에서 전개한 민족운동은 그 뿌리가 동학에 있는 셈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보천교에서 전개한 각종 민족운동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3. 모든 종교(宗敎)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과 관련된 풍습과 종교

가정에서 가족을 위한 각종 고사나 축원을 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목욕재계'와 '정화수 떠놓기'이다. 목욕재계는 물의 정화력을 빌려 신과 교응할 수 있는 자질 또는 심신 상태를 갖추고자 함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물은 산과 함께 생활환경의 양대 기둥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말이 있듯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곳에 사람이 살고 마을이 형성된다. 이 경우, 둘 다 풍요로운 생산성 또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의식에 사용되는 물은 그냥 물이라 하지 않고 '청수'라 부른다. 동학(경주)에서는 입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청수 한 그릇을 놓고 마당포덕을 행했으며, 보천교(정읍)는 우물 '정(井)자'의 교기를 만들어 치성일과 기념일에 게양하였다. 교기의 정(井)은 수원(水源)을 의미한다. 수(水)는 만물을 생성자육(生成慈育)하는 것으로 보천교의 덕화가 수원과 같음을 의미한다. 보천교의 중심지인 정읍을 뜻하기도 한다. 교장은 은적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우물 정자가 새겨져 있다. 적색은 불의 색이며 노랑은 흙색으로 '화생토(火生土)'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흥리의 도로망은 교기의 상징인 우물 '정(井)자' 형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는 그 중심을 '종로'라 불렀다.

천도교에서는 청수를 떠 놓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한다. 청수는 제례의식에 깨끗한 물을 그릇에 떠다 모시는 것으로, 정화수(井華水)와 궤를 같이한다. 이 같은 물의 정화력과 청정, 생명력 등의 상징성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신종교에서 물 신앙을 수용하여 '물법신앙' 또는 '찬물신앙'이 형성되었다. 즉 물의 치병력, 사악과 부정을 쫓는 힘, 천지 조화력, 재생력 등을 신앙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도교 청수치성이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동학계의 분파인 수운교(水雲敎/대전)에서는 법당에 항상 청수를 모신다. 청수를 제단 중앙에 바치며, 청수는 수운교 창교 당시부터 특별히 선정된 곳에서 가져와 모신다. 예불이 끝나면 청수를 마신다.

증산교에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빗대어 '정읍을 우주의 배꼽이며, 만국활계남조선비기의 예언이 실행될 곳'이라 하였다. 이는 모두가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새 생명, 파괴력, 재생력, 정화력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다.

속칭 '찬물교(淸水敎)'라 일컫던 '봉남교(奉南敎)'는 교조가 백일 기도 끝에 하늘에서 받은 물법으로 지병인 속앓이를 고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생긴 신종교이다. 그의 물법은 찬물이 가장 중요한 제수이며, 치성 후의 음복도 제단에 바쳤던 법수만으로 치러졌다. 이것은 천지대안교, 용화삼덕도, 대한도교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된다.

기독교에서도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고,가톨릭에서는 사망한 후 이를 하늘나라로 보낼때에 성수를 뿌린다. 그런 것은 정화기능과 신성의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평소 예불을 할 때 청수를 새로 준비하여 바친다. 사용한 청수는 마신다. 석가탄신일에는 육법(六法) 공양(供養/쌀, 과일, 꽃, 향 등)을 바친 후에 아기 부처 머리에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세 번 붓는 관욕(灌浴/신성한 목욕의식)을 한다.

동학의 정치사상과 운명관

19세기 농민봉기는 대개 한 군현을 단위로 일어나서 그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삼정의 폐단과 관리의 가렴주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봉기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대규모의 농민항쟁이었다. 19세기에 일어난 다른 농민봉기와 고부농민봉기가 같은 시대적 조건에서 일어났지만 규모와 내용,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민의 사회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부농민봉기에서 동학사상은 이러한 농민의 의식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동학의 정치사상은 국제관계의 인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을 탈피하고 있었다. 최제우(崔濟愚)가 「논학문(論學文)」에서 "땅은 동과 서로 나뉘었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이 세계를 동과 서로 대립적으

로 파악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 문명권 밖에 있는 것을 모두 오랑캐로 간주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학의 정치사상은 서학에 대항하는 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정척사의 정치사상과도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동학의 운명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이다. 이 사상은 동학 창시 이전까지를 선천의 세상으로, 그리고 동학 창시 이후부터를 후천의 세상으로 구분했다. 동학 창시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천사상은 '천인합일' 사상 및 '지상천국'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후천개벽 사상은 선천의 시운(時運)을 부정한다. 그것은 "불순천리불고천명(不順天理不顧天命)"의 근세 즉 봉건적, 중세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고 조선조의 다음에 도래할 후천개벽의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표현하였다.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부의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의 미작 중심지인 고부는 전라도 북부의 해안선에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여 개국 후의 대외무역의 영향, 특히 미곡의 대일 수출의 영향과 그에 따른 강력한 봉건적 수탈의 격화,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농촌경제의 파탄, 매판적 상인층에 의한 상업, 고리대적 착취, 조세의 증가와 지방관료, 재지지주의 탐학, 격렬한 물가앙등 등, 당시의 조선농촌에 있어서의 최대공약수적인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중첩, 집중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농민군이 집강소(執綱所)를 통해 농민자치를 실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발전 주체로서 역할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반봉건의 사회개혁을 지향했으며 반침략과 반외세를 분명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한국근대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 민족민주 통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말의 종교 천재, 증산교(甑山教)의 창시자 강일순(姜一淳)

증산교는 '동학을 새롭게 재창조한 종교'로 간주된다. 두 종교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후천개벽과 지상선경 사회(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은 보천교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운의 후천개벽사상은 왕조의 기운이 다하여 개벽될 것을 예언한 반면, 증산은 혼란하

기 그지없는 세상을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자 하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를 뿐이다.

증산은 '시천주(侍天主)'와 함께 한때 동학의 주문인 '태을주(太乙呪)'를 제자들에게 염송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동학은 13자 주문만 지극히 외우면 만권시서(萬卷詩書)가 필요가 없다고 했듯이, 보천교 또한 태을주를 외우는 수련을 중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산교는 동학이 활발했던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직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신자들의 대다수가 동학을 신봉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종교운동이 동학농민혁명 실패 이후에 대두되었다는 것은 이 종교의 교리와 사상 속에는 동학의 이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산교는 창시자인 강일순의 호를 따라 부르는 명칭이다. 그는 1871년 11월 1일 덕천면 신월리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후에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당시 지방 관리의 탐학과 착취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창시자가 이러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증산교의 사상에는 당시 사회현상에 대한 고발과 민중의 생존권 문제가 강하게 내포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일순은 빈농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양반계급이었다. 따라서 그는 신분상으로는 양반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극빈자라는 사회적 지위상의 불일치를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신종교 창시자들이 그러하듯 강일순의 출생에 대해서도 신비스러운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즉 그의 모친이 친정에 근친하려고 가 있을 때 하루는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어리가 내려와 몸을 덮어 천지가 광명해지는 꿈을 꾸고 난 다음 그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열 석 달 만에 그를 낳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보다 다소 윤택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절름발이였으며 미모 또한 거의 없었다. 그는 가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처남의 집에 서당을 차리고 훈장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농민군을 따라 다니면서도 구경만 할 뿐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전쟁의 실패를 예언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봉준을 일러 "진실로 만고의 명장이라, 백의한사(白衣寒士)로 일어나 능히 천하

를 움직였다."고 평했다. 강일순은 동학을 비판하면서도 계승하려 한 것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다음, 3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사회의 실상과 민중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다.

증산의 사상

증산이 각종 모순과 불합리한 세상인 선천세상을 뜯어고치는 방법은 이른바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개념이었다. '천지공사'란 세계의 각종 신들을 불러 모아 통일신단을 결성하고 이 통일신단에서 신명들의 의사를 모아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 후천 새 시대 문화의 모든 규범과 질서를 회의 결정함을 말한다.

개벽이 일어난 세상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으며 계급이 타파되고 남녀가 평등하며 천지보다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인존(人尊)시대'이다. 후천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된 인존은 강일순의 사상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윤리관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보천교로 이어졌다. 보천교에서는 후천선경 건설을 위해 강일순의 사상 중 일심(一心)·상생(相生)·거병(去病)·해원(解寃)을 강조했다. 일심은 마을을 하나로 모아 개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요, 상생은 우주원리이자 도덕의 본질이다. 거병은 사회의 불합리와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이요, 해원은 사회와 인생에 대한 한을 푸는 것을 말한다.

*현무경(玄武經)

증산사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현무경'은 1909년 증산이 저술하여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 두었던 것인데, 그 뒤 몇 사람이 사본을 만들어 세상에 유포하였고, 원본은 차경석의 자부 최씨에 의해 보관되고 있으나 세상에 내놓지 않고 있다. 원본의 구성과 내용이 사본과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으나 유포되고 있는 현무경은 교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4~5종에 이르고 있다.

현무경은 이상한 도교식의 부(符)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글씨도 크게 쓰고 적게 쓰고 올려 쓰고 내려 쓰고 바르게 쓰고 뒤집어쓰고 띄어 쓰고 붙여 써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봐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순천교를 창시한 장기준이 1919년에 큰 깨침을 얻어 현무경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이 교파에서 1979년에 박모산 저술로 『순천도 법문전경』을 발행했는데 이 책이 바로 현무경 해석을 중심으로 쓰여 진 책이다

증산 교리의 체계화

전남 해남군 출신의 이상호와 그의 아우 이정립이 1920년 12월 21일에 동화교(東華敎)란 이름으로 교단을 창설하였다. 이상호는 1915년 강증산의 후처인 고씨 부인의 태을교에 입교했다가 보천교의 60방주까지 되었다. 1924년 1월 최남선이 운영하던 「시대일보」를 인수하는 산파역을 맡았다가 교주의 불신으로 교직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아우 이정립과 함께 보천교 혁신의 간판을 걸고 혁신을 주장했다. 보천교가 친일화하자 미련없이 보천교를 등지고 나와 증산의 수제자 김형렬이 창설한 미륵불교에 가담했으나, 미륵불교의 간부들과 뜻이 맞지 않자 나와서 현재 증산교의 전신인 동화교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상호는 증산의 중심사상과 행적을 모아 1929년 3월 16일 증산교의 경전이 『대순전경(大巡典經)』을 만들었고 그의 아우 이정립은 『대순철학』을 펴내어 증산교의 기틀을 다졌다.

일제강점기 '보천교 운동'을 전개한 차경석(車京石)

아버지 차치구(車致九)의 행적

보천교주인 차월곡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일찍이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다가 형사(刑死)한 그의 부친 차치구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과정이나 가정환경을 파악한다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보천교를 창설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치구(1851-1894)는 본관은 연안, 이름이 중필이다. 자는 치구이며 1851년(철종2)에 현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 접계 마석리)에서 출생하였다. 칠척거구로 기우(氣宇)가 헌앙(軒昻)하고 사람됨이 비범했다고 한다. 스무 살 안팎 시절의 이야기다. 이웃 마을인 지선동(당시 흥덕현)에 임감역이란 천석꾼이 있었다고 한다. 임감역은 전라도 남쪽 지방에 많은 땅을 가지고 소작을 주었는데 양반 끄트머리인 도조(賭租)를 받아 마음대로 쓰라고 일렀다. 차치구는 그곳에 가서 소작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중 힘센 듯한 두 사람을 잡아 꺾고는 "양반인 주제에 도조를 안내는 도둑놈 짓을 하느냐." 고 호통을 치고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해서 도조 수백 섬을 거두고 나서

는 소작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잘 대접하고 말했다.

> 갑자기 도조를 내느라 무리했을 터이니 2/3는 도로 가져가시오. 다음부터는 도조를 꼬박꼬박 내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다.

이런 일화도 있다. 한때 전봉준이 대흥리로 찾아와 거사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수령을 내쫓는 일은 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 가서 거사하면 역적이 된다." 고 거절했다. 전봉준이 끈질기게 권유하자 결국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부봉기에서부터 전주입성, 공주공격전, 태인전투에서도 활약했으며 전봉준이 피신했던 순창 피노리까지 동행하였으니 차치구는 사실상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에 걸쳐 전봉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어린 아들인 경석을 반드시 데리고 다녔다 한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뒤 차치구는 절친한 친구인 최제칠(崔濟七/소성면 광조동)의 집에 은신했으나 관군이 들이닥치자 국사봉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관군이 가족을 데려다 악형을 가하는 바람에 흥덕 관아에 스스로 나가 형사하였다.

일설에 차치구는 기와집을 뛰어넘을 만큼 힘과 담력이 있었다고 한다. 차월곡의 아우인 윤경이 13세 때의 일이었다. 일제강점기 천원분견소에서 헌병보조원으로 있었던 신성학이 어렸을 적, 힘이 좋아 나이가 더 많은 윤경더러 나뭇짐을 해놓으라고 위협하였다. 주변 친구들은 다 해놓았으나 윤경이 이를 거절하자 나무지게를 부셔 버렸다. 이를 부친인 차치구에게 이야기하니 "아비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이라" 하면서 "내 이를 반드시 고쳐놓겠다." 하고 신성학의 집에 가서 그 아비의 상투를 새끼손가락에 꿰어 위협하면서 윗동네에서 집 마당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과 혁명가적인 기질을 이어받은 탓이었던지 차월곡은 이때 나이 겨우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으나 형사한 부친의 시체를 등에 업어다 치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교주의 삼남인 차봉남에 의하면 칼에 찔려 죽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아무튼 당시 형사한 농민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기는커녕 사체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때, 겨우 15세에 불과한 차월곡이 밤에 흥덕 형장을 찾아 그의 부친의 사체를 거두어 장사지내자 형장의 군인들이 어린 차월곡의 기개와 담대함에 감복했다고 한다. 차월곡이란 인물의 담대함을 엿보게 하는 한 가지 예화이다.

차월곡의 출생과 성장과정

신종교 창시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벼슬없는 선비가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63세에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여섯 살에 어머니를, 그리고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증산교의 창시자인 강일순도 극도로 빈곤한 처지에서 생활했으며, 차월곡은 그의 부친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동하다 처형당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국을 유랑하던 사람이었다.

차월곡은 고창군 부안면 연기동, 현 고창 선운사(禪雲寺) 입구에서 출생했으며, 터가 좋았던지 돌 때는 돌떡을 동리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만큼 차월곡은 어려서부터 성숙하고 특이했다 한다. 이에 터가 좋아 텃바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월곡은 4살 때 부친인 차치구를 따라 대흥리로 오게 된다. 차월곡은 건장한 체구에 목소리가 우렁차 상대방을 압도하는 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가히 본소 앞쪽의 입암산(笠巖山)을 울릴 정도였다고 한다. 기록과 구전을 참고해 볼 때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일면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서슬 퍼렇던 일제 관리들도 돌아갈 때는 차월곡에게 "평생 교훈이 될 만한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글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일제강점기 사상범만을 전적으로 취급하는 고등계 형사였던 김종영(金宗永)은 광복 이후 주변 사람들이 차월곡에 대해 물어보니 "태어나서 그런 인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글이 『개벽』 38호에 실려 있다.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라는 제하의 이 글에서는 비봉산인(飛鳳山人)이라고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차월곡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 신장이 약 6척 가량이나 되고 체격이 부대(富大)하며 얼굴은 타원형으로 약간의 흑색이 있고도 광명청수(光明淸秀)하며 비두(鼻頭)는 광후(廣厚)하고 발(髮)은ㅇㅇ하야 표발(豹髮)과 같으며 나이는 약 40세 가량이나 돼 보인다.

또한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과의 문답기에는 "본래부터 건강하셨습니까."라고 묻자 "28세에 교조를 만난 후로 40세 이후부터 몸이 더 비대해지고 50세까지 감기한번 앓아본 적이 없다."고 대답할 만큼 건강을 과시하고 있다. 차월곡의 당당한 모습을 충

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보천교 관련 자료인 『시정(時正)』(1958)에서는 제자 조병연(曺秉緣)이 물으니 "내가 말은 하되 문자를 알지 못하니 성인의 일을 묻되 말로써 물으라"는 구절이 있다. 즉 교주를 문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차월곡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으로 집안에서 한학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차월곡은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큰아들인 희남은 1926년에 사망하였다. 차남인 용남남과 3남인 봉남은 보천교 본소 내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났고, 4남인 계남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5남인 봉룡은 현재 과교동 삼산리에 거주하고 있다.

차월곡의 사망

차월곡은 1936년 57세라는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런데 교주가 죽기 직전 죽음을 예고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다. 낮에는 거슬막「居沙幕」과 서낭당에서, 그리고 종각이 있었던 당산나무 근처에서도 귀신이 울었고, 내장산, 방장산, 입암산에서도 '웅'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교주 사후에는 큰바람으로 정자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일이 생겼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넘어진 나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차월곡이 죽자 일제는 교본소를 접수하고 경내 건축물을 경매처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천교를 해체함은 물론 보천교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전권을 경찰서장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위협공갈(威脅恐喝)로 강요하여 결의문과 위임장에 간부전원이 서명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그친 것이 아니었다. 무극교(無極教/趙喆濟), 동화교(東華教/李祥昊와 李成英), 증산대교주(甑山大教主/安乃成), 태을교(太乙教/朴公又) 등 증산계통의 10여 교단을 모두 해체해 버렸다. 세간의 이야기처럼 차월곡이 친일파였다면 차월곡 사후 3개월 만에 바로 본소를 철거했겠는가? 아무튼 일제는 차월곡이 죽은 다음 해 유사종교 해산령을 선포하여 탄압함으로써 증산계열의 신종교 교단은 교세가 침체되고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보천교의 민족운동

학계에서는 보천교가 상해 임시정부에 적지 않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연구 발표한 바 있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규(林圭)에게 5만원을 전달했으며, 한규숙(韓圭淑)을 통해 30만원을 전달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월곡의 의지를 간파하고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 당시 만세시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韓國痛史)』에는 전국 218개 군 중 211개 군이 참여하였으며, 동원된 연인원을 205만 명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제치하 독립운동가들이 보천교의 풍부한 자금력과 만세운동 당시 동원된 연인원을 능가하는 보천교 신자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法井寺)에서 항일무장봉기가 있었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그간 '보천교의 난', '보천교 사건' 등을 불리다가 연구가 진척되면서 '법정사 항일항쟁'이라는 용어가 공식 채택되었다. 항쟁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이전 1910년대 국내 최대의 항일투쟁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항쟁에 참여한 대중 66명은 일제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그 중 31명에게 실형이, 2명은 재판 이전에 고문으로 사망하고, 15명은 벌금형, 18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리고 핵심 주도자들이 4~10년이라는 높은 구형량을 받았다는 점에서 3·1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의 형량과 비교해보아도 항쟁의 의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건 주모자 31명(재판 기록은 34명) 가운데 김연일(金蓮日)과 정구룡(鄭龜龍), 강민수(姜敏洙)가 승려이며, 법정사라는 사찰을 거점으로 전개되고 있고 박명수(朴命洙/일명 주석, 명주)만이 보천교 수령으로 되어 있어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들이 주동이 된 항일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후상(전 한국독립운동사 사전편찬위원)은 보천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크게 작용했거나 세월이 흘러 불교로의 전향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 보훈지청의 이대수가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봉기는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그 본적을 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만식(趙晩植)의 권총단 사건을 들 수 있다. 조만식은 보천교의 수호사장을 지내다가 상해로 망명했으며, 1925년 요인암살과 군자금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다.

보천교 운동을 종교를 위장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천교는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교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보천교연혁사』나 『교전』, 『도훈』등은 교주 사후에 나온 책이며, 말 그대로 연혁을 기록한 것일 뿐 교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거의 없다. 또한 24방주를 조직했던 1916년부터 1928년까지를 홍범초는 '원태을교' 시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단 내에서는 원년으로 삼고 있는 1909년부터 무진훈사(戊辰訓辭)가 있었던 1928년까지를 '은도시대(隱道時代)'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때까지도 교리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없었다. 또 차월곡 자신이 "보천교는 교가 아니라 도."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주 차월곡은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있었던 인물로 일제치하에서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조선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때(1925년) 보천교의 교리 및 대동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탄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일본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천왕의 생일인 천장절이 가까워지자 3,000원이라는 거금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교단의 존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교분리론을 대부분의 신종교가 수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꼭 보천교에만 국한시켜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라고 본다. 즉 학계의 지적처럼 일제의 강요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친일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반의 지적처럼 문제를 삼는다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한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보천교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친일행위로 비쳐졌을 것이다. 『보천교연혁사』 속편 p.13의 내용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영호가 발문에 쓴 글을 보면

>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 받아 취체가 비상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분자로 오인하여 공격이 무쌍하니 양간에 처한 교도는 고립상태로 호소무처하다.

고 하였다. 실제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시 보천교에 대한 시각을 엿

볼 수 있다. 「동아일보」 1924년 12월 22일(음)자와 12월 23일(음)자에는 연일 보천교도를 '양파의 암투와 상투쟁이 도일', '상투쟁이 거지떼', 라는 제목으로 비방하고 있고, 1924년 12월 29일(음)자에는 '흠치교와 시국대동단 평양의 상투쟁이 정읍으로 등장' 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요사이 평양에는 소위 시국대동단의 강연으로 인하여 각 지방에서 흠치교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평상시에는 용이히 볼 수 없던 상투쟁이의 떼 거지와 또는 그 계집들이 성황당 문밖에 조약돌처럼 덕실거리는 중인데…" 라고 하면서 악의에 찬 보도를 일삼고 있어 거친 정도가 수위를 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민중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조선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1936년 56세의 나이로 차월곡은 사망하였다. 그러자 신자들이 이탈하고 전 재산을 바친 탄갈자(殫竭者)들은 재물을 사취한 사기행각이었다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이처럼 차월곡이 자신의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면 사이비종교(似而非宗敎)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차월곡은 교금을 분산관리하고 있었다. 일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혹자는 보천교가 재물을 사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 중 하나가 민중의 무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60방주나 교간부 대부분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한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으며 의식에 곤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진인(眞人)이 출현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주역이나 풍수, 음양오행, 점복 그리고 천체운행에 따라 길흉을 예언하는 천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 수록된 『정감록(鄭鑑錄)』을 볼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의 출신은 정권에서 소외된 몰락양반이거나 집권세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잔반층 또는 반왕조적인 지식인들의 후예이었음에 틀림없다.

또 차월곡을 비롯한 강일순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동학도인이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증산의 제자, 24명 가운데 차경석, 차윤경, 김형렬, 김자현, 김갑철, 김준찬, 김병욱, 이화춘, 박장근, 김병선, 김보경, 신원일 등 12명이 동학을 믿었던 신자들이었다. 따라서 보천교를 사상적이고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종교를 위장한 단체였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쉽게 뛰어 들었을 것이다.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에서 6개 언어(2014년 6월 6일에 검색한 6개의 언어는 보천교, 차경석, 선도교(仙道敎), 태을교(太乙敎), 우치교, 강증산 등이다. 앞의 우치교는 吽哆敎(흠치교)의 '吽(흠)'의 음이 '우'이기 때문에 우치교라 했을 것으로 보인다)로 검색한 결과는 보천교 74건, 차경석 256건, 선도교 36건, 태을교 123건, 우치교 303건, 강증산 27건 등 총 819건이다. 물론 앞의 판결문은 중첩돼 있어 그 건수는 819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앞의 6개의 언어로 검색된, 그러나 중복되지 않은 321명은 적어도 경찰과 검찰이 "조선독립을 위해 선도교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염출하려 하였다" 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이들이다. 물론 법원에서 기각 또는 면소된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21명이 판결 받은 연도는 1921년이 186명, 1922년 32명 등이고, 1938년 20명, 1929년 9명, 1940년 20명 등이다."

이는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1920-1940)』에 나타난 항일기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항일기사 건수는 보천교(태을교와 흠치교 포함)가 147건, 천도교가 32건, 기독교가 23건, 불교가 18건, 청림교가 17건, 유교가 15건, 천주교가 2건, 기타종교가 11건, 종교 일반이 6건 등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일제강점기 종교별 항일기사 건수(전 독립운동사전편찬위원 안후상)

종교명	종교 일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보천교			청림교	기타 종교
							보천교	태을교	흠치교		
항일 기사	6	23	2	18	15	32	83	9	55	17	11
합계	6	23	2	18	15	32	147			17	11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와 중외일보에 근무했던 기자 출신 정인익(鄭寅翼)은 "양심적 가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 그 당시 본인은 민족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광주학생사건, 보천교사건, 6·10 만세사건, 제1차공산당사건, 고려혁명당사건 같은 것은 본인이 주로 취급하여 왜 관헌에게 암암리에 위협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보천교의 움직임을 민족운동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毁撤)과 이축(移築)

보천교는 동학과 증산교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교였다. 우리가 보천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일제시대에 600만 신도를 자랑할 만큼 증산 사후 가장 융성했던 종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천교는 연구자에 따라 평가를 다소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야 어찌됐든 필자는 보천교 운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훼철되었으나, 일부는 조계사 대웅전과 내장사 대웅전으로 이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해당 건축물들이 비로소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천교 성전 건물이 일부라도 복원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고 사회상을 풍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런 건축물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의미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건축물이 훼철되었다고 해서 보천교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다.

여기서는 보천교의 창교에서부터 조직, 쇠퇴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뒤, 훼철된 건축물들을 추적해 보고 아울러 중심 건물인 십일전(十一殿)의 종교적 상징성까지도 짚어보고자 한다.

보천교의 성장과 일제의 탄압

보천교의 창교 과정

차월곡이 증산을 처음 만난 것은 1907년 5월 17일 금구군 거야 주점에서였다. 월곡은 원래 동학교도로써 일진회 전북총대를 지낸 일이 있었는데 손병희(孫秉熙)를 따르다가 그 처사에 불만하여 길을 달리하던 참에 증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때 증산이 37세, 차월곡이 28세였다. 증산은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다가 1909년 6월 24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수제자인 김형렬(金亨烈)의 집에서 화천(化天)하였다.

그 뒤 증산의 법통을 이어 고부인이 교단을 창설했으나 차월곡은 여기에서 분파하

였다. 보천교는 처음 흠치교, 차천자교, 선도교, 태을교라 불렸으나 사실상 정식 교단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5-6년 사이에 교도가 급격히 늘자 일제는 교주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차월곡은 1917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적을 감추게 된다.

보천교의 교단조직과 성장

차월곡은 1919년 7월 채규일과 김홍규 두 사람을 불러 24방주를 다시 60방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각방 12임 하에 8임을 조직하고 8임 밑에 15임을 조직하라 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임명된 간부가 557,700명이었다.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완성하고 자칭 '600만'이라 불리는 엄청난 숫자의 신도수를 확보한 것이다.

조직이 확대되자 1922년에는 서울 창신동에 큰 건물을 짓고 보천교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때부터 보천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5년부터는 입암면 대흥리에 대규모 교당을 신축했는데 이 때 쓴 목재의 대부분을 백두산 원시림에서 가져올 만큼 당시 보천교는 교세가 대단했다. 그러는 중에도 차경석은 일경에게 계속 쫓겨 다니게 되고 몇 번씩이나 붙잡힐 위기를 면하기도 했다.

차월곡은 1932년 경북 성주군에 사는 송홍눌(宋鴻訥)을 시작으로 사제의 의를 맺는 집지례(執贄禮)를 행하는 방식으로 신자수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집지는 제자가 선생께 가르침을 받고자 폐백을 올리는 예로 공자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공자 생존 당시의 제자가 3,000이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주에게 집지의 예를 행한 이가 3,000을 헤아렸다.

보천교 주요 간부들인 60방주는 대부분 집지의 예를 행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학에 뛰어난 실력자들이었으며 의식에 곤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들이 교세를 확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주제도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래가지 못하고 자체 해산이 되었으며 그 뒤 이 제도는 정리, 포정, 선정사 제도로 바뀌었다.

일제의 탄압

교세가 확장되자 일제는 보천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제주도에서 강대거(姜大擧)가 성금 7만원을 면화포대 속에 가지고 오다 발각되어 24방주 조직이 드러나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 1차 수난이다. 1920년에는 권태호에 의해 60방주 조직이 탄로되어 탄압을 받게 되는 2차 수난을 겪게 된다.

1921년 경북 안동에서는 보천교인을 처벌하는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였다. 이 법률로 인하여 청송군에서는 고문으로 교도 수인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교인 700여명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보천교에서는 이와 같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 보천교의 취지를 선전할 목적으로 문정삼(文正三)과 임경호(林敬鎬)를 일본에 파견했으나, 당시 천장절(天長節) 축일이 가까워지자 3,000원 가치의 물품을 축하.헌상하고 별반 소득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1924년 대동양 단결을 통해서 서세를 막자는 '시국대동단'이 결성된 이후에는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주장과 맞물려 결국은 이용당하게 된다.

1923년 5월에는 천도교의 『개벽』과 대응하기 위하여 경성 진정원내에 보광사를 설치하여 『보광』 잡지를 발행하였다. 『보광』을 인수한 뒤에는 최남선(崔南善)의 시대일보 판권을 인수케 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이 보천교 재단을 거부하겠다고 성명을 내자 이로 인해 교주는 그 책임을 물어 이상호(李祥昊)와 이성영(李成英/李正立) 형제를 파면시켰다.

그 결과 이들에 의해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보천교는 교인들로부터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사교(邪敎)로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일제는 보천교 혁신회를 조직하게끔 하여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보천교를 탄압하고자 한 것이다.

1924년에는 차월곡의 천자등극설이 유포되자 총독부는 일본 황실에 대한 불경행위라며 보천교 간부와 차월곡을 호출하여 심문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이 폭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 사건을 문제삼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하지만 차월곡이 1936년 5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일제는 경내 건축물을 경매처분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산계통의 10여 교단을 모두 해체해 버렸다. 일제는

차월곡이 죽은 다음 해 유사종교(類似宗教) 해산령을 선포하여 탄압함으로써 증산계열의 신종교 교단은 교세가 침체되고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보천교 성전 건물 준공과 철거 이후 이축

보천교 성전 건물 준공

보천교에서는 1925년 본소 내 건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4년 뒤인 1929년 겨울에 2만여 평 부지에 4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웅대한 교전을 준공하였다.

소위 '대궐'이라 부르는 정문은 보화문(普化門)이라 쓰고, 서울 광화문(光化門)을 본따 층루로 만들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총선원(總宣院)을, 왼쪽에 총정원(總正院/42평)을 배치하였다. 각각 여자교인과 남자교인들이 사무를 보는 곳이었다. 총정원 뒤쪽에는 초가로 된 서당이 있어 이곳에서 교주와 교인들의 자손이 함께 한학을 교육받았다.

이외에 부속 건물로 정화당(正華堂), 팔정헌(八正軒), 육화헌(六和軒), 삼진헌(三進軒), 태화헌(泰和軒), 수정사(修整司), 기정실(旣整室), 근성사(謹省舍), 동락재(同樂齋), 공수실(供需室), 존감소(尊監所) 등의 건물이 있었다. 문으로는 보화문(普化門/北), 대흥문(大興門/東), 영생문(永生門), 대화문(大和門/南), 평성문(平成門/西) 등이 있었고, 내부에는 삼광문(三光門), 승평문(昇平門), 함평문(咸平門), 중화문(中和門), 총령원(總領院), 총정원(總正院), 총선원(總宣院) 등이 있었다. 보화문의 양측에 휴게소가 있었고, 그 북쪽에는 종각이 있었다.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십일전(136평)이 있었다. '십'은 역학에서 보는 음의 수로서 가장 큰 마침 숫자이며 '일'은 양의 수로서 시작되는 첫째 수이다. 그러므로 '십'과 '일'이라는 숫자는 '음양'과 '시종'을 뜻하며 또한 음양이 순환하여 천지만물을 생성하는 조화의 본체로서 태극(太極)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십일전은 '태극전'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 십일전을 지을 때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중건한 최원식(崔元植)이 지휘를 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건축기술자들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돌기둥으로 된 2층의 보화문은 북쪽 정문으로 한양의 광화문과 비견하곤 했다. 이 집을 들어갈 때부터 나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했고, 공사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이 150만원이라 했다.

성전 건물인 십일전의 건축 비용은 11만 3천원이었으나 일제에 의해 5백 원에 경매되었으며 그 경매 대금마저도 일제에 넘어갔다. 그러나 『정읍군지』(1936)에 의하면 십일전의 공사비는 50만원이라 하였다. 십일전 건축비가 50만원이라면 총 공사비의 1/3이 넘는 액수이며, 11만 3천원이라 하더라도 총 공사비의 7.3%를 차지하는 본소 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건물이다. 본소 내 건물을 약 40여동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건축비는 37,500원으로 성전 건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보천교 본소 건물이 건축되기 이전인 1924년경 창덕궁 대조전 공사 때 쌀 한 가마가 5원 30전이었다 하니 50만원은 쌀 94,340가마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1925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국내 최고의 신사인 이세신궁(伊勢神宮)과 같은 양식으로 조선신사를 남산에 세웠는데, 총 평수 127,900평에 총경비 156만원을 소요하였다. 모두 15개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것인데 보천교 건축비용과 비교할만한 내용이다.

규모에 있어 십일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건물로 길이는 100자였으며 광이 50자였고 기둥이 24자였다. 경복궁 근정전의 건물이 정면 5칸, 측면 5칸 건물임을 감안할 때 궁전 건축을 참고하면서 규모면에서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십일전 내 닫집을 설치하고 성탑을 배치하였다는 점과, 중앙에 입암산(笠岩山)을, 왼편에 삼성봉(三聖峰)을, 오른편에 방장산(方丈山)을 그리고 산 위에는 해, 달, 칠성을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벽화는 경복궁 근정전의 '일월오악병'을 모방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건물의 웅장함과 정교함이 반도 내 최고라는 말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다. 기둥 간격은 13자-13자-16자-16자-16자-13자-13자였으며, 측면 기둥 간격은 13자-15자-15자-13자였다. 편액은 해강(海崗) 김규진(金圭鎭)이 썼다고 전한다.

건축은 도편수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고급목재를 선별하는 것까지 집주인의 식견과 안목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차월곡은 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천교 성전 건물의 이축

십일전(十一殿)

본소 건물 배치도가 남아 있으나 본소 건물 훼철 이후 마을이 들어서면서 당시 건

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건물의 특징이나 위치 등을 후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손들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본소 건물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보천교 건물은 차월곡이 사망한 다음 해인 정축년(1937)에 일제에 의해 강제 훼철되었다. 당시 정읍경찰서 측에서 경매를 실시하려 하자 군내 유지들은 "우리 군에 이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조선 역사 상 일생일대의 영광인 즉 우리가 합자 매수하여 그 자리에 두고 병원을 설립하든지 학교를 설립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정부에서 보천교 건축물을 경매 훼철하려고 하는 것은 보천교인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박멸할 방침인 즉 철거하지 아니할 자는 백만 원을 입찰하더라도 줄 수 없고, 단 만원이라도 철거할 사람에게 낙찰하여 주겠다." 하자 유지 측에서도 부득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보천교 건물 가운데 십일전 건물은 처음 경매 대금을 1,000원으로 책정했다가 팔리지 않자 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경매 처분되었다. 그러나 경매 당시 차용남(차월곡의 차남)은 15세, 차봉남(삼남)이 12세로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차용남에 의하면 십일전은 현 조계사(曹溪寺) 건물로 원래는 안과 바깥쪽에 공포가 15개 있었으나 각각 6개의 공포를 제거한 뒤에 복원하였다 한다. 그러나 안후상(安厚相)은 옛 십일전과 현 조계사 대웅전을 면밀히 대조해 본 결과 주초 위 통기둥(평주) 하단부 120㎝ 정도를 잘라내고 석재로 기둥을 대신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서 후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십일전을 오르는 기단석에는 연꽃봉우리를 조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며, 십일전 양 측면에는 궁정적 전통인 해태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십일전이 있었던 곳은 현재 주춧돌을 시멘트로 고정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주변에 직물공장이 들어 서 있다.

삼광문(三光門)

십일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삼광문이다. 일명 '태극문'이라고도 한다. 우람한 3층 지붕으로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압도했다. 삼광은 천지, 일월, 성신을 뜻한다. 중앙에 무극문(無極門)이 있고, 좌우에 사상문(四象門)이 있었다. 중앙의 무극문은 백색원을 그려 무극을 표시하였고, 좌우의 태극문은 중앙에 백색원을 그렸고, 이 백색원의 좌측에 적호(赤弧/양을 뜻함), 우측에 흑호(黑弧/음을 뜻함)을 각각 그려 무극에서 음

양이기(陰陽二氣)가 동(動)하여 태극이 나타남을 표시했다.

태극문 좌우측의 사상문에는 백색원을 중심으로 주위에 삼중의 원을 그려 노양(老陽), 노음(老陰), 소양(少陽), 소음(少陰)의 사상을 표시하고 청.황.흑.감.적의 오색중환을 그려 오행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삼광을 무극, 태극, 음양, 오행 등으로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보천교의 신앙대상으로 하는 삼광영은 음양이 작용하여 만물을 생성 발육케 하는 역학적 도의 본체를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광문은 훼철 이후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보화문(普化門)

보화문은 정축년(1937)에 훼철된 뒤 부안의 만석꾼이었던 김상기(金相基)에게 경매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쌀 50가마를 받고 내장사에 되팔아 대웅전으로 복원되었다. 따라서 전국 사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돌기둥으로 되어 있다. 부안과 내장으로 옮길 당시에도 도편수인 심사일이 일을 주관하였다. 십일전 도편수인 심사일은 경상도 사람이었고, 보화문 건축은 도편수를 포함한 전 목수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의 목수들끼리 그 재주를 한판 겨뤄보라는 차월곡의 뜻이었다고 한다. 보화문은 건축 당시 2층 누각이었으나 내장사 대웅전으로 이축되는 과정에서 단층 건물이 되었다. 평지에 지어졌던 보화문은 높은 기단 위에 일부 기둥을 빼고 다시 지어 내장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었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팔정헌(八正軒)

총령원 경내에 있었던 건물로, '8도의 교인을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팔정헌 역시 부안의 부호였던 김상기가 매입하여 당시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료를 거둬들이는 마름들의 집회장소인 구룡당(九龍堂)으로 활용하였다. 그 뒤 초가였던 부안군 상서면사무소가 6·25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자 이 구룡당 건물을 매입하여 복원하였다. 1991년 상서면사무소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짐에 따라 개암사(開岩寺)의 효산 주지스님이 이를 매입(1992년 이후 현 주지 해오 스님)하였다. 그 뒤 복원을 미루다 목재가 부식되기 시작하자, 1994년에 또 다시 매각, 현재는 전주에 사는 김인술(金仁述/扶安人)이 보관하고 있다. 부안 김씨 문중재각을 짓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복원이 되어 있지 않다. 기와는 전통제작법으로 만든 것이었으며, 포는 개암사(開岩寺) 법당 뒤에 있었으나 지금은 포의 소재를 알 수 없다.

현 상서면사무소 정문 옆에는 기둥이나 현관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이 방치되어 있다. 60방주가 회의하던 곳인 팔정헌 옆의 육화헌 건물은 팔정헌과 평수와 규모가 같았으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수호사(修好司)

수호사는 현 입암면 대흥리 동부마을 정자나무 근처에 있었던 건물이다. 이웃한 서부마을은 일제강점기 강재영 형사가 살았다 하여 지금도 '강부장촌'으로 부르고 있다. 수호사는 보천교의 외교 사무를 관장했던 곳이다.

정화당(井華堂)

정화당은 정화수(井華水)의 '정화'의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음에서 정화(淨化)를 연상시키고 물 자체가 지닌 맑음이 부정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화당은 60방주들이 회의하던 곳으로, 경복궁의 근정전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진 청와 건축물이었다. 본소 훼철 당시 흥덕읍 내에 사는 진치삼이라는 사람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재력가였으나 "남이 가슴 아팠던 물건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안사람 김상기가 이를 매입하여 다시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는 경매해야 마땅한 인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해체하여 화목으로 써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태화헌(泰和軒)

태화헌 경내에 태화헌과 공수실(음식을 마련하던 주방), 비정사, 곤도방주실(여방주들이 회의하던 곳)이 있었다. 곤도방주실은 내정원(內正院/42평)이라고도 하며 팔정헌과 육화헌 규모와 같은 건물이었다.

동정각(動靜閣)

입암면 대흥리 당산나무 맞은 편 현 대동직물 자리에 있었다. 각세종(覺世鍾)이라 명명된 이 놋쇠종은 당시 교인들이 수저 1개씩을 거두어 만들었다고 하며 그 거대함이 경주의 인경이나 종로의 인경보다 낫다고 했다. 한글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종의 무게가 1,000근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무게를 달아보니 18,000근이었

고 직경이 8자요, 높이가 12자였다. 고각에 매달아 매일 청신(淸晨), 정오, 석후(夕後) 인오술(寅午戌) 3회로 1회에 72번씩 종을 쳤다고 한다. 후손들은 18,000근도 모자라 놋쇠를 더 넣었다고 했으며 몇 만근이 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종각은 차월곡 사후 4천원에 경매 처분되었다. 이 종은 차봉남이 12살 되던 해에 없어졌는데, 운반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서 일인들이 산소용접기로 녹여 조각조각 끊어서 트럭 5대 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갈 정도였다. 너무 커서 종을 볼 때는 고개를 젖혀서 보기도 했으며, 원근에서 이 종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종소리는 십리나 떨어진 마을에서도 들을 수 있었으며, 종을 만들 때는 갓난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다. 당시 신도들이 낸 수저 한 개씩을 거둬 만들었다는 것은 신도들의 결집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써 또한 신도수를 가히 짐작할 만하니 차월곡은 이 거대한 종을 만듦으로써 교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종을 만든 목적을 천자등극을 위한 사전준비로 보고,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 '군함.현종 제조. 등극할 때 울리려다 종부터 깨여져' 라는 제목 아래 '더욱 기괴한 것은 군함을 만드느니 인경을 만드느니 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도들로부터 그릇 숟가락 등속을 모아 작년 구월 중부터는 우선 인경을 먼저 만들기로 하여 동짓날 그 인경을 울려가며 등극한다고 하던 것이 미쳐 다 되기도 전에 그만 우연히 깨지고 말았다.'

초산정(楚山亭)

고부면 만수동 하만 마을 오복순(해주/2002년 당시 73세)의 집이 바로 해체된 보천교 본소 내에 있었던 초산정 건물을 복원한 것이다. 원래 'ㄱ'자 형태의 집이었던 것이 지어지면서 '-'자 집으로 칸수가 줄었다. 초산정은 외부 인사들을 응접하는 전문사(典文司)가 있었던 집이다. 초산정 건물은 1938~39년에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 의성 김씨인 김종상(金鍾相)이 살던 집으로 지금은 외손자(남원)가 관리하고 있다. 김종상은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일명 '도마다리') 출신으로 친정아버지가 만석꾼이었으며, 일제 때 도평의원을 지냈던 김상훈(金相訓)이 친동생이었다. 황와로 이은 담장도 보천교 건물이었다.

덕림사(德林祠/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덕림)

덕림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현재 진주 정씨 재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당은 제각 내 건물인 홍의재(弘義齋)와 경의당(敬義堂)과 함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의당은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출생인 유익서가 지은 건물로 1900년대에 건축되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유익서는 공포 제작의 전문가로 고창군 성송면 문수사(文殊寺)와 조계사 대웅전 그리고 내장사 보화문 건물을 건축한 도편수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십일전 공포도 유익서가 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당은 정개석의 조부인 정방귀와 증조부인 정관원이 함께 배향된다. 정관원은 1905년 을사조약 당시 기삼연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사당 내에는 어진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이 그린 정관원의 영모도가 보관되어 있다.

덕림사는 현재 사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외관상 사우 건물이 아니며 사찰 내 법당 건물도 아닌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주춧돌은 잘 다듬어진 둥근 주초 위에 다시 8각의 주초를 돌로 세우고 그 위에 목재 기둥을 세웠다. 이러한 특징은 보천교 종각이 있었던 동정각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덕림사는 보천교 동정각 건물이 훼철 당한 이후 이축되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이었던 종각 건물은 사당으로 이축하면서 측면 1칸은 벽을 없애고 공간을 만듦으로써 제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과 포 사이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는 우물천장에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안채건물

보천교 본소 건물은 일제에 의해 모두 훼철되었으나, 구본소(현재 보천교 본소) 건물은 차월곡의 손자인 차천수 명의로 돼있어 다행히 철거를 면하였다. 안채가 있었던 곳에는 한 때 교주의 차남인 차용남과 삼남인 차봉남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안채는 총정원(자좌오향) 건물과 아래사랑채, 교주의 차남인 차용남이 살고 있는 정침(간좌곤향으로 서남쪽의 방장산을 향하고 있음) 건물과 제사를 지냈던 성전(聖殿/자좌오향) 건물, 그리고 차봉남의 큰 형수(경주인/최옥엽)가 살았던 후당 건물과 차봉남(혼

원당)이 쓰고 있는 서실이 남아 있다. 서실이 있는 건물은 한 때 차월곡이 거주했던 곳이었다. 이외에 문칸지기의 방인 사찰(査察)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제사음식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

안채건물 가운데 일부는 붉은기와(赤瓦)을 썼으며, 지금도 담장 일부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차월곡의 둘째 아들인 차용남이 살았던 정침 건물은 원래 초가집이었다. 일제강점기 일인 이부까(井深和郎)가 입암산 오봉줄기의 혈이 '자라등'에 맺혀 있다 하여 현 입암면 천원 마을에 집터를 마련하고 생활했었는데, 본소 건물 철거 이후부터 광복 전까지 줄곧 정침에서 거주하였다.

총정원 건물은 교주인 차월곡이 사망 3년 전에 거처했던 곳으로 교주가 거처하면서부터 총정원 간부들을 아래사랑채(자좌오향)로 옮겼다. 이때부터 큰 사랑채로 불리었다. 건물이 훼철되면서 총정원과 초산정, 서당, 정침, 문간 2채 등 건물의 반은 김종영(金宗永)이, 반은 일본인 이부까에게 넘어갔다.

광복 이후 김종영은 증산교 신자가 되고 다시 이 건물을 이상호(李相昊)에게 되팔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증산교와 보천교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기도 하였다.

연진원(研眞院)

성전인 십일전 동쪽에 위치한 건물이 연진원이다. 교인들의 교리 공부 내용을 시험하기 위해 지어진 이 건물은 '공(工)'자 식으로 지어져 양쪽에 여러 개의 방을 둔 72간의 건물로, 중앙에는 대청마루로 양쪽을 연결하게끔 되어 있었다. 일제가 거처를 막아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 연진원에서 따온 것이 『연진』이라는 잡지였다.

보천교에서는 『보광(普光)』 잡지 발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광복 이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리 중심으로 간행한 『연진』이라는 간행물을 비매품으로 발간했다. 보천교 총정원 내 연진소 이름으로 발행했던 이 잡지는 창간호에서 5호까지 발행되다 중단되었으며, 『연진』 제2호(포교 51년/1960)에는 보천교의 4대 강령과 무진훈사(戊辰訓辭), 사무례(四無禮), 집지훈사(執摯訓辭), 이기문답(理氣問答),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 상례(喪禮), 보천교교약(普天敎敎約)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무진훈사는 1928년 정월 초4일에 수 백 명의 교도를 모아놓고 교인들에

게 역학의 하도낙서(河圖洛書)를 3일간 설법한 것이다. 총정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 채로 3일 동안을 꼬박 설법함으로써 건강을 과시하였다. 그 뒤부터 차교주의 설법 내용이 문자화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 설법으로 인해 보천교의 신로변경(信路變更)이 있게 된다.

정화사(井華司)

김하긍(金河亘)이 현 구파 건물인 정화사를 짓는데 상당한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화사 내에 동주(東主) 월성김공하긍(月城金公河亘) 기공추념비(紀功追念碑)가 세워져 있다. 증산을 교조로, 차월곡을 교주로 모시는 쪽이 구파이며, 차월곡을 보천교의 교조로 모시는 쪽이 신파로 차월곡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차월곡의 영위는 그가 죽은 뒤에 정화사라는 사당을 별도로 세워 봉안하였다.

기타(其他)

지금은 그 옛날 궁궐과도 같은 보천교 내 건물들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 당시 본소와 본소 밖을 경계로 하는 석축 담장(3丈)이 마치 축대를 쌓다 공사를 중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일부가 직물공장 담벼락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소 건물 중 일부는 대리석으로 쌓기도 했다 한다. 그러나 대리석이 사용된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되었다면 십일전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석재와 목재는 서울 동대문의 축대를 쌓는데 운반되었으며, 일부는 주민들이 뜯어다 담장을 쌓거나, 매입하여 건물을 짓는데 이용되었다. 전주역사와 호남고등학교 본관건물 주춧돌, 명덕동 천주교 성당 석축담장 등이 그것이다. 1940년에 준공된 김제시 원평공소 강당도 당시 공소회장이었던 이철상이 희사한 산 부지에 훼철된 보천교의 본소건물의 재목을 불하받아 현 학수대(원평리 180-2)에 목조 건물로 건립한 것이다.

이외에 시내에 보천교와 관련된 다리 하나가 있다. 예전 정읍시 시기동 파출소가 있었던 다리를 일러 '대흥리 다리'라 부르고 있다.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보천교 신자들이 정읍역에서 내려 이 다리를 거쳐 보천교 본소로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십일전(十一殿) 건물의 종교적 상징성

십일전은 차월곡의 천자등극을 위한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실제로 월곡은 1921년 경남 함양 황석산(黃石山)에서 국호를 '시(時)'라 하고 교명을 '보화교(普化敎)'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월곡이 교세를 확장하려는 단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월곡의 3남인 차봉남의 증언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월곡은 암암리에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며,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차봉남이 부친인 교주 차월곡과 보천교 협정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로, 1차는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난 뒤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나, 2, 3차 계획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 십일전에 나타나 있었다고 보여진다. 십일전 내에는 성탑이 있었고 중앙에 입암산을, 왼편에 삼성봉을, 오른편에 방장산을 그리고 산 위에는 해, 달, 칠성을 그린 벽화가 있었다. 경복궁 근정전의 오봉산일월도(五峰山日月圖)를 연상하게 하는 벽화다. 십일전을 오르는 기단석에는 연꽃봉우리를 조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며, 정전 양측 면에는 팔뚝만큼 굵은 황촉(黃燭)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십일전 양 측면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같은 해태상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는 것을 보면 십일전은 궁궐건축을 모방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십일전 건물에 조각된 용 또한 천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용은 중국의 등용문(登龍門)의 고사에서처럼 입신양명의 상징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으로, 임금이 앉는 평상을 용상으로, 임금이 입는 옷을 곤룡포로 표현한 것이다. 또 임금을 상징하는 옥새는 꼭지에 교룡(蛟龍)을 새기기도 했던 것이다. 용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서민들의 의복이나 기물에 용의 문양을 시문(施紋)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인지 본소 상징 건물인 십일전의 성탑 계단 양쪽에는 용트림하는 모습을 목각해 놓았다. 성탑 기둥 역시 나무로 새긴 용을 도금으로 처리하였다.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한 그 모습은 장엄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십일전의 정문인 삼광문 입구 또한 양쪽에 용의 머리를 조각했었다. 한편 교본소 신축 당시에는 차월곡이 자칭 '천자'라 하고 천자의 대궐은 황와로 이는 법이라 하여 황와를 구워 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다시 보통기와로 이은 적도 있었다.

덧붙여 교인들이 수저 1개씩을 거두어 만들었다고 하는 각세종 역시 천자등극을 위한 사전준비로 보인다. 이 점은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정각(1924)이라 불리는 종각은 현 입암면 대흥리 당산나무 맞은 편 대동직물

자리에 있었다.

십일전은 건평 136평에 높이 87척, 총 공사비 50만원으로 5개년의 시일을 요하였다. 목조 건물로는 그 웅장함과 정교함이 반도 내에 최대였다 했으니 십일전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천자등극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보천교 본소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

종교인구가 늘면서 그간 기타 종교에 포함될 정도로 약세였던 증산계열의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상당한 교세를 나타내 이제 국내에서 여섯 번째 종교로 부상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에 보천교는 교직자수 248명에 10,000여명으로, 구파는 2,000명으로 조사(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韓國新宗教實態調査報告書』, 1997)되어 있을 만큼 교세가 침체되어 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교단에서 발표한 내용인 만큼 신빙할만한 자료가 못된다. 이제 과거에 성했던 교의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원리(原理)가 권력(權力)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원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후손들은 보천교 건물이 강매될 당시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제에 의해 경매 처분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동시에 자손으로서 그 웅대한 교전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천교의 중심 건물인 십일전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어 2000년 9월 10일자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십일전의 북문인 보화문은 내장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만약에 지금까지 십일전이 보천교 건물로 남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건축물을 놓고서 사람들의 인식 차이는 이렇게 커진다. 그것은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자리하기 때문이다.

"옳은 역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100년이 지나야 하며, 창교자로부터 3대가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더디게 이뤄진 것이 오래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천

교는 연구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나, 근래에 들어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천교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기다려 볼일이다.

[부록]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선생, 정읍 태인의 김부곤(金富坤) 선생 댁에서 머물다

구술하신 분 : 곽규(郭圭; 1931년생. 김부곤의 사위),
김금숙(金錦淑; 1934년생. 김부곤의 딸)
질의 및 참석자 :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김재영 · 안후상 · 이진우)
질의 주제 : 광복 직후 김구 선생과 김부곤 선생의 관계
질의 일시 : 2015년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질의 장소 : 김부곤 선생 자택 또는 김부곤 선생 사위 곽규의 자택
(당시 주소는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 오리마을)
질의 방법 : 자연스럽게 대담 형식(필기와 녹취)

안후상: 월정사 탄허 스님이 그랬대요. "김구 선생이 정읍에 내려와 정읍에 큰 빚을 졌다"고, 했다고요.

곽 규: 탄허?

안후상: 예. 조계종 승려요. 그 분의 부친은 김홍규. 보천교 목방주였어요. 보천교 재산을 관리했던 분이죠. 보천교 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려고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고요.

곽 규: 아, 그 보천교. 그런데?

안후상: 탄허 스님이 당신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상해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전라도 정읍에 오셔가지고 "정읍에 큰 빚을 졌다"고 하셨다는 거여요. 탄허 스님 사위 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고, 정읍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여요.

곽 규: 음, 맞아. 그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안후상: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김구 선생이 정읍에 왔다갔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 그런데 일주일 전에 태인의 서혁기 씨에게 태인의 김부곤 선생님 댁에서 김구 선생이 오셔서 머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곽 규: 아, 아까 서혁기 씨가 얘기하고 갔어, 오신다고. … 김구 선생이 정확히 이 집에 오셨어. 내가 장가를 오니 나의 장모께서 분명히 그러시더라고. 틀림없이 이 집에 오셨어. 해방 직후였을 거야. (맨 끝방을 가리키며) 저 방이 그 방이여.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저 끝 방이 응접실이고, 그 응접실은 다다미방이었어. 그곳에서 김구 선생이 여러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바로 옆방이 웃방인데, 그 방에서 주무셨다고 장모님께서 얘기해주셨어.

(우리 일행을 김구 선생이 회의를 했다는 응접실과 주무셨다는 웃방으로 안내하면서 그 방의 구조를 설명하셨다. 살면서 일부 구조를 바꾸었다고 하셨다.)

안후상: 장모님의 함자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언제 작고하셨지요?

곽 규: 장모님 성함은 김용복(金容福)이고, 1996년에 작고하셨지. 그때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두루마리 편지가 하나 있었어. 그 편지가 장인어른과 김구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여. 내가 그걸 읽었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안부를 묻고 고생한다고도 하고, 조심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독립자금이라는 글자는 없었지만, 그런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었어. 틀린 글자는 붓으로 동그라미를 해서 지웠더라고.

안후상: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나요?

곽 규: 아니, 없어졌어. 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장모님께서 내다 파신 것 같아. 두루마리편지 말고도 서류나 사진, 고서 등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져버렸어.

안후상: 두루마리 편지 외에 김부곤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 보고 들으신 기억은 없습니까?

곽 규: 사진이 있었어. 사진은 장인(김부곤)께서 유치장에 계실 때 찍은 사진이어. 감옥 창살 안에 장인어른이 계신 사진이어.

안후상: 김부곤 선생은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곽 규: 3·1독립만세운동을 하셨어.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지. 지국장인가 기잔가 하셨는데, 그때 찍은 사진도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김재영: 독립운동가 김수곤 선생과 김부곤 선생은 어떤 관계인가요?

김금숙: 사촌간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 형이 김수곤, 그 아래 대곤 등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서울대 약대 전신인 서울의 어느 의학교에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기자를 하셨지요. 저는 무남독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전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버진 기억이 나요.

안후상: 할머니 몇 살 때 부친께서 작고하셨나요?

김금숙: 글쎄 …?

곽 규: 아, 당신 전북여중 1학년 때 작고했지 않아? 그때가 장인어른 나이 49세였을 거야.

김재영: 전주 어느 학교에 다니셨어요?

김금숙: 전북여중. 고등학교는 전주여고 나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정읍여고

에서 선생을 했어요.

김재영: 서울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졸업은 언제 하셨나요?

김금숙: 숙명여대 경제학과 나왔지요. 1956년에 졸업했어요.

김재영: 부친께서 다닌 대학이 서울대 약대 전신이라면? 경성의전 정도가 아닐까요?

안후상: 아무튼 부친은 당시에 수재이셨겠네요.

김금숙: 그랬지요. … 우리 아저씨(곽규)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셨지요. 그리고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교편을 잡으셨고, 교장을 오래 하셨어요.

안후상: 김구 선생이 이 집에 머무셨다는 얘기를 정확히 언제 들으셨나요?

곽 규: 내가 27세에 장가왔으니까, 그때가 1958년이지. 그때 장모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셨어. 저 방에서 주무셨다고.

김재영: 이 집은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언제 지어진 집이나요?

곽 규: 대략 200평 되지? 지은 지는 약 100여년 돼.

김재영: 100여년 된 집에다가 김구 선생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주무셨다는 것은 이 집의 역사적인 가치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문화재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후상: 문화재로 등록되면 시나 도에서 지원해 원형을 보전하려고 할 거예요.

곽 규: 아, 귀찮아. 문화재 같은 것 되면 안 돼. 거추장스럽고. (손사래를 친다)

안후상: 이런 규모 있는 집이라면 당시에 상당한 지주였겠는데요?

김금숙: 암, 지주였지요. 한 3천석지기 되었어요.

김재영: 태인의 김달곤 선생 아시지요. 김달곤 선생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 고문으로 타계하셨거든요. 김달곤 선생과 김부곤 선생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시지요.

곽 규: 우린 김해 김가여. 김달곤 선생은 우리 장인하고 사촌지간이지.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도 3·1독립만세운동 위령탑에 각인된 유공자 26명 가운데 한 분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공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김재영: 김구 선생이 광복 직후에 왜 태인에, 그리고 이 집에 와서 머물렀는지, 생각해보셨어요?

곽 규: 아, 독립자금을 드렸을 것이고, 장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깐….

안후상: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물었다) 그 두루마리 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세요.

곽 규: 그 두루마리 편지는 김구 선생이 우리 장인어른에게 보낸 편진데, 그것을 우리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국한문 흘림체로 쓴 것인데, 틀린 글자는 붓으로 검게 동그라미를 해서 지운 흔적이 여러 곳 있더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틀린 글자는 가위표를 하거나 일자 빗금으로 긋는데, 김구 선생은 붓으로 검게 동그라미를 해서 틀린 글자를 지웠더라고.

안후상: 어쨌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광복 직후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왔었어요.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 두 분이 정읍에 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곽 규: 아,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왔을 때 장인어른이 정읍에 가서 이박사를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장모에게서 들었어.

김금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시에 유명 인사들을 죄다 알고 계셨었던 거여요. 나용균 선생하고도 아주 친했었데요.

안후상: 혹시 이승만 박사가 이 집에 오셨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김금숙: 없어. 그런 얘기는 없었어.

안후상: 김부곤 선생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얘기해주세요.

김금숙: 우리 아버지는 요 바로 아래 태인의 제일 갑부 김재일 씨 댁에서 여러 일을 봐주고, 하면서 자금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전달하셨어요. 갑부 김재일 씨도 아들이 없었지요. 나중에 양자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통했겠지요.

안후상: 그러니까 김부곤 선생께서는 독립자금 조달책 역할을 하신 거로군요.

곽 규: 그런지 어쩐지 …. 아, 문화재인가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앞으로는 여기 오지 말아. 다신 여기에 오지 말아.

*곽규 선생은 본 연구소의 연구원인 서혁기 씨의 부탁으로 우리 일행을 기꺼이 맞이했으나, 우리 일행이 와서 떠들썩하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다.

정읍사(井邑詞) 작사 배경 및 그 지역에 대한 고찰

【생각해 보기】----------

1. 정읍사 망부상 조형물을 보고 백제여인의 복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백제가요 중 정읍사만이 오랜 세월 전해질 수 있었던 강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3. 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정읍사, 조선왕조실록 피란과 보존으로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상징성을 확장한다면 이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요?

한 때 '정읍의 상징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을 시민들에게 조사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이자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단풍의 고장이요, 그러면서도 현존 유일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본고장으로 부덕(婦德)이 상징된다고 하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동학농민운동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와 상징성이 큰 관계로 정읍사는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리어 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망부상은 현재 정읍사공원과 내장저수지 왼쪽 호수공원에 세워져 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노래했다는 이 이야기는 설화로 말미암아 불려진 노래라는 점에서, 어쩌면 정읍사 작사의 배경 지역을 고찰하는 문제가 무의미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설이나 구전을 황당한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설화나 전설 속에는 반드시 하나의 모티브가 있기 마련이다. 그 모티브를 찾는 작업은 당연히 역사가의 몫일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정읍사의 형식이나 자구해석에만 치중해왔을 뿐 정읍사 작사의 배경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읍사 작사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지역역사가의 책임이요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구전과 지명을 바탕으로 정읍사가 나오게 된 역사·지리적 배경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위치 문제를 통해 왜 정읍에서 「정읍사」가 작사되었으며, 어떤 배경에서 「정읍사」가 나왔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지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명에는 땅 자체

가 가지는 특징과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의식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지명에는 땅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특성과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명은 '의미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명을 '문화의 화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제가요와 정읍사

백제가요

『고려사』 악지에 5곡의 백제가요가 전하고 있다. 5곡은 「선운산곡」, 「무등산곡」, 「방등산곡」, 「정읍곡」, 「지리산곡」을 말하는데, 「무등산곡」을 제외한 나머지 4곡은 모두 애절한 여인의 감상적인 노래들이다. 또 기록에 전하고 있는 백제가요 5곡이 모두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읍곡』을 제외한 나머지 4곡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서는 「정읍사」가 최초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외에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생명을 잃지 않은 백제노래가 하나 남아 있으니 「산유화가」가 그것이다. 「산유화가」는 모를 심거나 김을 맬 때 부르게 되어 '모심는 소리'라고도 하며 한편 '메나리'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처럼 구슬프고 처량한 가락을 '메나리조'니 '메나리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산유화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모를 심으면서 일할 때에 장단을 맞춰주는 모심는 노래, 곧 일노래로써 사람들의 삶과 호흡하며 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읍사가 누천년이 흐르도록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질긴 생명력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읍사 작사의 시대배경

『정읍사』는 작사시기를 보통 백제시대로 보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정읍이란 고을 지명이 신라통일 후 경덕왕 16년(757)에 개칭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정읍사」가 통일신라기에 작사된 노래라면 왜 백제의 속악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정읍사」는 백제 때부터 구전된 속요로 오랜 세월을 전해 내려오다, 통일신라기에 와서 이 정읍곡이 수제천이란 이름으로 궁중연

에 연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노래는 오랜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내려 왔기 때문에 백제 시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백제 노래로서의 면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정읍사는 가사가 전하지 않는 「선운산곡」, 「무등산곡」, 「방등산곡」과 함께 『고려사』 악지에 제목이 전하고 있으며, 『악학궤범』 시용향악보에 가사가 전하는 백제 가요이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그 가사 내용이 윤색되고 정제되어 다시 조선에 와서 정착되었다는 점을 참작할 때 고려가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고려사』 권71 악지 2 삼국 속악조의 「정읍사」는 『고려사』 편찬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같은 책의 고려 속악조에 무고정재(舞鼓呈才)때 「정읍사」를 가창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무고」와 「정읍사」를 동일시하고, 「무고」를 만든 사람인 이혼(李混)의 생존 연대와 관련하여 「정읍사」를 고려 충렬왕 전후 개성 주변에서 작사, 작곡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악지와 『고려사』 악지가 다 같이 재래 속악에 대한 편찬 방식이 같은 점으로 보더라도, 삼국 속악조에 백제 속악으로 기록된 「정읍사」는 고려 속악과 구별하여 기록한 것으로 편찬자의 잘못이 아니라 백제 속악으로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 또 고려속악 정재조에 신라 때 원효(元曉)가 지은 「무애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고려 속악조에 들어 있다 하여 모두가 고려시대의 가요로 볼 수는 없듯이, 무고정재 때 「정읍사」를 불렀다하여 「정읍사」의 제작 연대가 무고를 지은 이곤의 생존연대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견해가 현재 우세하다.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의미

신라 말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崔致遠)은 대산군(大山郡) 태수로 임명이 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국내에서 의심과 시기가 많아 자신의 뜻을 행하려 했으나 할 수 없어 대산군 태수로 나갔다고 했다. 국제적인 도시에서 문사로 명성을 날렸던 최치원이 귀국 즉시 대산군 태수로 임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산이 당시 상당한 지명도가 있었던 고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백제시대 정읍사라고 하는 최초의 한글노래가 이미 이 지방에서 나왔을 만큼 이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치원이 대산군 태수로 재직할 당시에 『삼대목(三代目)』이라는 시가집이 편찬되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정극인(鄭克仁)이 「상춘곡(賞春曲)」이라는 가사를 한글

로 쓰게 된 것도 이 지역의 오랜 정서가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인근 지방 태인은 또한 조선시대 서울 다음으로 책을 많이 간행했던 지역이었다. 『고금소총(古今笑叢)』같은 책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먹을 것이 많아 배부르고 등 따신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노래가 나오며 소담(笑談)이라 불리는 이런 서적이 간행될 수 있었겠는가?

예로부터 백제는 신라보다 땅이 너르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산물 생산이 많은 곳이었다. 경상도는 김해평야 이외에 달리 땅이 없는 내륙산간 지방으로 전통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든 지역이었다. 지금도 쇠나 징을 만드는 지역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라도가 농업생산이 활발하여 경상도보다는 생활기반이 비교적 넉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은 놀이와 음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정읍은 이평, 고부, 덕천과 같은 평야지대가 분포되어 있어 예로부터 농업생산력이 발달된 고장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訥知麻立干) 36년 조에는 가을 7월 대산군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고 했다. 그러나 신라 눌지왕 때 이곳은 백제 땅이었으므로 백제의 사실을 신라의 일로 잘못 알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졌던 가화(嘉禾)가 진상될 만큼 이곳은 벼농사가 활발했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잉여농산물은 봇짐을 지고 이웃마을로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로 인해 가까운 곳에 시장이 형성되고 물물교환이 대단히 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풍요로운 생산은 세련된 문화를 낳는 법이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활발한 활동 가운데 가요나 음악이 발달하고 그것이 정읍사 작사의 배경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읍사의 해석

정읍사는 남편이 밤길에 도둑의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 달에게 빌어 노래한 것, 미천한 상인의 아내가 장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순박한 정서의 표현(양주동, 이병기), 여성의 육체를 노래한 남녀상열(男女相悅)의 음사(淫辭/지헌영), 행상 나간 남편이 혹시 돌아다니다가 화류항(花柳巷)에 빠지지 않나 하는 애타는 심정을 노래한 것(박병채, 박성의)이라는 등 여러 주장이 있다. 달밤에 춤추며 부르는 강

강수월래의 전통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최정여).

그러나 대체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덕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정서는 고려 가요 '가시리'나 황진이의 시조는 물론 김소월의 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이다. '가시리' 등이 기다림의 정서와 아울러 상대에 대한 원망과 호소를 담고 있는 데 비해, 「정읍사」는 상대에 대한 걱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기록된 「정읍사」에 관한 내용이다.

전강(前腔) 돌아 노피곰 도ᄃᆞ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소엽(小葉) 아으 다롱디리
후강전(後腔全)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ᄃᆞ를 드ᄃᆞ욜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과편(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금선조(金善調) 어긔야 내 가 논ᄃᆞ점그를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소엽(小葉) 아으 다롱디리

형식은 후렴구(여음)을 빼면 3장 6행으로 되어 있어 시조 형식의 연원으로 보기도 한다. 구절 가운데 해독 상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4행의 '全 져재'는 온 시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고 있다. 또는 큰 시장인 전주시장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후강전'(後腔全)까지를 악조명으로 보고 가사 본문을 '져재'로만 보기에는 음악적인 또는 시가 형태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全 져재'로 보는 쪽에서도 종전에는 그 뜻을 '전주 저자에'로만 해석하였으나 '온 저자에'라고 보는 새로운 견해도 있다. 또한 '진 데를 디딘다'는 진 곳을 디딜까 봐 염려하는 마음과 다른 여성들에게 정을 준다고 하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는 조선 중종 때 남녀상열지사로 금지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5행의 '어느이다 노코시라' 구절은 가장 이설이 많은 대목으로 어느 누구와 놀고 계신가요(남편에 대한 의심), 어느 곳에든지 놓고 계시라(피곤한 남편에 대한 염려), 어느 곳이나 다 놓고 오시라(속히 귀가할 것을 희망), 어느 것이든지 놓여지게 하사이다(고뇌에서의 해방을 기원) 하는 등 해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나 다(무엇이나 다)'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6행의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구절은 남편이 해를 입거나 다른 여자에게 정을 두어 자기의 인생이 어두운 생활로 접어들까 봐 두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아무튼 구절 해독에 있어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으나 망부석의 위치를 규명하는데 관련된 직접적인 자구는 '全 져재'로 볼 것인가. '져 재'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물론 '져재 녀려신고요'를 '저자에 가셨는지요'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저 재를 내려오시는지요'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져 재'가 과연 시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일단 '져재'를 고개로 해석하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그것은 다음 구절인 '즌 데를 드데올세라'와 연결이 되고, 또한 여러 절의 명칭이 한자이나 사(詞)의 자귀에는 한자가 한 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全 져재'를 전주시장의 약칭으로 보고 전주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전주의 백제 때 지명이 완산이었다고 하는 것 외에도 전주는 지금 국도를 기준으로 환산해도 100리가 훨씬 넘는 지역으로 보부상들이 짐을 짊어지고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장시구역도에도 보부상들이 각 지역의 장시를 돌아다닐 때 2-30리가 보편적이었다. 이상비는 『완산지(完山誌)』 상편 3쪽과 35쪽에 '全州'를 '全'으로 약칭하고 있음을 근거로 정읍사 노랫말 가운데 "全져재 녀러신고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후강전'의 유무를 가지고 이제 시비할 일이 자연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한문과 한글이 섞여진 문장 내에서의 용례를 찾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망부석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망부석은 '재현북십리(在縣北十里)'에 있다고 하였다. 망부석에 발자취가 있다고 했으니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되던 조선 중종때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망부석의 위치를 현의 북쪽 10리라고 만 했을 뿐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산에 오르면 망부석의 발자취가 있다고 했으나 망부석이라고 추정할만한 바위가 없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사 망부상의 위치

문헌을 통해서 본 백제여인의 모습

정읍사 망부석과 유사한 설화로 신라 때 박제상(朴堤上) 이야기가 있다. 정렬(貞烈)한 아내가 멀리 떠나간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 못해 그대로 죽어서 화석이 되었다는 전설의 돌을 보통 '망부상'이라 한다. 이러한 전설은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 전하여지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신라 눌지왕때의 충신 박제상이 일본에 볼모로 가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수릿재(鷲述嶺)에 올라가 높은 바위 위에서 돌부처가 되어 수릿재 신모(神母)가 되었고 그 바위를 뒷날 사람들이 망부석이라 불렀다 한다.

이러한 설화가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전해지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읍사 망부석만이 소멸되지 않고 수 천 년 동안 전해진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거기에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했던 어떤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망부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정읍사」가 백제 때 만들어진 가요라 하더라도 「정읍사」 그 어디에도 망부상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때 망부상이 만들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 조선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망부석을 이야기한 것이지, 망부상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백제 때 망부상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천년 이상 그것이 전해질 리가 없다.

현재 정읍사 공원에 세워져 있는 망부상의 복식에 관해서 학계에서는 일단 백제시대 의복에 관한 문헌사료가 많지 않은 바, 고구려의 벽화에 나와 있는 복식을 연구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에서 건너온 유이민들이 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사료와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복식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측 기록인 『수서(隋書)』 백제조에는 "부인은 분대(粉黛)를 가하지 않고, 머리는 땋아서(辮髮) 뒤로 늘였는데, 출가 전에는 한 줄로 하고 출가 후에는 두 줄로 하여 머리 위에 서리었다."했다.

상의로는 도포(袍)와 저고리(襦)가 있었다. 여복에서는 『주서(周書)』 이역전, 『수서(隋書)』 동이전, 『북사(北史)』 동이전 등의 백제조에 '의사포(衣似袍)'라 하였으니 '의(衣)'는 '유(襦)'일터이니 포(袍)로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유(襦)의 긴 것을 보고 포(袍)로

오인(誤認)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것은 소매가 약간 크다 하였다. 도포도 기록상으로 소매가 넓었다고 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참고로 할 경우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의 복식과 같다는 기록을 참고로 할 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는 남녀가 공동으로 착용했다고 보는데, 삼국시대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길며 소매는 통수(筒袖)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의는 바지와 치마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고구려의 복식과 같았다고 하는 『수서』의 기록으로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오는 복장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다.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사신의 모습을 그리고 해설한 양직공동(梁職貢圖/526-536)를 보면 사신은 대구고(大口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서』에는 청금고(靑錦袴)의 표현이 있다. 대구고는 통은 넓지만 길이가 짧은 형태이다. 치마는 상(裳)과 군(裙)이 있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온 것을 보면 여자들은 치마뿐만 아니라, 바지도 병행해서 착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쌍영총(双楹塚)에 나오는 세 여인의 경우, 주름이 치마 밑까지 길게 내려오는 긴치마를 입고 있다. 고신라 출토 여자 토우의 경우에도 주름 모양의 긴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 삼국시대 여성들이 입었던 일상복으로 생각된다.

재현된 백제여인의 모습

정읍사 공원에는 시의 상징인 백제의 여인상과 정읍사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망부상은 약간 긴 저고리에 옷깃을 따라서 저고리 아래쪽 끝동까지 단이 있으며, 머리는 양쪽으로 쪽을 짓고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서 있는 모습이다. 반코트식에 아래까지 단이 있는 것은 고구려 벽화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고구려인들의 복식이다. 항간에는 서민의 옷은 아니다는 등 복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문헌사료가 빈약하여 고구려의 복식을 연구하여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그러나 전설이나 설화와 다름없는 이야기로 인해서 당시에 망부상이 세워졌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굳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유교가 모든 생활의 가치기준이 되면서 남편에 대한 정절과 곧고 정(淨)한 마음을 표상하기 위해서 세웠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복식은 백제의 복식이 아니었을 것이고, 조선시대의 복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망부상 위치고

기존 가설

그간 망부석의 위치로 비정되어 논란이 되었던 곳은 속칭 '서낭당재'라 불리는 아양동 고개와 농소동의 부례 마을에 있는 여시바우, 그리고 교동에서 송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과교동의 부사치, 수성동의 괴바라기 등이었다. 우선 이들 가설에 대한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① '서낭당재'설

시기동과 과교동의 경계인 아양동의 속칭 '서낭당재'는 '아리랑고개'로도 불린다. 이곳이 과교동 정해마을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 10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낭당재'는 『동국여지승람』에 아요현(阿要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망부상이 세워져 있으나, 이 고개를 망부상의 유적지로 추정할만한 별다른 고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부사치(夫思峙)'설

예전에 서너 가호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때는 마을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지아비를 생각하는 고개'라는 뜻이 엉뚱하게도 '부사치(浮巳峙)'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사치'는 교동 아래쪽의 높이 50m가 족히 넘는 야산으로 이곳에 오르면 주변 산과 들이 확연히 보인다.

③ '여시바우'설

농소동 '여시바우'(여우바위)는 부례마을 뒷산의 한 평 정도 넓이의 널찍하고 반듯한 바위로, 그 밑에 여우가 살았다는 구전이 있어 '여시바우'라 불린다. 일제강점기에 철도공사로 인하여 바위의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다. 일본인 학자가 이곳을 망부석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④ '괴바라기'설

정읍문화원 향토문화연구所 최현식 소장의 주장이다. '괴바라기'는 연지동 잔다리목에서 신태인 방향으로 3㎞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북면 한교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괴'는 '귀엽게 사랑한다'는 뜻이며, '바라기'는 '바라본다'는 뜻이므로 백제여인이 장사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곳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여인이 내려다본 곳은 지금의 덕천평야 건너편으로 이곳은 당시 백제시대 고사부리(古沙夫里)였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장사 나간 곳도 지금의 고부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주장이다.

기존 가설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주장 중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는 문제는 백제 때의 현아 자리인 정해마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될 당시인 조선시대의 현아 자리를 중심으로 북쪽 10리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간의 가설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시대 정촌현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 10리는 현 아양동 고개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곳이 산 고개이며 정읍사에 나오는 '져 재'인 작은 몰고개가 한눈에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 자료가 없고 『동국여지승람』이 각 군현에서 수집해서 올린 자료로 편찬된 것인 만큼 조선시대 현아 자리는 현 정읍시 장명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북쪽 10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소동의 부례 마을도 당시는 고부군 우덕면에 속했던 지역이며, 1914년에 와서야 정읍군으로 통합된 곳이다. 또한 정읍의 서쪽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부사치는 정해 마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다. 부사치는 백제 때의 정읍현의 고을터가 정해마을에 있었다 하더라도 북쪽 10리 지점이 될 수 없다.

정읍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최현식 소장은 오래 전에 '죽지봉(竹支峰)'을 속칭 '망치봉(望峙峰)'이라 불렀는데 이곳이 망부석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도 방위에 문제가 있다. 현아 자리에서 볼 때 서쪽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단 부근의 '괴바라기'(금곡마을 주변)를 지목하고 지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인이 바라 본 곳이 지금의 덕천평야 건너편인데 이곳은 당시 백제시대 고사부리였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장사 나간 곳을 지금의 고부지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고부는 선사이래 조선시대까지 여러 왕조와 통치형태를 거치면서도 수 천년동안 잃지 않고 다져온 지역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이나 정읍사에 나오는 '져 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망부석이라 추정할 만한 바위가 없다

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반면에 마한의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이 백제 때 정촌현으로 일컬어지다가 통일신라 때 죽지동(竹支洞)으로 옮겨온 것이 사실이라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칠보산은 북쪽 10리에 있다고 했으니 칠보산 줄기에 해당하는 산록이 망부석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도 방위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칠보산이 당시 현치 소재지를 중심으로 볼 때 북쪽으로 보일지 몰라도 방위상 거의 동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북면 승부리 금곡마을과 망부석

본 연구자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정읍시 땅이름을 조사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포착하게 되었다. 그 지역이 바로 북면 승부리(承富里) 금곡(錦谷)마을 뒷산으로 '계집알봉'이라 불리는 야트막한 산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곳을 주목하고 이곳이 정읍사 작사의 배경지역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갖게 된 것이다.

우선 금곡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서술한 다음, 왜 금곡마을이 정읍사 작사의 배경이 되는 곳인가를 나름대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금곡마을은 옛날에 옹기를 구웠던 마을로 원래는 점촌(店村)이었다고 전한다. 마을 정북쪽에 위치한 벧엘교회 아래쪽에서는 지금도 옹기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맞은편 동쪽마을이 원승부 마을이며, 남쪽이 말고개 아래쪽인 용호동이다. 북쪽은 북면 한교로 이어진다. 마을명칭은 점촌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 1958년에 마을 주민들의 합의 하에 개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곡마을은 현재 2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로 논농사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마을 모정 앞에는 당산나무로 불리는 팽나무가 있으나 현재 당산제를 지내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마을의 안택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보름날 풍물을 치고 줄을 감았다 한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전설이나 풍속이 없는 마을이었다.

본 연구자는 수차례의 마을방문을 통해 구전을 조사했으나 마을주민들은 성촌연대조차 알지 못했으며, 망부석과 관련된 특기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지명을 근거로 금곡마을 뒷산 '계집알봉'을 「정읍사」 작사의 배경으로 보고 정황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면 승부리 벧엘교회가 있는 마을 뒷산의 이름이 '월붕산(月朋山)'으로 직역하면 '달을 벗삼았다'는 뜻이 된다. 일명 '계집알봉'이라고도 불린다. '계집알봉'은 '계집월봉'이 변한 말로 추측된다. 그리 높지 않은 야산에 지금까지 이러한 산 이름이 전해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분명 산 이름이 붙여질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신화나 전설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연히도 달을 벗삼아 노래했던 정읍사의 내용과 너무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계집알봉'을 '계집월봉'이 변한 말로 본다면 현재 쓰고 있는 승부(承富)라는 지명은 '이을 승(承)'에 '며느리 부(婦)'로 부덕(婦德)을 이은 고장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셋째, 금곡마을은 조선시대 현청 자리인 현 정읍 장명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3.92㎞ 떨어져 있어 우리에게 「정읍사」 작사 배경 지역을 구명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전 도로는 나무다리(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700m, 현 우성 카매매상사 자리)를 거쳐 말고개를 넘어 정읍을 다녔다고 하는데, 현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거리 상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고개에서 북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1920년대 일본이 국도를 내면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과연 이 길이 이용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민들바위'라는 지명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 낮은 야산 한곳에 있는 바위이름이 누천년이 지나도록 이름이 소멸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진다면 이 바위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스며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놓고 기록(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이야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歷史)'에서의 '사(史)'자가 입 '구(口)'자를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역사가 문자로서 기록되기 이전에는 분명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들이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을에 사는 탑성리 댁(손씨/3년 전 사망, 당시 나이 88세)이라 불리는 할머니는 오랫동안 행상을 하다 이 마을에 정착한 분으로 오래 전 이 바위에서 제(祭)를 지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분명 바위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을 것이다. 이 '민들바위'는

1950년대 마을 부역공사에 상당부분을 할석(割石)하여 쓰는 바람에 원형이 많이 손실되어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태인에서 북면을 거쳐 작은몰고개, 내장동 두주막거리를 거쳐 장성으로 이어지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바위가 파묻히게 되었다.

다섯째, 만약에 남편이 저자 거리에 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필자는 이곳 '민들바위'를 망부석으로 보고, 저자거리를 칠보장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의 칠보는 신라말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이 大山郡 태수로 임명이 되었던 곳으로 인근지역의 중심지였다. 칠보면은 부안이나 곰소(鎭西面)지역으로부터 하루면 충분히 해산물 운반이 가능한 지역으로 장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여인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이곳에서 지아비를 하염없이 기다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곳 금곡마을에서 칠보로 가는 길은 어디였을까? 예전에 칠보로 가는 길은 칠보산 줄기에 해당하는 북면 마정里 평촌마을의 싸리재를 넘어가는 방법이었다. 재를 넘으면 칠보면 수청리 수만동으로 이어진다. 약 40리(16㎞) 거리이며 걸어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읍사에 나오는 '져 재'는 칠보산 줄기나 '승부고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부고개는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월붕산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섯째, 칠보산은 금곡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의 요새를 연상케 한다. 남편이 저자 거리에 나가 있지 않았다면, 동쪽을 바라보는 태양숭배 사상의 발로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양 최초의 지리지인 『산해경(山海經)』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에 영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방위 중에서 특히 동쪽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곳에서 최초의 가요인 「정읍사」를 노래불렀다고 한다면, 앞산인 칠보산은 산세로 보아 요즘의 군사령부가 위치할만한 곳이고, 이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파는 주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서 노래를 잘하는 여인이 군사령부에 있는 애인을 기다리면서 불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망부석의 위치는 '월붕산'으로 보아야

「정읍사」에 나오는 '전 져재'는 망부상의 위치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전 져재'로 보는 시각과 '져재'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져재'를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고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일단 '전 져재'가 아닌 '져재'로 보고자하며, '져재'를 고개로 해석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 구절인 '즌데를 드데올세라'와 연결이 되고, 또한 여러 절의 명칭이 한자이나 사의 자귀에는 한자가 한 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져재'를 시장으로 보고 남편이 저자 거리에 나가 있을 경우도 같이 생각해 보았다.

정읍의 태인(지금의 칠보)은 신라 말 최치원이 대산군 태수로 임명이 되었던 곳이고, 최치원이 태수로 재임할 당시에는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편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극인에 의해 「상춘곡」이라는 가사가 쓰여진 곳이다. 「상춘곡」이라는 가사를 한글로 쓰게 된 것도 이 지역의 오랜 정서가 이것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또한 태인은 『고금소총(古今笑叢)』과 같은 책이 나올 정도로 풍요로운 고장이었으며, 서울 다음으로 책이 많이 간행되었던 지역이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져재'를 북面 평촌에서 칠보로 넘어가는 칠보산 줄기를 그 고개로 보고자 한다. 만약에 남편이 시장에 나가 있었다면 시장은 칠보장이었을 것이다.

또한 망부석의 위치는 북면 승부리 금곡마을 뒷산인 '계집알봉'으로도 부르는 '월붕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월붕산'은 직역하면 '달을 벗삼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계집알봉'은 '계집월봉'이 변한 말로 추측된다. 즉 계집이 달을 바라본 봉우리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북면 승부리는 원래 '이을 승(承)'에 '며느리 부(婦)' 자가 아니었을까. 이 마을은 조선시대 관아터가 있던 정읍세무서로부터 정확히 북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필자는 '월붕산'에 있는 '민들바위'를 망부석으로 보고자 한다. 한 때 이곳에서 어떤 성격의 제사를 지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사를 지낸 것만은 분명하다는 촌부의 증언까지 있었다.

본 연구는 구전과 지명을 근거로 정읍사 작사의 배경과 지역이 과연 어느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읍사」 작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구명

하는 새로운 의견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위치고증에 설득력이 없다면 지명을 근거로 이 지형을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 중시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체가 규명된다면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라는 대내외적인 인식과 함께 정읍시민들이 열망하던 약속의 땅, 서원(誓願)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유일본의 피란과 보존

【생각해 보기】----------

1. 우리 지역 정읍과 관련된 '세계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정읍에 '기록문화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할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기록문화유산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궤(儀軌)』,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총 7종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1392-1863)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물이다. 실록은 1,187책, 6,400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면수에서 세계 제일에 해당된다. 또 동아시아 대부분의 실록이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은 금속활자나 목활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편찬내용을 후손들이 보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엄정한 역사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없는 사관의 평가가 담겨 있으며 중국의 25사나 실록보다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실록은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1일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실록이 오늘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물재(勿齋) 안의(安義)와 한계(寒溪) 손홍록(孫弘祿)이라는 태인(지금의 칠보)의 두 선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먼저 실록 편찬과정을 알아보고 두 선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실록보존 작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기록문화의 보고, 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실록편찬을 주관하는 관서는 춘추관(春秋館)이다. 국왕이 죽으면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하고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승지들이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한『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전임사관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던 가장사초(家藏史草), 그리고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문집 등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 간행했다. 후대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또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편찬된 실록은 조선 초 내사고인 한양의 춘추관과 외사고인 충주사고에 보관되었다. 세종 21년(1439), 충주사고가 민가와 밀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는 등 두 사고만으로는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실록을 여러 본 만들어 각도의 명산에 나누어 보관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주와 성주에 새 사고를 설치하게 된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태조 어진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성주는 고려시대 외사고가 설치되었던 해인사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그러나 성주사고의 실록은 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실화(失火)로 없어지고, 서울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소장된 실록은 왜란이 일자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불탔다.

사고에 수장시킨 실록은 충해와 습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쇄(曝曬/습기를 말리는 작업)하도록 했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했다.

역사의 타임캡슐, 조선왕조실록 피란 과정과 수직(守直)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서울을 장악하는 등 물밀 듯이 밀려오자, 태조 어진 수호를 책임지고 있던 경기전(慶基殿) 참봉(종9품) 오희길(吳希吉)은 실록 피란대책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실록을 사고의 마루 밑에 묻으려 했으나, 방어사 곽영(郭嶸)으로부터 경상도 금산현에서 붙잡힌 왜적에게서 성주사고에서 약탈한 실록 2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위급 시 배로 피할 수 있는 '변산'과 깊은 산중인 '내장산'을 후보지로 고민하다 결국 내장산을 피란처로 확정했다. 오희길은 전주사고의 실록과 경기전(慶基殿)에 있는 태조의 영정을 내장산 용굴암(龍窟岩)으로 피란시키기로 결정하고 태인현으로 이항(李恒)의 문인이었던 손홍록을 찾아갔다.

이에 손홍록은 동문수학한 안의와 뜻을 같이 하고 가동 10명과 함께 경기전으로 달려가 어용과 제기 및 실록을 그 해 6월 용굴암으로 피란시켰다. 안의 56세, 손홍록의 나이 64세 때의 일이다. 전주 경기전에서 옮겨진 피란 서적은 60궤짝이었으며, 실록 830책, 고려사 등 538책 등이었다.

옮긴 뒤에는 이름 없는 정재인(呈才人/대궐 잔치에 춤과 노래를 하는 사람들로 구한말 몰락한 사당패와 함께 재인패로 발전했음) 100여 명과 무인 김홍무(金弘武), 승

려 희묵(熙默) 등이 합세하여 주야로 왕조실록과 어진을 지켰다.

두 유생들이 수직한 내용은 『난중일기』(亂中日記)의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실록은 6월 22일 은봉암에, 태조 영정은 7월 1일 용굴암에 각각 피란시켰다. 6월 23일 어진이 용굴암에 있는 관계로 참봉 오희길(吳希吉)과 유인(柳訒)이 비로소 수직했고, 손홍록이 귀가하고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안의가 혼자 수직했다. 안의가 집으로 돌아가고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손홍록이 수직했으며 13일에는 안의와 손홍록이 같이 수직했다. 14일부터는 실록을 비래암으로 옮기고 19일까지 같이 수직했다. 동년 9월 28일 어진을 다시 비래암으로 이안(移安)했다. 다음 해 4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7월 영정과 실록을 충청도 아산으로 이안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은봉암〔隱寂庵〕에 옮겨진 실록은 뒤에 더 깊숙한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겨졌으며, 용굴암으로 이안했던 태조 어진 역시 비래암으로 옮겼다는 기록이다. 은봉암과 비래암은 현재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은봉암은 용굴 아래쪽에 있는 금선폭포 부근의 금선암으로, 비래암은 용굴 오르기 전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었던 암자 터로 추측된다. 은봉암은 1920년대에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옮겨진 실록은 370일 동안 내장산에 보존되었다. 그 동안 손, 안이 수직한 일수는 53일, 안의가 혼자 수직한 일수는 174일, 손홍록이 수직한 일수는 143일이었다. 어진 보전의 책임이 있는 참봉(叅奉)들의 경우, 한 사람도 수직하지 않은 날이 151일이나 된다. 이들이 수직한 장소는 은봉암이 아닌 태조의 어진을 모신 용굴암이었을 것이다. 당시 어진이 실록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참봉들의 임무가 어용의 보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을 보존하는 일은 안의와 손홍록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두 유생들은 아산으로 실록이 옮겨질 때도 식량과 말을 마련하여 배행(陪行)했다. 아산으로 옮겨진 뒤에는 수복 한춘(漢春)과 함께 태조 어용과 제기 등을 짊어지고 강화도로 옮겼다. 이 때 안의는 불행히도 병에 걸려 고향 태인으로 돌아와 별세하였다. 1597년 9월 실록과 어용은 안주를 거쳐 평안도 안변의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별전으로 옮겨져 왜란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었다. 왜란 이후에는 5대 사고로 정비되었다.

안의와 손홍록이 없었더라면 실록이 없었을 것이다

안의는 본관이 탐진(耽津)이고 자는 의숙(宜叔), 호는 물재다. 태인현감 안기(安起)의 현손(玄孫)이고 태인현 동촌면 백천리(현 옹동면 척천리)에서 출생했다. 이일재 문하에서 수업을 했으며 학식이 고명(高明)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분연히 일어나 의곡 300석, 목화 1천근 등을 거두어 선조가 있는 의주 행재소(行在所)에 보냈다.

손홍록은 본관이 밀양(密陽), 자는 경안(景安), 호는 한계(寒溪), 숙로의 아들이다. 태인 고현내면(현 칠보면 시산리)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물재 안의와 더불어 이일재 문하에서 수업을 했다. 임란 당시 안의와 함께 의곡도유사(義穀都有司)와 도계운장

(繼運將)이 되어 사방에 격문을 띄워 의곡과 재물을 모아 행재소와 의병장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건장한 노비 8명을 선발하여 의병부대에 보내 대신 싸우게 했다. 또한 강서 행재소에 찾아가 전라도 지방의 부흥책인 '중흥6책'을 상소했다. 선조로부터 두 번이나 별제(別提)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선생은 벼슬이나 포상을 받기 위해 어용과 실록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끝까지 벼슬과 포상을 사양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한편 손홍록은 자신이 나가 싸울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기고 노비 태복(太福), 개근(盖斤), 추동(秋同) 등을 보내어 적병을 사살하는 큰 공을 세웠다. 난이 평정된 후 향리인 태인현(현 칠보면)으로 돌아와 조용히 선비로서 생활하다 광해군 2년(1610) 12월 2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손홍록(태인 고현내면 삼리 출생, 현 칠보면 시산리 삼리마을)의 묘는 현재 칠보면 반곡리에 있고 1676년 안의와 함께 남천사(藍川祠/ 칠보면 삼리)에 배향되었다.

왕조실록 피란과 보존의 역사적 의의

임진왜란 당시 전국의 4대사고 중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가 모두 불탔으나 유독 전주사고만이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었다. 이에 태인 출신 유생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의 어용과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이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실록은 바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 두 유생들에 의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왜란 이후(광해군)에는 이를 모본으로 춘추관, 오대산, 태

백산, 마니산, 적상산 등 5대 사고로 다시 정비되었다. 이 같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던 실록이 임란 후 산으로 간 것은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두 유생이 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란시킨 데서 얻은 힌트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보존된 실록은 1997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정읍시민들의 자긍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조선왕조는 반쪽자리에 불과한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사재를 털어 목숨을 담보로 실록을 보존했던 이들의 공적에 비하면 오늘날 사우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인식 또한 너무 부족하다. 두 분의 공로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용굴은 현재 철제난간에 의지하여 오르게끔 되어 있다. 한 때 어진이 보관되어 있던 용굴은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장소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옛날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같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알려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직지심경'이 간행된 청주에서는 단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고인쇄박물관'을 지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도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것인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은봉암과 비래암의 위치를 고증해서 복원하고 용굴과 남천사, 물재와 한계의 묘소를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록을 운반하면서 역사기록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더 좋을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재고를 위한 시의 각별한 관심과 관련 유적지의 보존과 홍보, 복원 등이 절실한 때이다.

정읍농악과 신종교

【생각해 보기】----------

1. 정읍에서 농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2. 무속과 농악, 판소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읍은 무속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또한 우도농악의 본산지라 일컬을 만큼 한때 농악이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무속과 농악과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정읍농악 발달의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정읍이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성향이 유독 강했음을 각종 지리지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 무속신앙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창자와 반주자들이 판소리나 농악으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농악이 발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농악발달은 정읍지역의 자연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종교인 증산교와 보천교의 영향도 컸다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지리 및 무속의 영향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매년 정월 초나 보름에 '걸궁'으로도 불리는 풍물을 치는 오랜 풍습이 있었다. 이 때 이웃 마을 풍물패들이 합류하고 함께 어우러진 풍물굿을 보기 위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모였다.

1894년 1월 10일 밤 동학농민군들은 배들평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10여 개 마을의 풍물패를 동원하여 그 중심지가 되는 예동 마을에 모이자 수많은 군중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송기숙(전남대)도 "1월 10일 달밤을 이용하여 만석보 봇굿이라도 친다는 구실아래 풍물을 치고 모였을 것이다." 라고 했다. 전봉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군중을 모으는 용의주도한 면이 있었다. 농악은 이렇듯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단합성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농업장려의 목적 외에는 풍물굿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식민지정책의 하나로 농민들이 단합하게 되는 풍물을 금지시켜 한국인의 공동체를 해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풍물이 유독 전라도에서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예로부터 진안과 장수가 '좌도굿의 발상지'였으며, 정읍은 '우도농악의 본산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악이 발달한 곳이었다. 이렇게 농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뛰어난 자연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자연환경

정읍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멋과 맛의 풍류를 즐겨왔던 고장이었다. 거문고, 가야금, 대금, 양금 등 줄로 이루어지는 악기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는 줄풍류가 정읍에서 나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원래 경기지방의 경제(京制) 줄풍류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향제줄풍류만 전해오고 있다.

본시 예술적인 바탕이 좋은 환경에서는 서정문학, 곧 시, 시조, 가사, 민요 등이 발달하고 혹독한 날씨나 산악지대에서는 서사문학, 즉 소설이나 철학이 발달하는 법이다. 「상춘곡」(賞春曲)의 작가 정극인(鄭克仁)을 비롯한 송순, 정철, 임억령, 김인후, 윤선도 등이 호남지방에서 서정문학을 산출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영남인 경주 금오산에서 김시습이 소설 『금오신화』(金鰲神話)를,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살던 박지원이 『양반전』, 『호질』 등을 지은 것이 또한 비근한 예이다. 비옥하고 넓은 토지와 온난한 날씨는 서사문학의 기본 구조인 갈등과 대립이나 철학의 복잡한 개념보다는 찬미조의 서정문학과 낙천적인 예술이 발전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다. 전라도가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농악이 발달했다면, 경상도는 탈춤과 서사무가가 발달한 점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무속의 성행

정읍농악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무속과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 상관관계를 살피기 전에 정읍지역에 무속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무속은 우리 전통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것으로써, 우리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무속은 일제강점기 민중종교로서 박해의 대상이었고, 광복 이후에는 서구식 내지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하여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낙인찍혀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급은 밖에서 들어오고 옛 것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우리들의 정신적 기반에 의해 무속은 언제나 천시와 경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속이 지금까지도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속에서의 굿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위험을 당해 본 사람이 최후로 선택하는 또 다른 삶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무속의 핵심은 '현실의 복된 삶'에 있다. 어떻게 하면 재액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현실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신령의 도움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속의 가치는 이승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다. 무교적 가치관에는 내세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비젼이 없다.

한국인의 원초적인 신앙과도 같은 이러한 무속이 정읍에서 활발히 성행했음은 각종 지리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태인과 고부지방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 『여지도서』(與地圖書) 등의 지리서에 나와 있는 전라도 관계 풍속 기사에는 음사(淫祀)를 좋아했다고 하는 고산현과 무격을 숭상했다고 하는 고부군 그리고 태인현의 기록 외에 무속과 관련된 기록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고부읍지』(古阜邑誌)에 보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내용은 기복신앙인 무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읍이 유독 다른 지방에 비해 무속신앙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읍에는 각 면 지역마다 굿을 해 주는 세습무인 '당골애비'와 '당골애미'가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반드시 단골끼리 결혼했으며 무업을 천직으로 삼았다. 무당은 '당골판'이라고 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무속인들에게 자리를 넘길 때는 프레미엄이 따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 위주의 '당골판'은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영남지역의 세습 무당도 무속상의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대대로 세습되고 있으나, 호남지역의 '당골판'과 같은 관할 구역제가 희박했다. 당골집(마을)들은 당골들에게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당골무당으로부터 신앙적, 종교적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성립된 당골관계(단골관계)는 무당과 신자와의 관계 즉 종교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의 당골은 중부 이북 지역의 무당처럼 가무 강신을 하나 그 제의과정에서 강신현상(憑神狀態-Ecstacy)이 뚜렷하지 않으며 신탁(공수)을 내리지도 않고 주로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데 주력을 하는 등 중부와 이북의 무당과 그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중부 이북 지역이 신들린 샤먼(Ecstacy Shaman)이라면, 호남은 점잖은 사제(Priest)로 비유된다. 호남지방은 대부분 강신무가 점을 보면 그 점괘에 따라 굿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친정어머니와 딸을 통해서 세습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전북지부(무속보존회)에 가입되어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은 1,200명이 된다. 이 가운데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신회(敬信會)의 회원수가 300명에 이르고 있다. 어쨌거나 이 숫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점차 학력이 높아지고 평균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일종의 현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속의 영향

그런데 이러한 무속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속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고인(鼓人)들이 판소리나 농악으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농악과 판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최초의 소리꾼은 조선 영조 때의 하한담(河漢潭/하은담?)과 최선달(崔先達), 우춘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하한담은 무부(巫夫)들의 조직체인 전주 신청(神廳)의 대방(大房/우두머리)이었고, 최선달은 대방을 보좌해주는 도산주(都山主)였다고 하는 사실에서 무속과 판소리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8명창 시대에 등장한 서편제 소리는 판소리의 모체인 전라도 무가나 전라도 민요의 선율적 특성의 강화로 특징지어진다. 또 무속에 사용되는 악기가 장고나 꽹과리, 북 등이며, 무속인 출신 가운데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판소리는 이와 같이 무가기원설이 현재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어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전라도 지방의 단골 무들이 부르는 서사무가는 여러모로 판소리와 닮은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장편의 구비서사시라는 점이 그러하고 창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리'라고 하는 말로 된 부분과 노래로 된 부분을 섞어서 부른다는 점도 그러하다. 이밖에 판소리와 전라도 지방의 무가는 장단의 변화 및 창법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거나 흡사하다.

또 판소리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예는 판소리가 전통적으로 광대라고 불리어진 예능인들에 의하여 가창.전승되어 왔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정노식(鄭魯湜)의 『조선창극사』에는 무녀의 굿조와 광대의 창조가 상사(相似)한 것을 지적하고 과거명창 중 수명의 비가비(閑良廣大)를 제외한 나머지 광대는 모두 재인.무인계급에 한해서 출생했다고 했다. 여기서 90명의 명창을 소개했는데, 출신도를 보면 전라도가 55명, 충청도가 24명, 경상도가 7명, 경기도 3명이며, 여기 경상도와 경기도의 명창들은 대개 후대의 명창들이다.

다음으로 무속과 농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악대의 맨 앞에 서는 농기 영기는 무당굿에서의 신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기 앞을 지날 때는 어느 누구든지 기에 절을 했고, 말을 타고 가다가도 말에서 내려 지나갔다는 구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기는 신대나 신기의 기능을 가진 신성한 것이었다. 따라서 농기를 가지고 집돌이 행락을 하는 것은 마을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무속에 바탕을 둔 농경신앙적 관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쇠는 가락을 농악대원들에게 전달하고 동제에서는 제관이 되며, 집돌이로 지신밟기를 할 때는 고사창을 하고, 판굿에서는 진(陣)풀이의 선도자가 되는 등 모든 농악을 총지휘한다. 특히, 호남지방과 경남지방의 동제는 농악대가 시제하는 당산제이므로 상쇠는 한층 신관기능이 강하게 작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쇠의 지위는 옛날 무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농악에 있어서 상쇠는 주술능력이 발달한 무관(巫官)이었을 것이다. 대포수는 지방에 따라 대포수(大砲手)나 대포수(大捕手)로 쓰는데, 경기도 부천시 장말마을 도당굿의 돌돌이와 군웅(軍雄)굿에서 무당들이 포귀수(捕鬼手)가 되어 활을 쏘아 잡귀를 잡고 액풀이를 하는 대목이 있듯이 농악에서 대포수가 총을 쏘는 것도 일종의 액풀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악의 대포수는 무속에서 말하는 포귀수나 대포수(大砲手) 또는 대포수(大捕手)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농악의 영기와 대포수는 무속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농악의 상쇠는 옛날 무격이었을 것이다. 무속에서 농악으로 전환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세 최고의 명고수였던 전계문은 1872년 전기옥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40년 사망했다. 본적은 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 49번지이다. 전계문은 주로 당숙인 전도성의 수행고수로 활동했으며, 북 뿐만 아니라 춤(한량무), 대금, 정악, 양금, 가야금, 거문고 등에서도 당대 최고였다. 원래 직업은 무였다. 또한 '정읍농악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봉문은 대신마을에서 당골을 하던 전재성(장성)으로부터 풍물을 배웠다.

전북 정읍군 소성면의 일명 '독바우집'이라 불리던 당골 집안에서 태어난 신귀녀는 외가가 유명한 재인 집안이었다. 그의 숙부 김홍집은 설장고로 유명하고 김홍술은 소문난 상쇠였다. 또한 친가쪽으로는 큰아버지가 소리광대이고, 큰어머니 역시 유명한 무녀였다. 정읍군 정우면 장자동(장항리)에서 출생한 전금순은 17세 때 순창군 복흥면 삼방에 살던 두 살 위의 남편 신기남에게 출가했다. 어느 날 우연히 전금순의 부친인 전생필과 김광래가 전금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전금순의 사주가 "50세가 되면 남편을 잃을 것이니 성음을 배우면 그것이 면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간청으로 26세 되던 해에 친정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김광래로부터 무의식을 사사했다. 김광래는 풍물의 명인으로 한때 정읍우도농악의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혈통이 무계로서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사람이라는 설이 있다. 전금순의 남편 신기남은 무악반주를 담당하던 고인이었으며, 신씨 집안은 유명한 판소리 광대를 배출했다. 고인(鼓人)으로는 정읍군 산외면 참시내 사람 전광문과 산외면 살터 사람 김판순이 각각 피리를, 칠보면 사람 전행필이 대금을, 정우면 사람 전수바우가 장구를 잘 했다 하며, 옹동면 오성리 방죽안에는 전우성이라는 당골이 있었다 한다.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풍물의 명인이 됨으로써 정읍농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증산교와 보천교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정읍농악은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신종교의 영향

증산교의 영향

증산이 무속을 적극 수용하고 농악을 권장했음은 경전인 『대순전경』(大巡典經)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천지공사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증산교를 창시한 강일순(姜甑山/姜一淳)은 1871년 덕천면 신월리 신송 마을에서 태어났다. 덕천면은 당시 고부군에 속했다. 따라서 당시 어느 지방보다 성행하던 무속을 증산교의 교리에 쉽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교가 무속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대순전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 하루는 걸군(乞軍)이 들어와서 굿을 친 뒤에 천사께서 부인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고 장고를 들어 메고 노래를 부르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곧 천지 굿이라. 나는 천하 일등재인이요, 너는 천하 일등무당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부인에게 무당도수(巫堂度數)를 정

하시니라."

…도한과 무당에게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

…이제는 해원시대라. 천한 사람에게서부터 교를 전하리니 무당 여섯 명을 불러오라. 경학이 명을 받고 무당을 불러오니 명하사 관건(冠巾)을 벗기고 각 사람의 앞에 청수를 놓으시고 그 청수를 향하야 네 번씩 절을 시키신 뒤에 시천주(侍天主) 세 번을 읽으시며 각기 따라 읽게 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물으시되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이냐고 물으신 뒤에 청수를 마시라 하사…

위의 문장으로 볼 때 증산은 가장 천한 신분인 무당과 도살업자를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무엇보다도 해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증산교가 무속적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산은 농악을 보고 혜각이 열렸다고 한다.

7살 되던 해인 정축년에 농악을 보고 문득 혜각(慧覺)이 열렸으며, 장성한 뒤에도 다른 굿은 구경치 아니 하고 농악은 흔히 구경하였다.

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궁상각치우의 소리 안에 위대한 기운이 들어 있어 사람과 신명이 화합하고, 천하의 뭇 이치가 서로 조화를 이룸이 풍물의 음률 안에 들어 있기에 이 풍물굿을 보고 문득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또한 풍물의 장단을 정읍에 대궁이 들어설 것이라 하여 정읍을 차기도읍지로 연관 짓고 있다. 이것은 농악과 보천교주인 차월곡의 천자등극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풍물의 장단에 정적구(井赤求)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 정씨가 졌다는 뜻이라 하고 또 정작궁(井作宮)이라 하니 무슨 뜻이오니까? 가라사대 두 말에 일리가 있으니, 정작궁은 정읍에 천하의 대궁이 서는 뜻이라

증산교에서 분파된 보천교에서 풍물을 적극 수용했다는 사실은 이런 증산의 종교적 예언 내용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인년 초여드렛날 고부인이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금년은 큰 흉년이라 비가 없으리니 내가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짓게 되리라. 하시고 풍물을 가져오라 하사 굿을 치게 하시며 가라사대 수농부(首農夫)가 있어야 농부가를 부르리라…

위 내용을 참고할 때 정읍지역의 농악 발달은 위와 같이 증산이 공사를 행하면서 말한 내용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증산교 계통의 여러 단체들은 음력 24절기마다 치성을 드리는데, 대치성(명절치성) 때는 항상 소문난 명인명창을 불러 교인들과 큰굿을 벌리곤 했다. 이를테면 농악은 종교음악 기능까지 했던 것이다.

보천교의 영향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에 본부를 두었던 보천교에서도 풍물을 수용, 적극 권장했다. 보천교에서는 전국에서 장구잽이와 상쇠잽이 등을 모집 선발하여 풍물굿을 자주 열었다. 농악에는 반드시 남선과 북선으로 패를 갈라 서로 기예를 겨루게 했다. 정읍농악은 바로 이때에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할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차월곡은 예배소인 성전(聖殿) 건물 뒤편에 벽돌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그곳에서 농악을 지도했다. 교단에서는 모든 농악복장을 지급했으며, 차월곡은 상쇠잽이(꽹과리)의 머리 매는 방법과 12발 상모 돌리는 것을 직접 지도했다.

특히, 1930년 경오년과 1931년 신미년에는 큰굿을 열어 주변 지역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일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광대의 외줄 타는 모습과 시끌벅적한 난장판 그리고 풍성하던 음식점 등을 나이 든 노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 가지 더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봉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장구가 보천교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지금은 똑같은 박자로 전국의 모든 장구놀이에 유행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천교농악단'의 조직

보통 농악대는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나 일반적으로 나팔, 영기 2명, 농기 1명, 태평소(일명 날나리, 쇄납 또는 호적), 상쇠 3명(상쇠, 부쇠, 종쇠), 징 2명, 장고 3명(수장구, 부장구, 종장구), 북 2명(수북, 부북), 소고(수법구, 부법구, 종법구), 잡색(대포수, 양반, 왜장녀, 조리중, 무동) 등 15~20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러나 보천교 농악단은 상쇠잽이(꽹과리)가 좌우에 12명씩 24명이 있었고, 장구잽이 역시 좌우에 12명씩 24명이 있었다. 이밖에 나팔과 소고, 북, 피리, 무당(남자가 여장을 하고 고깔을 썼음), 날나리, 징을 포함하여 모두 100여명 정도의 대규모로 편성되었다. 보통 농악단의 6~7배 정도의 인원을 늘려서 배치한 것으로, 이런 규모라면

오늘날 4관 편성의 오케스트라에 버금가는 단원조직이었다. 농악 연주를 직접 보았다는 북면 보림리의 조화식은 전통 격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양식을 연주했다고 구술했다. 원래 정읍농악의 가락은 과거 칠보, 옹동, 북면 지역에서 불려졌던 논매기 노래. 자장가.상여소리인 만가 등의 민요의 음과 비슷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가락을 보인 것은 아마도 군대해산 뒤 군악대에서 활동하면서 신음악을 접했던 이들이 보천교 농악단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가락을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군악대 창설은 1896년과 1898년, 그리고 1900년설(광무4년) 등 3가지가 있으나, 1900년설을 현재 정설로 보고 있다. 그것은『황성신문』12월 18일자에 이때에 군대의 설치 방법, 조직 인원, 직제와 봉급 등에 관한 것이 법문화되고, 독일 악사 에케르트(Dr.Eckert/1852~1916)를 초빙하고 기한은 3년, 월봉이 3백 원이며, 악기를 가지고 떠났다는 보고를 발표한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표1〉농악대의 편성

순서	종류	구분	내용
1	나팔수	1. 나 팔	
2	기 적	2. 영 기 3. 농 기	영기1.2(신호하는 악기) 농기(농악의 상징기)
3	호적수	4. 태평소	태평소의 선율은 지방마다 다른데 그 지방의 민요선율과 비슷하나 경기지방에는 '능계'를, 호남지방에는 '시나위'를, 경상강원에서는 '니나니' 가락을 연주한다.
4	꽹과리 잡이	5. 상 쇠 6. 부 쇠 7. 종 쇠	상쇠가 농악대의 지휘자이며 꽹과리를 순서대로 말하면 상쇠.부쇠.삼쇠… 맨 끝은 종쇠
5	징잡이	8. 수 징 9. 부 징	징이 여럿일 때는 차례대로 수징.부징.삼징… 맨 끝일 때는 종징
6	장구잡이	10. 수장구 11. 부장구 12. 종장구	장구는 여럿일 때는 수장구.부장구.삼장구… 맨 끝은 종장구
7	북잡이	13. 수 북 14. 부 북	북은 여럿일 때는 수북.부북.삼북 맨 끝은 종북
8	소고잡이	15. 수법구 16. 부법구 17. 종법구	소고가 여럿일 때는 수법구.부법구.삼법구… 맨 끝은 종법구(꼬리법구)
9	잡 색	18. 대포수	목총 메고 털모자 쓰고 포수옷을 입음
		19. 양 반	정자관 쓰고 도복입고 갓신 신고 부채를 듬
		20. 왜장녀	치마저고리 입고 수건을 씀
		21. 조리중	동냥중으로 분장. 송락 쓰고 장삼입고 바랑을 맴
		22. 부 동	어른 어깨 위에서 춤추는 아이. 장삼입고 고깔을 씀

* 잡색은 농악 사이사이에 재담 놀이를 벌이거나 춤을 추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1916년 지휘자인 에케르트가 서거하자 양악대는 해산되었다. 그 후 이윤용, 백우용 등에 의해 경성악대라는 민간단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 운영난에 봉착하여 각 학교 운동회나 극장 같은 곳을 전전하며 연구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체 이후 이들이 보천교 농악단에 합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농악은 꽹과리 리듬이 주가 되는데, 이 상쇠잽이와 장구잽이가 각각 24명이었으니, 전통농악의 리듬 위에 양악이 응용되었을 그 웅장한 소리를 가히 짐작할만하다. 농악단은 조선시대에는 현감과 군수 행차 시에 동원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보천교 농악단은 차월곡의 천자행렬을 상징하는 취타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천교농악단'의 해체

보천교 농악은 1936년 차월곡이 사망하자 해체되었다. 이후 정읍농악은 김도삼, 김홍술, 부안의 김바우, 장성의 최화집 등의 명인들에 의해 크게 발전했으며, 전국적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해방 후에 열린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였다. 정부수립 직후 창경원에서 열린 전국농악경연대회(이봉문)에서 정읍농악단이 '가인전모란무'(佳人剪牧丹舞/고려 때의 춤으로 여인이 모란꽃을 따는 형태의 춤)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어 2회 대회(이정범)에서 또 다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친 것이다. 이후 김도삼의 굿은 김제의 현판쇠, 정읍의 전사종, 김광래, 전이섭 등에 의해 이어졌고, 김홍술의 굿은 김광래, 전이섭, 이명식, 이동원을 거쳐 현재 이리농악단의 김상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2〉정읍농악 기능보유자

특기	성명	주소	특기	성명	주소
상쇠	김광래	정읍군 북면 원당리	장고	신기섭	정읍군 이평면
부쇠	전사종	정읍군 영원면	장고	전사섭	정읍군 입암면
부쇠	신영찬	고창군 아산면	장고	김병섭	정읍군 북면 보림리
부쇠	신두억	고창군 아산면 중월리	장고	이정범	정주시 송산동
부쇠	박성근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장고	추수동	불명(장고제조 기능자)
부쇠	김성구	정읍군 고부면	장고	김몽덕	정읍군 입암면 제내리
장고	김홍집	정읍군 입암면	장고	이동원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장고	이봉문	정주시 내장동	대포수	이봉춘	정읍군 북면
징	김길수	불명			
징	김용업	정읍군 북면 한교리			

이러한 명성을 계기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명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정읍이 우도농악의 본산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정읍은 1998년 현재 농악동호회 3

팀, 읍면동 농악단 27개 팀, 학생농악단 38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정읍농악의 기능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표2〉와 같다.

지금까지 정읍에 유독 무속성향이 강했던 점을 각종 지리지를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무속이 정읍농악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읍농악은 정읍지역의 자연환경과 신종교인 증산교와 보천교의 영향이 컸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종교나 무속인 가운데 근·현대 명인으로 맥이 이어지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못한 채 글을 마무리하였다. 추후 연구가 진척되면 본고의 논지를 보완하는 별도의 글을 쓰고자 한다. 이제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정읍은 무속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무속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무속인들이 판소리나 농악의 고수로 전환했다. 이것이 정읍에서 판소리와 농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읍군 태인면에서 출생한 근세 최고의 명고수였던 전계문은 원래 무(巫)였으며, 정읍농악의 중시조로 일컬어지는 이봉문은 당골 출신의 전재성으로부터 농악을 배웠다. 직업적인 무였던 신귀녀는 큰 아버지가 유명한 소리광대였으며, 역시 당골이었던 전금순은 농악의 명인이었던 김광래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여기에 신종교인 증산교에서도 농악을 적극 권장하였다. 증산은 어렸을 적 다른 굿은 보지 않고 농악만 보았으며, 이로부터 혜각이 열렸다고 한다. 또한 증산은 무당도수를 펴고, 무당을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원을 강조하였다. 증산의 뒤를 이어 나온 보천교에서도 풍물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정읍농악의 중흥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천교 농악은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정도로 대규모 농악단이었으며, 차월곡의 천자행렬을 위한 취타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차월곡 사후 농악단이 해체된 뒤 아쉽게도 전국의 명인들이 흩어져 버렸다. 앞으로 보천교 농악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농악단을 복원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양반문화(관음문화)와 서민문화(노동문화)의 공존

【생각해 보기】----------

1. 양반문화와 서민문화의 상징은 각각 무엇일까요?
2. 초가삼간에서의 '간'과 99칸 집의 '칸'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모정은 농민들이 한여름 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이 딸리지 않고 마루뿐인 마을 건물이다. 글자 그대로 초가를 얹은 소박한 정자로 농민들의 휴식처이자 집회소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에서 누와 정을 따온 말 그대로 정자식 건물이다. 쌓아올린 대 위에 세운 건물을 누각이라 한다면, 누정은 밑에 대가 없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누정 885개)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누정을 경영하였고, 지방관들도 행정의 권위나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정을 세웠다. 조선 후기에는 동성마을이 번창하면서 '뼈대 있는 가문'임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누정을 세웠다.

진주 촉석루, 부여 백화정, 울진 망양정, 밀양 영남루, 안주 백상루, 함안 와룡정, 담양 소쇄원, 간성 청간정, 그리고 대표적인 누정인 창덕궁 부용정이 있다.

누정은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중심지였다

누정은 사대부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친교를 도모하고 당대의 경세를 전론으로 펼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특권층만이 음풍농월로 세월을 보냈다는 비판도 따른다.

누정은 야트막한 구릉이나 산록, 계곡이나 경관좋은 강변, 절경의 암반 위, 자연 연못이거나 아니면 인공으로 판 연못가, 심지어 마을의 살림집 복판이나 논밭 가운데도 세웠다.

누정은 향촌사회의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정치집회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성문화의 중심터였다. 여성의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이었다. 남성들만의 독과점 문화장소였던 셈이다. 다만 기생들은 종종 출입할 수 있었다.

경상도는 '평상문화'가, 호남지역은 독특한 '모정문화'가 발달했다

누정이 양반들의 유유자적한 '관음의 문화'라면 모정은 '노동의 문화'였다. 시정, 유산각, 농청, 농정, 동각, 양청 같은 명칭으로 두루 쓰였지만 역시 주류를 이루는 것은 모정이다. 모정은 당산굿을 치르는 종교 중심터이기도 했다. 모정은 글자 그대로 초가지붕이었다. 새마을운동 이후로 슬레이트나 양철지붕 따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요즈음엔 새로 짓는 모정은 기와를 올린다. 그렇다면 초가가 사라졌으니 와정이라 해야 옳을 것 이다.

모정은 호남, 그 중에서도 전남지방에 분포도가 높다. 가령 전북지방에서 모정문화를 조사하다가 금강을 건너 충청도 부여로 접어들면 이내 모정이 사라지고 만다.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도 곡성에서 경상도 하동으로 접어들어도 마찬가지다. 호남에만 모정이 발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모정과 구별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정에 준하는 공동체적 결집소는 있었다. 모정의 이명인 동청, 농청, 농정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집회소는 농사의 대소사를 토론하는 회의장소이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젊은 두레꾼들이 모여서 악기를 배운다거나 멍석짜기 따위로 소일하던 공간이다.

같은 농사지대라도 경상도에서는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평상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같은 호남지역이라도 도서나 산악지방에는 모정이 드물다. 평야지대가 모정문화의 중심권역이다. 경상도는 전라도에 비하여 누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상도에서도 양반이 많이 살았던 안동이 으뜸을 차지한다.

정자의 기원은 고구려의 '부경(桴京)이다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운치의 멋'이요, 하나는 '그 속에 몸을 담고 느끼는 즐거움'이다. 한국건축 특히 정자건축의 경우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 속에 들어설 제 자리를 멋있게 잡을 줄 아는 민족은 드물다고 한다. 즉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연의 일각에 딱 세워서 자연 풍광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자연과 건축을 일심동체로 만들어 마치 자연 속에 점정(點睛)하는 신기한 효과를 낼 줄 안다는 것이다.

정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놀기 위하여 지은 집'이라는 뜻의 글자이다. 한국의 정자는 조선조 유학의 영향으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다는 생활 철학이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고 특히 선종이 한국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과의 동화가 생활화되어 더욱 정자와 친숙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민문화와 상류문화가 모두 그 바탕을 자연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정자가 '상류문화의 상징'이라 한다면 모정은 '서민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정자는 그 기원을 모양이 비슷한 고구려의 부경(桴京)이나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원두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부경은 고구려 지배 계층의 창고로 한자의 창(倉)자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다. 지붕(ㅅ)아래 창문(田)이 있고 발 달린 창고라 했으니 양쪽에 기둥(l l)이 있는 형태로 사다리(/-글자의 왼쪽 삐침)를 놓고 올라가는 건축물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부경식 건물은 없으나 다행히도 일본 동대사에 정창원과 성보전 건물이 남아 있어 고구려의 부경식 건물을 유추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에 의자왕 15년 태자궁을 지극히 화려하게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는 기록이 최초다. 현존하는 정자의 대부분은 14세기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각 지역의 정자 분포를 보면 서울이 21개, 경기도 10개, 강원도 22개, 충북 42개, 충남 7개, 경북 124개, 경남 56개, 전북 29개, 전남 29개로 총 361개의 정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 경남북이 180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29개가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이 14개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최초의 서원, 남고서원

태산가, 일재 이항이 짓다

서원은 사우와 의미상 엄격히 다른 말인데도 17-8세기가 되면 구분없이 사설 교육기관의 의미로 같이 쓰이게 되었다. 서원은 사액이 되면 면세, 면역은 물론 임금이 현판 글씨를 하사하고 서원의 경제적 기반인 노비와 전답을 하사하기 때문에 각 서원들은 사액을 받기 위해 애를 썼고 이 점이 조선후기 서원 증가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전라북도의 사액 서원 수는 정읍이 가장 많은 4개소이며 무주, 부안, 순창, 장

수는 사액서원이 1개소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남고서원은 일재 이항(李恒/文敬公)과 김천일(金千鎰/文烈公: 일재의 문인으로 언양인이며 나주에서 출생하였다. 수원부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전사했음) 두 분을 배향하고 있고 1685년(숙종11년) 사액을 받은 서원이다.

『남고서원지』에 의하면 사액서원이 헐리던 날 호랑이가 대낮에 나무 위에 올라 가 변고의 조짐을 보이더니 다음날 조정에서 사신이 내려와 훼철(1868)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곳 주련(柱聯/기둥에 쓰는 시)에는 조선 중기에 양사언이 썼다고 알려진 태산가(泰山歌)가 있으나 어쩌면 일재 이항의 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재 이항의 유품에 해당되는 벼루가 현재는 없어졌지만 이 벼루에도 태산가가 새겨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 태산가는 조선 후기 영.정조 이후에 나온 안민영(安玟英)의 『가곡원류/歌曲原流』와 김수장(金壽長)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실려 있는 시로 작가가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가 반드시 양사언의 시라고 확인해 줄만한 자료는 없는 셈이다. 한시체는 한 구(句)의 잣수와 한 편의 구수(句數)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7세기 당나라 이백과 두보를 기준으로 이전을 고체시, 이후를 근체시로 분류하고 있다.

근체시는 한시에서 다시 5자의 4행시를 '오언절구'라 하고 5자의 8행시를 '오언율시'라 한다. 5자의 12행시를 '오언배율'이라 하는데 남고서원 기둥에 있는 시는 5자의 6행시로 한시 체제상 그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굳이 체제를 이야기한다면 고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율시, 오언배율, 칠언배율, 오언고풍, 칠언고풍, 장단구 등 다양한 갈래의 한시를 두루 구사하고 있는 철저한 한문 시인인 양사언의 시조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일재속록』(一齋續錄)에는 先生嘗作歌 講業之暇 使諸生歌 之以爲勸勉興起之資歌曰이라 하여 "일찍이 가사를 지어 강업이 한가로울 때는 여러 학생들에게 권면흥기하는 자료로 삼았다." 노래하여 말하기를 "누가 태산이 높다 하였는가.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다시 오르면 스스로 위에 오를 수 있으련만 사람이 오르지 않고 매양 태산만 높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태산가의 작가가 양사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재속록』이 1759년에 나온 만큼 이보다 117년이나 늦은 1876년에 나온 노래 책들은 지은이를 정확히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경상대학교 김수업 교수는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의 지은이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심재완의 『역대시조전서』에 의하면 이 시조가 무려 32가지의 노래 책에 실려 있다 하였다.

그런데 17가지만 지은이를 밝히고 있고 그것도 5가지는 지은이가 양사언이 아닌 이이, 조덕중, 정철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지은이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노래 책에 실려 있다 해서 지은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12가지 노래 책은 실은 『가곡원류』를 그대로 베낀 필사본들이다. 나머지 15가지는 지은이를 밝히지 못하는 책들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대에 퇴계와 버금가는 성리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항은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보다 18년이 앞서는 분이다. 그뿐인가 우리 나라 최초의 시조집으로 공인받고 있는 『청구영언』에는 이 시조의 지은이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은이로 알려진 양사언의 『봉래시집』에도 자기가 지었다는 언급이 없고 이와 유사한 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재속록』에는 선생이 처음에 맹렬히 공부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앉은자리의 전후좌우에 칼날을 꽂아 몸이 판에 엎드리지도 등을 기대지도 못하게 하여 몇 해를 견딤으로써 의지를 굳게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강인한 의지와 언행은 이 시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이 시조를 노래 부를 만 하다고 김교수는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 시조는 일재 이항생이 제자들에게 배움을 권장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현행 중.고등학교에서조차 양사언의 시조라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빨리 이항의 시로 바꿔 가르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양사언의 시조와 일재 이항을 모시고 있는 남고서원의 기둥에 쓰여져 있는 주련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양사언의 시	남고서원 주련시	일재속록(一齋續錄)
泰山이 놉다 ᄒᆞ되	泰山雖云高	誰云泰山高
ᄒᆞ늘 아레 뫼히로다.	自是天下山	自是天下山
오르고 또 오로면	登登又登登	登登復登登
못오를 理 업건마ᄂᆞᆫ	自可到上頭	自可到上頭
사ᄅᆞᆷ이 제 아니 오르고	世人不自登	人旣不自登
뫼흘 놉다 ᄒᆞ나니	每言泰山高	每言泰山高

최치원, 피향정(보물 제289호)을 짓고 이곳에서 풍월을 읊다

피향정은 전주 한벽당, 남원 광한루, 순창 귀래정, 옥구 자천대와 함께 도내 5대 정자로 손꼽는 곳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피향정을 '호남 제1정'으로 일컬어 왔다. 건물 뒷부분에는 '호남 제 1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호남 제일의 정자로 알려진 이곳은 원래 이 정자 앞, 뒤로 윗 연못인 상연지와 아랫 연못인 하연지가 있었으나 일부가 도로로 개설되어 현재는 아랫 연못(하연지)만 남아 있다. [태인현지]에 의하면 상연지는 둘레가 1,444척에 깊이가 2척, 하연지는 둘레가 1,026척이고 깊이가 4척이라 기록되어 있다. 피향정은 8월이면 연꽃이 만발하여 주변 경관을 더욱 빛내고 있다.

이곳에서 진흙탕의 더러운 물과 흙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연꽃을 보는 즐거움도 있다. 그래서 향기가 피어난다고 하는 뜻의 피향정이라 했을까. 태인면에서는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제1회 피향정 연꽃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군악대 공연과 연꽃사진 촬영대회 등이 있었다. 이 연못에서 신라시대 최치원(孤雲) 선생이 태산군수(泰山郡守/887)로 재임 중 이곳을 소요하며 풍월을 읊었다 하나 창건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정자는 1716년(숙종 42) 현감 유근(柳根)이 정부의 보조로 부안 변산에서 재목을 베어다 세운 것이며, 조선시대 중기의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4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인데 합작 밑에는 작은 우물천장(井)이 특이하게 설치되어 있다. 특

히 이 피향정 내에는 태인향교 만화루의 현판을 쓴 당시 현감 조항진 불망비가 있으며 또한 태인 현감을 지낸 고부군수 조병갑의 아버지 '조규순 불망비'가 서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병갑은 아버지 비를 세운다 하여 고부 군민들로부터 1천량을 거두어 들여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무성서원, 2016년에 세계유산이 되다

칠보 면소재지를 들어가기 전 다리(일명 '학교다리')옆이 서원으로 들어가는 원촌마을 초입이다. 10여 미터 지점에는 당산나무가 있고, 여기에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5분여를 걸으면 서원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 원촌 마을은 입구의 향토사료관을 비롯해서 불우헌 정극인 선생 가사비와 송정, 필양사, 시산사, 송산사, 무성서원 등 볼거리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스런 정취가 마을 주변에 흠뻑 묻어있는 곳이다. 따라서 가족동반 코스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이곳은 서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마을이름 원촌과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는 마을의 식당이라는 뜻의 무성식당 모두가 역사적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듯 싶어 퍽 인상적이다. 서원으로 들어가는 노폭은 대형차 진입이 어려우며 일반 승용차는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웃 마을인 동편마을 강가에는 최치원이 술잔을 띄우며 풍류를 즐겼다는 유상대가 있다.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문서와 함께 도 지정문화재 지정이 보류되긴 했지만 언젠가는 옛 상태대로 복원해야 할 일이다. 경주 포석정은 인공을 가해 만든 것이지만 칠보 유상대(流觴臺)는 자연지형 그대로 형성된 곳이다.

*** 정극인의 「불우헌집」에 나오는 상춘곡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매우 낙천적인 내용의 노래이다.**

紅塵(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ᄒᆞ고. 녯 사ᄅᆞᆷ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山林(산림)에 뭇쳐 이셔 至樂(지락)을 ᄆᆞᄅᆞᆯ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앏픠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예 風月主人(풍월주인) 되어셔라. 엇그제 겨을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ᄂᆞᆫ 夕陽裏예 퓌여 잇고, 綠陽芳草(녹양방초)ᄂᆞᆫ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ᄅᆡ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흥이ᄋᆡ 다ᄅᆞᆯ쏘냐. 柴扉(시비)예 거러보고, 亭子(정자)에 안자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ᄒᆞ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ᄒᆞᆫᄃᆡ, 閒中眞味(한중진미)를 알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으란 오ᄂᆞᆯ ᄒᆞ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ᄒᆞ세. 아ᄎᆞᆷ에 採山(채산)ᄒᆞ고, 나조히 釣水(조수)ᄒᆞ새. ᄀᆞᆺ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 ᄃᆞᆺ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淸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ᄃᆞᆫ 날ᄃᆞ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ᄃᆞ려 酒家(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ᄒᆞ야 시냇ᄀᆞ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ᄒᆞᆫ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청류)를 굽어보니, 써오ᄂᆞ니 桃花(도화)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긘 거인고.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닉. 煙霞日輝(연하일휘)ᄂᆞᆫ 錦繡(금수)를 재폇ᄂᆞᆫ ᄃᆞᆺ.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ᄒᆞᆯ샤. 功名(공명)도 날 ᄭᅴ우고, 富貴(부귀)도 날 ᄭᅴ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 예 엇던 벗이 잇ᄉᆞ올고. 簞瓢陋巷(단표누항)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ᄂᆡ,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ᄒᆞᆫᄃᆞᆯ 엇지ᄒᆞ리.

안향의 본관인 순흥에 백운동 서원을 세우다

서원은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선현을 제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유교서적을 출판하고 보관하는 도서관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서원은 당나라 현종(玄宗) 때 최초로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는 궁중에 있는 서적의

편수처(編修處)를 일컫던 말이었다. 후일 이곳에 공부하는 거처를 마련하면서 서원의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주세붕(周世鵬)이 풍기군수가 되었을 때 풍기군의 속현(屬縣)인 순흥(順興)이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안향)의 본관이며, 살았던 옛터이므로 거기에다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선비들이 강수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서원의 시초이다.

그 뒤 이황이 주세붕의 뒤를 이어 군수가 되면서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사액할 것과 책을 내려 줄 것, 토지와 노비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니 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중국에서 최초의 서원인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계승(紹)하여 세웠다(修)는 뜻임)이라 사액하고, 신광한(申光漢)을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 서원에 사액하는 것과 책을 내린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인의병〔병오창의〕, 호남 최초의 의병이 되다

무성서원은 사적 166호(1968.12.19)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창후(文昌候) 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의 명신인 신잠(申潛), 상춘곡(賞春曲)의 저자 정극인(丁克仁)과 송세림(宋世琳/칠보면 시산리 태생), 정언충(鄭彦忠/태인 태생), 김약묵(金若默), 김관(金灌) 등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으며 출생지는 경주가 아니라 전라북도 옥구 출생이라는 주장이 있게 되면서 최치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신잠은 중종 때 간신이던 심정(沈貞)과 남곤(南袞)을 제거하려다 실패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관되어 문과급제 4년 만에 과거 급제마저 취소당한 채 장흥으로 유배를 당했다가 17년 만에 풀려났다.

정극인은 벼슬에서 나와 처가가 있는 태인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최초로 민간향약인 고현동 향약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현재 칠보면 삼리마을에 고현동 향약을 실시했던 고현동각이 있고 입구에는 고현동 향약 보물지정 기념비가 서 있다.

무성서원은 원래 태산사(서원)였으나 숙종 22년에 사액되면서 무성서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청액 상소문에는 무성, 태산, 남천의 세 가지였으나 무성으로 사액이 내려졌다. 그 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무성서원도 포함되었으나 지역유림들의 건의로

당시 대원군의 형이었던 이최응(李最應)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전답과 노비 등을 하사받게 되고 철폐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원 입구에 영의정 이최응 불망비(李公崔應不忘碑)가 세워져 있다. 초상화는 1784년(정조8) 하동 쌍계사로부터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했으나 지금 있는 것은 고종 때 채용신이 다시 그린 것이다.

원래 사우는 1484년(성종15)에 세워진 것이나 헌종 10년에 중수되었다. 강당은 1825년(순조25)에 불에 타 없어진 것을 1828년(순조28)에 중건하였다고 안내문에 기록되어 있다. 서원의 건물 배치는 현우(賢宇/泰山祠) 3칸, 명륜당(明倫堂/강의실) 5칸, 강수재(講修齋/동편 기숙사) 4칸, 흥학당(興學堂/서편 기숙사) 4칸, 문루(門樓)인 현가루(弦歌樓/2층) 3칸으로 되어 있다. 무성서원 원규(院規)에 의하면 학습의 순서는 격몽요결, 소학부터 읽기 시작해서 4서 5경을 읽는 것이 순서였다.

입학은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여 독서에 뜻이 있어 배우고자 하는 자는 모두 허락하고 있다. 서원은 향약, 유향소와 함께 조선시대 사림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요즘의 특수사립학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입학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독서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허락하고 있으니 현존하는 모든 서원의 원규에 비추어 볼 때 전례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입학하여 독서에 임할 때는 반드시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오로지 정신을 통일하여 의리를 깨우침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잡담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구한말 경기도 포천에서 출생하여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에게 학문을 사사했던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의병을 모집하여 순창 방면으로 진격했던 곳이기도 하다.

최익현은 순창에서 관군과 맞닥뜨리게 되자 "너희들이 왜놈들이라면 싸우겠으나 같은 동족끼리는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잡히는 몸이 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일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은 아사하였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영원히 기리고자 병오창의 기적비가 세워졌다. 바로 옆에는 진사 '최영대 불망비'가 자리하고 있다. 최진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영솔장으로 활약했던 최경선 장군의 친형으로 동생이 죽자 그 시신을 거두어 고부에 안치하였다. 묘는 1930년대 지금의 칠보면 축현리 조왕곡으로 옮겼다.

호남의 대표 명당에 김동수(중요민속자료 제26호) 가옥이 세워지다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에 자리잡고 있는 오공리의 김동수 가옥은 개울을 건너면 대문 앞으로 큰 연못이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머슴집과 문지기방, 곳간, 화장실이 있고 이어 안채, 사랑채, 창고, 사당, 하인집과 원래는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쓰던 방이었으나 뒤에 외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주방을 겸한 집까지 88칸이 현재 보존되어 있다.

안채가 21.5칸, 바깥 행랑채가 19칸, 안행랑채가 17.5칸, 안사랑채가 12.5칸, 사랑채가 11칸, 방아실이 3칸, 바깥 변소가 2칸, 사당이 1.5칸으로 되어 있다. 없어진 부대건물까지 합하여 99칸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후세에 보수하거나 개조되지 않고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집은 도편수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고급목재를 선별하는 것까지 집주인의 식견과 안목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 집은 대문을 여닫는 빗장이 자라모양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안채가 -자형(충남 예산의 김기현 가옥이나 김정희 고택은 안채가 ㅁ자형으로 되어 있다.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이른 바 대갓집 형태임.)으로 되어 있으나 이곳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양쪽에 부엌을 내고 부엌 바닥이 지표보다 낮게 되어 있다. 부엌의 창살도 멋을 부리는 등 꼼꼼히 살펴보면 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멋을 부린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건축연대는 1784년(정조8)이며 김동수의 6대조인 김명관(金命寬)이 17세가 되던 해에 짓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완성했다. 이 마을에 사는 관리인 김용택에 의하면 나무를 쪄서 건축했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담밖에는 노비들 거처에 해당하는 8채의 호지집(護指)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1채만 남아 있으며 전형적인 초가삼간(방 둘, 부엌 하나)으로 되어 있다. 이 곳 김동수 가옥은 6·25전쟁 때는 인민군 지역본부로 사용되어 보존될 수 있었다. 집터는 풍수상 평사낙안(平沙落雁/백사장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형상으로 부귀가 끊이지 않을 곳)의 형태로 큰 인물이 날 곳이라 한다.

우석대학교 김두규(金枓圭) 교수는 호남에 대표적인 지네 명당이 두 군데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에 있는 김씨 고가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 임실

군에 있는 이씨 고가라고 하였다.

김두규에 의하면 정읍 산외의 김씨 고가는 바로 지네의 두 이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한다. 지네가 먹을 것을 두 이빨 사이에 물려고 할 때 기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란다. 지네의 머리는 바로 집 뒤에 있는 산이며 지네의 몸통은 그 뒤로 연결되는 산 능선이다. 앞에 연못이 있는 것은 지네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공으로 조성한 것이다. 아름드리 고목들도 습지를 좋아하는 지네를 위해 일부러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원래는 '지네 오'자의 오공리(蜈蚣里)였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서둘러 지명개정 작업을 벌여야 할 일이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지바우(남근석)

원백 마을은 6.25전까지만 해도 150여 호를 헤아리는 대촌이었다. 현재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70여 호가 살고 있다. 정읍에서 북면을 거쳐 칠보가는 길인 일명 '걸치기'라는 흥이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음력 7월 15일 백중날(머슴날)을 '원백 주민의 날'로 정하여 매년 풍물과 체육대회를 열고 주민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필자가 여섯 번째 이 마을을 찾은 것은 1997년 8월 17일인 백중날로 무더운 한 여름날 오후였다. 우선 모정에 들러 노인들께 깍듯이 예를 갖추니, 이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반갑게 맞이한다. 며칠 전 마을 주민들을 통해 '농바우'를 촬영하기 위해 부근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모정에서 무려 1km나 떨어진 곳을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 사진촬영 하기에 알맞게끔 잡목을 쳐냈다. 노인 몇 분이 모정에 오를 것을 권한다. 앉기 바쁘게 금세 고기 한 접시와 맥주 2병이 올라온다. 그리고선 마시지 않는다고 성화를 댄다. 참 시골 인심과 인정이 넘치는 정겨운 모습이다. 남근석도 최고, 넉넉한 인심도 최고인 마을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진 한 장 찍을라치면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찍느냐, 그런 일들이 마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등의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한 잔을 마시고 모정을 둘러보니 모정 천정에 선풍기 3대가 동시에 휙휙 돌아

간다. 이른바 모정의 현대화(?)된 모습이다. 왠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남근석과 석장승, 여근암이라 할 수 있는 농바우(일명 '민들바우')가 있고 당산제가 살아있으며 풍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데다 주민들 단합 또한 어느 마을과 비교해도 자랑할 만하니 전통이 살아 숨 쉰다 할 만하지 않겠는가.

큰 나무에 마을을 지키는 신이…

동제 또는 *부락제라고 하는 당산제는 보통 일 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대개 마을 안에 있는 나무 중 가장 큰 고목을 고르거나 당산석을 세워 여기에 신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 마을 입구의 큰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당산제를 지내는 것은 가장 큰 고목나무나 바위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이 대부분이다. 조선총독부편 『조선의 거수(巨樹), 노수(老樹)』, 명목지(名木誌)에도 조선 전역에 당시 거수, 노수, 명목으로 불리는 것이 1,108그루가 있고 그 중 부락제가 행해지고 있는 나무가 460그루였다는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큰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병이 나갔다.', '감기가 들었다.' 라고 하여 병을 나가고 들어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로 잡귀가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큰 나무가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목에는 반드시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둘러치고 소나무 가지나 대나무 가지를 함께 끼워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푸라기로 꼰 새끼줄은 이외에 장승에 감기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줄로 치기도 하며 된장독에 숯을 끼워 둘러치기도 한다. 숯은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정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잡귀가 들러붙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신성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줄을 치기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부정한 사람이 출입치 말라는 금기의 표시로도 사용이 되었다. 금기표시 지역에 소나무 가지나 대나무 가지를 함께 끼워 넣는 것은 뾰족한 솔잎과 날카로운 대나무 끝이 잡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

* 장봉선은 [정읍군지]에서 '부락'이 부곡(部曲)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부락이 왜색 지명이라 하여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통일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행정

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당시 내무부가 어원을 검증한 결과 부락이라는 용어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격을 한 등급 낮추어 차별화하기 위한 뜻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마을이나 동네로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부락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제나 동제로 불러야 할 것이다. * 느티나무는 당산나무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30리마다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구간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신작로가 닦이면서 느티나무가 없어졌다.

남근숭배는 일종의 '조상숭배'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 마을 입구에는 수령이 3~400년은 족히 되었을 큰 느티나무 옆에 높이 165cm, 둘레 88cm의 화강암으로 잘 다듬어진 일명 '자지바우'라 불리는 남근석이 있다. 이 일대가 예전에는 대추나무가 많아 '숲정이'로 불렸던 곳이다. 옆에는 장승(전남에서는 '벅수'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함)모양의 당산석이 있고 남근석 바로 앞에는 여음석이 있었다 하나 오래 전에 없어졌다. 남근석과 여근목은 마치 음양을 상징하듯 당산나무의 한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다.

이처럼 마을 입구에 세워 누구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퍽 사실적으로 남자 성기 모양의 남근석을 깎아놓고, 당산제를 지낸 것을 보면 선조들의 성에 대한 의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남근석과 여근석을 나란히 놓고 풍요와 득남을 함께 빈 소박하고 꾸밈없는 신앙심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몰아 부칠 수는 없지 않는가. 이처럼 여근석보다 남근석을 많이 세웠던 것은 남근석이 아들을 낳게 해 주고 여자들의 바람기를 잡아주며 액을 막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곳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다. 즉 마을 여자들의 음기가 너무 세어서 마을 입구에 남근석을 세웠다고 하는 곳이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에 있는 남근석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터프가이한 남근석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둘투둘하게 생긴 그 모양이 너무도 사실적이다. 필자는 경지정리 과정에서 두동강이 났다고 하는 이 남근석을 촬영하기 위해 길을 물어 현지에 도착했다.

마침 마을 주민들이 닭죽을 쑤어 노상에서 맛있게 먹고 있다가 한 그릇 먹고 가라며 손을 붙잡는다. 필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했다.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인심이 가장 온후한 곳을 평안도이며, 그 다음이 경상도라 했다. 어찌하여 인심이 평안도, 경상도란 말인가? 혹 저자가 경상도 태생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충청도다. 그리고선 충청도는 오로지 세도(勢道)와 재리(財利)에만 따른다고 평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 어느 한편에 치우친 기록은 아닌 듯 싶다. 그렇다면 충청도는 이중환의 말대로라면 말은 어눌한 것 같아도 머리는 순간적으로 회전이 잘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구결과 실제로 말과 행동은 늦어도 머리 회전은 빠르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무튼 아직도 이러한 시골 인심이, 아니 전라도 인심이 살아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남근석과 마을 인심은 어찌보면 상관관계가 있을 법도 하다. 공교롭게도 필자는 칠보면 백암리 원백 마을에 들렀을 때도 넉넉한 인심을 경험한 바 있으니 말이다. 풍년이 들어 의식이 충족해 졌으니 인심이 넉넉할 수밖에…

필자가 순창 산동리와 창동리에 있는 남근석을 사진 찍으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아내에게 열심히 내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자씨(?)들의 눈초리가 어쩐지 영 찜찜하고 개운치 않다. 혹 아이를 못 낳는 젊은 부부가 치성을 드리러 온 것은 아닌지 하는 눈길인 것 같다. '젊은것들이 아직도 저런 걸 믿고 있다니' 참 안됐다는 표정이다. 이 곳 남근석은 칠보나 임실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꽃문양 같기도 하지만 발기된 남자 성기의 혈관이 튀어나온 당당한 모습이다.

이 마을에서는 남근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온다. 마을 노인들은 1930년대의 일로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술에 만취된 동네 주민이 남근석을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해 겨울부터 2년 동안 마을 안쪽 우물이 모두 얼어 버려 온통 식수문제로 난리였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본 마을 주민들은 그 원인이 넘어진 남근석에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해서 남근석을 다시 세웠더니 신통하게도 물이 얼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튼 순창 창동리 남근석이 이름없는 어느 장인의 서투른 솜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임실 덕치의 남근석은 뛰어난 솜씨의 장인이 일순간에 제작했으면서도 그 사실적인 면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절묘한 방법으로 조각했으

리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임실 덕치의 남근석을 가리켜 명지대 이태호 교수는 '우리 나라 현존하는 남근석 가운데 가장 터프가이한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리얼리티의 극치 바로 그것이다. 이 이상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 싶다.

이에 반해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에 있는 남근석을 가리켜 민속학자 주강현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남근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극찬하면서 당당하게 그가 쓴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의 표지 모델(?)로 삼았다.

이 백암리 남근석은 조선 숙종 때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당하관)를 지낸 모은(慕隱) 박잉걸(朴仍傑/선생의 자선사업을 기리기 위한 기적비가 흥삼마을 백암초등학교 입구에 세워져 있음)이 세웠다는 것으로 마을의 입구가 너무 트여 지세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숲을 만들고 장승을 세웠다 한다. 원백 마을에는 원래 24방위에 맞춰 세운 24개의 당산이 있었다. 이것이 후에 12당산으로 줄었고 현재는 7개의 당산만 마을 주변에 남아 있다.

남근석 옆에 있는 장승이 할머니 당산이며, 논 속에 있는 당산이 할아버지 장승이다. 공교롭게도 할머니 당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추밭이고, 할아버지 당산이 있는 곳이 물이 있는 논 속이어서 절묘한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이 두 개의 석장승은 장승의 일반적 형태인 왕방울 눈과 주먹코 등을 새겨 놓아 소박한 민중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장승과 모습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을 돌아보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을 동쪽에 여자의 음부를 쏙 빼닮은 '농바우'가 있단다. 산길을 타고 가보니 여자의 성기를 꼭 닮은 것 같지는 않았으나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다.

그렇다면 남근석은 마을 지세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마을 앞 남근석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농바우로 인해 산세나 지형이 음기가 세어 마을 입구에 남근석을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여근암 앞에 남근석을 세워야 음양의 조화를 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농바우 맞은 편은 북면 오류리로 이 바위가 드러나면 여자들이 바람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을 모정에서 바라보아도 항상 흐르는 물로 바위 근처가 반들반들 하다.

특히 이 바위가 있는 곳은 아무리 가물어도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습한 지역

이어서 묘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이 자연 지형이 여자의 성기 모양을 닮았을 경우, 제사를 지내 소원을 빌기도 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불길하게 생각하거나 음기가 세어 마을에 해를 입히는 걸로 생각하여 금기시 하는 경향이 뚜렷이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꼭 닮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정서가 '여근암'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에 일단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도착한 무더운 한여름날도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비슷한 바위틈 사이로 졸졸 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도 더워 그 물에 세수를 하긴 했지만 어쩐지 묘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성기숭배 신앙도 있다. 성기숭배의 기원은 남성의 부풀려진 성기와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구멍(성혈)을 새긴 경남 울주 반구대의 바위그림과 각지에서 발견되는 성기를 과장해서 만든 토우로 보고 있다. 모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남근석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나온 풍습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상숭배의 일종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중국 최초의 왕조인 은나라에서는 조상숭배의 풍속이 있었다. 이 왕조의 유적지인 은허에서는 '할아비 조, 선조 조(祖)'자를 남성 성기의 귀두가 벗겨진 모습을 오른편 획으로 그대로 사용한 갑골문(甲骨文)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조지(祖宜)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대로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자지(自宜)는 오늘날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아이가 자라면 조지가 아니고 자지라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지나 좆이라고 하면 천박스럽게 생각하고 페니스라고 해야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조지나 자지는 우리말이다. 말이란 갈고 닦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원광대학교 한문과 객원교수인 유승훈은 청동기 시대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지낼 때 그릇에 쓰는 글자인 종정문(鍾鼎文)에도 '아비 부(父)'자는 남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형상에서 따온 글자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남근숭배는 일종의 조상숭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선사시대의 선돌 그리고 묘 앞의 망주석을 잘 살펴보라. 그 생김으로 보아 남성 성기의 변형이자 상징물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망주석은 죽은 자의 부활을 기원하고 자손의 복과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성기숭배는 조상숭배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당산제

백암리 남근석은 그 사실적인 조각에 놀라 답사하던 여학생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의 '리얼리티'한 바위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진지한 자세와 정중한 마음으로 이곳에 기원을 하고 또 치성을 드렸다. 이렇다 보니 여기에 해를 끼치면 눈이 먼다는 속설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남근석 옆에는 같은 높이에 해당되는 곳에 마치 여자의 음부처럼 보이는 여근목이 있다. 오래 전부터 아들을 못 낳는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 남근석을 붙잡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는 구전에 따라 지금도 치성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매년 정월 초사흗날(음력)이면 어김없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곳 당산제는 정월 초하루에 아이를 낳거나 사람이 죽으면 당산제를 2월 초하룻날로 연기하고 있다.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호구별로 제수비용을 추렴하는데 제주(祭主)는 부정을 타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홀어미나 홀아범은 안되며 상복을 입은 사람도 역시 제외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집에 자식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곳도 있으며 상(喪)과 산(産)이 없는 자를 말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3년 상을 치렀으니 제주를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부인이나 딸 가운데 임신, 출산, 달거리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부부관계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쓸데없는 미신행위(?)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몸을 정갈히 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일이 아닐 성싶다. 그만큼 당산제에 임하는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자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당산제 기간 중에는 외부인 출입을 삼가기 위해 마을 입구의 당산석에 금줄을 쳤으나 현대화된 탓인지 요즘은 출입이 자유롭다.

닮은 것이 닮은 것을 낳는다.

성기와 관련된 것으로 '닮은 것이 닮은 것을 낳는다'는 유사율에 바탕을 둔 유감주술(類感呪術)이 있다. 전주 금암동 구암산에 있는 공알바우가 그것으로 이 바위 언저리를 헤쳐 놓으면 뒷 검암리(현 금암동) 여자가 바람난다 하여 앞 검암리에서는 헤쳐 놓고 뒷 검암리에서는 묻어 놓고 하여 동네 편싸움이 심했다 한다.(『한국지명총람』 전북편 하 353쪽).

고창과 임실같은 곳의 마을 뒷산에는 바위구멍이 있고 그곳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동네 처녀들이 바람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런 장난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창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 과교동 진산 마을 앞산에도 할미바위가 있어 평상시 풀과 잔디, 흙 등으로 가려진 이 바위가 겉으로 드러나면 여자들이 바람난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굿을 하고 잔디를 다시 입혔다. 할미바우의 가운데 부분이 여자의 음부로 마을 청년들이 여기를 나뭇가지로 쑤신 뒤 마을 처녀들이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는 구전이 있다. 필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온통 산을 뒤지고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마을 아자씨(?)들 왈, 못 찾는 것이 정상이란다. 할미바우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진즉 마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성기를 주제로 한 토픽감은 역시 선덕여왕이 예언했다고 알려진 '여근곡'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하석은 그의 저서인 『삼국유사의 현장기행』에서 여근곡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구에서 경주가는 고속도로를 달려 건천 못미처 아화터널을 빠져 나오면 부산(富山) 골짜기에 여자의 성기를 쏙 빼 닮은 작은 산이 하나 보인다. 이곳이 여근곡으로 속칭 '음문골', '보지골'로 불리기도 한다.

이 산의 샘을 작대기로 쑤시면 동네 처녀가 바람난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동네 어른들에 의해 철저하게 지켜져 왔다. 조금만 감시가 소홀해도 이 동네 처녀들의 바람기를 부추기기 위해 타동네 총각들이 이 골짜기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작대기로 휘젓기는게 예사였다.

현재는 이 동네 상수도의 수원지가 되어 있다. 이 공사를 놓고 동네 노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샘이 상수도 수원지가 됨으로써 동네 전체가 여자의 음수를 먹고 있다는 묘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산세가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형세를 한 곳이면 흉한 곳이고, 가랑이를 오므린 형세이면 좋다는 식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다. 흉한 산세는 남자들의 양기를 위축시킨다고 믿어 반대편에 남성을 상징하는 돌을 세우거나 하여 음기를 누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 여근곡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덕여왕의 세 가지 예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당산제 축문】 원백 마을 당산제의 축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3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다른 마을과 달리 축문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어 여기에 그 원문을 소개한다.

維 歲次 ○○○月 ○○朔 ○○日 幼學

洞內土地所司 五方靑赤白黑黃龍王護 十二諸方之神 伏以 子丑開闢 陰陽始形 各神其位 六甲乃生 六甲旣定 十二諸方 各有神長 陰陽造化 鬼神變化 物物生生 亦各稟性 六合之內 萬物之中 最靈者神 最貴者人也 神非人無以歆享 人非神無以聊生 神依於人 人依於神 互相表裏 不咈于 人之之理 神之之道 然後 仁理內安 神道乃定 于以聊生 于以歆享 幽顯之問 安樂一般 豈不美哉 今我洞內 所願於神者其目數多 神其明察 一如所願 盖四時之序 東君爲首 草木莞閒 五穀始播 趁此之時興我東作者 其非靑帝 龍王乎 南風薰兮 火王當權 葉茂枝密 五穀젘生 趁此之時盛我稼穡者 其非赤帝 龍王乎 四時之季 土王用事 栽培草木 養生造物 趁此之時産我百穀者 其非黃帝 龍王乎 秋風夕起 西神按節 白露爲霜 萬顆誠實 趁此之時登我西成者 其非白帝 龍王乎 歲聿云暮 冰帝卽位 天地閉塞 田野收穫 趁此之時充我府庫者 其非黑帝 龍王乎 一年十二月 六十甲子 十二諸神之中 歲王爲首 將軍次之 病符次之 天貴天德 玉堂金櫃 各有所掌 總領百神 守護我洞內 除災興祥 轉禍爲福 其非諸神乎 一白二黑 三碧四綠 五黃六白 七赤八白九紫 十二罹鬼 同心協力 祐我洞內 各家中 六害七傷 一時消除 八難九厄 永永除去 萬福來駢 世世安樂之地 千慶會集 代代榮華之基 子孫滿堂 永永無替 粟米盈倉 陳陳相仍 如是如是又如是 今我洞內各家中 某生某乾坤等命 年厄月厄 日厄時厄 官災三災 天罹地網 劫殺災殺 行件口舌 東土木石之厄 消除消滅 出入往還 相逢吉慶 一如所願 人神相保保安無事 萬歲榮華 萬歲榮華 謹以餠飯 菜果祗薦于 神 尙 饗

을사늑약 이후 호남 최초 의병, 태인의병〔丙午倡義〕

의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1876년 강화도 조약과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물밀듯이 닥쳐 올 때마다 척화배왜양론(斥和排倭洋論)이 들끓었다. 이 이론을 주도한 것은 전국의 유생들이었으며 그 사상적 기반은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었다.

위정척사론은 조선조 지배 이념인 주자학적 사상과 그 질서를 지키고 반주자학적 체계를 이단시하여 부정하는 사상적 체계를 말한다. 대상은 불교, 도교 등 주자학이 아닌 사상체계였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특히 서학, 양물, 왜가 주요 배척대상이 되었다.

근대에 있어 위정척사론은 1860년대에 제기되었다. 위정척사의 원뜻은 성리학적인 전통사회에서 이단인 사학(불교와 천주교)을 배척하고 유교인 정학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해되나, 이 시기의 위정척사론은 민족국가와 사회를 지키려는 '척화배왜양론'을 뜻한다. 위정척사론의 대표자는 유림의 거두인 이항로(李恒老)와 기정진(奇正鎭), 이항로의 문인인 김평묵(金平默)과 유중교(柳重敎) 등이다.

의병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고구려나 백제가 나. 당연합군에게 멸망되었을 때, 복신(福信)과 도침(道琛)이 중심이 되어 의자왕의 아들 풍(豊)을 옹립하고 주류성에서 항거했을 때의 군사가 대부분 의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몽고 침입 때나 고려 말기의 왜구의 침공 때에도 의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의병은 멕켄지(Mackenzie)가 그의 저서인「The Fight For Freedom」에서 'Righteous Army'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말의병은 이와 같은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서구의 Guerrilla, Commando, Partisan, Ranger, Special Forces의 개념과는 다르다. 서구인들은 이와 같이 의병을 Rightous Army로 표현하였으며, 일본인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폭도'로 규정하였다. 즉 의병을 양민에 대한 노략질자로 전락시켜 민족운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는 술책에서였다. 한일병합 직전 의병토벌에 나선 한말의 관군은 의병을 '민병' 또는 '민군'으로 호칭하였다. 박은식(朴殷植)은 "의병이란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군"이라고 정의

했다. 하지만 태종 때 국가의 허락없이 사사로이 군사 소집하는 자는 모두 모역으로 간주하는 법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조동걸(趙東杰)은 "일제 침략을 맞아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봉기한 의병"으로 정의했으며, 김상기(金庠基)는 "의리론과 오상정신(五常精神)을 주요 이념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무장항쟁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항한 민군"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윤천근(尹天根)은 의병을 "국가를 위난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목적 하에 스스로 국가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사람 또는 집단"이라 정의했고, 오영섭(吳永燮)은 "충애사상에 바탕하여 반일활동을 전개한 무장집단"만을 의병으로 정의했다.

최근 홍영기(洪英基)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병이란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투쟁으로써 국권을 수호하려는 사람 또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항일의병전쟁의 배경

항일의병전쟁은 식민지 시기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유독 호남지방에서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호남이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이래 쌀과 면화 생산의 중심 지대였던 호남지방은 각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일제 침탈 결과 호남은 일제의 식량 및 원료 공급기지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공산품 판매시장으로 변모되어 갔다.

또 호남은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일본인의 진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토지침탈을 통해 호남지방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여 농촌사회 안의 계급분화를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호남지방은 식민지적 모순이 극도로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시행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호남지방에서도 전기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호남의병의 활동과 창의 이념

1896년 음력 3월 전남 장성에서 시작된 전기의병은 나주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광주에 집결하여 북상을 도모하였다. 장성의 의병봉기는 기우만(奇宇萬)을 중심으로 한 노사학파(蘆沙學派)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근왕(勤王)을 목적으로 반개화·반침략투쟁을 전개하였다. 물론 근왕의 사상적 연원은 위정척사 사상이었다.

호남의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노사학파의 태두 '기정진(奇正鎭)'이었다. 그는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한 학자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 또는 '근세 유학의 3대가'로 평가받을 정도로 학문이 깊었다. 기우만은 노사 기정진의 손자로 노사학파의 학풍을 계승했으며, 고향인 장성에서 기삼연(奇參衍)·고광순(高光洵) 등과 거의하였다. 기우만은 동학농민혁명을 '동비(東匪)의 난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한 척사론자였다. 그는 나주에서 동학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토평비문(討平碑文)'을 지어주었으며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여 향촌사회의 주자학적 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일어난 중기의병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의병을 도모하였다. 중기 의병장들은 대부분 유생이었지만 성리학적 명분론을 극복하면서 반침략적 '보국의병'을 목표로 삼았다.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첫 도화선이 된 것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최익현(崔益鉉/1833~1906)이 일으킨 태인의병[丙午倡義]이었다. 이 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낙안군수를 지냈던 임병찬(林炳瓚/1851~1916, 정읍 태인)이었다.

태인의병은 한마디로 최익현이 맹주를 하고, 임병찬이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투 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의 거병 목표가 전주를 거쳐 북상하여 서울에 포진한 일본 세력과 외교적 담판을 벌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거읍 한 곳을 점거하고 영남과 호서, 영서 등지의 다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의진들과 기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일제는 위세에 밀려 이 담판에 응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호남의 거읍인 나주, 남원, 광주 등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순창에서 남원과 전주 진위대 병력의 공격을 받고 된 것이다. 태인에서 일어난 의병은 순창으로 진격하면서 1천여 명으로 늘었다. 보수적인 양반과 전라도 출신 유생들이 여기에 가담한 것이다. 정부에서 1906년 6월 11일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를 급파한 것은 1천명 이상의 의병부대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은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임병찬이 명문거족 출신이 아닌 향리 출신이기 때문에 기우만이 최익현 의병대에 합류하지 않

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기우만이 최익현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도(宋相燾)는 『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 임병찬을 '용'에 비유하였다. "공은 한 번 변하여 향리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군수가 되고, 세 번 변하여 학자가 되고, 네 번 변하여 의병이 되었으니 용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극찬하였다.

한편 남원에서는 1907년 2월 13일 양한규(梁漢奎/1844~1907)가 남원성에 입성, 광한루에 본진을 두고 있던 일본군과 진위대를 급습하였다. 이에 놀란 일본군이 성 밖으로 도주하자 무기와 군수품을 접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던 중 유탄에 맞아 숨졌다.

익산 유생 이규홍(李圭弘/1881~1928)은 유지명(柳志明)과 함께 11월 초 봉기하여 주로 전북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강재천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을 일으켰다.

호남지방 후기의병의 기점은 1907년 10월에 봉기한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로, 이와 연관을 맺은 박도경(1874~1910, 고창), 김공삼(1865~1909, 고창 고수), 이석용(1877~1914, 임실 성수), 전해산(1879~1910, 임실 남면) 등이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임실 의병장 이석용은 당시 전주의 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강론을 들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호남지방 일부 유생들은 전우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우 자신은 의병운동과는 거의 무관한 인물이었다. 앞서 최익현이 거의하고자 편지를 보냈을 때도 간재는 호응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주리론과 주리론 양자를 모두 배척하는 절충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는 성리학에 밝고 문장에 능하였으나 실천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의병봉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고종황제 퇴위를 시작으로 한일신협약, 군대해산으로 이어져 정국은 이미 혼란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자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면서 1908년과 1909년 사이에 호남은 '의병항쟁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호남지방에서 1908년의 의병활동 교전횟수로는 전국의 25%, 교전의병 수로는

24.7%를 차지했고, 1909년에는 교전횟수로 전국의 47.6%, 교전의병 수는 60.1%를 차지해, 전라도 지방이 의병활동의 중심 무대였고 전라도인들이 구국의 선봉역할을 담당하였다. 후기의 전북의병의 활동은 고창에서 김영백·정대홍, 정읍에서 윤철용과 이평해, 순창에서 기춘호·이해수·양순영, 익산의 이규홍, 무주에서 문태서와 김동신, 임실에서 이석용·전해산, 덕유산의 이사임, 지리산의 황좌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이석용은 진안 마이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9월에는 임실 성수면 상이암에서 500명의 의병이 모집된 가운데 의병대장으로 추대를 받고 '의병창의동맹'을 결성하였다.

역시 임실 출신의 전해산은 이석용 의병장 이래 호남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그가 거느린 '호남동의단'은 전남북 지역을 망라하면서 호남의병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한편 무주에서는 문태서(文泰瑞/1880~1913, 함양)가 덕유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자 그는 통감부를 습격하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같은 무주출신의 강무경(姜武景, 1878~1910)은 기삼연이 이끌던 '호남창의회맹소'에 가담하여 장성·영광·함평·남원·보성·장흥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군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호남의병대학살사건)'으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김공삼(金公三/1865~1909)은 1907년 의병장 기삼연의 휘하에서 활동하다 기삼연이 체포된 후 의병장이 되어 무기를 인수받고 부하 200명을 지휘하였다. 이후 항일 운동을 전개하던 중, 1909년 9월 20일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하였다.

고창의 박도경(朴道京/1874~1910)은 1907년 9월 호남창의회맹소의 포사대장이 되어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09년 초 다시 전해산과 연합하여 일본기병대와 교전하여 패하자 피신하다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자, 1910년 2월 옥중에서 자결하였다.

이들 후기 의병장들이 발표한 격문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애국구민(愛國救民)', '위국보민(爲國保民)'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위국과 함께 제민(濟民), 안민(安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후기의병을 주도한 수많은 의병장들은 활동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납세거부 투쟁, 세무관리의 징세 저지, 부호의 토색(討索) 방지, 미곡의 일본 유출

금지 들을 주도하였다.

이밖에 최익현의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고창 신림 출신의 고석진(高石鎭), 고예진(高禮鎭), 고순진(高舜鎭), 고제만(高濟萬) 등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대표 김창숙)에 서명하였다. 이 가운데 고석진은 태인의병 거의 당시 임병찬을 면암에게 추천한 인물이었다.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당시 포수를 모으고 지휘를 맡았던 양윤숙(梁允淑/1875~1910)은 1907년 10월경부터 순창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재개하였고, 같은 순창 출신인 신보현(申甫鉉)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순창을 무대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였다.

이와 같이 의병은 대부분 유생층이 지도부를 이루었으나, 사실은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농민이 주체가 된 무장 항쟁이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혁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의병운동은 일본의 침략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만큼 반침략전쟁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태인의병의 영향과 의의

태인의병은 1907년 후반에 시작된 후기의병 봉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인의병의 영향이 퍼졌다. 쓰시마 섬에 끌려간 최익현 일행이 온갖 고초 끝에 순국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의 영향을 받아 전남에서도 의병이 봉기하였다. 최익현의 뜻을 계승한 인물로 백낙구·기우만·고광순·이항선 등과 강재천·기우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재천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거병하여 운봉과 남원, 장성 등지를 무대로 활약했다. 그는 "최익현을 쓰시마 섬에서 환국시키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의했다."고 천명했다. 고경명의 후손인 고광순은 태인의병에 참여하려다 좌절되자 백낙구 등과 연합하여 의병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었으나, 1906년 12월 드디어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지리산 연곡사에서 전사하였다. 1907년 4월 전남 능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양회일도 최익현의 영향을 받았다.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양윤숙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주로 순창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투쟁을 벌이다 1909년에 체포되어 이듬해에 순국하였다. 임실의 이석용과 전수용 또한 최익현에게 사숙한 유생들로 호남지역 후기의병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진주의 노응규도 태인의병에 합류했다가 해산된 후 다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다.

태인의병은 을사늑약 후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익현이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봉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태인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가 독립의군부에도 가담하였다. 이는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비롯한 태인의병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이란 명칭 대신에 독립의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전라북도의 후기의병을 이끌었던 진안 출신의 이석용이 주도한 '임자밀맹단'도 의병계열의 비밀결사로 보인다.

태인의병은 약 1천명이라는 규모의 의진을 결성하고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태인의병의 절반이 유생들이었으며 무기를 소지한 자가 200~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태인의병은 장기화하지 못하고 열흘만에 종식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태인의병은 무장투쟁보다 시위활동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포수의 모집과 무기의 수습, 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인 점 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의 척사위정사상(斥邪衛正思想)

면암 최익현(1833~1906)은 경기도 포천의 가채리에서 지헌(芝軒) 최대(崔岱)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찬겸(贊謙), 호가 면암이다. 최익현은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로 스승이 써 준 두 글자인 면암을 호로 삼은 것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점차 식민지화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이항로의 척사위정론이 성리학의 본말론에 입각하여 내수(內修/국내 정치를 잘 다스리자는 뜻)에 그 비중이 있었다면, 최익현의 척사운동은 외양(外攘/외적을 물리치자는 뜻)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는 이항로의 척사위정사상을 계승하여 척왜의 상소운동을 폈으며,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자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운동을 일으켜 민족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익현은 이항로와 같이 문화적으로 화이(華夷)를 구분하고, "서양의 족속은 오랑캐보다 못하니, 진실로 금수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왜인이 양복을 입고 양포를 사용하여 양선을 탄 것은 모두 왜와 양이 일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규정하고 '왜양일체론'를 주장하였다. 일본과 화약을 맺는 것은 곧 양적(洋狄)과 화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익현은 일본과 강화를 반대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엎드려 궁궐 앞에서 상소[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

議疏]한 것이다. 도끼를 들고 상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최익현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질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은 조선을 반식민지화한 것이었다. 이에 최익현은 고종에게 매국노 이완용 등의 5적을 토멸(討滅)할 것과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또한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의 격문을 발송하여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왜적과 항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최익현은 망국의 신하된 자가 처신해야 할 도리를 "은나라의 미자(微子)와 같이 버리고 가는 자와, 명나라의 범경문(范景文)과 같이 죽는 자와,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과 같이 적을 토벌한 자로 구별하고 드디어 1906년 태인에서 거의하였다. 당시 나이 64세였고 그 생애의 마지막 해였다. 충청남도 청양의 모덕사(慕德祠)에 배향되고 포천.해주.고창.곡성.화순.무안.함평.광산.구례 등지에 봉향되어 그의 높은 지조와 절의를 기리고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임병찬에 대한 재평가

임병찬은 전라북도 옥구현 서면 대사리 남산(옥구군 서면 상평리 남산제)에서 1851년(철종2) 2월 5일에 용래(溶來)와 송악(松岳) 왕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가 시중(時中)인데 뒤에 중옥(中玉)으로 고쳤다. 호는 돈헌(遯軒)이고 본관은 평택이다.

아버지는 처음 나주 나씨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송악 왕씨를 재취로 맞이하였다. 40이 넘도록 후사가 없어 병하(炳夏)라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다. 43세에 병찬을 낳았는데 또 왕씨 부인이 병찬의 나이 12살 때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23년 연하인 파평 윤씨를 삼취로 맞이하였다. 그의 양형(養兄) 병하는 돈헌이 13세 때에 후사 없이 죽었고 계모 파평 윤씨가 낳은 아들 병대(炳大)는 돈헌보다 18살 적은데 그의 아버지의 회갑 해에 태어났다.

돈헌의 가계는 명문거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실은 향촌에서 양반으로 행세하기는 버거운 가문이었다. 그리고 향리 사람들도 그들을 양반을 대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돈헌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재주가 남달라서 4살에 아버지 밑에서 천자문과 추구(推句)를 배웠다. 5살 때에는 개정리(蓋井里) 송영숙(宋榮淑)의 사숙(私塾)에

들어가 사자소학과 오언당서(五言唐書)를 배웠다. 6살 때에는 집에 사숙을 차리고 스승을 초청하여 배웠다. 그는 하루에『자치통감(資治通鑑)』30줄을 외우고 5언을 능히 지을 수 있었으며, 7살 때에는 통감을 하루에 200줄씩 배우고 이를 모두 외워 고을에서는 신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8살 때에는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였으니 그의 재예를 짐작할만하다.

15살에 그는 임천 조씨와 결혼하였다. 부인은 함열에 사는 준극(浚極)의 딸로서 그보다 5살이나 위였는데 불행히도 이듬해 2월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해 12월에 16살로 재취 장가를 갔는데 새 부인은 태인 매죽에 살고 있던 여산 송씨 상희(祥喜)의 딸로 역시 3살 위였다. 이 때 전주의 향시에 합격했다.

17살 되던 1867년에 그는 옥구현의 형방(刑房)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버지는 "너만은 아전을 시키지 않으려 하였는데 가난을 면키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니 그는 "어른들을 봉양하는 길이라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기꺼이 나갔다 한다. 그로부터 아전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는지 기록이 없으나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1877년까지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82년(고종 19) 32살에 태인현 산내면 영동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 깊은 산골로 이사한 까닭은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세상에서 떨어져 숨어살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때 돈헌의 일문 8명과 처족인 송씨가에서 2명이 같이 이거하였다.

한편 그는 1886년(고종 23)에 전라도의 대동리(大同吏)가 되어 전주감영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에 정부에서는 전라도 거문도에 진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감독관을 전라감사에게 천거하게 하였든 바 감사 이헌직(李憲稷)이 도내 유림의 추천을 받아 돈헌을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감독관이 되었고 이로부터 관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거문도는 남해안에 있는 섬으로 1885년 3월에 영국 함대가 무단 상륙하여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정부에서는 영국에 항의하고 또 현지로 사신을 보내어 그의 철수를 엄중하게 명령하였으며 그리하여 영국 함대는 그 해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인 1886년에 정부에서는 그 섬에 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그런 만큼 이 설진(設鎭)공사는 그 의의가 컸던 것이다.

아무튼 그는 거문도 설진감독관으로서 성심성의 진력하였고 그리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포상하여 1889년(고종 26) 그에게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제수했다. 아울러 예에 따라 그의 선대 3대를 추증하는 은전을 주었다. 곧 그의 아버지 용래는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를, 조부 문규(玟圭)는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증조부 경손(慶孫)은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에 각각 추증되었다.

이어서 그 해 7월에 그는 낙안군수겸순천진관병마첨절제사(樂安郡守兼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제수되어 바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임낙안(林樂安)'이라 호칭한 것이다. 그는 먼저 아전들의 폐해를 없애어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죄 없이는 한 대의 매도 때리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리고는 1884년(고종21) 이래로 체납된 세금 6만7천양과 쌀 1천8백여 석을 추징하여 적폐를 일소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는 1890년(고종 27) 4월에 군산진, 6월에 성당진, 7월에 법성포진의 겸관(兼官) 사관(査官)을 겸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법에 겸관은 임지로부터 50리 이내에 국한하게 되어 있는 진의 겸관을 그것도 한꺼번에 세 곳이나 겸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책무를 다하고 그 해 9월에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낙안 군민은 그의 유임을 진정했으나 만기로 체임되어 정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3년 뒤 1893년 2월 산내면 종송리로 이사하였다. 이 마을은 순창군 접경의 회문산 아래 해발 400미터가 넘는 높은 산 속에 있는 천혜의 피난터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한 것은 피난터로 알맞고 또한 후일을 기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그는 공자를 모신 사당과 흥학재라는 학당을 지어 놓고 모여 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단순히 학문만을 익히게 한 것이 아니고 활쏘기와 말타기까지 무예를 익히게 하여 후일에 대비하였다. 본래 이 마을에서는 7호가 살았을 뿐인데 그가 이사한 뒤에는 70호에 인구도 수 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그를 따라 모여든 제자들이었다.

1894년(고종 31) 그의 나이 44세 되던 해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는 동학을 이단으로 보고 동학농민들을 난민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 동학의 우두머리

인 김개남(金開南)이 태인 너듸(四升/지금의 산내면)마을 서영기(徐英基)의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종섭(金從燮)을 시켜 김개남으로 하여금 더욱 안전한 종송리로 옮기도록 설득하여 같은 마을 송두용(宋斗鏞)의 집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김송현(金松鉉), 임병욱(林炳昱), 송도용(宋道鏞)을 시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慰撫使) 이도재(李道宰)에게 고발하여 그 해 12월 1일 전주에 머물고 있던 강화병방(江華兵房) 황헌주(黃憲周)에 의하여 김개남은 잡혀갔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공으로 그에게 무남영(武南營/全州) 좌영관(左領官)을 제수하였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다시 임실군수(任實郡守)를 제수하였으나 역시 사양하고 나가지 않으니 위무사(慰撫使)가 백미 20석을 보내 왔다. 그러나 공은 "전곡에 뜻이 있었다면 어찌 벼슬을 사양했겠는가" 하고 받지 않았다. 다시 돈 2백 냥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나의 수하 병사들이 실로 크게 힘든 일이 없었고 다만 종성촌민이 사도(邪道)에 물들지 않아 마침내 큰 공을 세운 것이며 만약 상을 주지 않는다 해도 도리를 선양하는데 결함이 있을 리 없으니 시상을 하려거든 동민에게 해 주시오" 하였다.

공이 벼슬에 나가지 않은 것은 그때는 이미 청일전쟁도 거의 끝나고 일본 세력이 들어와서 단발령을 내리고 친일내각이 들어서는 등 일본 침략의 마수가 점점 뻗어 오는 것을 감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갈 때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인 듯하다. 아무튼 그가 두 차례나 벼슬을 사양하니 고종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종성리(宗聖里)로 고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1897년 2월에 진위대 소대장 한성교가 1개 소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종성리에 나타나 그와 이수민, 송재구 세 사람을 잡아갔다. 그들은 3개월 간 감방생활을 하였으나 혐의가 없어서 풀려 나왔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무고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다.

지난 갑오동학 때에 조선 8도 중에서 동학의 세력이 가장 센 곳이 태인이었는데도 오직 종성리만은 동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동학에 물든 사람이 없었기에 난이 평정된 뒤에 관군이 길 가는 사람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 태인에 산다고 하면 침을 뱉으며 경멸하였으며, 종성리에 산다고 하면 존경하여 공손히 대접을 하였다고 한다. 그 때 승지(承旨) 김창석(金昌錫)이란 사람이 전주에서 태인으로 이사 와 살았는데 동학봉기가 있자 그는 거기에 아첨하느라고 자기 집으로 동학군을 초청하여 주연을 베

푼 일이 있었다. 그 뒤에 그는 종성의 소문을 듣고 진위대 대장 김한정(金漢鼎)에게 임병찬은 무리를 모아 무술을 익히고 있는데 그것은 모역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10여 개의 조목을 들어 무고하였다. 따라서 김한정이 그 일을 전라관찰사 윤창섭(尹昌燮)에게 직보하니 군부에서 군대를 보내어 그를 잡아오게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임병찬 등 3인은 3개월 간 심문을 받았으나 아무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서 풀려 나온 것이다. 그 후로 그는 여전히 종성에서 후진을 기르면서 시국을 관망하고 살았다.

세상에서 돈헌의 태인의병 즉 무성서원의 병오창의는 면암 최익현의 창의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태인의병은 처음부터 돈헌에 의해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돈헌은 이에 앞서 이미 거사를 계획하고 태인 산내면 종성리에 이사하고 의병의 훈련을 목적으로 강사를 짓는 한편 훈련을 위한 연병장도 만들었던 것이다.

이같이 거의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마침 면암 최익현이 사람을 보내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니 그를 맹주로 추대하고 함께 창의의 깃발을 올렸던 것이다. 물론 모든 계획, 의병의 규합, 무기 및 군자금 조달 등은 모두 돈헌이 해낸 것이다.

임병찬은 1913년 9월 이용순, 전용규 등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경성에 중앙 순무총장을 두고, 각 도에 도 순무총장, 각 군에 군수, 면에는 향장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내각 총리대신과 총독 이하 대소 관리들에게 국권반환 요구서를 내고, 한편으로는 한인이 일본의 통치에 열복하지 않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는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려고 활동하다가 검거되었다. 거문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916년 6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부록] 이석용 의병장 공판 기록(1914.1.12/『염제야록』)

첫 번째 물었다. "글을 많이 읽었다는데 과연 그랬느냐?"
사서삼경 이외에 제자백가의 서적도 모두 읽었다.
두 번째 물었다. "재산이 있는가?"
"빈한한 선비가 어찌 재산이 있을 이치가 있느냐?"
세 번째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감히 폭도 노릇을 했느냐?"
"너희 일본 놈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 물었다. "통솔한 부하가 삼 백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느냐?
"그렇다."
다섯 번째 물었다. "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천왕의 은덕이 망극하여 일반 신민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데 너도 역시 충실한 국민이 되고 싶지 않느냐?"
크게 웃음을 웃고 대답했다.
"차라리 대한의 개와 닭이 될지언정 네 나라 신하되기는 원치 않는다."
여섯 번째 물었다. "의병이라 자칭하면서 인명을 살해하고 마을에 불을 놓고 공금을 강탈하였으니 이 무슨 불법의 행동이냐?"
"제 나라를 배반하고 일본 놈에게 붙은 자는 부득불 죽이고 집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으며, 공금에 있어서는 본시 대한국 국세이다. 임금이 잃어버린 것을 신하가 찾아 쓰고 아비가 잃어버린 것을 자식이 찾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무엇이 불법이란 말이냐?"

……이하 생략……

재판장이 석용더러 기립하라고 청하므로 석용이 말했다.
"기립이란 바로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원수 놈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때문에 전일에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또 어찌 번거롭게 하느냐?"
판사가 사형 선고를 분명히 읽고 퇴석하므로 석용은 태연히 말했다. "집안 일을 부탁하고자 하니 내 아들과 면회시켜 주기를 청한다."
왜놈들이 아들을 끌고 와서 석용 앞에 절을 시키므로 '다만 효도하고 우애하라'는 두어 마디 말을 부탁하는데 눈빛이 번쩍여 이채를 띠었다.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

【생각해 보기】----------

1. 태인의병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임병찬은 3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반면에 김개남을 밀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호남 최초의 의병, 태인의병[丙午倡義]

1896년 음력 3월 전남 장성에서 시작된 전기의병은 나주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광주에 집결하여 북상을 도모했다. 장성의 의병봉기는 기우만(奇宇萬)을 중심으로 한 노사학파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근왕(勤王)을 목적으로 반개화·반침략투쟁을 전개하였다. 물론 근왕의 사상적 연원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이었다.

호남의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태두 '기정진(奇正鎭)'이다. 그는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한 학자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 또는 '근세 유학의 3대가'로 평가받을 정도로 학문이 깊었다. 기우만은 노사 기정진의 손자로 노사학파의 학풍을 계승했으며 고향인 장성에서 기삼연(奇參衍)·고광순(高光洵)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기우만은 동학농민혁명을 '동비(東匪)의 난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한 척사론자였다. 그는 나주에서 동학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토평비문(討平碑文)'을 지어주었으며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여 향촌사회의 주자학적 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일어난 중기의병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의병을 도모하였다. 중기 의병장들은 대부분 유생이었지만 성리학적 명분론을 극복하면서 반침략적 '보국의병'을 목표로 삼았다.

태인의병,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다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첫 도화선이 된 것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최익현(崔益鉉/1833~1906)의 태인의병(무성서원 의병봉기)이었다. 이 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

물이 낙안군수를 지냈던 임병찬(林炳瓚/1851~1916, 정읍 태인)이었다.

그가 굳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데에는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의 권유와 태인 주변에 많은 유학자들이 있어 크게 호응할 것이란 점, 그리고 그의 선조인 최치원(崔致遠)을 모시는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인의병은 한마디로 최익현(崔益鉉)이 맹주를 하고, 임병찬(林炳瓚)이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투 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의 거병목표가 전주를 거쳐 북상하여 서울에 포진한 일본세력과 외교적 담판을 벌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거읍 한 곳을 점거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영남과 호서, 영서 등지의 다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의진들과 기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일본이 위세에 밀려 이 담판에 응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호남의 거읍인 나주, 남원, 광주 등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순창에서 남원과 전주 진위대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태인 중심의 보수적 양반과 전라도 출신 유생들 1천 여 명이 준비에 가담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1906년 6월 11일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를 급히 파견하였다. 1천명 이상의 의병부대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은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임병찬이 명문거족 출신이 아닌 향리 출신이어서 전남 장성에서 의병봉기를 계획 중이던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현의『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기우만이 최익현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도는『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 임병찬을 '용'에 비유하였다. "공은 한 번 변하여 향리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군수가 되고, 세 번 변하여 학자가 되고, 네 번 변하여 의병이 되었으니 용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극찬하였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다

한편, 남원에서는 1907년 2월 13일 양한규(梁漢奎/1844~1907)가 남원성에 입성, 광한루에 본진을 두고 있던 일본군과 진위대를 급습하였다. 이에 놀란 일본군이 성 밖으로 도주하자 무기와 군수품을 접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던 중 유탄에 맞아 숨졌다.

익산 유생 이규홍(李圭弘/1881~1928)은 유지명(柳志明)과 함께 11월 초 봉기하여 주로 전북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강재천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을 일으켰다.

호남지방 후기의병의 기점은 1907년 10월에 봉기한 기삼연(奇參衍)의 '호남창의회맹소'로, 이와 연관을 맺은 박도경(1874~1910, 고창), 김공삼(1865~1909, 고창 고수), 이석용(1877~1914, 임실 성수), 전해산(1879~1910, 임실 남면) 등이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임실 의병장 이석용은 당시 전주의 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강론을 들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호남지역 일부 유생들은 전우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우 자신은 의병운동과는 거의 무관한 인물이었다. 앞서 최익현이 거의하고자 편지를 보냈을 때도 간재는 호응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주리론과 주기론 양자를 모두 배척하는 절충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는 성리학에 밝고 문장에 능하였으나 실천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의병봉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고종황제 퇴위를 시작으로 한일신협약, 군대해산으로 이어져 정국은 이미 혼란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자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면서 1908년과 1909년 사이에 호남은 '의병항쟁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호남지방에서 1908년 의병활동 교전횟수로는 전국의 25%, 교전의병 수로는 24.7%를 차지했고, 1909년에는 교전횟수로 전국의 47.6%, 교전의병 수는 60.1%를 차지해, 전라도 지방이 의병활동의 중심무대였고 전라도인들이 구국의 선봉역할을 담당하였다. 후기의 전북의병의 활동은 고창에서 김영백·정대홍, 정읍에서 윤철용과 이평해, 순창에서 기춘호·이해수·양순영, 익산의 이규홍, 무주에서 문태서와 김동신, 임실에서 이석용·전해산, 덕유산의 이사임, 지리산의 황좌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후기 의병장들이 발표한 격문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애국구민(愛國救民)', '위국보민(爲國保民)'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위국과 함께 제민(濟民), 안민(安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후기의병을 주도한 수많은 의병장들은 활동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납세거부 투쟁, 세무관리의 징세 저지, 부호의 토색(討索) 방지, 미곡의 일본 유출 금지 들을 주도하였다.

이밖에 최익현의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고창 신림 출신의 고석진(高石鎭)·고예진(高禮鎭)·고순진(高舜鎭)·고제만(高濟萬) 등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대표 김창숙)에 서명하였다. 이 가운데 고석진은 태인의병 당시 임병찬을 면암에게 추천한 인물이었다.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당시 포수를 모으고 지휘를 맡았던 양윤숙(梁允淑/1875~1910)은 1907년 10월경부터 순창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재개하였고, 같은 순창 출신인 신보현(申甫鉉)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순창을 무대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였다.

이와 같이 의병은 대부분 유생층이 지도부를 이루었으나, 사실은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농민이 주체가 된 무장 항쟁이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혁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의병운동은 일본의 침략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만큼 반침략전쟁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태인의병의 영향으로 의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다

태인의병은 1907년 후반에 시작된 후기의병 봉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인의병의 영향이 퍼졌다. 쓰시마 섬에 끌려간 최익현 일행이 온갖 고초 끝에 순국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의 영향을 받아 전남에서도 의병이 봉기하였다. 최익현의 뜻을 계승한 인물로 백낙구·기우만·고광순·이항선 등과 강재천·기우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재천(姜在天)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거병하여 운봉과 남원, 장성 등지를 무대로 활약했다. 그는 "최익현을 쓰시마 섬에서 환국시키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의했다."고 천명했다. 고경명의 후손인 고광순(高光洵)은 태인의병에 참여하려다 좌절되자 백낙구(白樂九) 등과 연합하여 의병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었으나, 1906년 12월 드디어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지리산 연곡사에서 전사하였다. 1907년 4월 전남 능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양회일도 최익현의 영향을 받았다.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양윤숙(梁允淑)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주로 순창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투쟁을 벌이다 1909년에 체포되어 이듬해에 순국하였다. 임실의 이석용과 전수용 또한 최익현에게 사숙한 유생들로 호남지역 후기의병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진주의 노응규(盧應奎) 역시 태인의병에 합류했다가 해산된 후 다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다.

태인의병은 을사늑약 후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익현이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봉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태인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가 독립의군부에도 가담하였다. 이는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비롯한 태인의병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이란 명칭 대신에 독립의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전라북도의 후기의병을 이끌었던 진안 출신의 이석용이 주도한 '임자밀맹단'도 의병계열의 비밀결사였다.

태인의병은 약 1천명이라는 규모의 의진을 결성하고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태인의병의 절반이 유생들이었으며 무기를 소지한 자가 200~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태인의병은 장기화하지 못하고 열 흘만에 종식된 것이다. 따라서 태인의병은 무장투쟁보다 시위활동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포수의 모집과 무기의 수습, 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인 점 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의 척사위정사상(斥邪衛正思想)

면암 최익현(1833~1906)은 경기도 포천의 가채리에서 지헌(芝軒) 최대(崔岱)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찬겸(贊謙), 호가 면암이다. 최익현은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로 스승이 써 준 두 글자인 면암을 호로 삼은 것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점차 식민지화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이항로의 척사위정론이 성리학의 본말론에 입각하여 내수(內修/국내 정치를 잘 다스리자는 뜻)에 그 비중이 있었다면, 최익현의 척사운동은 외양(外攘/외적을 물리치자는 뜻)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는 이항로의 척사위정사상을 계승하여 척왜의 상소운동을 폈으며,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자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운동을 일으켜 민족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익현은 이항로와 같이 문화적으로 화이(華夷)를 구분하고, "서양의 족속은 오랑캐보다 못하니, 진실로 금수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왜인이 양복을 입고 양포를 사용하여 양선을 탄 것은 모두 왜와 양이 일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규정하고 '왜양일체론'를 주장하였다. 일본과 화약을 맺는 것은 곧 양적(洋狄)과 화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익현은 일본과 강화를 반대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엎드려 궁궐 앞에서 상소[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한 것이다. 도끼를 들고 상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최익현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질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은 조선을 반식민지화한 것이었다. 이에 최익현은 고종에게 매국노 이완용 등의 5적을 토멸(討滅)할 것과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또한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의 격문을 발송하여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왜적과 항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최익현은 망국의 신하된 자가 처신해야 할 도리를 "은나라의 미자(微子)와 같이 버리고 가는 자와, 명나라의 범경문(范景文)과 같이 죽는 자와,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과 같이 적을 토벌한 자로 구별하고 드디어 1906년 태인에서 거의하였다. 당시 나이 74세였고 그 생애의 마지막 해였다. 충청남도 청양의 모덕사(慕德祠)에 배향되고 포천.해주.고창.곡성.화순.무안.함평.광산.구례 등지에 봉향되어 그의 높은 지조와 절의를 기리고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임병찬,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하다

임병찬은 전라북도 옥구현 서면 대사리 남산(옥구군 서면 상평리 남산제)에서 1851년(철종2) 2월 5일에 용래(溶來)와 송악(松岳) 왕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가 시중(時中)인데 뒤에 중옥(中玉)으로 고쳤다. 호는 돈헌(遯軒)이고 본관은 평택이다.

아버지는 처음 나주 나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송악 왕씨를 재취로 맞이하였다. 40이 넘도록 후사가 없어 병하(炳夏)라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다. 43세에 병찬을 낳았는데 또 왕씨 부인이 병찬의 나이 12살 때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23년 연하인 파평 윤씨를 삼취로 맞이하였다. 그의 양형(養兄) 병하는 돈헌이 13살 때에 후사 없이 죽었고 계모 파평 윤씨가 낳은 아들 병대(炳大)는 그의 아버

지의 회갑 해에 태어났다.

돈헌의 가계는 명문거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은 향촌에서 양반으로 행세하기 버거운 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양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돈헌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재주가 남달라서 4살에 아버지 밑에서 천자문과 추구(推句)를 배웠다. 5살 때에는 사숙(私塾)에 들어가 사자소학과 오언당서(五言唐書)를 배웠다. 6살 때에는 집에 사숙을 차리고 스승을 초청하여 배웠다. 그는 하루에 『자치통감(資治通鑑)』30줄을 외우고 5언을 능히 지을 수 있었으며, 7살 때에는 통감을 하루에 200줄씩 배우고 외워 고을에서는 신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8살 때에는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였으니 그의 재예를 짐작할만하다.

그는 15살에 임천 조씨와 결혼하였다. 부인은 함열에 사는 준극(浚極)의 딸로서 그보다 5살이나 위였는데 불행히도 이듬해 2월에 죽었다. 그 해 12월에 16살로 재취 장가를 갔는데 새 부인은 태인 매죽에 살고 있던 여산 송씨 상희(祥喜)의 딸로 역시 3살 위였다. 이 때 전주 향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867년 17살 되던 해에 그는 옥구현의 형방(刑房)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아전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는지 기록이 없으나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1877년까지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82년(고종19) 32살에 태인현 산내면 영동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 깊은 산골로 이사한 이유는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숨어살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때 돈헌의 일문에서 8명과 처족인 송씨가에서 2명이 같이 이거하였다.

한편, 그는 1886년(고종23)에 전라도의 대동리(大同吏)가 되어 전주감영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에 정부에서는 전라도 거문도에 진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감독관을 전라감사에게 천거하게 하였던 바 감사 이헌직(李憲稷)이 도내 유림의 추천을 받아 돈헌을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감독관이 되었고 이로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거문도는 남해안에 있는 섬인데 1885년 3월에 영국함대가 무단 상륙하여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정부에서는 영국에 항의하고 또 현지로 사신을 보내어 그의 철수를 엄중하게 명령하였으며 그리하여 영국 함대는 그 해에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인 1886년에 정부에서는 그 섬에 진을 설치할 계

획을 세웠던 것이며 그런 만큼 이 설진(設鎭)공사는 그 의의가 컸던 것이다.

아무튼, 그는 거문도 설진감독관으로서 성심성의 진력하였고 그리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포상하여 1889년(고종26) 그에게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제수했다. 아울러 예에 따라 그의 선대 3대를 추증하는 은전을 주었다.

이어서 그 해 7월에 그는 낙안군수겸순천진관병마첨절제사(樂安郡守兼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제수되어 바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임낙안(林樂安)이라 호칭한다. 그는 먼저 아전들의 폐를 없애어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1884년(고종21) 이래로 체납된 세금 6만7천 냥과 쌀 1천8백여 석을 추징하여 적폐를 일소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는 1890년(고종27) 4월에 군산진, 6월에 성당진, 7월에 법성포진의 겸관(兼官) 사관(査官)을 겸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법에 겸관은 임지로부터 50리 이내에 국한하게 되어 있는 진의 겸관을 그것도 한꺼번에 세 곳이나 겸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책무를 다하고 그 해 9월에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낙안 군민은 그의 유임을 진정했으나 만기로 체임되어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3년 뒤 1893년 2월 산내면 종송리로 이사하였다. 이 마을은 순창군 접경의 회문산 아래 해발 400미터가 넘는 높은 산 속에 있는 천혜의 피난터였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한 것은 피난터로 알맞고 또한 후일을 기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그는 공자를 모신 사당과 흥학재라는 학당을 지어 놓고 모여 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단순히 학문만을 익히게 한 것이 아니고 활쏘기와 말타기까지 무예를 익히게 하여 후일에 대비하였다. 본래 이 마을에서는 7호가 살았을 뿐인데 그가 이사한 뒤에는 70호에 인구도 수 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그를 따라 모여든 제자들이었다.

임병찬은 1913년 9월 이용순(李龍順), 전용규(田瑢圭) 등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경성에 중앙 순무총장을 두고, 각 도에 도 순무총장, 각 군에

군수, 면에 향장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내각 총리대신과 총독 이하 대소 관리들에게 국권반환 요구서를 내고, 한편으로는 한인이 일본의 통치에 열복하지 않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는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려고 활동하다가 검거되었다. 거문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916년 6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으나 돈헌의 재산 약 5백여 석이 모두 의병들의 활동을 위해 쾌척되었다고 전해지며, 그 재산이 의병들의 군량과 화승총 구입 등의 무장에 쓰여졌다고 전해진다. 그들 휘하에 모여든 의병의 수가 2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그 모두가 태인·정읍·순창·곡성 등지에서 면암과 돈헌의 충정에 감복한 백성들에 의해 조직된 의병들이라 했다.

임병찬은 3대가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동생인 임병대(林炳大)는 1996년 건국포장을, 아들 임응철(林應喆)은 1990년 건국훈장을, 손자인 임주명(林周明)은 1992년에 건국포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의거한 것이 어찌 폭도란 말이냐. 을사년 겨울에 국가의 변을 듣고 충성된 분(憤)함이 치미는 바 즉각 의거하고자 했으나 다만 병졸들이 조련되지 못하고 무기가 무디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황을 면대하여 인의의 도리를 못 깨우치면 그 궁 뜰에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일본군 헌병 중대장과의 문답에서-

조선 선비정신의 표상,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

본관은 강진, 자는 승여(昇如)이고, 호는 춘우정(春雨亭/1836~1911)이다. 조선개국원종일등공신, 충민공 김회련(金懷鍊)의 후손이다. 1836년 고부군 수금면 산북리(현 정우면)에서 출생했다. 16세 되던 해에 선대가 살던 태인 고현내면 무성리 원촌마을(현 칠보면)로 돌아왔다. 1871년(고종8) 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을 찾아보고, 1885년에는 인산(仁山) 소휘면(蘇輝冕)을 찾아 수업했다. 전주 간재(艮齋) 전우(田愚)와는 학문을 논하고 서로 왕래가 잦았다. 1889년 인산이 영면(永眠)하자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강학을 하는 한편 선생의 문집발간에 힘썼다.

일본 천왕의 은사금을 거절하다

1906년 6월 4일 최익현(崔益鉉)이 무성서원에서 임병찬(林炳瓚)과 함께 창의를 도모할 때 무성서원의 장의로 있었다. 최익현과 여러 차례 의논하고 창의를 발의하면서 자신은 지역의 유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면암이 창의를 결심하자 그는 총참모장이 되어 수많은 유생들을 끌어들였다.

1906년 면암의 무성창의에 손자 김균(본명은 김환각으로 대동천자문 저자)과 함께 순창의 접전지까지 나갔으나 70 노령에 신병으로 부득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면암이 쓰시마섬(對馬島)에서 순국하자 다음 해 5월 칠보면 시산리(현 칠보초등학교)에 태산사(泰山祠)를 세워 면암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망하자 10월 10일 일왕의 이른바 은사금 사령서가 면장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절의가 있는 선비들을 은사금이란 명목으로 매수하려는 일제의 간계(奸計)였다. 일제는 분노한 조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선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는데 춘우정이 그 중 하나였다.

조카 명술(命述)이 은사금의 일로서 춘우정에게 물으니 "유학자로서 원수의 돈을 받겠느냐. 이미 받아서는 아니 된 즉 의리상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조카가 또 물었다. "저들이 만약 합방의 가부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하니 "우리나라 국민은 너희와 더불어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이니 옳고 그름을 물을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춘우정은 끝내 거절했으나 여러 차례 사령서(통지서)가 전달되자 크게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대한 신민의 이름으로 오랑캐 원수가 주는 돈을 문적에 이름을 둘 수 없다."하고서 드디어 김영상 이름 석 자를 찢어버렸다. 일설에는 춘우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일본 일왕의 간을 씹어 먹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니 대신 너라도 먹어야하겠다."라면서 일본 순사의 팔뚝을 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춘우정은 1911년 4월 일왕의 사령서를 훼손했다는 불경죄로 군산감옥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5월 6일 동곡리 헌병대가 출발하여 태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7일 김제에서 밤을 지내고 8일 만경을 지나 사창진(사챙이 나루)를 건너게 되었다. 나룻배가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춘우정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때 춘우정은 옆에 있는 손자 김균에게 옷고름에 쓴 절명사를 던졌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왜병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춘우정을 구했으나 그는 "나는 굴원대부(屈原大夫/물에 빠져 죽은 초나라 충신)를 만나보려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내 가는 길을 막느냐"하고 물속으로 다시 몸을 던지려 했다. 이러한 춘우정의 투수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춘우정투수도가 전하는데, 이를 그린 화가는 고종황제 어진을 그린 석지 채용신이다. 이때 춘우정은 곧바로 군산감옥에 옮겨져 수감되었지만, 일본천황의 음식을 거절하고 8일 간의 단식 끝에 결국 1911년 5월 9일 향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춘우정 김영상은 1963년 독립유공 대통령포장에 서하고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978년 6월 지방 인사들의 발의로 만경 사진 나루터 유지에 춘우정 김선생 투수순절비를 세웠다. 전면 글씨는 강암 송성용이, 후면글씨는 아산 송하영이 글씨를 썼다. 채용신이 그린 '투수순절도(投水殉節圖)'는 칠보 태산선비문화사료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1910년대의 배의 모양과 복장, 집의 구조와 장독대, 서식 생물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춘우정 김영상이 살았던 무성리 원촌마을 옛집은 그의 5대손 김장운이 현재 살고 있다.

필양사(必陽祠)에 영정을 보관하다

1911년 5월 춘우정이 군산감옥에서 단식하여 순절하자 9월에 일본 헌병 장전(長田)이 문고와 일기, 제문, 만장 등을 빼앗아갔다. 이후에 발견되는 유고를 차곡차곡 모아 1961년 필양사 제생(諸生)인 김영채, 권오중, 김영대 등이 선생의 유고와 제문, 만사 등을 6권 3책으로 출간하였다.

문집 가운데 권5 '각금일기(卻金日記)'에는 일본 일왕의 은사금을 거절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권6은 필양사에 영정을 봉안하며 올린 고유문(告由文), 축문

등이 주를 이루며, 마지막 부분에는 스승인 인산 소휘면과 간재 전우의 글씨가 인쇄되어 있다.

춘우정은 무성서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강학을 하였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처럼 예악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대도(大道)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생(諸生)귀가(歸家)」를 보면 겨울철에는 서로 만나 함께 동문수학하던 제자들이, 눈이 녹는 봄철이 되자 모두 돌아간 뒤의 쓸쓸함과, 귀가해서도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바람이 들어 있다. 옛날 서당은 주로 겨울에 학습하고 새봄이 찾아오면 농사일을 하러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다

【생각해 보기】----------

1. 고종의 장례일은 3월 3일인데, 왜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을까요?
2. 만세운동은 왜 '장날'에 일어났을까요?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한 지역은 대체로 3·1독립만세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또한, 민족해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3·1독립만세운동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이 활발해지자 3·1독립만세운동의 시위 주동자들 가운데는 이에 주목하여 민중역량의 조직화 작업을 펼치고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3·1독립만세운동은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1920년대 정읍지역 사회 부문운동을 살피기에 앞서 3·1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읍 3·1독립만세운동의 주역, 이익겸과 박환규

1919년 3월 23일 정읍에서는 읍내 유지인 이익겸(李益謙)과 박환규(朴桓奎) 등이 천도교와 기독교인들과 의기투합하여 정읍 장날을 기해 시기리 김회근(金會根)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1백여 명의 군중들이 시위 대열에 참여하였다.

시위를 주도했던 이익겸은 이후 민립대학 집행위원과 형평사 정읍분사의 고문 그리고 신간회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환규는 평생을 배일사상을 견지하면서 시내에 군자정을 설립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들의 주도로 계획된 정읍 시위는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전도형식을 가장하여 각 교인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했으며, 부인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날인 22일 이 사실이 일제에 의해 탐지되어 선언서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대 10장이 헌병대에 의해 압수되고 이익겸 등이 검속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따라서 23일 당일 일제의 경찰과 헌병의 철저한 방해와 봉쇄에 부딪혀 겨우 1백 명이 만세만 불렀을 뿐 다음 단계인 시가행진을 전개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지사들의 움직임은 중단되지 않았다. 4월 2일 읍내 장날 덕천면의 송기룡(宋基龍), 박재구(朴在求)와 읍내의 도상철(都相喆), 박근수(朴根洙) 등을 선두로 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읍내 2차 거사를 전후해서 정읍 군내에서는 야간을 이용한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정읍은 태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시내 죽림산의 산상시위로 운동의 양상이 바뀌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서 하나 특기할 것은 영원면 출신 나용균(羅容均/1895~1986)이 이 무렵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대의원으로 활약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형 나홍균(羅鴻均)은 많은 운동자금을 임시정부에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영원면의 백정기(白貞基)도 고향의 3·1운동에 참여한 후 그 뜻을 멀리 일본, 중국, 만주등지까지 뻗쳐 마침내 일본 동경에서는 일본 천왕을, 중국 상해에서는 일본의 주중공사 아리요시(有吉明)의 폭살을 기도하는 등 우리 국내외 애국동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태인 3·1독립만세운동의 주역, 김현곤

태인은 정읍보다 앞선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앞서 3·1독립만세운동 직전 고종 국상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갔던 태인 청년 김현곤(金玹坤), 송연수(宋淵洙), 박지선(朴址宣) 등이 김성수, 송진우 등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만나 3·1독립만세운동의 계획과 선언서 등을 미리 입수, 고향사람 송한용(宋漢鎔), 송진상(宋鎭相), 오석흥(吳錫興), 송영근(宋榮根), 김진호(金鎭皓), 유치도(柳致道), 김순곤(金淳坤), 송덕봉(宋德奉), 김진근(金鎭根), 백복산(白福山), 김용안(金龍安), 최민식(崔民植), 김부곤(金富坤) 등과 사전계획을 의논하였다.

16일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했던 독립운동은 면서기 김현곤이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 천 장을 등사, 이날 장꾼들에게 나눠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중들은 이들 청년지사들의 절규와 태극기를 받아들이고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 그 수가 단번에 수 천 명에 이르렀다.
군중들은 만세를 외치다가 헌병주재소 등 일제 관공서로 몰려들었으며, 이 노도처럼 일어난 태인 시위에 일제 헌병들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관망만 한 채 온 시가와 노점 등이 모두 문을 닫은 채 철시(撤市)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운동에서 송진상, 김현곤 등 청년 5명이 일제에 의해 검속되었으며, 밤이 되자 시위는 다시 일어나 태인을 가운데에 두고 주위 사방 산마루에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횃불시위를 신호로 태인의 민가에서 같은 시각 일제히 만세를 불렀으니 태

인의 만세운동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 만세의 물결이 그 후 십 여일을 두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에서 태인 항쟁이 얼마나 집요하고 용감했는가를 알 수 있다.

〈표1〉 태인지역 3·1만세시위 주동 인물 재판 결과

성명	출생연도	주소	판결결과	성명	출생연도	주소	판결결과
송연수	1895.12	증산리	징역 2년	김부곤	1901.5.7	태흥리	기소유예
김현곤	1900.3.3	태성학교 졸면서기	징역 1.6년	오철수	1899.5.22	태흥리	기소유예
송한용	1896.9.18	태흥리	징역10개월	김진근	1901.3.18	태흥리	기소유예
신영식	1899.9.6	태흥리	징역 8개월	최민식	1892.8.10	옹동면 칠석리	태형 90도
송진상	1900.2.15	태흥리	징역 8개월	김진호	1894.9.25	태흥리	태형 90도
송덕봉	1895.10.8	태흥리	징역 8개월	김용안	1887.4.11	태성리	태형
백락두	?	보교교사	징역 8개월	김승권	1902.12.24	옹동면 매정리	구류 20일
박지선	1894.5.20	태성리	징역 6개월	송순용	1882.9.9	태흥리	구류 20일
송영근	**1896.7.20**	**태흥리**	**징역 6개월**	윤상홍	1850.2.28	궁사리	구류 20일
백복산	1890.1.28	태성리	징역 6개월	권사옥	1883.10.5	옹동면 매정리	구류 20일
오석흥	1893.1.9	태성리	징역 6개월	송문상	1896.12.2	태남리/오성학교학생	무죄
유치도	1901.3.14	태흥리	징역 6개월	김달곤	1896.8.6	태흥리/오성학교학생	무죄/병보석 5일뒤 사망
송근상	1893.7.22	전농1회	징역 6개월				

*출전: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167~168쪽; 주명준.정옥균 편저, 『전북의 3.1운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2001, 93쪽.

이 태인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헌병과 경찰에 검속된 군중이 8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태인보통학교 훈도 김승호(金昇鎬), 곽장열, 옹동면의 면서기 송병옥 등도 있었다. 이 무렵, 또 칠보면 유생 이희섭(李喜燮)과 태인 일대에서 일제에 의해 검속된 시위 군중 80여 명은 대부분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 송치되어 6개월 내지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 정읍검사국에 송치된 만세시위 주동 인물은 25명이었으며, 5월 15일 정읍재판소의 1심판결은 〈표1〉과 같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송연수는 주도자라 하여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만세시위의 주도 인물은 연령상 2~30대가 주류를 이루며, 그것도 30대는 구속된 인사 2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계층별로 볼 때 소위 '지식인'으로 불리는 보통학교 교사

(훈도), 학생 혹은 졸업생, 면서기와 같은 하급관리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는 중들이 다수였다. 특히, 주도 인물들이 다소나마 신교육을 받은 인물들이었다는 점과 3·1독립만세운동 당시 면사무소가 시위대들의 주된 공격대상 이었는데, 태인에서는 면서기가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도 인물 가운데 송한용은 10개월 복역 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군자금 7,000원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실시한 공적이 인정되어 그에게 대통령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김부곤은 1926년 동아일보 태인지국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 사회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나키스트(Anarchist) 백정기(白貞基)의 항일운동

【생각해 보기】----------

1. 공산주의와 아나키스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2. 역사상 실패한 사건의 예를 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아나키스트란 원래 '정부가 없는 혼돈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류는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백정기 의사는 이봉창·윤봉길과 함께 '3의사'로 불리는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은 정부가 없는 혼돈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다

아나키즘은 그리스어 '아나르키아'에서 유래된 말이다. 호메로스와 헤르도토스가 '군대에 우두머리가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1840년 프랑스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개인들이 일체의 권위에서 해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지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전제적인 해결책을 거부함으로써 칼 마르크스의 적의를 샀다. 프루동의 뒤를 이어 나타난 러시아의 바쿠닌은 더 진화한 사회형태인 아나키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나키스트들은 한동안 각국의 지배자들을 겨냥한 테러활동을 벌였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가 '무정부주의'라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02년 일본 도쿄대학생 게무리야마 센이치로(煙山專太郎)가『근대무정부주의』를 발간하면서부터였다. 이후에는 아예 '정부가 없는 혼돈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원래는 우두머리, 강제권, 전제 따위를 배격한다는 뜻이다. 아나키즘은 말 그대로 그리스어의 '없다(an)'와 '지배자(arche)'라는 뜻의 합성어로 '지배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 어의에 가깝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무강권주의' 또는 '자유연합주의'가 될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억압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를 반대하다

이른바 '무정부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타도와 사유재산 제도 철폐, 무계급 착취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주요 목표를 자유에 대한 관심과 통치기구의 폐지를 촉진하는 데 둠으로써 독재를 용인하는 공산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부연하면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공산주의에 있어 당은 알파요 오메가다. 공산주의에 있어 당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며 당명 또한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명제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당에 의한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나키스트는 모든 독재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참된 해방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는 극과 극을 달릴 만큼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들을 '자유와 해방의 전사'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주정사'와 '창흥의숙'에서 호남의 명문가 자제들을 만나다

백의사는 1896년 1월 19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현재 부안읍 신운리)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일곱 살 때 영원면 은선리로 이사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편모슬하에서 고생을 하며 자랐으나 남달리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소년으로 주위의 촉망을 한 몸에 받아왔다.

13세 살 되던 해에 명문과 부호로서 이 고을 일대에 이름난 '창녕조씨' 문중의 규수(조팔락)와 결혼하였다. 그 무렵 부호인 처가 쪽에서 빈한한 가세인 의사를 위해 5백석이라는 재산을 주었으나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당돌하고도 늠름한 기품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1910년(15세) 합방 직후 영주정사(瀛州精舍/소성면 흑암리/학감이 창평고씨 고인주로 가사문학가로 유명한 소고당 여사의 부친인 고희석의 친척)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이 때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당시 호남의 명문가 자제들과 함께 공부했는데 백관수(白寬洙/22세), 김성수(金性洙/20세)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후 창평의 '창흥의숙(창평초등학교 전신)'에서 송진우(宋鎭禹), 김병로(金炳魯/초대 대법원장), 양태승(梁泰承/고창고보 교장, 무등양말 창업자) 등과 함께 공부했다. 이곳에서 한문과 국사, 영어와 일어, 산술 등의 교과를 배웠다. 이 교육기관의 설립자

는 호남 근대교육의 창시자로 불리는 춘강(春江) 고정주(高鼎主)였다. 춘강은 임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12대손이다. 고정주는 창평 제일의 부자였다. 1902년 자신의 딸과 김성수(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경성방직/동아일보 창간)를 결혼시켜 사위로 맞았다. 사위 김성수와 아들 고광준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호남 최초로 영학숙을 설립한 것이다. 창흥의숙과 영학숙은 해방 후 전남지역 인재 양성의 탯자리가 되었다.

국내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14년 말, 일본 순사가 주변 마을에 구두를 신은 채 농가 안방으로 들어가 씨앗과 물레를 들고 나와 부셔버리는 것을 목격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왜경을 두들겨 팼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등 질 수밖에 없어 19세 때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과 전단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그 후 동지들과 경인(京仁)간의 일본 군사시설 파괴를 공작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본적지와 행적을 속여 나올 수 있었다.

그는 큰 뜻을 펴기 위해 활동비를 염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백의사의 독립운동 동지로 전주에 김동수(金東洙/완주군 우전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백의사는 김동수를 데리고 백산(부안)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와카야마(若山)라는 일본 사람을 찾아갔다. 이 무렵 일본인들이 전국 각처의 평야부에서 농민들로부터 헐값으로 농토를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며 빈한한 조선 농민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의사는 그 용모가 헌헌한 기상일 뿐 아니라 평소에 익힌 일본어가 능통했다. 함께 동행한 김동수를 등기소 직원으로 가장시켜 서류상 가공의 토지를 만들어 매매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많은 돈을 토지대금으로 받아냈다. 이 같은 행위는 큰 뜻을 펴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백의사는 1922년 북경으로 망명했다가 1923년 여름 본국을 경유하여 동경으로 건너갔다. 조천수력발전소 공사장 노동자로 변장 은신하여 일왕 암살을 계획하다가 불의의 동경대진재(關東大地震)로 인하여 동지를 잃고 부득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 다시 본국을 경유하여 1924년 4월에 귀환하였다. 그가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제가 동경대진재를 계기로 사회주의를 박멸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소위 「주의자」와 「불령선인」이 불온한 계획을 음모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을 대량 학살하는 참극을 연출하였다. 그가 귀국할 때 『세계사상

대전집』14권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이때 아나키스트로 변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해 상하이에서 우당 이회영, 화암 정현섭, 우근 유자명, 회관 이을규, 우관 이정규(상해 임정과 국내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1928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기관지 『탈환』집필/1946년 국민문화연구소 창립/1963년 성균관대학 총장) 등과 함께 재중국 무정부주의자연맹(이하 '무련')을 결성하는데 참가하여, 조선 대표로 출석하였다. 그리고 기관지인 『정의공보』를 비밀리에 발행하였다. 순간(旬刊)으로 발행되던 공보는 자금사정으로 9호로 끝났다. 무련이 기관지를 발간한 것은 우당과 그의 동지들이 아나키스트였음을 세상에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잡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27년 상해전차공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 북경에서 폐결핵을 앓던 의열단원을 간호하게 되면서 백의사도 폐결핵에 전염되었다. 이로 인해 사경을 헤매었으나 유자명 등 여러 아나키스트 동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1929년(34세)부터 1930년까지 약 1년간 결핵환자 요양소인 국제적 규모의 결핵전문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여 완치되었다. 폐병은 당시 불치병으로 간주되던 시기였다. 한번은 김두봉이라는 동지의 집에 가는 도중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 먹지도 못하고 누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몽땅 벗어주고 자신은 두루마기만 걸친 채 시장에 있는 전당포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돈 몇 푼을 얻어 빵과 약을 사들고 김두봉의 집으로 달려간 일도 있었다.

1932년 4월 29일, 이봉창 의거에 이어 일왕의 천장절과 상해사변 전승축하식이 열린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있었다. 의거 당일 백의사도 동일한 시도를 준비했었으나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앞의 두 의거는 김구가 직접 계획하고 지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김구도 이 의거를 동의하고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정보누설로 '육삼정 의거' 실패하다

백의사는 1932년 상하이에서 '자유혁명자연맹'을 조직한 다음 '흑색공포단(BTP/Black Terrorist Party)'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강화하여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흑색공포단은 이회영과 정화암이 지휘하고 왕아초가 재정과 무기공급을 맡았다. 하지만, 아리요시 공사 암살음모계획 직전까지 그 결사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1933년 초 고급요정 육삼정에서 일본 정계와 군사계의 거물들과 중국 국민당 고관

들이 회합을 갖는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참석자 중에는 일본육군대장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와 일본공사 아리요시(有吉明)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라키는 일본 군부를 대표하는 육군대신으로 일본 총리대신보다 더 실권이 있는 인물이었고 아리요시 공사는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한 장본인이었다.

1933년 3월 백의사는 이강훈·원심창·유기문·이용준·진수방·전화민 등과 규합하여 상해해방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3월 상하이 훙커우[虹口]에서 정현섭, 원심창, 이강훈 등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중국 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육삼정(六三亭)에서 체포되었다.

아리요시가 획책한 음모는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고 중국 정부의 반만주국, 항일자세를 회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항일군의 저항을 중지시키며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장개석 쪽 진영의 국민당 부패분자들에게 회유자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흑색공포단의 동지들이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거사계획이 결정되자 백정기가 먼저 솔선하여 실행자가 될 것을 자청하자 단원 전원이 자원하는 바람에 정화암의 제안에 따라 추첨을 하고 백정기가 실행자로 선출되었다. 흑색공포단원 8명이 제비뽑기에서 '유(有)' 자가 적힌 종이를 백정기가 뽑은 것이다. 그는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이강훈(李康勳)을 지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1933년 3월 17일 아리요시의 연회장소인 상해 홍구 소재 요리점 6·3정으로 정하고 연회가 끝나고 공사가 나올 시각까지 대기 장소로 육삼정에서 200m 떨어진 송강춘(松江春)으로 정했다. 거사에 사용될 폭탄과 권총, 수류탄 등은 화암(華岩) 정현섭(鄭賢燮)이 건네주고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일본총영사 보고문에 나와 있듯이 경찰의 세밀한 검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백정기 의사의 계획을 일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보고문에는 계획의 주모자인 백의사가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 누군가에게 의해 누설된 것으로 보인다.

정화암은 회고록에서 중국군벌과 아리요시의 연회장소와 날짜를 알려준 자칭 아나키스트 일본인 '오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3대 의거, 육삼정 의거

백의사는 11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폭발물취체법 위반·살인예비·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일본 나사사키 지방재판소에서 공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백정기 의사와 원심창(元心昌)은 "앞으로도 오직 실제운동을 계속할 뜻을 표명하고 있어 행동이 진실로 위험함으로 단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기징역을, 이강훈은 징역 15년 형을 언도받았다. 백의사는 이시하야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39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복역했던 형무소는 붉은 벽돌의 방사형 건물로 1945년 원폭투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다.

1946년 7월 6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3의사에 대한국민장이 해방 후 최초(당시는 미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행정안전부 기록에는 국민장 1호로 백범 김구의 국민장으로 기록되어 있음)로 거행되었다. 1963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15년형을 선고받은 이강훈은 12년 반을 복역한 후 일제가 패망하자 석방되었다. 그 후 박열(朴烈)과 함께 일본에서 거류민단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광복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원심창도 광복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그도 광복 후 박열, 이강훈과 함께 거류민단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다 1971년 7월,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육삼정 의거는 의열단의 황푸탄 의거(1923), 윤봉길 의사의 의거(1932)와 더불어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3대 의거'로 꼽힌다.

다음은 예심이 끝나고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로 압송되는 선상 2등실에서 백의사가 동지인 이강훈에게 남긴 말이다.

>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동지는 몸이 건강하니 자중자애하라. 출옥하거나 만일 독립이 안됐으면 나를 조국 땅에 묻지 말고 독립이 됐으면 나의 유해를 조국 땅에 묻어 주되 무덤 위에 꽃 한 송이 만 꽂아 주기 바란다."

아래는 독립운동가 이강훈이 그의 자서전(『이강훈 자서전(李康勳 自敍傳)』)에 남긴 백의사의 대한 인물평이다.

> "백정기 의사는 나의 졸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청렴, 결백, 의리, 강직, 신뢰, 의용 등 모든 미덕을 갖춘 자유혁명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사지로 나갈 때는 항상 앞장서기를 원하였으며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씨는 최고의 휴

머니스트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평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성인에 가까운 점도 없지 않았다."

6·10만세운동의 주역, 향산(香山) 이동환(李東煥)

【생각해 보기】----------

1. 6·10만세운동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일제강점기 '산외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 조직은 두 개로 하나는 '사직동 계열'이며 하나는 '통동 계열'이다. 전자의 주동 학생은 중앙고보 5학년 이선호(李先鎬/경북 안동).중앙고보 4학년 유면희(柳冕熙/경북 안동).중앙기독교 청년회관 3학년 박두종(朴斗鍾/함남 홍원).연희전문 문과 2학년 박하균(朴河均/함남 홍원).이병립(李炳立/강원 통천)경성제국대학 예과 1학년 이천진(李天鎭/함남 북청) 등 6명이었다. 후자의 주동 학생은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 5학년 이동환(李東煥/정읍 출신)·박용규(朴龍圭/경북 달성)와 중동학교 특과 3학년 김재문(金載文/임실)·황정환(黃廷煥/익산)·동과 2학년 곽대형(郭戴炯/김제) 등 5명으로 주동 학생은 모두 11명이었다. 통동계열의 주동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전북 출신으로 전북인의 남다른 항일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동환(1901~1982)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동환은 우리 고장 산외면 출신(평사리 26번지) 인물이기도 하지만, 6.10만세운동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동환,「6·10만세 체험록」(영인본),『전라문화연구』제6집 권말부록 참조).

신학문을 통해 민족의식이 형성되다

이동환은 1901년 1월 9일 전라북도 태인군 산외이변면 척곡(尺谷/1914년 산외면 평사리 척곡으로 개편됨)에서 이기순(李起舜)의 4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향산은 그의 자호이며, 자는 도상(道常)이다. 향산은 중국의 혁명가인 손문(孫文)의 고향으로 어릴 적부터 손문을 흠모하여 이를 자호로 삼은 것이다. 그의 집안은 '전주 이씨'로 그의 선조들이 척곡에서 300년 동안 세거하였기 때문에 '척곡 이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척곡마을은 6.25전쟁 중에 폐허가 되어 없어져버렸고 척곡 이씨들은 그 후 각지로 흩어져 지금은 평사리에 겨우 몇 가호가 남아 있을 뿐이다.

척곡은 궁벽한 산골이지만 이동환의 집은 꽤 유족한 편이었는데 그는 조부의 방침대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게 되었다. 21세에 신학문을 배우라는 친구의 말에

공감하여 서울의 신식학교에 들어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921년 백남규(白南奎)가 경영하던 한성강습소에 들어가 6개월 만에 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4월에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중앙고등보통학교는 이용직(李容稙), 지석영(池錫永), 이상재(李商在), 윤효정(尹孝定) 등이 활동하던 기호흥학회가 1908년 6월 20일에 설립한 사립 기호학교의 후신이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현상윤(玄相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학교에 국어 및 국사교사로 권덕규(權德奎)가 있었고, 체조 및 훈육교사로 소년군을 조직했던 조철호(趙喆鎬)가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이동환은 한국의 역사와 민족을 재인식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다

1926년 4월 25일 오전 6시 10분 순종 황제가 승하하였다. 언론에서는 순종황제의 환후가 위중하다고 호외만 발행하고 총독부에서는 당일에 국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순종이 승하한 날짜가 하루 늦은 26일 일본 궁내성은 오전 6시 10분에 승하하였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산일은 6월 10일로 정하였다.

이동환은 이 때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하고 중동학교 김재문과 함께 시내 각 공사립 중학교 학생들을 물색한 끝에 4~5명을 5월 23일(일요일) 서울 시내 혜화동 밖 삼선평 운동장에 모이게 하였다. 이들은 "돌아오는 인산일(因山日/장례식)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서로 의논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만세를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동환은 "몇 번 부르다가 잡혀가는 것 보다는 총독부를 비롯하여 일본인 대관들과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본정 일대를 폭파하여 일인들을 몰살시키자."는 의견을 말하였다. 여러 학생들이 그 의견에 크게 찬동하였으나 정작 그렇게 하자고 자원하는 학생은 없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전도가 양양한 학생들이니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과격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옥신각신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동환은 크게 한숨을 쉬고 구슬같은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는 함께 일할 동지가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너희들만 전도가 양양한가. 나도 귀중한 몸이다. 못할 사람은 다 가라."고 소리쳤다. 학생들은 하나씩 둘씩 각기 헤어졌다.

다음 날 24일 이른 아침에 이동환은 동급생 박용규와 함께 김재문이 기숙하는 통동(종로구 통인동) 71번지 김소사의 집에 가서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등 다섯 사람이 모여 순종 황제의 인산일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전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조선 민중들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여! 죽음으로 결단코 싸우자. 독립만세, 조선독립 만세!
단기 4259년 6월 10일 조선 민족대표 김성수·최남선·최린

이 선전문을 이동환.박용규.김재문.황정환.곽대형 등 다섯 사람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만여 장을 등사하여 숨겨 두었다가 6월 8일 석양에 13도 지방에 있는 각 중학교에 봉투 하나에 선전문 5~6매씩을 우송하고, 서울에 있는 각 중학교에는 각 학교 우체통에 넣어서 배부하였다. 9일 밤에는 통동 본소에서 마지막 모임을 열고 그 이튿날인 10일에 각자 도열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여(大輿)를 봉송한 후에 대중에게 선전문을 뿌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부르기로 굳게 맹세하고 각각 1만 여 장씩을 나누어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산 당일 이동환은 이른 아침 5시 경 중앙고보에서 4학년 최제민에게 선전문 5백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4학년 갑을반 반장 계익정(桂益禎).김규순(金圭淳) 등 각 학년 반장들에게 수백 장씩을 나누어 주고 6.10만세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여를 봉송한 후에 선전문을 살포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라고 권유했다.

대여(大輿)를 봉송하고 난 뒤 이동환은 학생들 앞으로 뛰쳐나와 선전문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왜경은 이동환의 사지를 나누어 잡고 닥치는 대로 폭행하였다. 왜경은 이동환의 호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빼서 이마를 찔러 상반신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정사복 순경뿐만 아니라 기마순사.기마헌병.무장군대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는 동시에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붙잡혀 갔다. 연희전문 학생들은 관수교 부근 동편에 있다가 어여를 봉송하고 오전 9시 경에 이병립과 박하균이 학생들의 도열 앞에 진출하여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김규봉(金奎鳳).권오상(權五尙).한일청(韓一淸).이석훈(李錫熏) 등 전교생이 호응하였다.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박두종은 을지로 5가 경성사범학교(현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 앞에서 또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천진은 훈련원 봉결식장에서, 중동학교 김재문.황연환.곽대형은 오후 2시경에 동대문 밖 숭인동 종묘 뒤에서 각각 어여를 봉송하고, 최후의 의병장이 통과한 뒤 격문 또는 선전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6월 10일 만세현장에서 중앙고보생 1백 여 명과 연희전문학생 70~80명, 기타 학생 수십 명이 체포되어 모두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통동운동의 주모자로 중앙고보학생 이동환.박용규, 중동학생 김재문.황연환.곽대형 등 5명과 연루자로 중앙고보생 27명을 6월 19일 경성지법 검사국에 송치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하였다.

검사국에서는 통동계열 운동의 주모자에 대해 대정8년 제령7호와 출판법 위반 죄명으로 6월 24일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에 회부하고, 기타 학생 60여 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하였다. 1927년 3월 25일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가 "한강이 역류할지언정 조선독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이동환은 "한국이 당장에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앙양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학생 11명 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희면만 3년 간의 집행유예로 당일에 석방하였다. 기타 피고 10명은 징역 1년에서 6개월 반은 미결구류 일수에서 통산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는 5개월 반을 복역하고 1927년 9월 20일에 출옥했다. 11명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던 날부터 출감할 때까지 모두 독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천진은 귀가 얼어 터지기도 했다.

6·10만세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다

식민통치의 상징인 총독부를 폭파하고 일인들을 폭살하고자 했던 이동환의 거사는 당시로서는 실행 가능성이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실행 여부를 떠나 그 같은 엄청난 발언이나 계획은 학생운동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일제 식민통치하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6·10만세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민족주의 운동이 침체에 빠져 있었고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자들은 관망만하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학생들과 연합했다는 점, 이로써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 계

열이 통합되어 다음 해 신간회(新幹會) 결성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운동이 민족주의 색채를 띤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항이었으나, 이후에는 사회주의 영향 아래 식민지 노예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항일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제1의 종교, 보천교의 민족운동

【생각해 보기】----------

1. '신흥종교'와 '신종교'라는 용어 상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보천교 신자, 과연 '600만'인가 알아봅시다.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자칭 '6백만' 신자를 자랑하고 있었다. 보천교에서는 100명의 인원을 포교해야만 간부 직책이 주어졌다. 당시 간부가 557,700명 이었다 했으니 교단 측 주장처럼 6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1923년 조선의 인구는 1,700만이었다. 따라서 600만 신도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천교 쪽 관련 자료인 『보광』(普光/1923) 창간호 2쪽에는 수 백 만, 5쪽에는 600만, 9쪽에는 300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훈』(道訓) 9쪽에는 "교리와 강령을 정하고 사방에 선포하니 소문을 듣고 온 자가 600만이 된다."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당시 교단 자체 내에서도 정확한 신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강오(李康五) 교수는 『한국신흥종교총감』(韓國新興宗教摠監)에서 200만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종교학계에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1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보천교는 1918년 4,407명, 1919년 12,935명, 1920년 19,72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25년 35,106명을 기점으로 이후에 신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보천교에서는 1925년부터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현재 교금 모집과정을 밝혀줄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엄청난 교금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방증할 만한 자료가 몇 가지 남아 있다.

하나는, 당시 신자들의 일부 치성금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1918년 제주도에서 강대거(姜大擧)가 성금 7만원을 면화 포대 속에 가지고 오다 발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 재산을 바치고 입암면 대흥리로 이주해 오는 탄갈자(殫竭者)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정읍 대흥리는 평산 신씨(5호)가 터를 닦은 중흥(中興)과 연안 차씨(5호)가 자리 잡은 진목(眞木) 그리고 김해 김씨(5호)들이 입주한 신평(新坪)을 합한 한가로운 마을이었으나 보천교가 자리하면서 15호에 해당하는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700여 호를 헤아리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들이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였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천교의 핵심 브레인이자 명실상부한 실력자로 활동했던 이상호.이정립 형제였다.

마지막으로 보천교에서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대흥리 2만평 부지에 40여 동의 웅대한 교전을 건축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천교 본소로 불렸던 이곳은 들어갈 때부터 나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했고, 공사비용만 150만원이 소요되었다 했다. 그렇다면 35,000명의 신자를 가지고서도 이러한 교금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정황을 근거로 보천교는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 결성으로 친일단체로 의심받다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이 결성된 이후에도 사실 상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였다. 『개벽』에 따르면, 1924년 9월 "각파연맹의 채기두(蔡基斗), 고희준(高羲駿) 등이 기회를 엿보고 보천교의 임경호(林敬鎬), 문정삼(文正三) 등을 누차 면회한 결과, 보천교는 각파 연맹의 부관적(附官的) 세력을 신뢰하고 각파연맹은 보천교의 다중다재(多衆多財)한 것을 신뢰하야"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결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시국대동단은 친일 단체로 지목되는 11개 단체 중 40여 인이 각파유지연맹을 조직하고, 그 후 이 연맹의 취지가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재정 궁핍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최근에 이 연맹에 가입한 40여 인 중 10여 인과 보천교주 차경석 휘하의 10여 인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참가자를 합하여 발기자 69인의 명의로 결성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25년 1월 9일자).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간에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되는 보천교

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논설을 통해 시국 대동단 결성은 보천교의 자멸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보천교에서는 시국대동단의 결성여부와 관계없이 암암리에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표2〉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

발생일자	사건 명	내용	출처(기사)
1918.10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	법정사 교도 30명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 습격, 방화 전소	明治百年史叢書(1967)
1921. 5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태을교도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하여 운동자금 징수	高警第13765號(「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1920. 9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사상 고취	(동)1921.2.19
1921.8.6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기도 성금수합	(동)1921.4.30
	상해 임시 정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나용균을 통해 임정에 전달(?)	(동)1925.10.2
1921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조달	전주에서 11만원 압수	(동)1922.2.24
1922	세계약소민족회의 참가 여비 지원	차월곡이 최팔용과 장덕수 통해 1만원 지원	歷史批評(1989년 여름호)
1924	김좌진 장군 군자금 지원	2만원으로 무장대의 편성 가능	亞細亞局第3課關機高授第32743號.
1924. 3.26	상해 임정에서 보천교 본소에 군자금 모집	경찰에 체포	(동)1924.4.1
1925.11	조만식(趙晩植) 권총단사건	천진불변단장(天津不變團長) 조만식이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 목적으로 본소에 잠입	(조)1925.1.21
1925.12	정의부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 모집위해 비밀리에 잠입	(동)1925.12.11
1929. 9	보천교도 금방주 김규찬의 형 김규정 수사	김규정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을 보천교와 연관지어	『보천교연혁사』(1958)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보천교도의 항일투쟁이 있었다. 차경석과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金蓮日) 등이 서로 모의해 같은 해 9월 19일 구 맹란분회(舊 孟蘭盆會/머슴날)에 즈음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을 소집하고,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

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해 혹우(酷遇)시켜,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 민족의 구적(仇敵)이 되어, 머지않아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해 국권을 회복시키므로 교도들은 제일 먼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관리를 완전히 살해한 후 상인을 구축(驅逐)시켜야 한다."며 설득하였다.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김연일은 그 배하(配下)를 도내 각지에 보내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고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결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을 협의해 대오를 정리한 다음, 부근 각 면, 리장에게 "일본 관리를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다시 장정을 거느리고 참가하라. 따르기를 꺼리는 자는 군율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라는 격문을 배포하였다. 6일 밤부터는 제주성 내로 향해 행동을 개시하고 7일에는 중문리에 도착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 전소시켰다.

사건 주모자 31명(재판기록은 34명) 가운데 김연일(金蓮日)과 정구룡(鄭龜龍), 강민수(姜敏洙)가 승려이고 박명수(朴命洙)만이 보천교 수령으로 되어 있어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들이 주동이 된 항일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천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크게 작용했거나 세월이 흘러 불교로의 전향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은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그 본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주 보훈지청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제도 제주도 법정사 사건의 수령을 전라도 정읍 대흥리의 차경석으로 보고, 이들이 은밀히 국권회복을 도모하면서 교도가 5만 5천에 달하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종의 배일 음모단체로 규정하였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3·1독립만세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

태을교도(太乙敎徒)의 이름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다

1921년 5월 강원도에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 독립단원의 검거가 있었다. 태을교는 증산 사후 최초로 형성된 종단이지만 차경석이 태을교의 교권을 장악한 후, 1921년 경남 함양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보화교를 선포하기 전까지 선도교, 흠치교 등 증산계 교단를 통칭하여 불리던 명칭이었다. 일제가 조사한 이들의 혐의사

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김문하(金文河)는 시천교(侍天敎) 신자로 배일사상을 가지고 오로지 동지의 규합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처가 질병이 있을 때인 1920년 12월 5일 태을교도로서 원산지청에서 취조중인 이치홍(李致弘)을 방문하였다. 이 때 이치홍은 태을교를 신앙하면 처녀의 병기를 완전하게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 재액을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감언으로 유혹하였다. 이로 인해 김문하 외 2명이 입교하게 되었다.

1921년 2월 18일 이치홍은 김문하를 초대하여 태을교 이면의 목적은 국권회복에 있다고 말하고, "태을교 수령 차석정(車石井/필자주: 차경석 지칭)은 본년 중에 황제가 되려고 운동 중에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치 협력하여 그의 목적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교주 차석정은 관통공부라 칭하는 신술을 연구 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이 되면 세상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중을 나는 것도 자유롭게 되며, 신자 1인으로써 1백 만의 병사에 대항할 수 있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표3〉강원도 태을교도 독립 단원 검거자 명단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김문하(金文河)	4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53번지
김정식(金貞植)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70번지
박정찬(朴貞燦)	3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74번지
김경식(金景植)	5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15번지
박경문(朴璟文)	21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이달제(李達濟)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70번지
한용서(韓龍瑞)	4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40번지
박명호(朴命浩)	6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임현한(林顯漢)	5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9통3호
조병하(曺秉河)	2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7번지
김원하(金元河)	4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68번지
김문환(金文煥)	2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6번지
진문협(秦文狹)	3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6통8호
김순발(金順發)	15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8번지

* 출전: 高警第13765號,〈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金正明 編,《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595쪽.

따라서 금년 5월 이래 경찰 관리 및 일본 군대를 살해하는 것도 자유자재라고 말하고 또 태을교 수령이 조선국 황제가 되어 상당한 관직을 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김문하는 이를 흔쾌히 허락하고 박경문 외 9명을 입교시켜 3월 2일에서 동 17일 경에 국권회복의 운동 자금으로 각자 12원씩을 징수하였다. 김문하는 이를 이치홍에게 교

부한 이래 신자에게 대하여 미신적 언사를 농하였던 것이다.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표〉와 같다.

일제는 이와 같은 태을교도들의 국권회복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태을교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태을교는 '흠치교', 또는 '보천교'라고 칭한다고 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태을교도의 국권회복운동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군 수순면 이화리 356번지 강진수(姜晋秀/21)는 대정 9년(1920) 9월 이래로 태을교 신자가 되어 교를 전도하며 조선독립운동하기를 진력하여, 교를 전하는 말끝에는 조선독립사상을 고취하며, 인민을 권고하여 독립을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 태을교에 가입하라 하며 책을 편찬하였던 바, 책에도 조선독립사상과 및 조선총독 정치의 변혁할 취지를 기재하여 인민을 선동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형사부에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기재하였거니와, 동법원에서는 작일 제2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20일에 판결 언도한다더라.

1921년 평양경찰서에서는 채선묵, 김규당을 검거하여 … 동교의 교조 강증산은 오는 을축년(1925)에 다시 살아나서 황제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동교 신도 중 유력한 사람을 관찰사…군수 등의 요직에 임명할 터이며, 일반 신도들에게도 다수 이익을 얻게 할 터이라 권유하고, 또 금년부터 오는 을축년까지 다섯 해 동안에는 세계가 크게 어지러워서 각국이 다 자기나라 진정에 전력을 다하고 타국에 간섭할 틈이 없을 터이므로, 그때에 강증산이 강립하여 조선독립이 완성될 터이며, 내년에는 전 세계에 악한 병이 유행하고 채소 같은 것도 모두 그 독기를 받아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모두 병들어 죽게 될 터이므로, 동교 신도에게는 금년 9월까지 악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약을 제조하여 분배할 터이며, 각 도에 정리장.부정리장, 각 군에 정포교장.부포교장을 두고, 각 면에 정정의.부정의를 두어 신도모집을 계획코저 한 것이라더라.

백희백은 재작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여 은밀히 조선독립을 운동코저, 그 교의 교주되는 차경석이가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왕국이 되어 계룡산에 도

읍하고, 태을교도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는 허무황당한 말을 전파하여 교인을 모으고,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 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보천교는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해 임시정부와 김좌진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보천교의 민족운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규(林圭)가 보천교로부터 5만원을 얻어내 나용균(羅容均)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장덕수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실제로 임시 정부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나용균이 자금을 받은 즉시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금의 임정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아무튼 임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때 보천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1922년 임규가 보천교에 들어가 우매한 교도들을 선도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1921년에는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 11만원이 전주에서 발견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강일순이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지 몇 해 후에 계룡산에 재림하겠다.'고 말했다는 풍설이 있고, 또 차경석이가 천자가 된다는 풍설도 유행하여 교도의 검거가 심하던 터에, 작년 봄에 전주에 모아놓았던 돈 11만원이 압수되는 동시에 당국에서는 크게 놀라 상해가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으로 인정하고 크게 검거를 행하여, 강원도 일대와 삼남 지방에 수천의 교도가 검거되었고 …

라고 하여 일제는 전주에서 발견된 돈을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군자금

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이 임시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면, 임정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임정에서는 수립 초기에 인도인을 고용해서 수위로 세우기도 했었는데, 정부 청사 집세 30원과 20원도 되지 않는 고용인 월급을 주지 못해 번번이 소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11만원은 임정의 회생자금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이 주로 미주에서 보내는 동포들의 성금과 국내외 일반인에게 징수하는 인구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매하는 공채, 대소.대미차관, 국민의 지원에 의하여 납부하는 애국금만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독립운동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보천교의 자금이었을 것이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차월곡은 최팔룡(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천교에서 김좌진에게 2만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1924년 김좌진은 자금부족으로 부하들을 해산하여 활동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이 되어 2만원의 군자금을 받아 다시 무장투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일제가 탐지하고 기밀문서로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일제는 보천교를 배경으로 이같이 움직이는 김좌진의 활동을 탐지하고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열렸을 때는 보천교 간부 강일(姜逸)과 배치문(裵致文)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들이 참석한 연유는 분명치 않으나 앞서 언급한 보천교의 5만원이 임시정부에 실제로 전달되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할 몫으로 보천교인 2명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자금력을 갖춘 보천교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운동에 대한 차월곡의 의

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을 지내다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만식은 1886년 8월 10일 평남 평양부 상수리(上需里)에서 태어난 인물로 1919년 4월 18일 북경과 인접한 항구 도시인 천진에서 명제세(明濟世) 등 8인과 함께 '천진불변단'(天津不變團)을 조직한 바 있다. 그는 이 조직의 단장이었다. 천진불변단은 19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외곽단체로서 승인받았다. 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나 고하 송진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민세 안재홍 그리고 여운형도 모두 보천교에서 비밀리에 군자금을 가져간 인물로 후손들은 증언하고 있다.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 의용군 별동대원 세 명이 이춘산(李春山)의 인솔 하에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대련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1924년 11월 24일 통의부·서로군정서·광정단·길림주민회·고본계·잡윤자치회·노동친목회 등 8개 독립운동 단체가통합해 성립된 것이다. 1920년대 중·후기 재만독립군정부로 활동했으며, 한민족의 자립 사회 건설을 위한 민정활동과 조국독립을 위한 항일 군정 활동을 펼친 단체였다. 그들의 잠입 목적은 보천교에서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정의부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 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월곡의 의지를 간파하고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보천교는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 11월에는 보천교로부터 30만원의 거액을 변통하여 민족운동 단체로 보내려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모두 보천교도로, 표면으로는 보천교당을 짓는다하고 그 자금을 변통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것을 기회로 보천교주 차경석의 환심을 사 보천교의 돈을 끌어내어 만주 방면에 보내기를 획책한 것이다. 이는 보천교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그간의 차경석의 독립운동 자금지원 사실을 사전에 간파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또 전년도인 1925년 7월에 만주 모 단체에서 권총 두 자루와 탄환 40여 발을 비밀히 가져와 경남 함양군 석하면 웅위리 민태호(閔泰鎬)라는 사람의 집에서 부호들을 위협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의논하고, 모두 경성에 올라와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관헌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적이 있었다. 이들 네 명은 제령 제7호 위반 '강도예비급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때의 피고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4〉피고인 명단

성명	나이	본적	주소
정당엽(鄭當燁)	33	전북 장수군 계북면 방전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한규숙(韓圭淑)	38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서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조만식(趙晩埴)	40	평양부 상수리 91번지	경성 통동 133번지
정찬규(鄭燦奎)	40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 출전:『동아일보』, 1926년 11월 14일.

이들이 끌어들이고자 한 30만원은 당시 침체 일로에 있던 임시정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2년 이후 임정은 재정 수입이 급격히 줄어 정부의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임정이 상해 체류 기간 14년 동안 (1919~1932) 7번 정도 청사를 옮겼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임대가격이 저렴한 낡은 장소로 옮겨 다녔다는 증거가 된다.

1929년 9월에는 정읍경찰서로부터 엄밀한 수색을 받았다. 금방주(金方主/보천교의 간부직책)인 김규찬(金奎燦)의 백형인 경북 예천군의 김규정(金奎定)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정읍경찰서에서는 김규정을 구속하여 보천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구입하여 분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일제는 보천교의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서술한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1920년대 초반 태을교라는 이름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는 1925년 이후에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 필자가 보천교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보천교가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교리가 없었다는 점이다.『보천교연혁사』(普天教沿革史)나 『교전』(教典), 『도훈』(道訓) 등은 교주 사후에 나온 책이며,『보천교연혁사』의 경우, 말 그대로 연혁을 기록한 것일 뿐 교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거의 없다. 또한 보천교 간부조직인 24방주를 조직했던 1916

년부터 1928년까지를 홍범초(洪凡草)는 '원태을교'(原太乙敎)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내에서는 원년으로 삼고 있는 1909년부터 무진훈사(戊辰訓辭)가 있었던 1928년까지를 '은도시대'(隱道時代)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때까지도 교리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또 차월곡 자신이 "보천교는 교(敎)가 아니라 도(道)"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주 차월곡은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있었던 인물로 일제 강점 하에서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조선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때(1925년) 보천교의 교리 및 대동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탄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일본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 가까워지자 3천 원이라는 거금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천교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었다.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하고 있었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천교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 민중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조선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1936년 56세의 나이로 차월곡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신자들이 이탈하고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殫竭者)들은 재물을 사취한 사기행각이었다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보천교에서 형평운동(衡平運動)을 지원하다

형평운동은 봉건적 유제를 타파하고자 한 사회개혁 운동이자 백정들의 신분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권익신장 운동이었다. 형평사에서 벌인 신분차별 철폐운동이 갖는 반봉건성에 유의한다면, 형평운동의 근대지향적인 요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한 사회운동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동사로 개칭되어 이해관계가 동일한 자들의 친목단체, 경제적 이익단체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을 표방했던 형평운동의 본래 목적과 의미마저 변질되어 그 의의를 잃게 되면서 대동사는 해체된 것이다.

그런데 형평사가 형평운동의 목적인 차별철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제휴 문제는 아주 절실한 것이었다. 이는 형평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당시 사회운동 단체의 입장에서도 형평사를 이용하는 것이 운동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

휴는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이에 형평사총본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지.분사를 확대하고, 청년사원들로 하여금 '조선형평청년 총연맹'과 '형평학우동맹' 등을 조직케 하였다. 또 진정한 형평사회는 현 사회제도를 개선치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반 사회운동단체와 연대를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형평운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형평운동은 사회주의의 수용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와는 그다지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나, 청년운동단체 및 사상단체와는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특히 사상단체 가운데 북풍회, 화요회, 자유회(개성) 그리고 청년단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예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양청년연맹과도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청년총동맹, 조선공산당, 서울파 공산주의자와 물산장려회계.민족주의자들의 그룹인 조선민흥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평사와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운동 단체의 지지나 제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상단체나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반형평 사건'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여타 사회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형평운동의 목표가 차별철폐일 때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했으나, 1920년대 후반 활동의 목표가 경제투쟁 활동으로 선회한 뒤에는 굳이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관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형평운동 초기 형평사의 핵심멤버들이 보천교로부터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의 보천교 본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자료의 한계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연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정황을 통해서 양자 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당대 보천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관계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양자 간 관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보천교에 대한 당대 인식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사이비종교였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일조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당시 국내 일간지였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거나 다른 자료에서 발견되는 관련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보이는 진주 사람이 보천교 창시자인 차월곡을 만나고 느낀 소회를 적은 글이 있다. 그는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신을 비봉선인이라고만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내가 차씨를 보려고 정읍에 가기는 금년(1923) 4월 중순경이다. … 나는 본래 종교보다도 정치에 취미를 많이 두고 또한 차씨를 종교적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 인물로 본 고로 보천교에 대한 진리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먼저 시국문제를 말하였다. … 장래 조선이 독립되고 보면 무슨 정체(政體)를 쓰는 것이 좋으냐? 고 물었다. 차씨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있다가 말하기를 "그것은 그때 일반 인심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라 한다. … 세상 사람은 차씨를 일개 미신가요 또한 무식자로서 다만 우민을 유혹하여 금전을 사취하는 자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는 그렇게 무식한 이가 아니다. 비록 현시대의 지식은 결여했다 하더라도 구시대의 지식은 상당한 소양이 있다. 그 외 엄격한 태도와 정중한 언론은 능히 사람을 감복케 할만하다. 그는 한갓 미신가가 아니요, 상당한 식견이 있다. … 그를 차천자라 하는 것은 결코 그가 자칭한 것이 아니요 몽매한 교인과 비소(鼻笑)하는 세인이 칭호한 것이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용사(用事)하는 것을 보면 제왕될 야심이 만만한 것을 추측하겠다.

좀처럼 일반인들에게 면회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월곡을 직접 대면하고 쓴 이 글은 소문과는 다른 차월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월곡을 정치적 인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수행모임인 선도회(禪道會)의 초대 지도법사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1905~1990) 노사(老師)가 보천교를 창시한 정읍의 차천자를 직접 만나고 난 뒤의 소회를 적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한 것은 전라북도 정읍에 갔을 때 보천교 교주인 차천자를 만난 일이다. 본명은 차경석(車京石)인데 자칭 천자였다. 나는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때 본관(大法堂)이 준공되었으나 도 경찰국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므로 개관은 못하고 폐문하고 있었으나 특정인에게는 보여주었다. 불교법당처럼 꾸몄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니 그 자리는 차천자가 앉을 것인데, 과연 천자 자리 같았다. 규모가 웅장했다. 결국 개관도 못하고 차천자 사망 후 보천교가 해산되었다. 그 건물은 서울에 옮겨졌고 현재 조계사 대법당이 그것이다. 이튿날 아침 면회했다. 몸은 뚱뚱하고 큰 상투에 대갓을 쓰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까만 수염이 보기 좋게 나 있었다. 그 풍채가 과연 만인의 장 같았다. 저렇게 생겨야 무슨 일이고 할 수가 있구나 싶었다. 우선 체격이 좋고 외모가 잘 생겨야 협잡도 크게 해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첫 말에 불교는 포교가 자유롭지만 보천교는 경찰의 제재가 심해서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일제 때 사이비종교의 탄압이 심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런 풍문이 있었다. 차천자가 머지않아 등극하면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전답을 팔아서 바치고 그 벼슬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도 이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편할 것이다. 일제 치하에도 이런 사이비종교가 있었고 해방 후 경향 각지에 이런 종사가 발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 글에서 이희익은 보천교의 창시자인 차월곡의 당당한 풍채를 묘사하고 있다. 또 보천교는 종교를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사이비종교였을 것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 일반의 인식과 실제 보천교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였든, 민족주의적인 면이 있었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규명하기 관해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보천교 관련기사를 검토해봄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천교는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보천교에서는 임규(林圭)를 통해 임시정부에 5만원을 전달한 일이 있었다. 임규는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표면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투쟁하기보다는 뒤에서 독립운동을 돕는 일을 맡아서 했다. 그는 처음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羅容均)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또한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키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차월곡은 최팔룡(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교주인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차월곡의 의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을 지내다가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암살과 군자금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잘 드러난다.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 의용군 별동대원들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고 있었고, 보천교에서는 정의부(正義府)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은 보천교가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천교는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결성하면서부터 자의든 타의든 친일에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선일보』는 1925년 1월 10일자 시평에서 "황당허망(荒唐虛妄)한 잡설로 시대에 역행하는 흠치교, 저들의 소위 보천교가 비록 형해(形骸)이나마 지금까지 존속하여 있다는 것은 확실히 현대의 치욕이요, 사회의 모독이다. 저들이 우민(愚民)을 모롱(侮弄)하여 그의 사복을 살찌울 계책이 이미 다하여 …"라고 하여 보천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1925년 1월 9일 전남 영광군(靈光郡) 염산면(塩山面) 군남농민대회 임시총회에서는 보천교의 죄상으로 첫째,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며 둘째, 교육은 필요 없다 하여 어린이들의 교육을 막으며 셋째, 요술비결로 민중을 미혹케 하였다. 넷째, 허무맹랑한 괴변요설로 민중의 토지와 금전을 사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대시국천자'(大時國天子)라 자칭하고 관직을 예매하며 여섯째, 소위 시국대동단과 결탁하여 민중운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흠치교 박멸을 결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천교 관련기사는 시국대동단이 결성된 1925년에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밖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보천교 성토대회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월 18일 고창시국대동단 강연에서는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철저히 하여야 좋다는 것과 동양삼국이 대동단결하여 잘 살자는 취지의 강연을 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보천교 성토를 결의하거나 성토 강연회가 열렸다. 마산청년회에서는 1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보천교 성토를 결의하였다.
부산청년회에서는 2월 1일 20여 단체와 유지인사 30명과 함께 성토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원에서는 2월 4일 진해소작회, 진해노동회, 진해청년회 외 6개 단체의 대표가 모여 성토준비를 하고 흠치교 박멸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2월 6일에는 김해청년회가 주관하고 『조선일보』 김해지국 외 7개 단체의 후원 하에 보천교 성토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군남농민대회와 청년회 두 단체가 흠치교를 박멸하자는 선전 전단지를 작성하여 살포하였다. 이와 같이 1925년 이후에는 온통 보천교를 성토하는 글로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이로 보아 보천교는 1925년 이전까지는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이 다분히 있었으나, 시국대동단 결성으로 말미암아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평사와 보천교, 연대 관계를 추진하다

형평사와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보천교와의 연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형평사의 보천교 인식뿐만 아니라 연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형평사가 조직되기 이전인 1923년 3월 중순경 형평사 설립의 핵심멤버인 강상호, 신현수, 조우제 등이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으로 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읍출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형평사의 조직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용기(金龍基)가 형평사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신현수(申鉉壽)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글이다.

> 형평운동의 지도자인 신현수는 민족해방의 첩로는 민중의 계몽 국민교육이 선결문제라는 사회적 풍조에 따라 진주에서 몇 동지와 합세하여 유치원과 보통학교 설립을 발기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당시 천시하는 백정계급에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표자인 강상호(姜相鎬)를 만나 그 취지를 말하였더

니 일언지하에 쾌락을 받았다 한다. … 그 다음 해 3월에 전라북도 정읍에 본거를 둔 보천교 본부에서 교도확대 축하회가 있었는데, 그 식에 참석하는 지방 대표에 대하여는 선전비로 대금을 급여한다는 진주지구의 신도대표 조우제(趙祐濟)의 말을 듣고 그 대금을 받아다가 교사 건축자금에 충당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진주지구의 신도대표라는 명목을 띠고 신현수(申鉉壽), 강상호(姜相鎬), 조우제(趙佑濟) 32명이 정읍에 출장하였다. … 신.강 두 사람은 정읍 출장을 후회하며 진주에 먼저 들어왔는데, … 민족전선의 급선무는 백정계급의 해방이 선결책이라는 결론 하에 그 결사의 명칭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보천교 본부인 정읍까지 갔으나, 결국은 선전비 대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즉 형평사와 보천교간 교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벽』(開闢)에는 이들과 보천교와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 안의 경남 보천교의 두령으로 해교(該敎)의 발전을 위하야 만흔 노력을 하고 잇는 동아일보 지국장 정준교(鄭準敎), 전기자 윤병은(尹炳殷), 오경표(吳景杓), 조선일보 지국장 신현수(申鉉壽), 진양상회주(晉陽商會主) 강대기(姜大冀) 제씨와 개인으로는 심두섭(沈斗燮), 강상호(姜相鎬), 정성호(鄭成鎬), 강대철(姜大喆), 김형권(金亨權), 천석구(千錫九) 제씨 외 수인이 금번 전북 정읍에 在한 보천교 중앙 교실 내 교주 차천자께 알현(謁見)하고 이여 칠성단하(七星壇下)에 기도하고 십 만원을 배수(拜受)하야 귀진(歸晉) 후(后) 진정원(眞正院)을 건축할 예정으로 재작(再昨) 15일 진주를 떠나 정읍으로 향하다.

이상 두 가지 자료에 언급된 조우제를 비롯한 정준교, 윤병은, 오경표, 신현수, 강대익, 심두섭, 강상호, 정성호, 천석구 등 형평사의 주요 인물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당대 진주지역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이 가운데 진주 유지인 정준교는 심두섭과 함께 1919년 3.1 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아일보 진주지국장(1922.1~1923.10)을 지낸 언론인이었다. 그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만큼 당시 전개되던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조우제는 경남 진주출신으로, 동아일보 진주지국 기자였으며, 청년운동, 노동운동, 사상운동, 신간회 등 모든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윤병은은 동아일보, 조선민보 진주지국 기자의 신분을 가진 보천교 신자였다.

오경표 역시 동아일보 진주지국 기자였으며, 진주유치원 학부형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진주청년회관 내에 설치된 소년원의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 진주에서 형평운동을 주도한 천석구는 진주 사람으로 종이와 장판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가계를 경영하면서, 형평사 창립에 참여할 즈음에는 진주금주단연회, 진주저축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가였으며, 1923년 5월 6일 강대창(姜大昌).심두섭(沈斗燮).정성호(鄭成鎬) 등과 함께 '보천교소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표5〉보천교 본소를 방문한 진주지역 사회운동가

이름	직업	활동 내용과 분야	성향	비고
조우제	(동)진주지국장	진주청년회원/노동공제회원/형평사 간부/ 사상단체 '동우회'결성/신간지회 간사/진주농민조합/진주소비조합 발기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정준교	(동)진주지국장	전조선청년당대회 참석		
윤병은	(동)진주지국과 조선민보기자			보천교도
오경표	(동)진주지국기자	진주유치원 학부형회/소년원 강사/재무		보천교도
신현수	(동)진주지국기자 (조)진주지국장	진주형평사 창립축하, 운동비용 기부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심두섭		3.1만세시위 참가/진주청년회원/보천교소년회 부회장	민족주의자	보천교도
강상호	(동)진주지국장	형평사 발기/북성회강연단 후원회 사교위원		
정성호		진주청년회원/보천교소년회 총무		보천교도
천석구		보천교소년회 조직/금주단연회/진주저축계		보천교도
강대창	(동)진주지국장 진양상회	진주형평사 창립축사/보천교진정원평의원/ 신간지회간사/동우사조직/진주소비 조합발기위원과 취지정관 기초위원/보천교소년회 회장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1923년8 월경탈퇴)

*(동)은 동아일보, (조)는 조선민보

신현수는 정준교, 강대창 등과 함께 1924년 10월 23일 신사상 연구와 무산계급의 지식계발을 목적으로 한 사상단체 '동우회'(同友會)를 조직하였다. 강상호와 함께 형평

사 본사 이전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향 각처를 다니면서 두 세력이 합치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현수는 인권운동으로 시작된 형평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그는 형평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강상호는 형평사를 조직한 인물이었으며, 초대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을 지냈다. 북성회 강연단이 진주에 왔을 때는 강연단 후원회의 사교위원을 맡았다.

정성호는 심두섭.강대익.조우제 등과 함께 진주청년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강대창이란 이명을 쓰는 강대익은 보천교인으로 한때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을 지낸 언론인이었으며, 1923년 6월 24일 진주 보천교 진정원 청년회 임시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1923년 8월경 보천교 진정원을 탈퇴하였다.

1928년 1월 12일에 개최된 신간회 제1회 총무 간사회에서는 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문의하도록 '민중문의소'(民衆問議所)를 설치하였는데, 이 때, 인사계를 담당하였다. 2월 11일에는 진주기자단 임시총회에서 의사진행을 주재했고, 이 때, 2월 4~5일 부산에 있었던 경남기자대회 상황과 결의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살펴 본 진주지역 사회운동가들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주지역 기자로 활동했던 언론인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인텔리이자 보천교도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23년 5월 6일에 조직된 보천교소년회 간부들이었다. 회장은 강대창(姜大昌)이었으며, 부회장과 학습부장은 심두섭(沈斗燮)이었다. 이밖에도 총무와 위열부장(慰悅部長) 정성호(鄭成鎬), 재무와 오락부장 오경표(吳景杓), 의사(議事)에 천석구(千錫九)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보아 형평운동 초기까지는 형평사 간부들의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형평사의 인적구성은 보천교와의 연대관계를 추진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천교의 선전비 대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사 건축자금에 소용될 정도였다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음과 같은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통해서 형평사와 보천교 양자간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진 압박을 받아오던 전조선

삼사십만의 소위 백정계급은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부르짖음으로 사회평등의 일대 운동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으켰음은 당시 본보에 보도한 바이어니와 이래에 그 운동은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형평사를 조직하고 전조선의 같은 계급을 망라하여 조직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려고 우선 선전문 수 만장을 인쇄하여 각처에 배부하여 일치단결을 부르짖고 각지의 대표자를 모아서 지난 13일 진주좌(晉州座)에서 형평사 창립총회 축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각 지방의 백정 대표자 백여 명과 기타 회원 오 백 여명이 모여서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북성회(北星會), 평문사(平文社), 점진사(漸進社), 적기사(赤旗社) 등에서 축전이 왔고, 내빈 측으로 노동공제회, 보천교 등의 축사가 있었다. 끝으로 상설회관과 자녀 교육문제에 협의가 있었다.

이날 형평사 창립축하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운동비용을 기부한 사람은 보천교 신자였던 진주사람 조우제였다. 이와 같이 형평사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정읍으로 왔던 핵심멤버들과 창립축하식에서 축사를 했던 이들은 모두 경남 진주 사람들로 일부는 보천교 신자였으며, 일부는 진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진주지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들이 보천교 신자가 되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초는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 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에 등장한 보천교의 '천자등극설'(天子登極說)은 보천교가 독립을 염원하며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민족종교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형평운동 초기 보천교와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극 추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천교 신자들이 특히 경남에 많았다고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의 3남인 차봉남(車鳳南)에 의하면, 창립 당시 전라남도에 신자가 많았으나, 신자가 늘면서 이후에는 주로 경상도에 신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1936년에 발간된 『정읍군지』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 근래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각종 종교의 파당(派黨)과 문호(門戶)가 파다(頗多)하지만은 본(本) 군(郡)처럼 다문(多門), 다파(多波)의 종교는 별무(別無)할 것이다. 내지인측은 주로 불교를 신앙하고 조선인측은 기독교를 신앙한다. 그러나 보천교(普天敎), 무극교(無極道), 증산교(甑山敎) 등 종교유사단체의 본부가 본(本) 군(郡)에 유(有)한 만큼 한 가지 결함이라면 결함이오 자랑이라면 자랑

인가? 각위(各位)의 판단에 미루어두고 보천교도가 제1위(第一位)를 점하엿스니 교도 중 본군 출생자는 희소(稀少)하고, 그 대개는 타도군(他道郡)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인대 그 중에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의 인(人)이 최다(最多)하고 기차(其次)는 기독교 분파인 천주공교(天主公敎)의 신도가 상당히 다수를 득(得)하엿스니 ……

형평사 창립축하식에 참석했던 보천교도 조우제는 비백정 출신 간부인 신현수와 함께 본사를 경성 또는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할 만큼 형평사 내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형평운동 초기 양자간 어느 한쪽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두 단체와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다.

증산은 백정과 같이 빈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내 사람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증산의 일대기를 그린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빈궁한 자들을 천하게 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법언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법언에 나오는 이러한 사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때는 해원시대라.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길운이 돌아오느니라.

양반을 찾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오려내는 것 같아서 망하는 기운이 이르나니, 그러므로 양반의 기습을 속히 빼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속히 좋은 시대가 이르니라.

부귀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노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부귀한 자는 자족하여 그 명리를 증대하기에 몰두하여 딴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덕립을 하루바삐 기다리며 운수조일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치 말며 남의 보배를 탐내지 말며 남과 서로 싸우지 말며 도한(屠漢)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

즉 형평사에서는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측면 외에 도한을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증산의 가르침과 사상에 공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간적.공간적 차이가 있으나 1925년 4월 형평사전조선대회에서 토의될 사항 중의 하나가 종교에 관한 문제였다는 점과 1928년 1월 7일 강원도 원주형평사 정기총회에서 형평운동의 본질과 위배되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를 단절키로 한다는 결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산교의 후신인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주지역 사회단체에서 형평사와 보천교의 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사건이 있었다. 형평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주노동공제회를 비롯한 진주청년회와 천도교청년회, 기독교청년회, 천주교청년회, 불교청년회가 연합하여 보천교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3일간 공격연설을 하고 반대선전문을 각 처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공제회에서는 형평사를 공격한 농민들의 배후에 지주들과 보천교 세력이 있다고 보았다. 즉 지주들은 소작운동을 주도하는 진주노동공제회의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진주노동공제회 간부들이 형평사를 지지하는 대가로 5천 여 원을 받았고, 형평사 발기인들 몇 사람도 돈을 받았다."고 뜬소문을 퍼뜨려 농민들을 선동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보천교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은 보천교 신자인 『조선민보』 진주지국 기자 윤병은(尹炳殷)이 이러한 사실무근의 기사를 기재함으로써 공제회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천교와 사회단체의 유대관계가 멀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3년 6월 7일 진주 노동공제회에서는 임원 보결선거를 조우제의 사회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보천교와 형평사간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사회운동계에서는 세간에서 자주 회자되는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형평운동에서 보천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술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보천교와의 연대가 실패로 돌아갔으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조직이 형평운동 초기 연대를 구상했을 것이라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 양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없는 만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평사는 1920년대 전반까지 전개된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1920년대 초는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상해임시정부가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면서부터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이 세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보천교에서는 교도인 조우제를 통해 형평사 창립 축하식에 축사와 함께 운동비용을 기부함으로써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셋째, 진주지역 사회운동 핵심인물 가운데 보천교 신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2명의 사회운동가들이 대거 정읍을 방문했다고 하나, 일간지에 보도된 인사는 조우제를 비롯한 정준교, 윤병은, 신현수, 강대창, 심두섭, 강상호, 정성호, 천석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조우제, 천석구, 강대창, 심두섭, 정성호는 보천교 신자들이었다.

넷째, 백정들은 "도한과 무당을 천하게 대하지 말라."는 증산의 사상과 가르침에 공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1925년 4월 형평사전조선대회에서 종교문제가 토의되고, 1928년 1월 7일 강원도 원주형평사 정기총회에서는 형평운동의 본질과 위배되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를 단절키로 한다는 결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정황 외에도 보천교를 신봉하는 상당수의 인사들이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신문기자 출신들이었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인텔리였다는 점에서 형평사의 핵심멤버들의 보천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적구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연대관계를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록]

비 아세아국 제3과 관기고수(關機高授) 제32743호
대정 13년 11월 26일 관동청 경무국
임시보 제440호 철입명 동경치(東敬治)?

김좌진 군자금을 얻다

근년에 김좌진은 자금부족으로 부하를 해산하고 오로지 활동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나, 금년 봄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되어 지난 10월 초순 교주 대표 모(某)가 영고탑에 와서 금 2만 여 원의 군자금을 줌으로써, 이 돈으로써 구 부하를 소집하고 삼분구(三盆口)에 근거를 두고 포교와 무장대의 편성을 계획하고 동지를 거느리고 동녕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최진동의 동현 지나 관리 때문에(?) 체포되었기에 두려움을 품고 영고탑에 돌아와 연락자를 구하여 동현 지사의 매수운동을 하고 있다고 함.

김은 종래 독립단의 두목으로서 상당한 인망이 있으므로 그들이 상당의 군자금을 준비하고 부하를 초집하고 있어 다수의 참가자가 있겠으므로 보천교의 배경으로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들의 장래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發送先(발송처)
아세아국장 척식사무국장
조선경무국장
평안북도지사
길림, 하얼빈 각 총영사
하얼빈, 북경상해각내무사무관

식민지 근대도시 신태인 화호리의 근대문화유산 지구

【생각해 보기】----------

1.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인 군산과 옥구를 비롯한 김제·신태인·고창·부안지역을 포함한 일대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숙구지(宿九地)를 풍수가 아닌 음운론으로 풀이해 봅시다.

'화호(禾湖)'는 '숙구지'라는 지명으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현 지명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구지는 '곶[串]'을 의미한다. 화호에는 가까운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고, 현재 동진면에도 '구지'라는 지명이 많은 것은 육지가 바다로 향해 돌출한 곳을 '구지'라 했기 때문이다. 화호의 지형이 그렇다.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가 제작한 '개략토양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화호리는 현재 용서·용교·포룡·정자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자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 전체를 1914년 이전에는 '숙구지'로 불렀다. '화호리(용북면/『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는 일제에 의해 붙여진 지명으로 원래는 조선시대 태인현 용산면 화곶리[禾串里/『호구총수』(1789)]였다.

풍수상 '조리형국'으로 타성받이가 성공한다는 설이 있다. 숙구지도 풍수상 풀이한 것이다. 숙구지는 실제로 수곶[禾串]이 '수고지', '수구지'로, '수구지'가 '숙구지'로 변한 것이다. 『훈몽자회』에 벼 '화'의 고어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숙구지라는 지명에 풍수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감정을 자연에 투영시킨 것이다. 학이 알을 품고 있다는 '학알뫼'는 현 인상고등학교 자리이다.

숙구지는 9구지 중의 하나로 주민들은 구마모토 창고 자리가 고부 두승산에서 보면 '개가 잠자고 있는 형상'이라고 풀이한다. 9구지는 배양구지·돌구지·역구지·흙구지·서구지·미륵구지·거멍구지·진구지·숙구지로 전하며 안에 피난터가 있다고 하나 입으로만 전할 뿐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화호리는 구마모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독부에 파출소 설치를 건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면 2개 지서가 되었다. 파출소 운영비는 구마모토가 부담하였다. 1928년에는 신간회 정읍지회와 함께 화호지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1구역 2지회가 되었다. 근대학교로 고부 광화학교(1906)와 태인 인명학교(1907), 정읍 초남학교(1908)에 이어 화호공립보통학교가 설립(1917/남332명/여89명)되었다.

1920년대 각종 사상단체와 연결된 노동단체와 노동운동이 활발하여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하였다.

[화호리 근대문화유산 최종 보고회 자문 내용]-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무엇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 3년이든, 5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근대건축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목포의 동척회사지점을 시민단체들이 매입해서 근대역사관 2관(1관은 목포일본영사관)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구마모토 쌀 창고를 역사박물관으로, 그리고 사택을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근대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4대 문화권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추가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 다만,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해본다면 앞의 분석내용(주로 3,4번)을 비롯한 고부 수리조합(1919)과 동진수리조합(1925), 고부금융조합, 운암제(1927), 운암발전소(1929)와 칠보발전소(1931), 그리고 수탈의 현장만이 아닌 민족운동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1925년 4월 태인노농회가 경성노농총연맹과 제휴하여 전개한 소작권이동반대 운동, 같은 해 10월 화호노농친목회가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소작동우회와 제휴하여 전개한 소작료인하 운동, 영원면에 백봉 나용균 생가,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흑암동 영주정사, 보천교의 민족운동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당산제는 2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집은 현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있었던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 영정은 어진화가 채용신이 그린 것이다. 타종교 신자의 방화로 소실되었으나 축문은 현재 온전히 보존되고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활용하면 연구소의 제안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용신은 1923년 신태인 육리에서 '채석강도화소'라는 공방을 운영한 고종 때의 어진화가이다. 채용신은 마을사람들에게는 벼슬이름을 딴 '채정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용신은 사진을 접목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화가로 한국회화사에 의의가 큰 분이다.

육리를 중심으로 '채용신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관광자원화시킨다면 먹거리를 위해 임금께 진상되었다고 하는 숙구지감자(지금의 '고구마')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9구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풍수지도'와 '마을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구마모토 창고가 개가 웅크리고 있는 지점으로 확인될 것이다. 덧붙여 근대문화유적지 답사코스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구마모토 농장 창고 건물과 웅본이평(熊本利平)

구마모토는 3천 정보가 넘는 토지를 소유한, 전북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다음으로 땅을 많이 가진 일본인이다. 그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화호였으며, 소유지는 5개군(정읍, 김제, 옥구, 익산, 부안) 26개면에 걸쳐 있었다. '기업가적 지주', '비료대적 지주', '전북형 지주'로 불리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 '자선적 신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일인 지주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소작쟁의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구마모토 농장의 사업장이 많았음에도 유독 화호지장에서 대규모 소작쟁의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는 신태인 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각종 사상단체와 연결된 농민운동, 노동운동 단체가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태인에는 1923년과 1924년에 조선소작인상조회 3군지회와 신태인노동조합이 활동하였고, 1925년에는 부흥단, 1927년에는 구매조합이 각각 창립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공산당과도 연계를 가진 신태인청년회와 화호농맹위원회가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주도로 신간회 화호지회가 설치되었다. 신간회 화호지회 조사연구부장인 김영선(金永先)은 화호지장 소작쟁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 다우에타로 농장(田植太郎)

화호리 일대에 225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벼 7천석의 수확을 올린 대농장주로 5백 명의 소작인을 거느린 일본인이다. 그는 대정2년(1913) 30세 되던 해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모집한 이민을 통해 조선으로 왔다. 소농으로 시작해서 대농장주로 올라서기까지 그는 농장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마모토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 있으면서 사음을 통해 소작인들을 관리했던 것과는 달리, 다우에는 화호에 거주하면서 농장주가 되었다. 또 식산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조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고리대업으로 화호에서 농토를 늘렸다. 그 때문인지 한국 소작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 자혜진료소와 화호중앙병원

화호자혜진료소는 구마모토 농장 소작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워진 곳이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의 이영춘 박사가 1935년 4월 개정의 자혜진료소에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농장의 소작인 지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소가 분산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순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1939년 농장주의 승인을 얻어 화호진료소에는 김상은 의사, 지경은 정인희 의사가 담당하였다. 화호자혜진료소는 원래 ㄱ자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ㅡ자 집이 되었다.

1947년 화호자혜진료소 건물이 협소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농장창고를 개축하여 병원 건물로 만들었다. 화호중앙병원은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5과를 갖추었고 입원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으로 거듭났다. 당시 병원시설이나 규모 및 의료진에서 전주의 예수병원과 버금가던 병원이었다. 큰 병원이 마을 안에 있어서 자랑스러웠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화호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후에는 잠시 화호여자고등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

■ 심상고등소학교

해방 후 화호여자중학교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학교 내에 신사와 봉안전이 있었다. 봉안전에는 천왕의 사진을 보관하던 부분에 학교 교훈을 새기고 학교의 상징탑으로 삼았다. 심상소학교는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졸업할 수 없다"라는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고등소학교는 신태인에는 없었고 화호에만 있었다.

[부록]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 보전과 활용방안

김재영/정읍신문(2015.8.20.)

화호리 일대에는 구마모토[熊本利平] 창고 건물과 일본인 경리과장 및 농산과장 사택, 일본인과 조선 농민의 합숙소, 일본인심상고등소학교, 조선인공립보통학교 건물, 해방 이후 우체국으로 이용되었던 다우에 농장 사무실, 동양척식회사 사무실과 양말공장 등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이 마을 전체에 남아 있다. 이를 관광자원화 할 경우, 그 파급효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다만 콘텐츠는 많은데 너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야 할지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1만 8,000㎡)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송상현(宋象賢) 광장'을 개장하였다. 1994년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1,850억 원을 들여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근대 건축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목포의 동척회사 지점을 시민단체들이 매입해서 근대역사관 2관(1관은 목포 일본영사관)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화호리 일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보다 보전을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우에농장 사무실은 건물주가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건축물 일부를 헐다가 중단한 상태로 현재 붕괴 직전에 있다. 진즉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그것도 문화재는 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헐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지금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에 허물어져가는 건물 안쪽에 들어가는 담력시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고 금년 장마가 시작되면 건물이 온전할까 염려된다. 반면에 자손들이 특별히 필요없는 일제건축물을 팔아버리라고 해도 고집스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동척회사 사무실과 날로 훼손되어가는 경리과장 사택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씌우고 보호하고 있는 용서(龍瑞)마을 이장같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농장 사무실은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이긴 하나 보존가치가 일대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농장 사무실 일대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팔았던 가게와 대장간 건문방구를 팔았던 건물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마을의 중심인 당산나무 아래에는 구마모토 창고 건물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구마모토가 총독부에 건의해 설치했다고 하는 화호지서 자리와 사무실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으나, 용역을 맡았던 전북대학교 함한희 교수의 말처럼 화호리는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 수탈의 현장인 화호리 일대의 보존 가치 타당성 조사는 이미 200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현지 이장과 읍장이 동행한 가운데 함한희 교수는 문화재 복원과 지정, 국가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략적이나마 타당성 조사가 끝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도 큰 틀에서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사업추진의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빨리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옛것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근대식민도시로 형성된 목포와 군산 등지의 성공적인 사례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사진을 접목한 최초 근대 초상화가, 채용신(蔡龍臣)

채용신(蔡龍臣/1850~1941)은 서울 삼청동에서 권영(權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10대조부터 전주 근방에 거주하였다. 어릴 적 이름은 동근(東根)이었고 호는 석지(石芝)로 불렀다. 석강(石江)은 고종이 내린 호로 그에게 석(石)의 견고함과 강(江)의 깊은 것을 은밀히 기대한 것이다. 대대로 무관 집안의 자손인 그 역시 1886년 무과에 급제한 후 20년 간 관직에 몸담았다. 무과 급제 후에는 용신과라는 무과 명칭을 따 호를 용신(龍臣)으로 불렀고 그의 마지막 관직이 정산군수(현 청양군)였기에 정산(定山)으로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채용신은 아들 상묵(3남), 손자 규영에 이르는 3대가 동시에 초상화가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장남 경묵과 막내아들 관묵도 그림을 잘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 미술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미술사로 평가되는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본래 화원출신의 화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봉직한 화원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전통화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회화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전통과 혁신, 봉건왕조 체제 속에서의 회화와 서양의 새로운 회화기법을 수용하고, 이를 전통회화 속에 적용시키는 일이 어느 누구보다도 손 쉬었을 것이다.

그가 활동했던 조선조 말은 외국 회화와의 교섭과 수용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는 근대정신의 반영, 민초들의 미의식, 생활 속에 투영된 대중적 미감 등을 보여주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작가이며 한국의 전통회화의 맥을 잇는 가운데 혁신을 일구어낸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채용신은 초상화의 대가로서 일찍이 도화서 화원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과 함께 어진 모사 작업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름나 있었다. 초상화뿐만 아니라 화조와 인물, 산수 모든 영역에서 작품을 남기고 있음을 볼 때 그는 역량이 뛰어난 화가였음에 분명하다.

채용신은 사승관계가 알려진 바가 없어 아마 독학으로 화업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871년 대원군 이하응의 초상을 그린 이후부터

라고 알려져 있다. 50세가 되던 1900년에는 고종의 어진화가가 되어 고종의 초상화를 제작했고 이로 인해 1904년 충남 정산군수로 임명되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백납병' 2폭을 들 수 있다. 백납병은 원형, 방형, 선형 등 갖가지 모양의 작은 화면형식에 화훼, 괴석, 화조, 어해, 영모, 산수, 인물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그림들을 그리거나 붙여 병풍으로 만든 것이다. 백납병에 동원된 그림은 대작이 아니므로 화가는 비교적 편안하게 자신의 장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채용신은 무엇보다도 초상화의 진의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작가였다. 대상에 대한 진솔한 묘사는 사진을 기반으로 하되 사진이 담아내지 못한 '인격성' 즉 이상적인 면모를 작가의 손을 통해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영정을 대신하여 그의 화업이 사양화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사진의 혜택을 입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조선의 무관이었으며 동시에 어진화가였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작품 수주를 위한 광고문을 게재하였다. 전통에서 근대로 이동하는 사회에서 본업을 화가로 삼은 그의 치열한 의식, 이른바 근대성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의 초상작품은 최익현, 황현을 비롯하여 다수의 진영들이 박물관에 소장되고,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 평가됨에 따라 근대 초상화의 대가로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 초상화는 '털 한오라기라도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혹은 '정신이 그림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의 전신사조(傳神寫照)'로 설명되어 왔다. 초상화를 통해 현존하지 않은 인물의 외형과 성격, 인품까지 추론하는 현재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지식에 기반한다.

그가 남긴 작품은 초상화만 70점이 넘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조와 고종어진, 최익현, 전우, 김석곤, 박만환, 김관, 김직술 초상이 있으며 이외에 운낭자상, 칠광도, 송정십현도, 투수순절도, 삼국지연의 등이 있다. 칠광도는 광해군대의 정치적 상황을 피하여 미친 척하며 낙향하며 지낸 일곱 인물을 엄청나게 큰 자연 속에서 작은 인물들이 흐드러진 꽃 속에 호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거침없는 몸짓이며 갓을 쓰거나 유복을 입거나 상투를 드러낸 모습은 채용신이 이들 인물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정십현도는 관념적으로 선비들의 모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뜻을 함께 하였던 인물을 묘사한 집단 초상화다. 송정십현도는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과 곱게 묶은 책들, 푸짐한 주안상 등이 이 실하고도 정감 넘치는 모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최익현의 초상을 그리게 된 것은 1904년 그가 정산군수에 부임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항일지사 면암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회화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는 그리고자 하는 항일지사나 우국지사의 외모나 정신까지를 나타내는데 한계를 느꼈다. 살신성인의 실천자인 그들의 살아 움직이는 정신까지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기법과 서양화법을 적절히 연결시킨 그만의 새로운 필법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된 것이다.

이밖에 사후에 사진을 보고 그린 황현 초상이 있다. 만년에 초상화를 그릴 때는 이같이 사진을 이용해 그린 것이 다수였다. 노년에는 신태인 육리에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畵所/1923년)라는 일종의 공방을 열고 사진을 보내면 초상화를 그려주는 주문제작을 받기도 하였다. 아들 상묵은 종로에서 우미관이라는 사진관을 경영하였고, 부인 이홍경은 부인전문사진관을 운영하였다. 주문자가 4~5인이면 출사 경비를 화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917년(68세) 그는 총독부 안내로 뜻하지 않은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일본에 가게 된 동기는 당시 일본에 고종의 어진이 한 폭 있었는데 이 초상의 작가가 채용신임을 알고 그를 초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용신은 여기서 노기대장, 오쿠마 백작, 고토 같은 식민지 원흉 인물들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더불어 일본 체류 시 45명의 일본인 초상화를 제작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고객 차원에서 제작했다는 의미이지만 이를 작가 정신의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구마모토농장에서의 소작쟁의

1927년 4월 신태인 화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촌에서 소작쟁의가 있었고, 역시 화호에 있었던 웅본농장에서도 1930년대에 소작쟁의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당시 웅본농장의 소유지는 5개군(정읍, 김제, 옥구, 익산, 부안군) 26개면에 걸쳐 있었다. 소유지 대부분이 1930년경부터 수리조합 사업에 수반한 구획정리를 통해 고생산

력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개정본장, 지경지장, 대야지장, 화호지장 등 1본장 3지장은 군산항으로의 철도교통의 요지에 소재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쌀 이출의 거점이기도 했다. 웅본은 토지소유 전국 7위에 전라북도에서는 동척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웅본농장은 일제강점기 농업 경영의 선진성과 수탈성이 가장 강했다. 주변 일본인 농장 중에서 소작료가 가장 높았다. 1935년 일본인 신문 [군산일보]조차 '다작하여 다취하는 주의'이지만 '다취가 심하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며, 1937년 전라북도의 현직 일본인 소작관조차 '지주 본위의 시책'이라고 비난할 만큼 수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관변 측 자료에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을 재계의 용사, 견인불발, 학식, 체험, 담력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산 목표치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농사도 짓기 전에 소작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소작료부터 올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보 당 수확고가 이미 4~4.5석에 달하여 추가적인 증산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15~20%를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소작료를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작관은 1934년 소작계약 갱신 때 화호지장에서 25% 증수 목표를 세우고 소작료도 올렸으나 그에 미달하여 그해 가을 소작료 인하 및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며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화호지장 쟁의는 1937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웅본농장의 사업장이 많았음에도 유독 화호지장에서 대규모 소작쟁의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는 신태인 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각종 사상단체와 연결된 농민운동, 노동운동 단체가 활동해 온 때문이다. 예컨대 신태인에는 1923년과 1924년에 조선소작인상조회 3군지회와 신태인노동조합이 활동하였고, 1925년에는 부흥단, 1927년에는 구매조합이 각각 창립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공산당과도 연계를 가진 신태인청년회와 화호농맹위원회가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주도로 신간회 화호지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1927년 10월에 신간회 화호지회 조사연구부장이 된 김영선(金永先)은 화호지장 소작쟁의를 주도한 인물의 하나였다.

1933년에는 개정본장 구역인 옥구군 옥산면의 소작인 200명이 소작료 인상에 항의하여 쟁의를 일으켰다. 소작인에 대한 대우는 우마보다도 못해서 농장 지휘에 조금이라도 불응하거나 성적이 다소 불량하면 구타 욕설이 다반사였다.

1934년 11월 30일 웅본은 20~30%의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소작인들이 납입고지서를 농장 측에 반송하고,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상 부분 불납을 결의하였다. 당시 소작인들의 요구는 대부분 경제적 생활투쟁에 있었으며, 반드시 식

민지 권력에 반대하는 항일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주측은 그들의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함으로써 결국 소작료 인상을 관철시켰다.

한편, 산외면에서는 1928년 4월 합법농조가 조직되었다. 산외면 지역의 활동가들이 사상단체인 '신명회'를 해소하고 산외농조(위원장 고용주, 서무.선전조직.교양.재무.쟁의.공제.상무)를 결성한 것이다. 중심인물은 고용주(高庸柱).정헌교(鄭憲喬/全農).은성천(殷成天).송수격(宋洙格) 등이었다. 이들은 창립과 동시에 "농민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 "의식적 교양 및 훈련", "공고한 조직의 완성" 등의 강령을 채택하고, 농총에의 가입을 정식으로 결의하였다. 산외농조는 1929년 3월 농조사무실 및 간부들의 가택 수색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읍군 용북면 신태인리에도 소작쟁의 과정에서 농조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0년 9월 빈영환(賓永煥) 등 중심인물이 검거되면서 유야무야된 듯하다. 이평면에서도 신태인 농조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른바 '이평농조사건'으로 김용원(金容轅) 등이 검거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다. 이평농조는 1926년 3월경에 창립된 '이평노친회'의 후계조직이었다. 이평노친회는 1926년 10월경 '이평농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또다시 농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조의 중심인물은 김용원.이재구(李在九).윤동진(尹東振) 등이었다. 조선일보 신태인지국장이었던 김용원은 이평농조의 중심인물임과 동시에 이른바 정읍군 내 '적색농민조합사건'의 중심인물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읍지역에는 3개 지역에서 농총 산하의 농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단위의 통일적인 농민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비록, 군단위의 통일된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했으나 정읍지역의 농조운동은 전북의 여타 군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다.

1931년 11월 초 정읍.이평.산외.감곡.정토.용북 지역의 활동가 30여 명은 '독서회 및 적농 조직혐의'로 대거 검거되었으며, 이로써 정읍지역의 합법 농조운동은 궤멸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의 발굴

【생각해 보기】----------

1. 우리지역에 '종교박물관'이 세워져야 할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조선왕조실록 피란과 보존을 테마로 한 '도시 브랜드화' 작업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전국에는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으면서도 문화재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도 있으며 사랑을 받는 곳이 있다. '직지심경(直指心體要節)'이 간행된 청주에서는 단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가지고서도 '고인쇄박물관'을 지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읍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지방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여기에 더해 우리가 알리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문화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경제적 논리에 종속하는 위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우리도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정읍을 대표하는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정읍사문화제전이 매년 열리고 있고, 동학의 경우 기념관이 들어선 만큼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

정읍의 역사와 유래

정읍은 삼한시대 마한의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백제 때 정촌현으로 불렀으나,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정읍현으로 개칭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행해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순수 우리말 지명이 중국식 한자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정읍현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기 때문에 이웃 태산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고부군에 속하였다가 후에 감무(監務)를 두고 읍지를 정읍 장명리로 이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초산현으로 개칭하였고, 선조 22년에는 현감으로 이순신

장군이 부임하였다.

최초의 지명자료인『호구총수』에는 고부에 면19, 리241, 태인은 면17, 리160, 정읍은 면8, 리151로 기록되어 있어, 정읍이 당시 인근에서는 가장 작은 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32년(1895)에는 전주부 고부군으로 되었고, 1914년(대정 3년 3월) 행정구역 개편 때 고부군 18개면 중 15개 면과 태인군 일대를 병합하여 정읍군이라 하였다. 1930년 1월 1일 정읍면을 정주면이라 개칭하였다가 1931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하면서 정주읍이라 하였다.

1981년 7월 1일자로 남원읍과 함께 정주읍이 시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시의 구역 확장에 따라 내장면과 북면(구룡/하북/영파), 소성면(흑암/용계/공평), 덕천면(망제리) 일부를 편입하였다.

유래는 정촌현의 현지가 현 정읍시 과교동의 정해 마을에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정촌, 정읍이라 하였다. 정촌은 '샘마을'의 한자표기이며 샘바다 마을 앞에는 큰 마을샘으로 부르는 물터가 있어 지금도 연중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 정해라는 마을 이름은 이와 같이 수질이 좋고 물이 많아 샘을 파기가 용이하여 아무 곳에서나 우물을 팔 수 있다는데서 나온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정읍을 본관으로 하는 '정(井)'씨 성이 한때 있었다는 점이다.『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그 기록이 남아 전하고 있으나 현재는 소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 태인에는 희성인 '종(宗)'氏와 '엽(葉)'씨도 한때 있었다.

정읍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정읍은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고장'이자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또 향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고현동향약'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호남성리학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는 일재(一齋) 이항(李恒)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백정기(白貞基) 의사를 배출한 지역이다. 임진왜란 당시 죽음으로써 성을 지켰던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 바로 고부(지금의 덕천) 출신이고,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은봉암(은적암)과 용굴암으로 피란시켜 후대에 역사를 고스란히 물려준 이가 바로 태인(지금의 칠보) 출신의 안의와 손홍록 선생이다. 근세

서예계의 여류작가 몽연(夢蓮) 김진민(金鎭民) 역시 태인 출신이다. 또한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라 할 만큼 해방 이후 농악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 바로 우리 고장이다. 한편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이자 증산교(甑山敎)와 보천교(普天敎), 미륵불교(彌勒佛敎)와 같은 신종교가 발생·수용된 지역으로 종교적 상징성과 장소성이 강한 지역이다.

이러한 상징성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정읍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시작이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을사늑약 당시 태인의병은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 뒤 신돌석(申乭石)이 활빈당(活貧黨) 활동을 하던 농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참가자 수와 의연금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정읍노동공제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작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백정들의 신분차별 철폐를 위해 조직된 정읍 형평분사(衡平分社)는 전북에서 네 번째로 창립되었다. 신간회(新幹會) 정읍지회는 함경북도 나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직되었다. 소년운동의 경우, 소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인 1920년대 정읍과 태인, 산외에 소년단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보천교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을 자금을 조달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보천교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대적 흐름에 민감했으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특기할만한 사실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것은 운동 초기에는 선각적 진보적 지식인들이 정읍의 사회운동을 주도했으나, 이들이 변질되면서 이후에 운동을 주도할 만한 내재적인 역량을 갖춘 후속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1937년에는 남차랑(南次郎) 조선 총독 주재하의 31본산 주지회의가 있을 때 총독을 향해 일갈했던 스님이 바로 태인 출신의 만공(滿空)이다. 이때 다른 주지들이 한결같이 총독의 비위에 맞는 아첨의 말만을 할 때 만공은 조선불교의 진흥책은 총독부의 불간섭이 가장 상책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 소식을 듣고 만공의 가까운 연하도반인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이 선학원(禪學院)을 찾아가 만공을 극구 칭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읍의 역사적 상징성 가운데 필자는 조선왕조실록 보존지로서의 상징성과

종교적 상징성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태인 출신의 두 유생들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 실록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존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증산교를 비롯한 각종 신종교가 발생·수용 확산된 지역으로 종교적 상징성과 장소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종교도 문화의 일부이다. 정읍은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천주교우들의 은신처였으며, 1894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인 형평운동(衡平運動)이 전개된 지역이다. 이 운동에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인 최중진이 참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읍이 갖고 있는 종교적 상징성 외에 '인권운동의 성지'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관광자원화 방안

하드웨어 부분(문화재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관광상품화추진위원회' 조직)

현재 시·군 지자체에서 문화재 전문 인력에 대한 대우를 7급과 6급 상당의 직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급이나 5급의 보직을 줌으로써 보직자가 자유롭게 문화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의 경우, 2002년 5월 24일 시 지정 문화재 지정심의를 위한 익산시 '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유적 7곳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익산시는 고고학 및 미술사 등 향토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위촉, 현지조사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10건의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읍은 2000년부터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칭 '관광상품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도 일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은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역사연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피란 유적지 복원

1592년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서울을 장악하는 등 물밀 듯이 밀려오자, 태조 어진 수호를 책임지고 있던 경기전(慶基殿) 참봉(종9품) 오희길

(吳希吉)은 실록 피란 대책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실록을 사고의 마루 밑에 묻으려 했으나, 방어사 곽영(郭嶸)으로부터 경상도 금산현에서 붙잡힌 왜적에게서 성주사고에서 약탈한 실록 2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위급 시 배로 피할 수 있는 '변산'과 깊은 산중인 '내장산'을 후보지로 고민하다 결국 내장산을 피란처로 확정했다. 오희길은 전주사고의 실록과 경기전(慶基殿)에 있는 태조의 어진을 내장산 용굴암(龍窟岩)으로 피란시키기로 결정하고 태인현으로 이항(李恒)의 문인이었던 손홍록을 찾아갔다.

이에 손홍록은 동문수학한 안의와 뜻을 같이 하고 가동 10명과 함께 경기전으로 달려가 어용과 제기 및 실록을 그 해 6월 용굴암으로 피란시켰다. 안의 64세, 손홍록의 나이 56세 때의 일이다. 전주 경기전에서 옮겨진 피란 서적은 60궤짝이었으며, 실록 830책, 고려사 등 538책 등이었다. 현재 철제난간에 의지해야 만 오를 수 있는 용굴암은 피란하기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옮긴 뒤에는 이름 없는 정재인(呈才人/대궐 잔치에 춤과 노래를 하는 사람들로 구한말 몰락한 사당패와 함께 재인패로 발전했음) 100여 명과 무인 김홍무(金弘武), 승려 희묵(熙默) 등이 합세하여 주야로 왕조실록과 어진을 지켰다. 두 유생들이 수직한 내용은 『난중일기』(亂中日記)의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에 잘 나타나 있다.

"실록은 6월 22일 은봉암에, 태조 어진은 7월 1일 용굴암에 각각 피란시켰다. 6월 23일 어진이 용굴암에 있는 관계로 참봉 오희길(吳希吉)과 유인(柳訒)이 비로소 수직했고, 손홍록이 귀가하고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안의가 혼자 수직했다. 안의가 집으로 돌아가고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손홍록이 수직했으며 13일에는 안의와 손홍록이 같이 수직했다. 14일부터는 실록을 비래암으로 옮기고 19일까지 같이 수직했다. 동년 9월 28일 어진을 다시 비래암으로 이안(移安)했다. 다음 해 4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7월 어진과 실록을 충청도 아산으로 이안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은봉암〔隱寂庵〕에 옮겨진 실록은 뒤에 더 깊숙한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겨졌으며, 용굴암으로 이안했던 태조 어진 역시 비래암으로 옮겼다는 기록이다. 은봉암과 비래암은 현재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은봉암은 용굴 아래쪽에 있는 금선폭포 부근의 금선암으로, 비래암은 용굴 오르기 전 오른쪽에 있었던 암자 터로 추측된다. 은봉암은 1920년대에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옮겨진 실록은 370일 동안 내장산에 보존되었다. 그 동안 손, 안이 수직한 일수는 53일, 안의가 혼자 수직한 일수는 174일, 손홍록이 수직한 일수는 143일이었다. 어진 보전의 책임이 있는 참봉(叅奉)들의 경우, 한 사람도 수직하지 않은 날이 무려 151일이나 된다. 이들이 수직한 장소는 은봉암이 아닌 태조 어진을 모신 용굴암이었을 것이다. 당시 어진이 실록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참봉들의 임무가 어용의 보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을 보존하는 일은 안의와 손홍록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두 유생들은 아산으로 실록이 옮겨질 때도 식량과 말을 마련하여 배행(陪行)했다. 아산으로 옮겨진 뒤에는 수복 한춘(漢春)과 함께 태조 어용과 제기 등을 짊어지고 강화도로 옮겼다. 이 때 안의는 불행히도 병에 걸려 고향 태인으로 돌아와 타계하였다. 1597년 9월 실록과 어진은 안주를 거쳐 평안도 안변의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별전으로 옮겨져 왜란이 끝날 때까지 보관되었다. 왜란 이후에는 5대 사고로 정비되었다.

안의는 본관이 탐진(耽津)이고 자는 의숙(宜叔), 호는 물재다. 태인현감 안기(安起)의 현손(玄孫)이고 태인현 동촌면 백천리(현 옹동면 척천리)에서 출생했다. 이일재 문하에서 수업을 했으며 학식이 고명(高明)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분연히 일어나 의곡 300석, 목화 1천근 등을 거두어 선조가 있는 의주 행재소(行在所)에 보냈다.

손홍록은 본관이 밀양(密陽), 자는 경안(景安), 호는 한계(寒溪), 숙로의 아들이다. 태인 고현내면(현 칠보면 시산리)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물재 안의와 더불어 이일재 문하에서 수업을 했다. 그의 부친은 명종 때의 남대(南臺) 한림(翰林)을 지낸 분이며, 모친은 전주 최씨 후신(後臣)의 딸이다. 조부는 덕능참봉(德陵叅奉) 세기(世基)이며, 조모는 도강김씨 윤손(潤孫)의 딸로 상춘곡(賞春曲)의 작가로 유명한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의 외손녀이다. 부인은 영광정씨로 대제학 담(澹)의 딸이며 1남 3녀를 두었다.

농기구 수집과 농경문화전시관 건립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텅 빈 농촌에는 노인들만이 남아 힘든 농사일을 하고 있다. 농기계의 보급으로 과거보다 힘은 덜 들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힘에 부치는 게 농

사다. 젊은이들이 떠난 빈 집은 도시인들이 매입하여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되니 폐가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풍광마저 해치고 있다. 안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벽은 붕괴 직전이다.

그런데도 수장 공간인 처마 밑과 부엌에는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사용했던 생활용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현재 흩어진 농기구나 이러한 용구를 모아도 민속박물관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방치된 물건들은 썩거나 묻히거나 소멸되어 영영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될 것이다.

폐가에는 소의 여물을 써는 작두와 돌확, 써래질할 때 쓰는 농기구, 말 잔등에 매던 마구, 녹 슬은 무쇠 솥 등이 널려 있다(산내면 자연동) 이제 이런 농기구와 과거 생활용품이 수 년 내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들은 버려지고 못 쓰는 물건이 아니다. 한때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생활용구인 만큼 거시적(巨市的)으로 이들 폐가를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신이나 가장 촌스런 문화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전통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문화유산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순창을 비롯해서 고창과 부안 그리고 우리 정읍정도이다.

김제 동진수리박물관에는 김제지역의 농기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일제강점기 화폐를 비롯한 호롱이나 호야등, 망태기, 막사기, 베틀, 다듬이돌, 똥장군, 멧돌, 축음기, 사모관대, 상여, 분청사기, 개다리상 등을 쉽게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구 일부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고 고부에 일부가 수집되어 다소 안심이 된다. 늦었다고만 아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수집된 농기구는 향토사료관을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으나 생활용구를 전시하기에는 비좁은 감이 있다. 새롭게 만들기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수장고라도 일단 설치해야 할 일이다.

풍수지도 제작과 풍수관광

한국의 풍수지리설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 대규모의 토지개발과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보호 문제가 절실한 실천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부 논자들은 풍수지리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논자들은 자연을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본 자연관에 비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 내지 합일을 주장하는 동양의 자연관이야말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정읍지역 풍수관광 지도 작성의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 시루뫼의 강증산 탄생지, 보천교 본소가 있는 입암면 대흥리와 입암산성, 한국자생풍수를 엿볼 수 있는 전봉준과 산외면 평사리,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산외면 오공리의 김동수 가옥, 비보풍수와 남근석 장승을 볼 수 있는 칠보면 원백암 마을 농바위, 반곡리 원반마을의 좌향도(남동쪽), 신정리 정해 마을의 '정' 자형 우물과 삼성산(배 형국) 등은 풍수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이다.

풍수지리에서 지네형의 터를 길지로 여기는 것은 지네의 다리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재화를 많이 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박공머리나 대문에 지네 모양의 철판을 붙였던 것도 같은 이치다. 민간에서는 지네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농사의 풍흉이나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는 존재로도 믿었다. 산외 김동수 가옥 집 뒤의 창하산(蒼霞山/150m)은 그 모양이 지네를 닮았다 하여 인근에서는 '지네산'으로 부른다. 오공리라는 지명도 본디는 지네를 가리키는 오공리였고 마을이름도 공동(蚣洞)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바꾼 것이다. 집주인인 김동수에 따르면 안채의 평면은 본디 어떤 도승이 꾸몄으나 지은 뒤에 살펴본 즉 쓸모가 적어 나머지 건물은 건축주인 김명관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한다. 사랑채나 행랑채 등에는 여러 종류의 새가 둥지를 틀고 살지만 안채에만은 새가 집을 짓지 않으며 가끔 제비가 모여 들었다가도 새끼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것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중이 지었기 때문이란다. 새가 없으므로 뱀이 꾀지 않고 따라서 김씨네는 자손이 귀한 편이다.

전봉준은 의술, 점복, 풍수 등 세 가지에 모두 능했다. 전봉준이 20대 중반 이후 머물렀다는 산외면 동곡 마을부터 살펴본다. 바로 이 마을 옆 동네가 지금실이다. 김개남 장군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전봉준은 딸을 부근으로 시집보낸 바 있고, 자신도 첩을 얻어 한동안 살았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 지금실은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인 '옥녀직금형'으로 알려져 있다. 동곡 가까운 곳에는 평사리가 있다. 평사리에는 '평사낙안'의 명당이 있다는 곳이다. 일설에 따르면 전봉준 장군이 이곳 평사리에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오공리'다.

기록문화학과 설치 및 기록문화전시관 건립(태인의 방각본)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직지심경(白雲和尙抄錄佛祖直旨心體要節)'이다. '직지' 또는 '심요'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백운(白雲)은 호이고 경한(景閑)은 법명이다. 백운화상은 태고(太古) 보우국사(普愚國師), 나옹(懶翁) 혜근화상(惠勤和尙)과 더불어 고려 말기의 3대선걸(三大禪傑)로 손꼽힌다. 직지는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인 1372년(공민왕21)에 저술되었고 1377년(우왕3)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4년에는 직지심경의 이름을 딴 '직지상'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그가 고부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편 조선시대 전라북도에서는 일찍이 1664년에 정읍 태인에서 방각본(坊刻本) 책이 만들어졌다. 방각본은 판매를 목적으로 사가(私家)에서 간행한 책이다. 비방각본은 모두가 사대부들의 필요에 의한 출판이었다. 즉 비방각본이 상류층의 고도한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책인 반면에, 방각본은 서민층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대중적 책들이었다. 비방각본이 정교(正敎)와 구휼(救恤)을 위한 교화적인 것이 주 내용인데 반하여, 방각본은 격몽(擊蒙)을 위한 교육용 기초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비방각본으로는 한 권의 오락용인 도서간행도 없었으나, 방각본으로는 오락적인 책인 한글소설이 40여회나 간행되었다. 서민들의 독서 욕구에 의해서 간행된 방각본은 교육용 책이 32%, 생활 백과류가 20%, 소설이 47%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방각본 한글소설이 4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화기 시대에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이며, 이 계층은 넓은 호남평야를 일구는 경제적 안정을 얻은 농민들이나 상인들이었다.

원류는 서울에서 선조 9년(1576)에 간행한 『교사섭요(巧事攝要)』로 알려져 있다. 이후 손기조(孫基祖)가 1644년 정읍시 태인면에서 목판본인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를 방각본으로 만들어냈고 1676년 전이채(田以采)가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을, 1679년에 전이채(田以采)·박치유(朴致維)가 『사문유취초(事文類聚抄)』를, 1680년과 1686년에 역시 전이채와 박치유가 『대명률시(大明律詩)』, 『농가집성(農家集成)』,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등을 발간했다. 이처럼 태인에서 책이 많이 간행된 이유는 당시 태인의 교육·문화적 환경에 말미암는 것이다.

종교박물관 건립

최근 들어 전라북도 각 시·군 지역에 박물관 건립이 늘고 있다. 박물관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한 마디로 지역의 '정체성'(正體性)이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가 무엇이 다른 가를 말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읍이 '우도농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컨셉을 '소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전주와 고창에서 소리(판소리)를 컨셉으로 선점한 마당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농악을 비롯한 판소리를 주테마로 잡은 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읍은 종교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어야 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발생 수용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종교박물관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종교라는 컨셉까지 전주에 뺏겨서는 안 된다.

정읍은 풍수상 '남출북류'(南出北流)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대표적인 역세형국(逆勢形局), 변혁적(變革的)인 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읍은 일반적인 지형과 다르게 산세가 북쪽을 향해 있고, 물 또한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읍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생명력'을 지닌 지역이다. '샘골'이라는 말 그대로 한 자만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물이 흔한 곳이다. 물은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읍은 생명의 근원, 우주의 배꼽에 해당되며 여성의 근원이기에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잉태한 곳이라고도 한다.

종교적으로는 무속과 미륵신앙이 강했던 곳이었다. 무속은 '제액초복(除厄招福)에 목적이 있다. 미륵은 '오탁악세'(汚濁惡世)로 규정되는 세상에 언젠가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신저라는 점에서 무속과 공통점이 있다. 무속과 미륵신앙과 같은 민중 신앙이 조선시대 고부(古阜)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유교와 불교가 쇠퇴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중추적인 기능의 종교나 사상이 없었던 사상적 공백기에 고부지역에 동학이 들어와 먼저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농민혁명 발생배경이 미륵신앙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부지역에 미륵불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미륵 관련 소지명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정읍은 이 같은 민간신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신종교가 발생·수용·확산된 지역이었다. 신종교 가운데 일세를 풍미했던 보천교(普天敎)가 입암면 대흥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보화교(普化敎), 미륵불교(彌勒佛敎), 찬물교, 하늬재교 등 증산교(甑山敎)에서 분파된 신종교들이 정읍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신종교는 광복 이후 교세가 많이 약해졌으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교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천주교 박해를 전후한 시기에는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해 교우촌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公所)가 건립되었다. 천주교『교세통계표』에 의하면 1882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공소 수는 모두 563개로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473개로 가장 많고 정읍은 73개의 공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15곳에 공소가 세워져 있고, 일부는 마을 전체가 교우촌을 형성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해인 1894년의 천주교와 동학의 교세를 비교하면 정읍은 천주교와 동학이 모두 성했던 지역이었다.

개신교에서도 일찍부터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여 이 지방 최초로 태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1900년에 세워진 '매계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설립자인 목사 최중진(설립 당시 신분은 Tate 선교사의 조사)은 전북지방 최초의 장로이자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였다. 그는 태인 매계교회에 이어 북면 한다리교회(화해교회), 고부 구중교회, 입암 천원교회, 신태인 화호교회, 정읍교회(현 정읍제일교회)를 창립하여 정읍 개신교 역사에 선구자적 업적을 남겼다. 이밖에도 고창 흥덕교회, 동호교회, 신촌교회, 부안 관동교회, 진성동교회를 차례로 설립하였다. 한편, 최중진은 조선일보 정읍지국장을 지내면서 정읍을 중심으로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 정읍역을 중심으로 일하는 천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운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그는 형평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 백정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읍지역의 종교적 상징성은 땅이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보천교가 둥지를 틀었던 곳이 입암면 대흥리였다. 대흥리 주변에는 재령봉(宰令峰)과 왕심리(旺尋里)가 있으며 국사봉(國師峰)이 있다. 또한 지금은 십자가라 부르기도 하는 곳을 당시에는 '종로'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암산 동편 줄기에 삼신산(三神山)이 있으며, 이 산의 좌우에는 문필봉(文筆峯)이 있다. 진산 마을 동남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에는 각각 감사나 영의정 자손들이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독송골(讀誦)과 감사골, 수령골이 있는데,『호구총수(1789)』에도 수령동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보천교 운동 당시 천자 출현에 부합시켜 인위적으로 붙인 지명도 있고, 더러는 예로부터 불리어진 지명도 있다. 따라서 전답을 매각하고 아예 대흥리로 이주하는 탄갈자(殫竭者)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 가지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정읍에 여성 이인(異人)들의 출현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모든 주류종교에서 여성들이 신도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들 종교의 조직구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역할과 권위를 행사하는 데는 실제로 많은 저항이 존재한다. 가톨릭의 경우만 해도 여성의 성직자 역할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 여성교도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종교조직 운영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시주나 헌금은 교회나 교단 운영에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종교조직 대부분이 남성 성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가 극히 적다. 그런 점에서 정읍지역에 카리스마를 가진 여성이인들의 출현이 많았다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1979년 초반부터 신문, 방송, 주간지에 요란스레 오르내리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여인이 있었다. 이가 바로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만병통치의 여인' 최영단 여사였다. 또 경남 하동출신으로 성장해서는 대흥리에서 거주했던 이인처녀 일명 '여처자(모악교)'가 있었고, 보천교 혁신단에 내응했던 이중성(李重盛)의 처가 신도공부를 마치고 비룡촌(飛龍村) 일각에서 교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발생되고 수용될 만큼 정읍은 종교적인 장소성과 상징성이 아주 강하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만이 아니다. 이제 정읍에서도 무형의 자산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역사든 역사문화든 밖으로 드러나는 사실보다 안으로 흐르고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읍에 종교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종이박물관, 남원향토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고창판소리박물관, 김제동진수리박물관, 부안 청자전시관 등이 건립되어 있다. 우리 지역의 종교박물관 건립은 분명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만공기념관 건립

2010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한국 근현대 불교의 대강백(大講伯) 탄허(呑虛)스님의 유묵과 유품을 전시하는 '탄허기념박물관'이 건립되었다. 김제 만경 출신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탄허 스님은 어려서 사서삼경과 노장사상 등을 공부하고 1934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漢巖) 스님을 은사로 출가, 불경 번역 등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여기에 필적할만한 스님이 바로 태인 출신의 만공(滿空)이다. 만공은 그의 스승인 경허(鏡虛/1849-1912)에게서 받은 법호요, 사미계의 불명은 월면(月面)이며 속명은 도암(道岩)이다. 태인에서 1871년 3월 7일 출생하여 세수 75세(1946)에 입적하였다.

만공이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한국불교 근대사에 있어 선의 중흥조는 경허로 알려져 있다. 만공은 이 경허의 혜명(慧命)을 이어 근대 한국불교 선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청허(淸虛)와 사명(四溟)이 조선 중기의 선의 중흥이듯이 경허와 만공은 한국불교 근대 선의 중흥조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국불교의 상황에서 정토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만공이 가장 외곬으로 선을 통한 관조의 극락을 닦고 전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1937년 조선 총독 주재하의 전국 주지회의가 있을 때 총독을 향해 일갈했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종욱이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한국불교의 진흥을 위해 사찰령을 제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만공은 분연히 일어서서 일장의 사자후를 했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절 안에서 음행(淫行)하거나 술 마시는 파계자(破戒者)가 있으면 뒤통수에 대고 나팔을 불어 내쫓거나 북을 지워 두들기며 산문출송(山門出送)을 해 온 관계로 규모 있는 교단생활을 하여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이어왔다. 그러나 합방되어 사찰령 사법이 시행된 뒤로는 주지 전단이 자행되어 승풍이 문란하게 되고 일본 승려의 파계하는 영향을 받아 취처(娶妻)·음주·식육을 공인하게 되었으니 조선 승려 전부가 파계승이 되고 말았다. 나는 이 책임이 모두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에 한 비구를 파계시켜도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 동안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했는데, 7천 승려 전부를 일시에 파계하게 한 공밖에 없는 당국에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겠는가. 오늘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은 모두가 데라우치 총독 이래 역대의 당국자가 선도한 공로라고 자자하게 말하나 감독을 잘했다면 어찌 승려의 행위가 이 같을 수 있는가. 이 같은 죄를 지은 총독부의 당국자들을 아비지옥의 고취(苦趣)에서 구하는 데

는 31본산 주지 이하 일반 승려들이 지계(持戒)을 엄히 하여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총독부가 우리를 간섭하여 잘하도록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전부를 일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불교로 예속되지 않으려는 만공의 노력과 항일정신 그리고 한국 근대불교의 선의 중흥조로 평가되는 한국불교계에서 위치를 생각한다면 스님의 유물과 유품을 담은 박물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진산마을 당산제 재현

민속자료란 우리 민족 전래의 생활양식이나 풍습으로서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이를 국가에서는 중요민족자료로, 시·도에서는 민족자료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는 민속자료 가운데 지금도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당산제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제 당산제는 점차 원형을 잃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풍속 중에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당산제가 실시되는 마을 가운데 지역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원형이 많이 남아 있다 점에서 진산동의 당산제를 살펴보려 한다.

진산(辰山)은 정읍에서 일명 '깻다리'라 불리는 과교(科橋)를 지나 입암으로 가는 고가교에서 왼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다. 속칭 '농매', '넉매'라 하는데 '넘어가는 뫼'라는 뜻이며, 진산의 주산인 농산(農山)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고 있다. 진산은 원래 정읍군 서이면(西二面) 지역으로 앞에 넓은 들과 아름다운 산이 있어 농산이라 불렀던 것을 일제 때 개명했다고 전한다. 농산의 속칭이 '농매'다. 여기서 농(農)자 윗부분의 곡(曲)을 뗀 진(辰)자를 써 진산(辰山)이라 한 것이다.

지명연구가인 김기빈(金琪彬)도 그의 저서인 『일제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에서 일제강점 초기 일본인들에 의해 '농산'이 '진산'으로 되었다고 쓰고 있고,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 전북편 하에서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바뀌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789년 조선 정조 때의 발간된 『호구총수(戶口總數)』와 1917년에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정읍현(정읍군) 남일면 진산리(辰山里)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파자(破字) 지명은 인정되지만 일제 때 개명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일제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는 정읍군 내장면에 영정리(永丁里), 화산리(化山里), 삼군리(三君里), 궁계리(弓溪里), 사암리(四岩里), 남이면 제내리(堤內里/방죽안)와 자노리(自老里) 일부를 포함해서 진산리로 편제되었다.

진산마을은 원래 웃넉메(元 辰山)와 아랫넉매(華山, 化山, 花山), 영정리, 밤나무등, 세가우뜸으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아랫넉매인 화산은 산세가 벌 형국이며 도화지(桃花枝)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정리는 영의정이 난 마을로 구전되고 있다. 일설에는 풍수에 근거한 것이라 하는데 현재 폐촌이 되었다. 진산 마을 동남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에는 각각 감사나 영의정 자손들이 글을 외우고 공부했다고 하는 독송골〔讀誦谷〕과 감사골, 수령골이 있는데, 『호구총수(戶口總數)』에도 수령동(守令洞)이 확인되고 있다.

진산은 ①넉매〔辰山〕, ②모촌(茅村), ③승부(承富), ④군대(裙帶)라 할 만큼 정읍에서는 유명한 마을이었다. 또한 이 마을은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당산제를 지내는 근래에 보기 드문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할머니 당산이 있고 방죽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들 당산이 있으며, 영정리로 가는 길 입구에는 할아버지 당산이 있어 여기서 매년 음력 2월 1일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추렴하여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는 대부분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당산제가 끝나면 마을 회관에서 남녀가 나누어 줄을 당긴다. 여자들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에 남자가 진다. 당긴 줄은 당산에 감는데 이 때 굿을 치고 백지를 새끼줄로 감은 당산 안에 집어넣은 다음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일제강점기, 당산제를 지내지 않았던 한 해 아이들의 가출이 잦았다고 한다. 어쩔 수없이 5, 6월 모내기철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손을 놓고 당산제를 지냈는데 이후로 아이들의 가출이 없어지고 마을이 평안했다 하여 오늘날까지 한 해도 당산제를 거르지 않고 있다.

* (참고)진산마을의 역사·문화적 배경

진산마을 초입 300미터 앞에 '깻다리'라 불리는 과교(科橋/괘다리)가 있다. 깻다리

는 전남에서 서울로 가는 국도로 현재 고가교 옆이 과객(科客)들이 쉬어 가는 곳인 '주막거리'였다. 원래 다리는 현재 다리 위쪽에 있었으며 한양에 과거보러 가는 선비들이 겨울철에 물이 얼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원래 '갯다리'를 그 뒤에 '깻다리'라 불렀다 한다.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에는 과거보러 가는 선비가 건너면 장원급제하는 다리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구축한 것이다.

한자로 과교(科橋)라고 표기하는데 '깨 임'자를 써 '임교(荏橋)'라고도 한다. 『호구총수』에는 없는 지명이다. 안길용(전 시의원)에 의하면 과교의 주산인 옥녀봉(玉女峰)을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또는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 옥녀단좌형(玉女端座形)으로 보는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형국을 옥녀탄금형으로 본다면, 백운(白雲)마을 뒷산을 옥녀봉으로 보고 앞 도로를 거문고에 비유한다. 옥녀가 거문고를 연주〔彈奏〕했을 때 소리나는 곳이 과거 주막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주막이 성업이 되었단다. 거문고의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이 안족(雁足)이고 안족이 놓여 있는 자리를 괘(卦)라고 한다. 이곳이 거문고의 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괘다리로 했던 것을 습관음의 변화로 깨다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정읍현 산천조에 과교천이 목제천(木梯川)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읍현지』 과교조에는 목제교(木梯橋)라 기록되어 있다. 지금 과교의 내를 통칭 과교천이라 하므로 이것이 바로 과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무 목'에 '사다리 제'이므로 나무다리, 목다리로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

'깻다리'인 과교를 지나 정읍농협 미곡처리장 쪽을 가다보면 '이스러지모탱이'라 불리는 구부러진 낮은 산이 나온다. '이스러지다'는 한쪽이 떨어지다, 한쪽이 차지 않다는 뜻의 '이지러지다'의 말이 변한 것이다. '모탱이'는 모퉁이의 전라도 사투리이므로 한쪽이 떨어져 나간 모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풍수상 잉어지에 해당하는 묘자리가 있어 잉어지가 이스러지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애사 가는 길목으로 6·25전쟁 전까지만 해도 철로 옆에 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밭으로 변해 있다. 철도복선공사로 원래의 도로가 없어졌다.

마을길을 들어서 회관 앞으로 가면 뒤쪽에 지방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된 유애사(遺

愛祠)가 자리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모시는 사우(祠宇)이다. 장군은 1589년(선조22) 12월 이곳 정읍현감으로 부임했다가 1591년(선조24) 3월에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영전되자 뒤에 이 지방 유림들이 장군의 유덕을 추모하여 사우를 건립한 것이다.

이곳에 1814년(순조24) 집의공(執儀公) 유희진(柳希津)을, 1854년(철종5년) 주부공(主簿公) 유춘필(柳春苾)을 추가로 배향〔追配〕하였다. 1868년(고종5) 11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철(毁撤)되어 유지(遺址)에 비각을 건립하고 단비를 세웠다. 한때 유애사를 충렬사(忠烈祠)라고 불러오다가 다시 유애사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각을 세울 때 언덕에 설단(設壇)했으나 지금은 헐렸고 대신 충무공 이순신, 집의공 유희진, 주부공 유춘필이라 새긴 비석 3개가 충무공을 중심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유애사 옆에는 기와를 구웠다고 하는 기와굴이 있었다 하나 흔적을 찾기 어렵다. 1년에 한 번 씩 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74년 9월 24일 지방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진산마을 앞산에는 풀과 잔디, 흙으로 가려진 바위가 하나 있다. 할미바위라 부르는 이 바위가 겉으로 드러나면 여자들이 바람난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굿을 하고 잔디를 입힌다. 할미바우 가운데 부분이 여자의 음부에 해당하는데, 마을 청년들이 여기를 나뭇가지로 쑤신 뒤 마을 처녀들이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는 구전이 있다. 이 같은 진산마을의 풍부한 문화요소는 관광상품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적절하다.

소프트웨어 부분

조선왕조실록 피란 과정에 대한 특강

실록은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1일에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실록이 오늘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물재(勿齋) 안의(安義)와 한계(寒溪) 손홍록(孫弘祿)이라는 태인(지금의 칠보)의 두 선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칫 임란 때 소실될 뻔했던 실록이 어떤

피란과정을 거쳐서 보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특강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 편찬과정과 보존, 실록 이안과정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물건을 만지고 조작하는 것만이 체험이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견학, 전시회 참관, 여행 및 답사, 자기 이해활동, 진로정보 탐색 등이 모두 포함된다. 큐레이터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에 전공예비학습 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침안정법'으로 실록 사본 만들기

우리는 네 군데 혹은 여섯 군데로 책을 묶었던 중국 방식과 달리 오침을 선호했다. 옛 책을 묶는 전통적 제본 방법의 하나인 이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직접 만든 실록 사본을 지게에 지도록 한다. 이 때 실은 전통방식 그대로 '무명실'을 사용해야 한다. 왜 책을 만든다 하지 않고 '책을 엮는다.'는 표현을 쓰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목판 인쇄 체험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기록문화유산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궤(儀軌)』,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총 7종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1392-1863)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물이다. 실록은 1,187책, 6,400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면수에서 세계 제일에 해당된다. 또 동아시아 대부분의 실록이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은 금속활자나 목활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편찬 내용을 후손들이 보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엄정한 역사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없는 사관의 평가가 담겨 있으며 중국의 25사나 실록보다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왕조실록의 역사적 세계사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실록 목판본 인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조선왕조실록 피란 체험과 유적지 답사

왕조실록은 지게에 지고, 수레에 끌고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탐방객들에게 직접 지게를 지게 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게에는 실제 영인본에 해당하는 실록을 짊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태조실록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명종실록을 천에 새겨 지게 뒤쪽에 부착하되 탐방객들이 오침안정법으로 직접 만든 모형실록사본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대인들에겐 지게를 짊어지고 3~40분 산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요즘 아이들에겐 지게 자체가 생소한 물건으로 비쳐질 수 있다. 외국인들에겐 A자 모형의 지게(A frame)가 이채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에겐 어렸을 적 아련한 추억을, 아이들에겐 훌륭한 체험활동을, 외국인들에겐 훌륭한 관광거리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게 전면에는 '조선왕조실록 역사지킴이'를 붉은 삼베에 새겨 실록보존 체험활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실록이 완성되면 사고에 이안하는 봉안식에 앞서 '봉과식(封裹式)'이라는 의식이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 실록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에서 '붉은 삼베'로 싸기 때문이다. 이로써 실록을 굳이 붉은 삼베로 싸는 이유가 붉은 색이 잡귀를 물리친다는 벽사관념(辟邪觀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임금에게 실록의 이름이 붙게 되지만 연산군만은 실록이 아닌 일기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안의와 손홍록에 의해 보존된 실록은 태조에서 명종때까지의 200년 역사라는 점을 알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이다.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용굴 코스 안내

어진을 피란시켰던 용굴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에서 펴 낸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11』에 선정되어 있다. 코스는 내장산 탐방안내소-전망대(케이블카)-금선계곡-용굴-내장사-일주문에 이르는 길이다.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설치하되 단순히 산행만을 위한 걷기 좋은 길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우리 고장의 역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산행을 겸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는 일반적인 통념 이외에도 이 과정을 통해 사찰이 자리 잡게 된 풍수지리와 사찰의 연혁, 불교문화재, 산세 등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

련될 것이다.

실록 피란 지도 작성 및 상징적 시설물 설치

왕조실록은 전주 경기전에서 용굴암 및 은봉암과 비래암으로 옮겨진 점에 착안하여 탐방객들에게 지도를 주고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록을 피란시켰던 은봉암과 비래암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용굴 앞에서 o,x 퀴즈 문제를 풀게 하거나 안의와 손홍록을 위한 추모 촛불의식 등을 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시에서는 실록 피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5대사고로 정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실록피란 지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체험활동 장소인 기념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전주 경기전과 용굴암과의 거리를 지도로 표시해주고 운반과정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용굴암에 도착한 뒤에는 실록보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의 상징적 시설물을 갖추면 어떨까 싶다. 고증이 가능하다면 안의와 손홍록 선생의 동상을 이곳에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탐방객들의 복장은 당시 서민들이 입었을 옷을 덧입게 해서 시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 될 것이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점수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재능과 소질' '잠재력(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업관련 탐구활동과 체험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 수험생들은 각종 교내외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역사지킴이 왕조실록 피란 체험활동 이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과다한 학교수업으로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은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안의와 손홍록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새롭게 만들고 실록피란을 주제로 도시 전체를 '브랜드화' 해야 한다.

이로써 실록피란과 보존처로서의 정읍의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충무공 이순신을 상징하는 충무로와 정읍의 우리말 새암길(로), 초산의 이름을 딴 초산로와 초산동만 있을 뿐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가로명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도로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망부상이 있는 공원 주변은 대학로가 아닌 정읍사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초등학교에서 수성동소방파출소 주변은 우암(송시열)로, 정주고등학교에서 태인 우회도로 가는 길은 두주막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최치원로(해운), 전봉준거리, 손화중거리, 김개남로, 만공로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피란 유적지 복원

이상에서 제시한 관광상품화 방안 중 정읍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은 종교분야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바로 왕조실록 피란과 관련된 유적지를 정비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실록피란을 주제로 한 상품화방안을 논의해보려 한다. 종교박물관 건립에 관한 문제는 아직은 종교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은봉암과 비래암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 한 지역 언론인의 노력에 의해 이제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시장님과 문화재 전문위원 그리고 지역사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컸다. 그간 이 분들의 공이 컸음을 밝히면서 실록피란을 주제로 한 구체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봉암과 비래암의 위치를 고증해서 복원하고 용굴과 남천사, 물재와 한계의 묘소를 정비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1592년 6월 22일 왕조실록을 맨 처음 피란시킨 곳이 은봉암이었는데 6월 23일부터 안의와 손홍록이 용굴암에서 수직한 것으로 보아 은봉암은 용굴암 부근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천 최원걸(전 내장사 주지) 스님은 용굴암 부근에 있었던 금선암을 은봉암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금선암은 용굴보다 200미터 아래 지점의 골짜기 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용굴암에서의 수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고증을 거쳐 복원된 은봉암과 비래암은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용굴은 현재 낙석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비래암은 용굴암에서 300미터 거슬러 올라간 오른쪽 절벽 기슭에 있는데 이곳에도 조그마한 암굴이 있고 그 아래에 고지(古址)로 보이는 공간이 있어 그 위치나 지형으로 보아 비래암의 유지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아래쪽의 기이한 형태의 바위가 마치 비조(飛鳥)의 형태와 유사하여 더욱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또 희묵대사가 이끄는 의병승군 1천 여 명과 무사 김홍무 등 100여 명이 함께 지키고 돌을 모아 성을 쌓았던 유지를 발굴, 복원해야 한다. 용굴암 입구의 석성과 내장사 입구 현 우화정(羽化亭) 부근의 고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더불어 희묵대사가 마셨다는 장군수(장군샘)을 포함, 대사가 지휘했다고 하는 용바위(장군대), 백양사로 넘어가는 유군이재까지 묶어 주변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발굴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물들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전시하여 역사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실록피란과 관련된 사료(태조어진모사/명종실록과 선조실록 영인본/난중일기/탐진안씨 족보/밀양손씨 문징록/안의와 손홍록의 중흥6책/호남읍지/곡물모취기/전주시사/임진왜란사/일제집/태인읍지/적성지/실록포쇄형지안/손주항 전의원을 비롯한 후손들의 소장 자료 및 도움말/각종 논문 및 자료/실록편찬 과정과 봉과식에 사용된 기물이나 봉안행렬에 필요한 복장 등)를 수집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록을 피란시키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홍보하거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체험 이후에는 '실록피란 역사체험 기념메달' 또는 '역사지킴이 왕조실록 피란 체험활동 이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무엇보다도 체험활동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체험 후에는 간단한 소감문 정도를 적게 해서 운영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체험 후 왕조실록 피란 과정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관광객들에게 실록피란 과정이 담긴 사진을 증정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적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한 o,x 퀴즈문제를 풀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체험관광이 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은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관광만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은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체험이상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넷째, 연계 관광권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남 순천에 있는 고인돌 공원의 경우, 월평균 10,000명이 찾고 있는 데 인근에 있는 송광사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용굴은 내장산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내장사와 연결되지만 적상산 사고가 있는 무주와 경기전이 있는 전주지역 그리고 칠보의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이 실록보존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안의와

손홍록을 모신 남천사와 그들의 묘소가 각각 옹동과 칠보에 있기 때문이다. 전시관은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걸맞지 않게 너무 크거나 현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천편일률적인 관광상품을 판매하거나 박제화된 전시품목이나 유적의 보존은 오히려 관광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실록봉안식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현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선조들의 치열한 기록보존의 정신을 확인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 옛 선인들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봉안시의 복장과 기물 그리고 봉안행렬이 어렵다면 봉안식에 앞서 행해지는 의식으로서 실록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에서 실록을 보자기에 싸서 궤에 봉안하는 의식인 '봉과식(封裹式)'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만약 시의 입장에서 봉과식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봉과식 과정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박스에 담으면 될 것이다.

실록은 왕조실록 전체가 아닌 임란 전후의 사정과 실록피난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명종실록(총 4궤 34책)과 선조실록 정도만 영인본으로 갖추면 될 것이다. 선조실록만 100여권이 넘기 때문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분량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 총 805권 614책으로 47개의 궤 속에 보존되어 있었고 기타 전적은 64종에 556책으로 14개의 궤 속에 들어있어 모두 61개가 된다. 한 사람이 궤 한 개씩을 짊어지고 간다면 60여명이 필요하며 소나 말에 싣는다 해도 2~30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이다. 그런데 이 실록 전체를 영인본으로 전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구비된 실록을 자료로 이용한다하더라도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조선왕조실록 CD가 나와 검색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번역판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상황에서 굳이 영인본 전체를 전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실록봉안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태조 어진 제사 모습을 재현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강구해 볼 만하다. 태조어진이 경기전에 봉안된 지 600년, 조선시대에는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臘日) 등 6회 제사를 지냈고 일제강점기에도 1년에 2회의 제사가 지속되었다. 그 이후에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전라북도 지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중양절에 중양대제를 지내고 있으며 매월 초하루에는 삭망분향례를 지내고 있다.

일곱째, 기록문화전시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 실록피란의 일등공신인 안

의와 손홍록의 동상을 고증을 통해 건립해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의 4대사고 중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가 모두 불탔으나 유독 전주사고만이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되고 있을 때, 우리 고장 출신 유생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의 어용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난시켜 오늘에 이르게 한 점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실록은 바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 두 유생들에 의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신록에서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현창사업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후손들의 무지의 소치다. 왜란 이후(광해군)에는 이를 모본으로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적상산 등 5대 사고로 다시 정비되었다. 이 같이 평지에 있던 실록이 임란 후 산으로 간 것은 안의와 손홍록이라는 두 유생이 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난시킨 데서 얻은 힌트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보존된 실록은 1997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을 통해 이들을 추앙하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정읍시민들의 자긍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태인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이 서울 다음으로 출판되어 전주 완판본으로 이어졌고, 직지심경을 인쇄한 백운화상 경한이 바로 고부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역대학에 기록문화학과 또는 문화재보존(관리)학과를 서둘러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 전시관'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예산과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탐방안내소 내에 왕조실록 피란 코너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전시관 내에는 실록관련 자료를 포함한 기록문화 전반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실록피란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의와 손홍록 선생을 테마로 하는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고 이들의 동상을 만들어 두 분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또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사적비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적힌 실록피란 과정도 이견이 있는 만큼 고증을 거쳐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 강의 노트를 만드는데 참고한 책과 자료들-

이긍익(李肯翊),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별집 제4권 서원.

대총상삼랑(대총상삼랑), 「朝鮮の政治制度及社會事業竝教育宗教の現像」

朝特報第11號), 「太乙教徒に關する調査報告の件」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편 정읍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중종25)

안의, 「수직상체일기(守直相遞日記)」,『난중일기(亂中日記)』.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1799), 권4 태인조.

김정호, 『대동지지(大東地志)』, 1864.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

월지유칠(越智唯七),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보천교, 『보광(普光)』창간호, 보광사, 1923.

조선총독부 관방서무부 조사과 1923.5~8.

『개벽(開闢)』제35호, 1923년 5월호.

비봉산인,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 『개벽』제10집 38호, 1923.

일제정보자료, 아세아국제3과관기고수(亞細亞局 第3課關機高授) 제32743호, 1924.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상생사, 1926.

『조선 사상 통신』제88호, 1929.1.23.

상해일본영사관, 『조선민족 연람』, 1932.

촌산지순(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教)』, 1935.

『개벽(開闢)』신간 제1호, 1935.11.

장봉선, 『정읍군지』, 이로재, 1936.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동명사, 1946.

『보천교연혁사』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보천교총정원·협정원·총령원, 『보천교연혁사』하권, 1958.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상권, 1959.

김영채 등, 『태인지』, 1965.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증산교계 총론-」, 『전북대논문집』7, 1966.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총서-조선독립운동(제1권 분책, 민족주의운동 편)』, 1967.

『3·1운동』, 국학자료원 현대사자료1, 1967.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송상도, 『기려수필(騎驪隨筆)』, 탐구당, 1971.
최현식, 『증보정읍군지』, 정읍문화원, 1974.
김영호, 「최면암 대마도유배일기」, 『항일운동가의 일기』, 서문문고, 1975.
독립운동사전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11권, 1976.
김덕형, 『한국의 명가』, 일지사, 1976.
이상호, 『대순전경』, 중산교본부, 1976.
이정립, 『증산교사』, 증산교본부, 1977.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 1977.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1978.
정약용, 『목민심서』2, 창작과비평사, 1979.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3·1운동』, 횃불사, 1980.
박성수,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윌리암 드레이/황문수 역, 『역사철학』, 문예출판사, 1980.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8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2(전북편), 정화인쇄문화사, 1981.
민족문화협회, 『민족운동총서8 학생운동』,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1981.
내무부, 『지방행정지명사』, 전광산업사, 1982.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 인물지』중권, 동명정판사, 1983.
숭산박길진박사고희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이정립, 『대순철학』, 증산교본부 교화부, 1984.
김광중, 「조선왕조실록을 수호한 선비, 손홍록」, 『전북인물지』(하). 1984.
윤영근·최원식 편저, 『남원항일운동사』, 친우, 1985.
신복용,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평민사, 1985.
홍범초, 「보천교 초기 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제10집, 1985.
윤영근·최원식 편저, 『남원항일운동사』, 친우, 1985.
최현식, 『정주시지』, 향토문화사, 1985.
최창열,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1986.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 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6.
국가보훈처, 『전국독립운동사적』, 건양사, 1986.
윤이흠, 『한국종교 연구』제1권, 집문당, 1986.
최창열,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1986.

최영년 지음·황순구 역주, 『속악유희(俗樂遊戱)』, 정음사, 1986.
전라문화연구소, 「향산 이동환의 생애와 유저」, 『전라문화논총』제1집, 전북대, 1986.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 고려원, 1987.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 고려원, 1987.
김광중, 「한계 손흥록에 대한 고찰-실록보존을 중심으로」, 『전라문화연구』제2집, 1988.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가톨릭신문사, 1988.
김중섭,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1988.
홍범초, 『범증산교사』, 도서출판 한누리, 1988.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신채호, 『이순신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요시다세이지,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 청계연구소, 1989.
광복회전라북도지부,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89.
김융곤, 「신흥종교취락에 관한 연구」, 전북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백강흠, 『정읍시가 3대 유보고』, 공익사, 1989.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89.
3·1운동70주년기념논문집,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김정은, 「경남 합천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1989.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한국역사연구회, 1989.
「김철수 친필 유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
김문숙, 『말살된 묘비-여자정신대』, 지평, 1990.
이상호, 『대순전경』, 증산교본부, 1991.
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대흥정판사, 1990.
탁명환, 『한국 신흥종교의 실상』, 국종출판사, 1991.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제3권, 청웅제지, 1991.
이동환, 「6·10만세 체험록」(영인본), 『전라문화연구』제6집 권말부록, 1992.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대흥기획, 1992.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 인물지』제7집, 탐진, 1992.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병사』상·하, 선명출판사,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최병운, 「향산 이동환의 생애와 유저」, 『전라문화연구』제6집, 1992.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병사』상·하, 선명출판사, 1992.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김 탁, 『증산교학』, 미래향 문화, 1992.
이오덕, 『우리글 바로쓰기』, 한길사, 1992.
최창조, 「한국 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민음사, 1993.
유재영,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1993.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박성래,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1993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나남, 1993.
최창조, 「한국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1993.
대전직할시지편찬위원회, 『대전지명지』, 1994.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조병희, 「왕조실록을 보전하는데 수훈을 세운 안의·손홍록」, 『완산고을의 맥박』, 1994.
손석우, 『터』, 상·하권, 답게, 1994.
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시민강좌』제14집, 일조각, 1994.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1,2권, 토담, 1994.
역사문제연구소,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 비평사, 199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국, 1994.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위원회, 『전북지역독립운동사』, 신아출판사, 1994.
이기동, 「현대 한국사회와 풍수지리설」, 『한국사시민강좌』 제14집, 일조각, 1994
조병희, 「왕조실록을 보전하는데 수훈을 세운 안의·손홍록」, 『완산고을의 맥박』, 1994.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건립위원회,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94.
박숙희,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1995.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독립운동총서6 종교.교육투쟁』, 민문고, 1995.
김기빈, 『일제에 빼앗긴 땅 이름을 찾아서』, 살림터, 1995.
오홍석, 『땅이름. 나라 얼굴』, 고려원미디어, 1995.
김재영, 『내 고장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해와달(서울), 1996.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성문당, 1996.
김두진, 「호남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전통문화』, 범신사, 1996
나종우, 『전라도, 왜 문제인가』, 원광대출판국, 1996.
김민영, 『일제하 군산 옥구지역의 민족사회운동사』, 군산문화원, 1996.
안후상,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15,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
김삼웅, 『일왕 폭살을 꾀한 아나키스트 박열 평전』, 가람기획, 1996.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 정신세계사, 1991. 1996.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최현식, 『정읍원·사록(井邑院·祠錄)』, 신아출판사, 1996.
김삼웅, 『일왕 폭살을 꾀한 아나키스트 박열 평전』, 가람기획, 1996.
안후상,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제15집, 1996.
이해준,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풀빛, 1996.
나종우, 『전라도, 왜 문제인가』, 원광대출판국, 1996.
김두진, 「호남의 사상과 의식의 형성」,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
「전북일보」 1996.8.30.
김상기, 『한말의병 연구』, 일조각, 1997.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1997.
전라북도·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전북학 연구』제3권, 1997.
김재일, 『우리민속 아흔 아홉 마당』1, 한림미디어, 1997
김상기, 『한말의병 연구』, 일조각, 1997.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2, 민음사, 1997.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제3권 근·현대편, 경세원, 1997.
윤이흠·안후상·최종성·김정인,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한림원, 1997.
전라문화연구소, 『전북학 연구Ⅰ』, 도서출판 혜안, 1997.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1권, 빅벨, 1998.
김용갑, 『영남과 호남의 문화 비교』, 풀빛, 1998.
안후상, 「보천교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제6집, 1998.
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1998.
김경석, 「천추의 핏자국을 남긴 청강석이 되리라」, 『문화저널』, 1998.12.
김홍식, 「우리나라 민가의 양택론」, 『97토요문화강좌』, 궁중유물전시관, 1998.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8.
채영국, 「정의부의 항일 군정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2집, 1998.
황선명, 「후천개벽과 정감록」, 『한국종교』제23집,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1998.
김재영, 『샘솟는 땅, 정읍의 문화』, 신아출판사, 199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8.
김재영, 『저항과 변혁의 땅』, 신아출판사, 1998.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8.
김경석, 「천추의 핏자국을 남긴 청강석이 되리라」, 『문화저널』, 1998.12.

김용갑, 『영남과 호남의 문화 비교』, 풀빛, 199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이해준, 『역사속의 전라도』, 다지리, 1999.
박문기, 『숟가락』, 정신세계사, 1999.
손영호, 『역사의 이해』, 학지사, 1999.
이해준, 『역사속의 전라도』, 다지리, 1999.
조연미, 「조선시대 신도비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1999.
전주서문교회백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백년사』, 쿰란출판사, 1999.
김두규, 『우리 땅 우리풍수』, 동학사, 199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김달위, 『건축과 생활풍수 』, 주택문화사, 2000.
이태영,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고문헌 출판의 의의」, 전주예총, 2000
황영희, 「석지 채용신의 초상화」, 전주대석사논문, 2000.
유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상 연구』, 마당기획, 2000.
『한겨레신문』, 2000.3.17/2001.7.12
정규훈, 『한국의 신종교』, 서광사, 2000.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제9집, 한국종교사학회, 20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탐구당, 2001.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주명준·정옥균, 『전북의 3·1운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2001
이덕일,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이희권, 『역사로 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2001.
박영재,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보내네』, 운주사, 2001.
주명준·정옥균 편저, 『전북의 3·1운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2001.
박종렬, 『차천자의 꿈』, 장문산, 2001.
전북종합문화지, 『남민』6집, 형제, 2001.
복흥애향협의회, 『복흥면지』, 2001.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방안』, 2001.
『전북일보』, 2001.6.8.; 2002.5. 28.
이덕일,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종교』. 2002.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정옥자, 『우리 선비』, 현암사, 2002.
증산사상연구소, 『강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원출판사, 2002.
신정일, 『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 이학사, 2002.
무주군, 『적상산 사고와 조선왕조실록』, 맥씨네, 2002.
주강현, 『억압과 금기의 문화사, 왼손과 오른손』, 시공사, 2002
부길만, 「17세기 한국 방각본 출판에 관한 고찰」,『출판잡지연구』제10권 제1호, 2002.
강길원, 「면암 최익현의 병오창의」, 『전북사학』제26집, 전북사학회, 2003.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3.
박원길, 『한자박사 만들기』1,2,3권, 동양문고, 2003.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사상사』, 심산, 2003.
강길원, 「면암 최익현의 병오창의」, 『전북사학』제26집, 전북사학회, 2003.
구송희 외, 『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가 백정기 의사』, 2004.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4.
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가 백정기 의사』, 2004.
원용찬, 『일제하 전북의 농업수탈사』, 신아출판사, 2004.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2004.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구송희 외, 『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김삼웅, 『단재 신채호 평전』, 시대의창, 2005.
김경현 편, 『일제강점기 인명록』Ⅰ, 민족문제연구소, 2005.
김삼웅, 『단재 신채호 평전』, 시대의창, 2005.
국립전주박물관·정읍시, 『전북의 역사문물전Ⅵ, 정읍』, 2006.
정읍시·전북대인문학연구소, 『샘고을 역사문화 길잡이』, 한국문화사, 2006.
염정삼, 『설문해자주, 부수자 역해』, 서울대출판부, 2007.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2007.
최현식, 『신편 정읍인물지』, 신아출판사, 2007.
이치백, 『돈헌 임병찬 선생』,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07.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제31집, 2007.
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안후상, 「강증산의 사상과 보천교운동」, 『식민지시대 사회상에 비친 동학관련 신종교·민간신앙』,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07.
이용엽,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이치백, 『돈헌 임병찬 선생』,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07.
김재영, 「1920년대 고창지역의 청년운동」, 『역사학연구』제33집, 호남사학회, 2008.
김재영, 「부안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전라문화연구』제19집, 2008.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살림터, 2008.
법정사무장항일운동90주년기념학술세미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2008.
박언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2008.
이호룡,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파 백정기』, (사)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2009.
서영근, 『설문해자, 부수형의 고찰』, 한국학술정보, 2009.
한국고전번역원, 『추고필지(推敲必知)』, 2009.
간재학회·전북대학교, 『한국근대의 유학사상과 간재학의 계승발전』, 2009.
김재영, 「1920년대 김제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전북사학』제34집, 2009.
김재영,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정읍시사』, 2009.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신아출판사, 2010.
국가기록원 기록편찬 문화과, 『역사 속 기록이야기』, 2010.
이동희, 「실록을 지켜낸 오희길.손홍록.안의 이야기」, 『기록인』 2010.
김철배,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행차의 재현을 위한 기초연구」,『기록인』제37호, 전북사학회, 2010.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문화」제94호, 2010.12.
신병주,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기록인』 2010.
박찬승,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최정호, 「조선왕조실록」, 『전북향토문화연구회보』, 2010.11.
장세균, 「조선왕조실록과 두 선비」,『전북향토문화연구회보』, 2010.7.
조응태, 「한국 신종교의 '물'신앙」, 『신종교연구』제22집, 2010.
이한국문화원연합회전북도지회, 『전북의 향교와 서원』, 신아출판사, 2011.
혜정, 「종교문화 다시읽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136호, 2010.12.14.
이현주, 「채용신의 또 다른 이면, 백납병」,『문화재사랑』제77권, 2011.
정읍문화원, 『춘우정선생순국100주년기념집 애국지사 김영상』, 2011.
이현주, 「채용신의 또 다른 이면, 백납병」, 『문화재사랑』제77권, 2011.
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제26집, 2012.

이용엽, 「어진화가 석지 채용신의 행장」,『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2012.
윤범모, 「채용신의 초상화 제작활동과 근대성 문제」, 위의 책, 201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의병운동)』, 20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서』제2권, 나누리, 2012.
조은정, 「이상과 허상에 꽃피다」,『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2012.
윤범모, 「채용신의 초상화 제작활동과 근대성 문제」, 위의 책, 201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의병운동)』, 2012.
조은정, 「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2012.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1,2,3권, 우일인쇄, 2013.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향토사 연구』제23집, 2013.
장원아,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 서울대석사논문, 2013.
이치백,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전북인」, 『향토사연구』제23집, 신아출판사, 2013
정읍시, 『무성서원』, 2013.
황안웅, 『말, 글 그리고 세상』, 아침이슬, 2013.
정읍문화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특집」, 『정읍문화』제23호, 2014.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제44호, 2014.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문화」제142호, 2014.12.
김용련, 「정읍의 미술, 석지 채용신을 중심으로」, 『정읍 인문학』, 2014.
이석용의병장순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말 의병활동에 대한 재인식』, 2014.
전북향토문화연구회보 제134호, 『전북문화』,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14.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문화」제142호, 2014.12.
이석용의병장 순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말 의병활동에 대한 재인식』, 2014.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제44호, 2014.
이인식 선생 추모문집편찬위원회, 『이인식과 그 시대』, 홍익재, 2014.
정읍문화원,「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특집」, 『정읍문화』제23호, 2014.
김재영,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 『전북문화』, 2014.
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라북도』(공저), 전라북도교육청, 2014.
김재영, 『근현대 인물한국사』(공저),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기역, 2015.
호남고전문화연구원, 『전북선현문집해제』, 글사랑출판사, 2015.
고석규, 「호남역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대책」, 『역사학연구』제59호, 2015.
김영상, 『춘우정유고』, 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필양사. 2015.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제38집, 2015.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길, 2015.

김재영, 『한국민족운동사와 정읍』,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6.
김재영, 『전라북도 근현대 인물이야기』(공저), 전라북도교육청, 2016.
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근간), 2016.
김재영, 『김재영의 인문학 강의노트』,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6.
김재영, 『노령 이북의 역사와 문화』(공저),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6.

인쇄일 2016년 3월 2일
발행일 2016년 3월 2일

엮은이 완당(緩堂) 김재영(金載永)

만든곳 호남복사인쇄
주 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9
전 화 (063) 272-0319
E-mail : kim33690@daum.net